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서귀포문화원

발간사



서귀포문화원장
김 병 수

마을은 국가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이다.

인간이 정주생활이 시작 되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음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모여살기 시작한 것이 마을의 시초라 하겠다.

마을은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집단사회이다. 마을이 독자적 공동체로서 유지발전해온 근간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윤리, 교육, 종교 등을 망라한 공동체적 조직운동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계승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이 사는 곳 고을마다엔 주민들의 삶과, 애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기마련이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의 기후와 언어 풍토, 동서의 생활상이 조금씩 다르거나 색다른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마을마다 설촌의 유래와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한데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 문화적 유산으로 간직하여 후세에 전하는 일이야 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요 범고창신의 정신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우리고장의 설촌유래’는 서귀포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마을마다의 설촌 역사를 하나로 묶어 펴내게 되었다. 조상들의 삶의 궤적과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가치로운 또 하나의 사업을 더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이 자료가 도민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아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진 올렛길을 걸으며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숨은 역사를 탐색하며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귀포 동부 (구·서귀읍)	1
◎ 서귀포	2
◎ 서귀동의 설촌유래	9
1. 중앙동	11
2. 천지동	11
가. 남성리의 설촌유래	12
3. 정방동	14
4. 송산동	14
가. 보목동의 설촌유래	15
5. 효돈동	23
가. 신호동의 설촌유래	23
나. 하효동의 설촌유래	28
6. 영천동	33
가. 토평동의 설촌유래	33
나. 상호동의 설촌유래	36
다. 법호촌의 설촌유래	38
7. 서홍동	41
가. 서홍동의 설촌유래	41
8. 동홍동	46
가. 동홍동의 설촌유래	46
9. 대륜동	49
가. 법환동의 설촌유래	49
나. 호근동의 설촌유래	53
다. 서호동의 설촌유래	57
라. 새서귀포의 설촌유래	59

제2장 서귀포 서부 (구·중문면) 61

◎ 구·중문면 62

1. 중문동 66
 - 가. 중문동의 설촌유래 66
 - 나. 대포동의 설촌유래 70
 - 다. 회수동의 설촌유래 73
 - 라. 하원동의 설촌유래 74
2. 대천동 79
 - 가. 강정동의 설촌유래 79
 - 나. 용흥동의 설촌유래 82
 - 다. 도순동의 설촌유래 84
 - 라. 월평동의 설촌유래 85
 - 마. 영남동의 설촌유래 90
3. 예래동 92
 - 가. 상예동·하예동의 설촌유래 92
 - 나. 색달동의 설촌유래 96

제3장 대 정 읍 99

1. 하모1리의 설촌유래 104
2. 하모2리의 설촌유래 106
3. 하모3리의 설촌유래 107
4. 상모리의 설촌유래 110
5. 동일리의 설촌유래 111
6. 일과리의 설촌유래 112
7. 인성리의 설촌유래 113

8. 안성리의 설촌유래	115
9. 보성리의 설촌유래	118
10. 신평리의 설촌유래	119
11. 구억리의 설촌유래	120
12. 가파리의 설촌유래	122
13. 마라리의 설촌유래	125
14. 영락리의 설촌유래	127
15. 무릉리의 설촌유래	131
16. 신도리의 설촌유래	133

제4장 남 원 읍

1. 남원1리의 설촌유래	143
2. 남원2리의 설촌유래	146
3. 신흥1리의 설촌유래	149
4. 신흥2리의 설촌유래	151
5. 태흥1리의 설촌유래	154
6. 태흥2리의 설촌유래	159
7. 태흥3리의 설촌유래	162
8. 의귀리의 설촌유래	165
9. 수망리의 설촌유래	173
10. 한남리의 설촌유래	177
11. 위미1리의 설촌유래	185
12. 위미2리의 설촌유래	194
13. 위미3리의 설촌유래	197
14. 신례1리의 설촌유래	199

15. 신례2리의 설촌유래	203
16. 하례1리의 설촌유래	206
17. 하례2리의 설촌유래	210

제5장 성 산 읍 215

1. 고성리의 설촌유래	221
2. 성산리의 설촌유래	226
3. 오조리의 설촌유래	229
4. 시흥리의 설촌유래	233
5. 신양리의 설촌유래	238
6. 수산1리의 설촌유래	242
7. 수산2리의 설촌유래	247
8. 온평리의 설촌유래	250
9. 난산리의 설촌유래	254
10. 신산리의 설촌유래	256
11. 삼달1리의 설촌유래	258
12. 삼달2리의 설촌유래	261
13. 신평리의 설촌유래	263
14. 신천리의 설촌유래	267

제6장 안 덕 면 271

1. 화순리의 설촌유래	276
2. 사계리의 설촌유래	279
3. 덕수리의 설촌유래	281
4. 서광서리의 설촌유래	283



5. 서광동리의 설촌유래	285
6. 동광리의 설촌유래	287
7. 광평리의 설촌유래	290
8. 상천리의 설촌유래	292
9. 상창리의 설촌유래	294
10. 창천리의 설촌유래	296
11. 대평리의 설촌유래	298
12. 감산리의 설촌유래	300
 제7장 표 선 면	 303
1. 표선리의 설촌유래	308
2. 가시리의 설촌유래	311
3. 성읍1리의 설촌유래	315
4. 성읍2리의 설촌유래	321
5. 세화1리의 설촌유래	323
6. 세화2리의 설촌유래	326
7. 세화3리의 설촌유래	329
8. 토산1리의 설촌유래	330
9. 토산2리의 설촌유래	333
10. 하천리의 설촌유래	335
 부록. 탐라순력도 속 서귀포	 337

제1장 서귀포 동부

(舊 西歸邑)



◎ 서귀포(西歸浦)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 지역의 동쪽은 남원읍 하례리와 접하고 서쪽은 강정동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 효돈천, 보목천, 동홍천, 연외천 등이 산간에서 발원하여 남쪽 바다로 흘러간다. 따라서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0. 연외천 동쪽 서귀동 795번지 서귀동 바위 그늘 집 자리에서 1만여년 전의 구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0. 법환동, 보목동 해안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이는 탐라국 형성기 때인 BC200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귀포 동부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보아진다.¹⁾

그리고 서귀포 동부 지역은 서불과차(徐市過此)설이 진원지이기도 하다. 즉 서귀포의 유래는 정방폭포의 절벽에 새겨진 서불과차(徐市過此)의 마애명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史記 秦始皇 本紀 二十八年條에 “既已 齊人徐市等 上書言海中有 三神山 名

사기 진시황 본기 이십팔년조 기사 제인서시등 상서언해중유 삼신산 명

曰 蓬來, 萬丈, 瀛州 仙人居之 請得齊戒 與童男女 求之於是 遣徐市發 童男女

왈 봉래, 만장, 영주 선인거지 청득제계 여동남여 구지어시 견서시발 동남여

數千人 入海求仙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수천인 입해구선인

1) 제주도지 제2권 P. 51. 제주도 2006
서귀포시지 상권 P. 328, P. 357~368. 2001

이는 서시가 진시황에게 글을 올렸는데 “동남여와 함께 바다를 항행하여 봉래, 만장, 영주의 세 신산에 가서 신선(神仙)과 같이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해다 폐하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시황제(始皇帝)는 이를 허락하고 동남동녀 삼천명과 여러 가지 곡식과 공인(工人)들을 딸려 바다 건너 보냈다.

이때 이들 일행이 영주산의 불노초(不老草)를 캐려고 제주도에 들렀을 때 삼인이 잔류자가 생겼는데 이들이 삼성인(三姓人)이 되었다는 주장이 ‘서시잔류설(徐市殘留設)’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시일행이 정방폭포 절벽에 ‘서시과처(徐市過處)’의 마에 명을 새겨두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또한 불교의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서귀포(西歸浦)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²⁾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 1년 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우리나라 문헌상에 서귀포 동부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 전 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西道縣)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광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나 이는 제주목의 속현이었고 그중 홍로현이 오늘날 서귀포 동부지역인 것이다.

1416년(태종 16)에 와서 동.서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외적 방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건의하여 한라산 남쪽 200리 땅을 양분하여 東을 ‘정의현(旌義縣)’ 西를 ‘대정현(大靜縣)’이라 하여 각각 현감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으며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으니 서귀포 동부지역은 ‘정의현’ 관할이 되었다.

2) 우리고자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1439년(세종 21) 2월에 왜구의 내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조정에 건의하여 홍로천(烘爐川)위에 서귀진(西歸鎭)을 설치하였고 1590년(선조 23) 목사 이옥(李沃)에 의하여 서귀동 해안변으로 옮겨졌다.

서귀진이 어떤 이유로 홍로천 위에서 해안변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왜선의 방비와 적들을 감시하기가 비교적 쉽고 또한 서귀포가 문섬, 새섬으로 둘러 쌓여 천연적인 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들을 감추기 쉬운 해안변(서귀동 717번지 : 재일교회 주변)으로 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609년(광해군 1)에 관관 김치(金緻)가 동.서방리 약정(約正)을 설치하였는데 정의현에는 ‘좌면, 중면, 우면’을 대정현에는 ‘좌면, 우면’을 두었으며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는 정의현 우면에 속하게 되었다.

『탐라순역도』에는 옛 서귀 지역을 옛 서귀(舊西歸, 旧西), 새 ‘서귀’ 지역을 서귀(西飯)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서귀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7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36명 여자는 156명이다.’³⁾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풍덕의 연가는 92호이다. 남자는 187명 여자 223명을 합하여 410명이고 초가는 275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서귀포는 일찍부터 ‘서귀개’라 불려왔고 한자로 ‘西歸浦’라 표기해 왔으며 서귀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서귀리(서귀마을)라 해오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한때 ‘풍덕리(豐德里)’라 하였다가 다시 ‘서귀리’라 하였다고 한다.

3)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西歸里 自官門西距七十里 民戶 四十九 男 一百三十六 女 一百五十六”

4)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豐德 烟家 九十二戶 男 一百八十七 女 二百二十三 合 四百十九 草家 二百七十五間”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는 정의현 7면 37리중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에는 2면(東烘爐面, 西烘爐面) 10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이로보아 이때까지만 하여도 서귀포는 빈농과 어민이 주로 거주하던 해촌으로 주로 고기잡이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농사도 짓는 겸업형태를 취하며 생활했던 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서귀포가 산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 일주도로 개통과 제주도(濟州島)의 지청이 개설되고 면사무소, 경찰주재소 등 공공기관이 세워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귀포 동부 지역내 마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0.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東烘爐面 :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西烘爐面 : 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0.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右面 :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0.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右面 : 西歸里, 法還里, 好近里, 西烘里, 東烘里, 吐坪里, 上孝里, 新孝里

中孝里, 下孝里, 甫木里

0.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5) 호구총수(1789, 정조 13 추정) 책 6편 전라도편에 “旌義面 七里 三十七.....”

「免山面, 狐村面,.....東烘爐面(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西烘爐面(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6)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1. P 61~83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右面：上孝里，中孝里，下孝里，新孝里，吐坪里，甫木里，東烘里，西烘里
豐德里，舊好近里，新好近里，法還里

0. 1899년(광무 3) 정의현지

右面：上孝敦里，中孝敦里，下孝敦里，甫木里，吐坪里，東烘爐里，西烘
爐里

西歸里，好近里，法還里

0.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가간총책

右面：上孝里，中孝里，新孝里，下孝里，甫木里，吐坪里，東烘里，西烘里
好近里，豐德里，法還里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右面：上孝里，下孝里，新孝里，甫木里，吐坪里，東烘里，西烘里，西歸里
好近里，西好里，法還里

위의 마을 명칭은 오늘날의 법정동과 일치한다.

그후 우면이 된후 현재까지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0.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우면 ‘풍헌’을 우면 ‘면장’으로 개칭하였
고 약정(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 서기(書記)를 두
었다.

0.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
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동흥리에 개설하였다.

0.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을 폐하여 ‘제주군’에 통합되었으며
서귀포는 ‘전라남도 제주군 우면’이 되었다.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우면 상호리 일부가 서중면 하례리에 병합
되었다.

0. 1915년 5월 1일 島制 실시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우면’이 되었
다.

0.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0. 1916년 濟州島의 지청을 서귀리에 개설함으로써 면사무소도 이곳으로 옮겨 왔고 더불어 경찰관 주재소와 등기소, 우편소, 학교등이 속속 이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소수 주민만이 거주하던 한촌인 서귀리가 이때를 시발로 일약 산남의 거점으로 등장하였다.

0. 1917년 해안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통되었다.

0. 1929년 자동차 교통의 정류장 역할을 하여 육상을 통한 여객과 물자의 정기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0. 1931년 해상교통의 거점으로서 항만시설을 갖추어 해륙교통의 요충적 성격을 안고 신흥 취락으로 변형하기에 이르러 교육기능과 산업시설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소지역 중심지로 성장하여 오늘의 도시화를 가져오게 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0. 1935년 4월 1일 우면을 ‘서귀면’으로 개칭하였다.

0.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2군제(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시행과정에서 서귀포는 군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즉결심판소, 교육청, 중학교 등을 둠으로서 산남지방의 행정뿐 아니라 치안, 사법, 교육 기능의 실질적으로 복합된 지역중심으로 그 기초를 확립하여 갔으며 행정적으로는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이 되었다.

0. 1948년 4.3사건으로 내륙촌락에는 공비토벌과 관련하여 마을이 소개되므로 거주 공간의 중심축은 해안지역으로 이동되었고 서귀포 지역은 전입 격증과 일주도로 개통으로 또 한번의 번영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0.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은 기존 거주 공간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구릉면(소위 뒷병딤)으로 취락을 확장하였고 일주도로를 배후지로 우회시킴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단행하였다.

0. 1952년 군청과 경찰서의 이전을 시작으로 남주고와 서귀농고의 이전 방송국(중계소)과 공설시장이 세워졌다.

0. 1956년 7월 1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승격되었다.

0. 1963년 10월 11일 한라산 횡단도로의 개통은 제주시와 서귀포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1일 생활권을 활성화 하므로써 또 한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0. 1965년에 시작된 공공기관(군청, 경찰서, 등기소 등)의 제2차 이동은 보다 배후지로 시가지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현재의 도시 윤곽을 완성시키면서 제주도의 2대 도시권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0. 1981년 7월 1일에는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어 종전의 리(里)가 동(洞)이 되었으며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등 12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0.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별법 제 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가 되었다.

0.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귀포 동부지역(구 서귀읍)의 면적은 109.0km²에 인구는 64,110명이며 지역내에 법정동이 11개이고 행정동은 9개 자연마을은 20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보목동의 삼도(森島), 서귀동의 문섬(蚊島), 새섬(鳥島), 법환동의 범섬(虎島)이다.

<서귀포 동부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행 정 동	법 정 동
송 산 동	서귀동, 보목동
정 방 동	서귀동
중 양 동	서귀동
천 지 동	서귀동, 서홍동
효 돈 동	신흥동, 하효동
영 천 동	토평동, 상효동
동 홍 동	동홍동
서 홍 동	서홍동
대 른 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 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도지(2006.) 제주도

◎ 서귀동의 설촌유래

서귀포는 제주도의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3°13'21"

~33°21'40", 동경 126°22'12"~126°37'03"으로 한국 최남단에 소재하고 있다.

서귀동은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송산동의 4개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귀동의 동부가 중앙동에 해당한다.

서귀항을 중심으로 서귀동의 해안 일대는 동홍동, 토평동, 보목동과 통합되어 송산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중앙동과 송산동 사이에 위치한 서귀동의 동부 일대는 정방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귀동의 서부일대는 서홍동의 일부와 통합되어 천지동을 이루며 서귀동의 외곽에 위치한 동홍동과 서홍동은 송산동과 천지동에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동홍동과 서홍동으로 분리되어 있다.

서귀동은 고려시대부터 서귀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는 고려시대와 조선초 까지도 홍로현 포구로 이용되었고 1590년(선조 23)목사 이옥(李沃)에 의해 홍로천 위에 있던 서귀진(西歸鎭)을 서귀리로 옮겨 진성(鎭城)을 쌓고 방호소와 수전소로 이용되면서 조방장을 비롯하여 치총 1명 성정군(城丁軍) 133명 방군 75명 주침방군 9명 서기 7명 방포수 1명 궁인 3명 시인 7명이나 상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⁷⁾

이들은 서리와 병졸의 신분을 가졌다 해도 토착민의 주축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전소로 이용 되었기 때문에 서귀포는 한때 ‘수전개’라 하였는데 한

7) 정의현지(1899). “西歸鎭 在縣西七十里 助防將 一人 雉摠 一人 城丁軍 一百三十三名 防軍 七十五名 州添防軍 九名 書記 七名 防砲手 一名 弓人 三名 矢人 七名 鎭內有客舍 軍器倉庫....”

자로 수전포(水戰浦, 守戰浦)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확실한 연대는 추정할 수 없지만 지금의 서귀중학교 서쪽 이개집터(李哥一)일대에 李氏가 들어와 살았고 ‘술동산’ 서쪽(기상대 서쪽)에 朴氏가

동동내에 여산송씨(礪山宋氏)가 표선에서 이주해와 속칭 ‘구린세끼’에 정착하여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한다.

서귀포에 촌락이 늦게 형성된 것은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바다에 인접하여 여름철에 해수와 높은 습도 경작지의 협소 등 조건을 들 수가 있다.

둘째. 어업을 천시하는 경향에서 바닷가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가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 어부들 5세대가 어장확보를 위해 이주하여 왔는데 ‘내팔(내밭田 : 川外田)’ 지금의 천지연 입구 주차장 부근에 정착하였으며 또한 1910년까지만 해도 ‘술동산’을 중심으로 부두에 이르기까지 20여호의 인가(人家)만이 형성될 정도로 매우 한적하였는데⁸⁾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 실시로 1916년에 서귀리에 서귀지청(西歸支廳)이 개설되고 지금의 동홍동 ‘굴왓’에 있었던 ‘면사무소(面事務所)’가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8)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P. 23 : 6~24

1. 중앙동

법률 제 3425호(1981. 4. 13공포)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1981. 7. 1)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동(옛 서귀 1.2리의 일부)으로 중앙은 서귀포 옛 시가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2. 천지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 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옛 서귀리)의 일부와 서홍동(남성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동으로 천지동의 천지는 천지연과 천지연 폭포를 끼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가. 남성리의 설촌유래

남성리는 서귀포 중심에서 약 2km 서남쪽에 위치한 삼매봉 바로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로서 옛날에는 ‘주엇뱅디’ 또는 ‘젯뱅디’라고 했으며 마을이 형성되면서 일제시대에 한자 차용표기로 주어동(走魚洞)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남성리는 행정적으로 서홍리에 속해 각종 선거시 현 서귀북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서 선거를 했으니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또한 태풍시 해안가로 떠 밀려온 모자반(속칭 : 몰망)문제로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홍리 주민과 자주 다투 1952년 4월 서귀면의회가 구성되자 전 리민들이 서홍리로부터 독립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면의회 조례로 남성마을이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3년 남성마을이 서홍리로부터 독립이 되자 마을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마을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장래 마을이 발전하고 번창하며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한 마을 어르신들은 몇 차례의 회의를 하며 논의한 결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서호리 ‘허훈장’에 의뢰하여 마을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여 허훈장을 찾아가 그 간의 사정을 말하고 마을 이름을 지어 주기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허훈장’에 의해 마을 이름이 ‘남성리(南城里)’로 명명되자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당시 초대이장 김찬민) 1966년부터 다시 ‘서홍2리’라 하여 ‘서홍동’에 속하였으나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승격후에 ‘천지동’ 소속이 되었다.

남성리가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문헌이 없어 잘 알 수가 없으나 년로하신 어르신들의 구전과 증언에 의하면 설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하며 1890년대부터 1900년대초에 몇 분이 본 마을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강자옥’씨와 ‘강위정’씨가 제일 먼저 입향하였다고 하며 다음 ‘현인수’씨가 서호리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송우백’씨가 서귀포 동동네에서 ‘고화춘’씨가 부친과 함께 당모루에서 ‘고사연’씨가 대정읍 영락리에서 입향하여 설촌되었다고 한다.

1930년경에는 ‘현응학(玄應鶴)’씨가 들어왔고 10년후인 1940년경에 서호리에서 ‘현재준(玄在俊)’씨가 들어왔으며 1945년경 ‘김찬민’씨가 염돈에서 입향하였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논’경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폭도들의 습격에 의해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등 살 수가 없게 된 이들은 일부는 서귀포로 일부는 본 남성리로 이주해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許氏, 吳氏, 李氏, 金氏, 朴氏, 羅氏, 左氏 등 많은 성씨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본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쌀이 귀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 식량부족이 매년 연속되고 ‘보리고개’등 우리네 살림살이가 가난을 면치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논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연환경이 매우 좋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본 남성리는 천지연과 삼매봉을 끼고 있어 풍광이 좋고 땅도 비옥하여 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을 입구에 시공원(詩公園), 기당문예회관과 도서관이 있어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기도 하고 서귀포 시민공원인 삼매봉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팔각정’에 올라 바라보는 한라산과 서귀포 앞 바다의 정경은 너무 아름다워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옛 선인들도 여기서 바라보는 밤 하늘의 ‘노인성’ 별자리를 보며 찬사를 하지 않았던가?

이와같이 자연환경과 풍광이 아주 빼어난 본 마을은 현재 100여가구에 500여명의 인구를 가진 전원 마을로 살기 좋은 곳이다.

※참고문헌. 서귀포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3. 정방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옛 서귀1.2리의 일부)로 이루어진 동으로 정방폭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이라는데서 ‘정방동’이라 하였다.



4. 송산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옛 서귀1리, 3리 일부)와 옛 토평리의 일부, 옛 동홍리 일부, 옛 보목리를 통합한 동으로 송

산(松山)은 서귀포초교 북서쪽에 있는 ‘솔동산’을 솔(松) + 동산(작은 山)으로 이해하고 한자로 만든 것이며 원래 이 지역은 소나무가 울창했던 동산이었다고 한다.

가. 보목동의 설촌유래



보목동은 동경 126°37' 서귀포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제주방송국 서귀포중계소가 있는 ‘새경물’을 경계로 하여 하효동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신희동의 ‘소학남모루’



와 토평동의 ‘모시물’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빌레통’ 분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반농 반어의 마을로서 일찍부터 ‘불레낭. 불레남’이 많은 ‘개(浦)’라는 데서 ‘불레낭개’ 또는 ‘불레남개’라 불려왔다.

한자표기 ‘보애목포(浦涯木浦)’는 우리말 ‘불레낭개. 불레남개’의 한자차용 표기인데 후에 보목리(甫木里)로 쓰여 정착되면서 민간에서는 한자어의 음성형을 그대로 반영하여 ‘불목리. 불몽리’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민간에서는 ‘불목리. 불몽리’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남사록』(3권)에는 보애목포(불레남개), 『탐라순역도』 「한라장

촉」에는 甫木浦(불레낭개), 「탐라지도」에는 甫木村(불레낭개마을), 甫木浦(불레낭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甫南村(불레낭개마을), 甫木浦(불레낭개, 불레낭개). 『호구총수』(정의, 동홍로면)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甫木里(불레낭개마을) 「정의군 지도」에는 甫木里(불레낭개마을) 甫木浦(불레낭개)등으로 표기 하였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는 ‘불레낭개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2호 남자는 164명 여자는 169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⁹⁾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보목의 연가는 127호이다. 남자는 251명과 여자 309명을 합하여 560명이고 초가는 453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⁰⁾

18세기경부터 1980년 6월말까지 ‘보목리(甫木里)’라 하다가 1981년 7월 1일부터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함에 따라 송산동에 소속된 법정동이 되어 지금은 ‘보목동(甫木洞)’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보목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마을동쪽 ‘고막곶’, ‘통물동산’ 일대에 ‘백씨(白氏)와 조씨(趙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 당시 설촌하여 살았던 흔적으로서 그 부근 일대에 발담줄과 불경지에 과거 선인들이 심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나무들과 오막살이를 지어 살면서 사용하였던 통로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속칭 ‘통물동산’과 ‘무남통’에 고인 봉천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가뭄이 들거나 여러날 비가 오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 등 물이 좋지 않아서 상피병으로 추정되는 질병

9)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甫木里 自官門西距 五十五里 民戶 五十二 男 一百六十四 女 一百六十九 ……”

10)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甫木 烟家 一百二十七戶 男 二百五十一口 女 三百九口 合 五百六十口 草家 四百五十三間”

이 생겨 고통을 받게 되자 주민들은 질병의 발병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풍수지관을 찾아 상담한 결과 비가온 후 날이 개인날 절오름 표면에 햇빛이 째짤하게 비칠 때 암반에서 내리는 물이 햇빛을 되받아 반짝거리는 물빛이 고막곶 동네로 반사하여 비치는 것이 흉조로 주민들에게 질병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주민들은 살던 오막살이를 남겨둔채 모두 어디로인지 이주하여 버린 후 부터는 그 곳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 폐촌 되었다고 구전되고 있다.

당시 고막곶에 원주 하였다는 ‘趙氏’와 ‘白氏’ 후에는 현재 보목동에는 찾아 볼 수가 없으나 白氏와 趙氏 등이 설촌하여 소유하였던 귀전명이 지금까지도 ‘백밭’, ‘백개달래’, ‘조개달래’, ‘조개우렁’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이들 성씨들이 설촌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후 1,660년경 (약 350년전)에 ‘청주한씨(淸州韓氏)’가 ‘제제기오름’ 서쪽 ‘정술내(井水川)’ 부근에 들어와 살면서 부락이 형성되고 타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에 따라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정술내’의 하류 서쪽으로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 곳을 당시 ‘셋가름’이라 불리던 것이 이 동네 지명 유래가 되어 지금도 그 곳을 가리켜 ‘셋가름’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점차 정술내의 서쪽으로도 ‘청주한씨(淸州韓氏)’, ‘제주양씨(濟州梁氏)’, ‘신천강씨(信川康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확장되고 인구도 증가하여 정술내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여서 동쪽마을을 ‘불레낭개’ 서쪽을 ‘남포리’로 호칭하였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성씨별 입촌 내력을 간추려 소개하면 1,666년경 淸州韓氏 信公이 성산을 수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715년경에 제제기오름 서쪽에서 정술내와의 사이에 淸州韓氏 致貞公이 위미리에서 입향하였으며 濟州梁氏 仁公이 법환리에서 입향하였다.

固城李氏 東現 東祚公도 1,747년경 위미리와 법환에서 입향하였고 1,792년경에는 延州玄氏 德聞공이 성산읍 온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50년경 淸州韓氏 慶弼공과 慶輔공이 서흥리에서 입향하였으며 信川康氏도 4개파가 본 마을에 입향하여 살고 있는데 1,770년경에 興柱公은 성산읍 수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785년경에 들어온 宗周公 역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입향하였으며 宗才公은 1,796년경 위미에서 입향하였고 1,847년에 입향한 泰利公은 법환동에서 입향하였다.

이 마을에는 韓氏, 康氏, 梁氏, 李氏 등이 주성을 이루고 있으며 한 성씨안에 여러 파가 있으나 형제이거나 뿌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고에 따라 이주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에 제 1회로 제주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 ‘자리돔’을 특화하여 초여름의 별미인 ‘자리돔 물회’를 테마로 한 축제(자리돔 큰 잔치)를 만들어 ‘자리돔 하면 보목마을, 보목마을 하면 자리돔’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지역 축제 활성화와 자리돔을 명품 브랜드화한 지역 주민들의 저력에 감탄할 따름이며 현재 가구수 916호수에 남 1,303명 여 1,196명 계 2,501명인 본동의 주민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수려한 해안 절경과 천연기념물 파초일엽 자생지인 쑥섬을 앞에 두고 있어 살기 좋은 마을이다.

○ 보목동의 전설

마을 설촌과 관련된 마을 수호신을 모신 ‘조노케당’이 있는데 이 당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아주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처음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들은 거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었다.

이들 중에 일곱 형제를 가진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고기잡이

에 종사하였다.

어느날 그 일곱 형제가 모두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안개가 끼고 바다가 어지러워서 우선 가까운 섬에 대피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눈배기 섬이라는 데였다.

여러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이렇게 바람과 풍랑에 휩쓸려 표류되기도 여러번이었으나 이 섬은 일곱 형제에게는 생전 처음 와보는 생소한 섬이었다.

섬에 오른 그들은 우선 인가를 찾아 나섰으나 찾지를 못하다가 거의 해가 저물쯤하여 겨우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빨리 하였다.

초가집 가까이 이르고 보니 초가는 자그마한 집이었고 주위는 조용하며 단지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니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중 형이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 곳에 도착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부른 다음에야 나타난 노파에게 형편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는 일곱 형제의 모습을 아래로 찬찬히 훑어 내려 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마는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하고 그들을 청하였다.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안에는 방도 꽤 넓었다.

그들 형제는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엄습해 오는 잠에 빠져들었으나 막내는 피곤한 것도 몰랐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식이 더욱 맑아졌

다.

얼마 후에 저녁상이 들어왔다.

“이곳 음식이 입에 맞을런지 모르지만 배고픈 대로 요기나 하시오
들.”

그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리고 들어와 눈을 비비쫄며 일어나 앉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서 상을 내놓았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
다.

반찬이 없고 밥과 국만 차려있는 저녁이지마는 그들은 며칠 굶은 참
이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맛이 마음에 꺼렸다.

고기국 같기도 한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으로 그 맛이 이상하였다.

그래도 여러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으나 막내는 먹는 시늉만 조금 하
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다.

식사가 끝난 이들은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막내만 그냥 벽에 몸을 의지하여 잠을 자는 척 하였으나 속으로는 이
상한 이 집의 분위기에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였다. 밖이 웅성웅성 하더니 누가 온 것 같았
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오,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하였우과 ? 난 집에 앉아도 일곱 마리나 하였는
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 어디 있어? ”

“저 안방에 가둬 두었수다.”

막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막내는 일어나서 문을 살그머니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좀더 힘을 내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이거 우리는 영락없이 갇혔구나. 그러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게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지금 들은 이야기며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가두어 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다.

일곱 형제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도구들을 꺼내어 밖으로 나갈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형들 둘은 밖을 살피고 나머지들은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 밖으로 빠져 멀리 도망을 치려 하였으나 그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으며 무작정 달려나올 뿐이었다.

얼마를 달려가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히 말하였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먼 곳에서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만한 곳이 어딴니까?”

사실 그들은 그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때였다. 저 먼데서 어떤 자가 말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게 눈에 띄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아 사태가 급박하였다.

“할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황급히 말하였다.

노인은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 주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데린 노인이 다가와서는

“이 근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것을 못봤습니까?”

노인에게 물었으나 노인을 머리를 흔들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 거렸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말을 탄 자도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굴려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하자 일곱 형제는 그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 주었다.

“배를 타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는데 입을 꼭 다물고 가야 하네.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말을 마치자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기를 부탁하였다.

형제들은 바닷가에 이르러서 급히 배를 찾아 타고는 바람에 배를 띄웠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미끄러져 나가자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보이더니 순식간에 마을 개말에 이르렀다.

그들은 배를 막 개말에 대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형이 아직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기가 막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말을 허수룩게 듣는 거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그 청년들을 앞장서 직접 그들을 배에 태우고 배를 띄워 같이 오는 것이어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그 노인은 청년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냈으며 그 노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 곳이 절오름 아래 당이었다.

그 후 오래도록 그 당에 모신 그 노인은 바로 보목리를 지켜주는 신으로 대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서 숭앙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1년에 한번은 꼭 이 본향당인 조노기괴를 찾아 가내의 안녕과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보목동 한무섭(남. 84세) 제보>

- 제주의 마을 시리즈 보목리-에서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의 마을 시리즈 보목리(2002. 12. 30) 오성찬
보목마을 현황(2009. 7) 보목동마을회

5. 효돈동

효돈동의 옛 이름은 ‘쉐돈’ 또는 ‘쉐돈’이고 ‘쉐돈’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우돈(牛屯)이다. 곧 ‘쉐(소)’의 한자 차용표기로 우(牛), 둔(屯), 돈(頓)(여럿이 모여서 이룬 때)의 한자 차용 표기로 둔(屯)을 차용하여 표기 한 것으로 ‘쉐(소 牛)’를 모아 두었던 곳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우돈촌(쉐돈마을, 쉐돈마을)은 18세기 중후반부터 효돈리(孝頓里) 또는 효돈리(孝敦里)로 표기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효돈리(孝敦里)로 굳어졌으며 이에서 효돈동(孝敦洞)이 유래하였던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옛 중효리와 상효리 일부(상효리의 나머지 일부는 남원읍 하례리로 편입)가 상효리, 옛 하효리와 신호리의 각 일부가 하효리, 하효리와 신호리의 각 일부가 신호리로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상효, 하효, 신호의 세 마을 체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법률 제 3425호(1981. 7. 1)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옛 신호리와 하효리를 통합하여 만든 동이다.

가. 신호동의 설촌유래

신효동은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약 3~5km 사이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는 큰내(효돈천)를 경계로 하례리와 접하고 동남쪽에는 하효동과 인접하

여 경계를 이루며 특히 인가가 서로 마주 접하여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쪽으로는 서상효, 토평동과 접하고 북으로는 동상효와 서상효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하효동과 보목동이 접하여 도내에서는 산간부락이 아닌데도 바다가 없는 몇 안 되는 마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흥동은 ‘들라미>드라미 [月羅山>月羅峯]’ 바로 동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새쇄둔, 새쇄둔’ 이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신흥둔(新孝敦), 신흥(新孝)이다.

신흥동은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새쇄둔의 연가는 134호이다. 남자 302명과 여자 299명을 합하여 601명이고 초가는 59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원래 신흥동은 일찍부터 ‘쇄둔, 쇄둔(牛屯)’ 이라 불려오다가 ‘알쇄둔마을’이라 하여 ‘하우둔촌(下牛屯村)’이라 하였다.

하우둔촌은 18세기 중후반에 하효둔리(下孝敦里)와 중효둔리(中孝敦里)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신흥동은 중효둔리(中孝敦里)라 하였던 것이다.

또한 18세기 중후반부터 牛屯(쇄둔)이라는 한자 표기를 효둔(孝頓) 또는 효둔(孝敦)으로 바꾼 것은 ‘효’를 도탑게 하는 마을이라는 데서 새롭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효둔(孝敦)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19세기 중반에는 중효둔리가 다시 중효리(中孝里)와 신흥리(新孝里)

11)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新孝, 烟家 一百三十四戶 男 三百 二口 女 二百九十九口 合 六百一口 草家 五百九十間”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 당시 중효리와 신흥리는 ‘들라미>드라미’ 동남‘쪽과 서쪽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서 1905년 이후에 중효리와 신흥리는 신흥리(新孝里)로 이름을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우면 하효리(下孝里) 일부와 신흥리(新孝里) 일부를 병합하여 제주군 우면 신흥리라 하였는데 신흥동(新孝洞)은 이 신흥리 일대를 이르는 이름이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할 때 신흥리와 하효리를 병합하여 효돈동(孝敦洞)이라 하였다.

신흥동에 1400년 이전에 집촌을 형성하여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주변에 지석묘가 산재해 있었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방묘형식의 분묘가 여러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곳에 집촌을 형성하여 살았음이 확실하며 특히 이런 고분에서 이조 초기 백자 및 고려시대 유품이 출토 되었었고 지금도 도굴꾼에 의해 파헤쳐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려 중기부터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민이 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문헌이나 증거 될 만한 유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 한이 없다.

따라서 구전 또는 유사 기록으로 보아 신흥지역에 사람이 정착하고 촌락을 형성한 시기는 1400여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입촌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1500년도 중반기에서 1600여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때 설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은 文氏로 알려지고 있으며 때를 같이하여 입촌한 성씨로서 韓氏, 徐氏, 宋氏, 趙氏 등이 들어와 구성(舊城)마을에 촌락을 형성 하였고 주변에는 성을 쌓아 살았다고 한다.

현재 文氏는 하례리로 이주하여 후손들이 살고 있으나 그밖에 徐氏, 宋氏, 韓氏, 趙氏는 어느곳으로 이주해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신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로서는 高氏가 가장 오래되는데 高氏는 구성마을에 거주하다 기르던 소가 자주 남쪽(큰가름)으로 내려오자 소가 내려와 있는 곳에 집터를 정했다고 하며 당시 생활은 농경사회로서 경작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고 수렵이 깃들어진 농경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1500년대 후반기에서 1600년도 경에 경주김씨(慶州金氏), 신천강씨(信川康氏), 군위오씨(軍威吳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제주고씨(濟州高氏) 등이 ‘구성마을’과 ‘중쇄돈’일대에 들어와 큰 가름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고 인가가 주변으로 퍼져 나갔다고 하며 위의 다섯 성씨는 오늘날 까지도 그 후손들이 신흥동에 살고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에는 신흥지역 위쪽에 상효마을이 표기되고 아래쪽에는 큰 냇가 서쪽을 따라 하효마을이 표기되어 효돈경내에는 ‘上孝, 中孝, 新孝, 下孝’로 4개 촌락이 있었음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한말 징세자료(신흥동 康昌彦 소장)에 의하면 ‘상효리, 중효리, 신흥리, 효돈리, 하효리’ 5개 마을로 분리해 나타나고 있다.

신흥지역에 신흥리, 중효리, 효돈리 3개 마을이 있었다고 볼 때 지금은 그 정확한 위치를 어림잡기가 힘들고 어떠한 연유로 ‘중효리, 효돈리’가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19개의 성씨가 586호수에 남 1,117명 여 1,112명 계 2,229명으로 구성된 마을로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업 자유업 공무원 기타 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이다.

○ 신흥동의 전설

신흥마을에 최초로 입향하여 정착했다는 문씨에 대한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한라산 영봉에 잔설이 녹아 내릴 때 쫘 큰형 집에 얹혀 살던 문씨가 아내와 아들 딸 오누이를 데리고 살 곳을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문씨는 등에 비교적 큰 봇짐과 농사도구를 걸치고 봇짐속에는 서너가지 농사 지을 씨앗을 넣었고 아내의 봇짐은 부피는 컸어도 가벼운 옷가지랑 필요한 식기류를 챙겼고 오누이는 등에 조그만 봇짐을 힘에 맞게 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부모님의 뒤를 따랐다.

문씨 가족은 목적지를 정해 길을 떠난 것이 아니고 무작정 살 곳을 찾아 남쪽을 향해 들판을 넘고 개천을 건너고 산등성이를 돌며 정착할 곳을 찾아 무작정 걸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북돋우며 걸었는데 해가 저물어 갈 때 바다가 시원히 보이고 뒤로는 큰 오름과 한라산이 커 안온듯한 야트막한 구릉위에 도착했다. 문씨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문씨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곳에서 살자” 하고 말했다.

온종일 걸어와 발이 부르터 있었던 터라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좋다고 하였다. 짐을 풀고 터를 정하니 이 지역에 사람이 정착한 시초이다.

당시 신흥지역은 곳발으로 흙보다는 자갈이 많아서 돌을 주어내고 발을 일구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니었다.

손과 발이 멍들도록 일한 문씨 부부와 가족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문씨가 정착한 후에 어디에서 흘러들어 왔는지 모르나 뒤이어 한씨, 서씨, 송씨, 조씨 등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대여섯 가구가 서로 수눌며 일도 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았고 바람도 막고 가축도 보호하고 재난을 막기위해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 흔적이 오래전까지 있었다 하며 그 곳은 “구성(舊城)마을”이라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신효동 마을지(1996. 12. 20) 신효동마을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나. 하효동의 설촌유래

하효동은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약 5km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효돈천을 경계로 남원읍 하례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신효동과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갖고 살아가는 효돈천 하류



서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쉐돈마을. 쉐돈마을(牛屯村)’이라 불러 오다가 ‘알쉐돈마을’이라 하고 18세기 초반부터 ‘하우둔촌(下牛屯村)’으로 표기 하였다.

18세기 중반부터 하우둔촌은 ‘하효돈리, 중효돈리’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때 하효동은 ‘하효돈리’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우둔(牛屯)이라 쓰던 것을 효돈(孝敦)이라 하였으며 19세기 부터는 ‘하효리(下孝里)라 하였던 것이다.

하효동은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우면)에 “알쉐돈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101호, 남자는 280명, 여자는 347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²⁾

12)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우면 하효리 일부와 신호리 일부를 병합하여 제주군 우면 하효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할 때 신호리와 하효리를 병합하여 효돈동(孝敦洞)이라 하였고 법정동인 하효동이 되었다.

하효마을이 언제 설촌되었는지는 문헌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주변의 유물산포지에서 수습되는 토기의 형태로 볼 때 4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으로 마을이 들어선 것은 고려시대 호촌현(狐村縣)이 설치된 이후로 볼 수 있다.

호촌현은 지금의 남원읍 하례 1리의 일주도로 남쪽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에서는 “예촌가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평평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편으로 신례천이 용천수(산이물)와 해안의 포구가 발달해 있어서 현촌(縣村)과 같은 큰 마을이 들어서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이래로 사람들의 주거가 이뤄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큰 마을이 형성되다가 1300년에 이르러 속현(屬縣)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된 것이다.

속현은 주읍(主邑)에 종속되어 있으나 관리가 파견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치기구를 지니고 있는 고을이다.

관내에 독자적으로 구역과 주민들이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 건물도 들어서 있었다.

현재에도 예촌가름에는 ‘대궐터’, ‘절왓’, ‘옥터’, ‘전세포’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데 대궐터는 당시 고을을 다스리던 관청(縣司)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하효마을은 현촌인 호촌현이 성장함과 더불어 점차 마을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호촌현과 접하고 있어서 호촌현이 커짐에 따

“下孝敦里。自官門西距 五十里，民戶 一百一，男 二百八十，女 三百四十七”

라 주민들이 지금의 하효 마을로 이주 정착하면서 모듬살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의 고노(古老)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효는 800여년전에 “예촌가름”인 ‘알쇄돈’일대에 경주김씨(慶州金氏)와 文氏가 들어와 정착하여 설촌되었다고 하며 그 후 徐氏, 韓氏, 宋氏등이 들어왔다고 한다.¹³⁾

이와같이 고려후기 호촌현의 설치와 더불어 초기 촌락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하효는 이후 호촌현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에도 예촌가름에 있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하효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의 우금 바다(예촌망의 해안)도 근.현대까지 하효 마을에서 관리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시대의 속현들이 직촌(直村)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효돈 남원 일대의 중심 취락이었던 호촌현도 속현에서 직촌으로 바뀌게 된다.

직촌은 관내의 통치기구인 현사(縣司)나 현리(縣吏)를 거치지 않고 수령이 직접 지배하는 직할촌을 의미한다.

기존의 속현이 직촌으로 바뀌는 현상은 각 지역의 토호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중앙 행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호촌현은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는 태종시기 1416년(태종 16)에 새로 설치된 정의현(旌義縣)내에 합속되면서 속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세력도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이후 호촌현은 일개 마을에 불과한 호촌(狐村) 마을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조선초기 호촌현이 직촌이 되어 점차 쇠락해짐에 따라 하효 마을도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서귀포시지(2001. 7. 1) 상권 P. 272 : 11~12

그리하여 15세기 중반 이후로는 드문드문 인가가 들어설 정도로 한적한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150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제주도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곳에 이주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고증할 수 없지만 현 거주자의 족보에 의하면 1985년 당시 濟州高氏의 경우 입촌 16대손이 살고 있고 光山金氏의 경우 입촌 15대손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초에는 일부 주민들이 마을에 이주 정착하여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일부 주민들이 이주 정착이 진행됨에 따라 하효는 다시 마을의 모습을 갖추 나갔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일대의 대표적인 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18세기 후반 하효 마을의 구성원인 성씨별 분포 상황을 통해 어느정도 마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을에 현존하는 고문서(帳幕新造入參冊錄 1754~1830, 喪與新造入參錄. 1763~1823)에 보면 康氏, 金氏, 高氏, 玄氏, 李氏, 許氏, 文氏, 鄭氏, 洪氏, 邊氏, 兪씨, 宋氏, 韓氏, 尹氏, 梁氏, 吳氏, 權氏, 趙氏, 梁氏, 任氏 등 많은 성씨들이 장막계와 상여계에 입회한 사실을 통해 본 마을이 이 일대의 대촌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성씨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 볼 수가 있다.¹⁵⁾

그리고 조선조 하효 마을의 명칭으로 불렸던 牛屯(쉐둔/쇠둔)이란 지명은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설이 없는 듯 하며 이전에 간행된 『하효지』에서는 하효마을의 형상이 소가 누운 것과 같아서 붙여진 지명이

14) 하효동 마을회 1987. 「하효지」에는 400여년전에 구성마을에 문씨가 정착했다는 구전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재 그 후손들이 하효마을에 남아있지 않다.

15) 하효지(2009. 12) 장막계와 상여계에 입회한 성씨별 분포상황

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둔(牛屯)이라는 한자 지명은 ‘쇄둔/쇠둔’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둔’은 그대로 표기하고 ‘쇄’를 한자인 ‘牛’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효 마을이 원지명은 ‘쇄둔’으로 볼 수 있는데 쇠둔이란 지명은 말 그대로 소를 키우던 둔(屯)이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둔’이란 것은 일정한 범위로 구획을 정하여 소를 가두어 키우던 목장에 해당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원나라가 최초 목장을 건설한 이후 제주도의 중산간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중산간에는 주로 마목장이 형성되었고 중산간 이하 해안지대로는 일부에 우목장도 축조 되었다.

지금의 알밤오름 기슭에 있었던 우목장, 대정읍 신도리 일대에 있었던 모동장이나 표선면 하천리에 있었던 천미장 등이 대표적인 우목장이었다.

원래 하효 마을 지역에도 지명으로 붙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명은 원래 그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되어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쇄둔’이라는 원지명도 ‘소를 키우던 둔’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에서 불리던 ‘쇄둔’이라는 지명이 이후 ‘우둔’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바뀌면서 문헌자료에 수록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¹⁶⁾

여기서 우둔은 하효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림읍 동명리의 옛 이름이다. ‘우둔’이라는 지명이 산북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쇄둔’이라는 일반명사가 후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특수명사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쇠둔(牛屯)’이라는 마을 지명의 유래에 대해 지금까지 지형이 와우형(臥牛形 : 소가 누워있는 형태)이라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리

16) ‘우둔’이라는 지명은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에 최초 등장한다. 이 책의 대정현 고적조에는 1418년 왜적이 우둔을 침입했다는 기사가 있다.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의 형국에서 지명의 유래를 찾은 것으로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제주 사회에 풍수지리가 유입되는 시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에는 풍수지리가 도입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머리에 산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경지 가운데 산소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도입되는 풍수지리의 형국론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이 마을에 거주했던 고명학(高鳴鶴)이라는 사람이 ‘사헌부 장령’ 벼슬을 지낸후 대정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1834년 효자 교지를 내렸고 암행어사가 왔을 때 효자가 사는 마을이니 쇠둔(牛敦) 보다는 효돈(孝敦)이 좋다 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이미 상효돈리(上孝敦里), 중효돈리(中孝敦里), 하효돈리(下孝敦里)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 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보다는 처음 ‘쇠둔/쇄둔’을 한자로 ‘우둔’이라 표기했는데 ‘쇠둔’과 비슷한 음가를 지니면서 어의가 좋은 ‘효(孝)’와 ‘돈(敦)’을 사용하여 ‘효돈(孝敦)’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하효지(1987. 5. 1). 하효동마을회

17) 한평주 1986. (효돈의 역사) 남도인쇄사 14쪽

6. 영천동

영천동은 ‘영세미오름/영천악’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이에서 영천동으로 하였고 법률 제 3425호 (1981. 7. 1)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송산동 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을 제외한 토평동 지역(옛 토평리)과 상호동(옛 상호리), 법호촌을 통합한 동이다.



가. 토평동의 설촌유래

토평동은 서귀포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약 2~3km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동쪽에는 상호동 서쪽에는 동홍동 남동쪽에는 신흥동과 보목동이 북쪽에는 법호촌과 경계를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뚝도르’이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토평(土坪), 토평(吐坪)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돛도르의 연가는 187호이다. 남자 361명과 여자 404명을 합하여 765명이고 초가는 702칸이다.”¹⁸⁾

민간에서는 ‘돛도르’ 또는 ‘뿔평’이라고 하며 ‘돛벵디’라 하는 사람도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토평리’와 ‘동흥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토평리’라 하였고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일부는 ‘송산동’ 지역이 되고 일부는 ‘영천동’ 지역이 되었다.

그러면 토평에 언제부터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400~500여년전에 金氏, 鄭氏, 吳氏, 高氏, 趙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동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설촌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 정씨 종손(능모) 14대조 간(幹)공이 1,550년경 남원읍에서 입향한 것을 비롯하여 군위 오씨 입향조인 덕립(德立)공도 1,600년경 가시리에서 입향하여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현재 14대에 이르고 있으며 광산 김씨의 입향조인 효맹(效孟)공이 1,630년경 토산리에서 입향하였고 군위오씨 입향조인 언립(彦立)공도 1,650년경 표선에서 입향하였으며 제주고씨 입향조인 종제(宗濟)공도 1,700년경 성읍리에서 입향하였다.

그리고 1714년에 제주부씨 만웅(萬雄)공이 구좌읍 하도리에 입향하였으며 이후 17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사이에 많은 성씨들이 본 동으로 이주해와 마을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가 있다.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토평리는 처음에는 현재 서귀포 칼 호텔 북쪽 속칭 ‘무근가름’(광숙이왓, 왜왓) 등에 정착하여 살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광숙이왓’과 ‘왜왓’ 등지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18)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吐坪, 烟家 一百八十七戶 男 三百 六十一口, 女 四百四口, 合 七百六十五口, 草家 七百二間”

그렇다면 현재의 위치로 언제 어떤 이유로 이주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생활터전을 바다에 두고 살던 사람들이 점차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농토가 넓은 곳을 찾아 위쪽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둘째.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라 바닷가는 왜구들의 침범이 잦아 안전을 위해 위쪽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본 토평 마을이 형성된 현 위치에는 물이 없다.

물이 없는데도 현 위치에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인들이 절대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는 ‘풍수지리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본 토평리는 좌청룡으로 내청룡은 상효마을 ‘마루’이고 외청룡은 ‘월라산’, ‘감악산’ 등이고 우백호는 내백호가 ‘사막마루’ 동홍동 ‘잣목동산’이며 외백호는 ‘각시바위’와 ‘고근산’ 등이다.

전주작(前朱雀)으로는 ‘골머채동산’, ‘답단이동산’ 먼 쪽은 ‘제지기오름’과 쏘섬이며 후현무(後玄武)로는 가까이에는 ‘이신악’이요 먼 쪽으로는 ‘미악산’을 들 수가 있으며 그 가운데 평평하게 펼쳐진 곳이라 하여 천하명당이라 할 수가 있어 마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토평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는 어떠한지 그 연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한라산에 산돼지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본 토평 마을 근처에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츠낭열매)가 많아서 멧돼지가 많이 서식

하였다고 한다.

‘돛’은 돼지의 15세기 고어이고 ‘드르’는 제주 방언으로 들판(野原)인데 이 말은 어원상으로 몽골에서 들판을 의미하는 tala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몽골이 100여년간 제주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다.)

‘돛도르’란 말을 직역하면 돈야원(豚野原) 즉 돼지 떼를 넓은 들판에서 소나 말처럼 방사(放飼)하는 지역이란 뜻으로 예전에는 돼지도 소나 말처럼 놓아 먹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처음에는 토평(土坪)이었다가 18세기 초반의 『탐라순역도』 「한라장축」에는 토평(土坪)으로 『탐라지도』에 수근대평대(水近代坪代),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에는 土坪村(돛도르 마을),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 『제주읍지』에는 토평(吐坪) ‘돛도르 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돛도르’의 한자 표기는 토평(土坪)으로 표기하였다가 나중에 토평(吐坪)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2004년 현재 본 토평동은 18개 성씨로 남 1,775명 여 1,754명 계 3,529명으로 구성된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토평마을지(2004. 12. 20) 토평동마을회

나. 상호동의 설촌유래

상호동은 서귀포 중심에서 약 4.5km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 이름은 ‘웃쇄둔, 웃쇄둔’이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상우둔(上牛屯)’, ‘상효둔(上孝敦)’, ‘상효(上孝)’이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웃쇄둔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29호 남자는 75명 여자는 83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⁹⁾

18세기 중반경에 ‘웃쇄둔’과 ‘알쇄둔’ 사이에 마을이 번성하여 ‘중우둔리/중쇄둔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웃쇄둔’은 상호둔, ‘중쇄둔’은 중효둔으로 표기하였다.

지명의 2음절화에 따라 셋째 음절 ‘둔’ 또는 ‘돈’을 생략하여 상호, 중효로 표기하고 또한 접두사가 붙은 상호둔, 중효둔 등을 아울러서 효둔이라 하기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옛 중효리와 상호리 일부(상효리의 나머지 일부는 남원읍 하례리로 편입)를 상호리(上孝里)라 하였다.

일제시대에 마을이 커지면서 마을 동쪽을 ‘상효리’ 또는 ‘동상효리’ 서쪽을 ‘서상효리’ 또는 ‘서효리’라 하다가 1950년대 초반부터 ‘서상효리’를 ‘상효1리’, 동상효리를 ‘상효2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영천동에 소속되었다.

19)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上孝敦里, 自官門西距 五十里 民戶 二十九 男 七十五 女 八十三”

본 상호동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趙氏, 鄭氏, 許氏 세 성씨가 정착하면서 설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서북쪽에 ‘조개(趙哥)물’이라는 샘이 있으며 속칭 알동네에는 鄭氏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우영’ 또 이 동네에 許氏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허질생이 드르’ 와 ‘허동갱이 우영’이 있다.

당시 이 마을의 이름은 토평리와 마찬가지로 ‘돛도르’ 였었다.

그 후 1902년 제주, 정의, 대정 등 3군제를 실시할 때 지금의 상.하효.신효리는 정의군에 속하였고 효돈(孝敦)이라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군 위 오씨의 집성촌이다.

軍威 吳氏의 입도 6세 덕립(德立)은 상호 1리의 조개물터에 자리를 잡았고 梁氏, 金氏, 夫氏 등이 이주해와 부락의 근간을 이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5년 서귀포시가 우면 당시에 상호는 한때 서효(西孝)라고 불리운 적도 있었으며 1935년 서귀면으로 바뀔 때 西孝가 ‘上孝’로 개명하였다.

이후 1948년 4.3사건때는 주민들을 소개하여 이웃 마을로 흩어졌다가 이듬해 주민들의 원에 의하여 복귀되었다.

옛 상호 2리는 450여년전에 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 전하며 그 후 17세기 중반에 高氏, 金氏, 吳氏, 玄氏, 姜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면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토평마을지(2004. 12. 20) 토평동마을회
상호 설촌 유래비

다. 법호촌의 설촌유래

법호촌은 서귀포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약 4~5km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서 영천악(상효동 산 123번지 일대에 솟아있는 해발 277m의 야산) 서쪽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시대에는 1941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 까지 일본군이 일시 주둔하기도 했었고 지금부터 100여년전 상동에 화전민 6세대 하동 ‘배낭굴’에 4세대 등 10여세대가 거주하다가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 하였다고 하며 1910년경 연주 ‘현의준(玄義俊)’이라는 분이 축산을 하면서 살다가 1948년 4.3사건이 발생하자 그 또한 이 곳을 떠나 버려 한 때 이곳은 허허 벌판이 되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는 공비 등을 토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군경이 주둔한 적도 있었다.²⁰⁾

1950년 6.25사변으로 모슬포에 제1훈련소가 창설되자 이곳은 1952년 3월 15일부터 1954년 4월 18일 까지 육군 제1훈련소 제5숙영지가 들어서자 강병양성의 요람이 되기도 했었다.

1955년 10월 13일부터 6.25사변시 피난민으로 구성된 제주난민 귀농 정착 개척단(1950년 북괴 남침으로 인하여 육지부에서 전란을 피하여 제주에 입도하여 각 마을과 각 구호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과 4.3사건 이재민을 정주하도록 구제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후원을 하여 창단한 난민단체) 136세대 600여명이 영천 현지에서 입주식을 거행하고 입

20)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P. 12 : 1~10

촌을 하여 마을이 설촌되었다.

당시 개척단 이사장에는 ‘백원정’ 장노가 선임되었고 이 지역 307정보의 국유지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임대계약(농산 제 153호)을 받고 허허벌판 황무지를 개간 농경지로 바꿔 놓았다.

또한 본 법호촌에 입촌한 지역별 인구구성 비율을 보면 이북출신이 40%, 이남출신이 20%(육지부), 제주출신이 40%의 비율로 전국 각지에서 고루 입주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한 분들의 성씨를 보면 金, 李, 朴, 崔, 鄭, 高, 康, 姜, 玄, 許, 河, 張, 夫, 白, 韓, 吳, 文, 尹, 權, 梁, 車, 漢, 申, 禹, 徐, 田, 安, 任, 裴, 趙, 蘇, 琴氏 등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성씨들을 엿 볼 수가 있다.

본 마을은 설촌시에 상.하동으로 분산을 하여 입촌을 하였으며 상동 속칭 ‘양근리’에 40세대, 하동 속칭 ‘영천’에 96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입석(선돌)마을은 법호촌 마을 설촌후 상.하동에서 5,6세대가 이주를 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설촌시에 본 마을의 속명은 ‘영천마을’ 또는 ‘가나안새마을’이라고 하였으나 난민 귀농정착 개척단이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되면서 속명을 ‘법호촌(法護村 : 제주도 사법 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룩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개명하였다.

설촌시에 본 마을의 법정 지명은 ‘남제주군 서귀면 상호리’였으며 1956년 7월 1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승격되면서 상호리는 1.2.3리로 분리가 되어 1리는 ‘서상호마을’ 2리는 ‘동상호마을’ 본 마을 3리는 ‘상호3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상호 1.2.3리는 ‘상호동’으로 통합되었고 상호동은 토평동과 함께 영천동에 속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11일에 개통을 한 5.16도로(제1횡단도로)가 본리 중심

부를 관통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래하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교통부 공고 제 98호로 천혜의 아름다운 돈내코 지역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 개발하여 여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내코 지역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법호촌은 설촌의 역사가 짧지만 주변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학생수련원’, ‘산림청 육종연구소’ 등이 있어 교육과 연구단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서 역사적으로 ‘영천관(官設客館)’과 ‘영천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탐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말을 사육하는 산마구소장(山馬九所場)이 있어 말 사육을 감독하는 ‘점마처’라는 관서가 있었고 점마절제사가 상시 주재하여 있었다고 하는 역사성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는 세월에 따라 변형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흥망성쇠는 역사변천의 순리로서 비록 조선 시대의 ‘영천관’과 ‘영천사’ 그리고 직사 점마소의 역사적 흔적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거를 통해 오늘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 법호촌 마을은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며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환경이 매우 아름답고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영천교 32년사(2002. 2. 16) 영천초등학교

7. 서홍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옛 서홍리에서 천지동에 포함된 지역(남성리)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가. 서홍동의 설촌유래

서홍동은 산남지방의 동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남쪽으로는 서귀포 시내와 경계길을 사이에 두고 천지동과 주거지가 마주되어 있고 동쪽은 동홍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2.2km 떨어진 호근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옛 이름은 '홍로(烘爐)'이다.

지명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풀이 해보면 햇불烘(홍)과 화로爐(로)의 두 글자로 되어 있으며 아래 글자의 뜻을 들어서 이 지역 형세가 화로의 형국임을 풍수상의 이치로 본 지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형체에 의한 풀이 보다는 불꽃이 일고 있는 형상을 火氣(화기)가 센 지역임을 가리키는 관념상의 형세로 볼 수도 있다.

마을 앞 흙담에 뚝을 쌓아 물이 고이게 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안의 화기를 누른 내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서흥동의 한자 표기는 홍로(洪爐, 烘爐), 서홍로(西烘爐), 서흥(西烘)으로 나타난다.

지금 서흥리가 원래 ‘홍로’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마을이 커지면서 ‘홍로’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서홍로, 서흥’이라 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서홍로의 연가는 94호이다. 남자 200명과 여자 204명을 합하여 404명이고 초가는 300칸이다.”²¹⁾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서흥동은 홍로, 서홍로, 서홍로리, 서홍로마을, 서흥리, 서흥마을

서흥동의 과정으로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변하여 왔다.

‘홍로’ 지명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 o. 홍 로 : 고려 예종년대(1106 ~ 1129) 촌락형성
- o. 홍로현촌 : 고려 충렬왕 26년(1300) 현촌 설치
- o. 홍 로 리 : 조선 태종 16년(1416) 정의현 신설로 현청 이설
- o. 홍 로 리 : 조선 광해군 1년(1609) 방리 설정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홍로리와 서홍로리의 2개로 분리 서홍로리는 정의현 우면에 속하고 1700년대 중엽에 면소(面所)가 두어졌다.
- o. 홍 리 : 조선 고종 32년(1895) 행정개신으로 동.서홍로리가 ‘동홍리’, ‘서홍리’로 분리되며 홍로의 지명이 780여년만에 없어졌다.
- o. 서 홍 리 : 1960년대 초까지 지역명으로 사용하다가 1966년 서흥리에서 ‘서흥1리’와 ‘서흥2리(남성리)’로 분리 하였다.
- o. 서 흥 동 :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서흥2리(남성리)’를 천지동으로 편입하고 지금의 서흥동이 되었다.

21)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西烘, 烟家 九十四戶, 男 二百口 女 二百四口, 合 四百四口, 草家 三百間”

문헌상에 홍로가 처음 마을로 기록이 된 것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동.서 양도로 나누고 14개의 현을 둘때에 지금의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와 ‘예래’ 2개의 현을 두었다.²²⁾

이로 보아 홍로에는 관아가 개설 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의 유적들은 홍로현의 관아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대궐터’, 화살의 과녁으로 술대가 세워져 있던 밭을 일컫는 ‘술대왓’, ‘향교’가 자리했던 곳으로 불리는 ‘향교가름’ 예전 관아 건물을 지을 적에 쓰였던 기와를 만들었던 밭이라 추정되는 ‘외왓’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그 후 조선 태종 16년(1416)에 동.서 양도를 없애고 산남지방을 정의, 대정의 2현으로 개편되면서 홍로는 정의현에 속하고 현청은 새로운 정의현이 된 고성으로 이설되어 갔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보다 앞서서 전래되어 오는 홍로의 ‘지장샘 설화’에는 고려 예종 2년(1107)에 송나라 술사 ‘호종단’이 지장샘에 와서 한 농부의 지혜로서 지장샘의 물혈을 끊는데 실패하여 돌아갔다는 전설이 오래 구전되고 있어 홍로의 설촌이 문헌기록보다 200여년 앞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 한가지 설촌 유래에 대한 추측은 홍로라는 마을의 한자 이름이 있기 전에 순수한 마을의 옛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전 이름이 없이 어려운 한자 지명 한가지만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다르다.

우리의 지명에 두 글자의 한자 음절로 표기하게 된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군(郡), 현(縣) 이상 지역명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홍로가 옛 지명이 없이 군, 현에 해당되는 한자 지명을 설촌때부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주거지 취락규모가 컸으며 따라서 일찍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 탐라지(이원진, 1651) “...二十六年 庚子 設東西道縣 縣村 卽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洪爐, 猊來, 山房, 遮歸 等地也.....”

어찌됐건 설촌연대가 밝혀진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단지 구전으로 내려오고 추측에 의한 짐작이기 때문에 최초 문헌에 기록된 고려 충렬왕 26년(1300)을 홍로마을의 설촌 시기로 보여진다.

본 서흥동의 각 성씨별 입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본동 설촌이 趙氏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남아 있는 문헌 등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산야의 고비, 혹은 족보 등을 고찰하여도 어떤 성씨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약 300년전 이후의 역사적 자료들 뿐이다.

어쨌든 1600년대부터 高氏, 邊氏, 玄氏 등이 주축을 이루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왔으리라 여겨진다.

본 지역에서 옛 문헌 발굴은 1700년대의 ‘토지매매문서’ 이외에 성씨를 알 수 있는 것은 1908년(융희 2)의 본동 호구조사 책자(김기호 作)가 전부인바 한.일합방 이전의 성씨분포는 高, 邊, 玄, 金, 許, 姜, 康, 文, 吳, 林, 韓, 梁, 趙, 安, 元氏 등이다.

이들 성씨가 어떤 연유로 본 마을에 들어 왔는지는 후손들의 일방적 이야기 외에는 객관적 고찰이 대단히 어렵지만 대개는 당시의 시대적 변혁 즉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천재지변에 의한 연이은 흉년 등에 의하여 살고 있던 정든 고향을 떠나 본 동으로 입향하여 가문의 기틀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일이 있어 본 동에 머무르다 이 지역 토착 집안의 사위로 아예 눌러 산 경우가 여러 성씨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실례로 光山金氏 입향조 김최걸(金最傑)공은 ‘구좌 한동리’에서 본동 제주고씨 고봉의(高鳳儀)공의 사위로 입향 하였으며 延州玄氏 현인숙家は 원주변씨의 사위로 남평문씨 역시 입향후 원주변씨의 사위가 됨

으로서 이 지역 토착 세력들과의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또한 군위오씨 오탈家와 현재호家는 인근부락인 ‘굴왓’에서 입향하던 입향을 했던 사례들이다.

1703년(숙종 29) ‘이형상 목사’ 시절의 「탐라순역도」에는 ‘구서귀’로 기록 되는 등 1,590년 서귀진(西歸鎭)이 옮겨가지 이전까지 서귀진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홍로라는 지명은 역사적 지명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다.

1901년 하논 지역에서 서홍동 마을 안으로 서홍동 복자 수도원이 이전되어 그 안에서 근무하던 ‘엄타기’ 신부가 1911년 제주자생 왕벚나무 몇 그루를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준 답례로 미장온주 14그루를 기증받아 시험재배 하게 된 것이 제주 온주밀감이 시초이며 현재까지도 현 천주교 복자성당 앞 마당에 당시 나무중 1그루가 남아 있어 감귤 수확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앞이 허하다 하여 1910년 당시 이장이던 고진사(高進士)가 주민을 동원하여 흙담(土城)을 수축하고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이제는 지역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서귀포의 명물로 꼽히고 있으며 이처럼 서홍동은 옛 선인들의 맥박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홍동 마을지(1996. 12. 15) 서홍동마을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8. 동홍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행정구역상 송산동 구역을 제외한 옛 동홍리를 말한다.



가. 동홍동의 설촌유래

동홍동은 산남지방의 동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영천동, 서쪽은 서홍동, 남쪽은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과 경계를 접한 마을로서 옛 이름은 ‘홍로’, ‘동홍로’, 또는 ‘홍리’, ‘동홍리’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홍로(洪爐, 烘爐), 동홍로(東烘爐), 동홍(東烘)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동홍로마을의 연가는 105호이다. 남자 273명과 여자 286명을 합하여 559명이고 초가는 332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³⁾

동홍동은 홍로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동홍로, 동홍로리, 동홍로마을, 동홍리, 동홍마을, 동홍동’으로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변하였다.

그러면 언제 마을이 설촌되었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

23)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東烘, 烟家 一百五戶 男 二百七十三口 女 二百八十六口 合 五百五十九口 草家 三百三十二間”

으나 다음 사실로 보아 추정할 뿐이다.

문헌상에는 서기 1300년(충렬왕 26) 제주에 14개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그 14개 현촌중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현’과 ‘예래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옥하골’ ‘관전’ 등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나 그에 따른 현촌의 모습과 생활상 등 유물과 유적을 찾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동홍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족보나 호구단자 등 자료로 고증이 가능한 것은 지금부터 약 450년전인 조선 중기 1560년경 ‘жат목’ 가까이에 있는 ‘큰집터(이 일대를 웃가름이라고도 함)’ 일대에 光山金氏와 淸州姜氏 淸州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고 그후 제주 고학종공(高學宗公 : 고승기(高升琪)의 11대조로 1,650년경 상호동에서 입향하여 현 동홍동 1,106번지인 큰 ‘머들왓’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현재 13대에 이르고 있음)²⁴⁾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산지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굴왓’에 제주부씨(濟州夫氏)가 들어와 살고 ‘폭남밭’ 일대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홍동 1754, 1755번지 일대를 ‘가시머리 물’을 근원으로 하는 물골로를 ‘옥하골’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옥(감옥)’이 있었다 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또한 그 옆에 ‘관전(官田)’이라 부르는 밭이 있는데 즉 ‘관가’였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근처에 ‘서귀진’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으나 그 위치를 못 찾고 있으며 동홍동 1200번지에는 1882년(임오)에 ‘홍로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1916년에 서귀포로 이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옥화골’ ‘관전’ 등 홍로현청 당시부터 전해오는 구전이 사실일

24) 고씨대동보 영곡공파 편(1997. 5)

경우에는 설촌의 역사도 조선초기로 올라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당시 현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록과 유적 유물 등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역사 고증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역사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 번 생각나게 한다.

그후 군위오씨(軍威吳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경주김씨(慶州金氏), 평택림씨(平澤林氏) 등 여러 성씨들이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본 동흥동에 입향하여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특히 현재 동흥 2통(жат목안)을 중심으로 군위오씨가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고 제주부씨(濟州夫氏) 등이 굴왓(굴전동)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두 개의 작은 마을이 동흥마을을 형성하여 살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동성촌(同姓村)을 형성하여 살게 된 것은 혈족 의식이나 선묘 수호 제사를 모시는 유교문화와 선조의 후광으로 세도도 부릴 수 있고 문중자산을 공동관리하는 등 협동작업을 하기에 편리한 점들이 일문족들을 한 곳으로 모여 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609년(광해군 1)에 동.서 방리를 설치할 때 본동은 동.서 양리로 분리되어 ‘동흥로리’로 부르다가 1895년(고종 32)에는 ‘동흥리’로 부르게 되었으며 1899년(고종 36)에 제작된 ‘제주군읍지 제주도지도’에서도 ‘동흥리’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오랫동안 ‘동흥리’로 부르다가 1981년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동흥동’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4.3사건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 소개령이 발표됨에 따라 동흥마을 주민들은 1년여 동안 해안마을 및 이웃마을로 이주할 때 옛 자료들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승격당시 4,600여명에 불과한 동흥동의 인구가 20여년이 지난 2000년에는 16,0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개청당시 3개통 24개반으로 출발한 행정구역이 11개통 113개반으로 늘어났다.

도시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기존 자연부락 외로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9년 6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남 10,041명, 여 10,368명 계 20,409명으로 인구 2만을 돌파하였고 통수도 11개통에 124개반 가구수도 7,253가구로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동홍마을지(2003. 10) 동홍동마을회
고씨대동보 영곡공과 편(1997. 5) 고씨대동보편찬위원회

9. 대륜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법환동(옛 법환리)과 서호동(옛 서호리), 호근동(옛 호근리), 새서귀포를 통합하여 만든 동이다.



가. 법환동의 설촌유래

법환마을은 한라산을 기준할 때 정남쪽에 위치하며 서귀포 신시가 지 일부를 포함 일주도로 남쪽 바다까지로 동으로는 속칭 남해를 기점으로 호근동 해안과 경계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속칭 두머니물까지 그 경계가 되고 있는



한국 최남단의 위치한 해안촌(海岸村) 마을이다.

법환동에는 해안가 여러곳에 용천수가 솟아나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수백년동안 생활용수로 이용하여 옛부터 물 좋고 인심 또한 후해서 사람이 살기좋은 가장 천혜(天惠)받은 마을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법환동의 옛 이름은 ‘법환이(법환잇개), 법한이(법환잇개)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법환(法還-浦), 법한(法汗-浦)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법환의 연가는 317호이다. 남자 601명과 여자 731명을 합하여 1,332명이고 초가는 782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⁵⁾

法還은 ‘법환’의 음가자 표기이고 포(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며 법환포(法還浦)는 ‘법환잇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옛부터 촌락이 형성되는 데에는 지형과 지세가 좋고 식수 기후 농경지 등 생활조건이 좋은 곳을 택했으리라 추측되는데 법환마을의 시원은 용천수와 함께 고인돌과 유물산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확인할 길은 없고 이후 고려말(14세기 말) 목호의 난때 최영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인들이 범섬으로 도망쳐간 원나라 목호들의 잔당들을 토벌하기 위해 본 마을에 도착하여

25)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法還, 烟家 三百十七戶, 男 六百一口 女 七百三十一口, 合 一千三百三十二口, 草家 七百八十二間”

잠시 유숙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법환에는 소규모이나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나 마을 형성의 시작은 법환포(法還浦)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한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 1510) 초까지 소급할 수 있다. 라고 법환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다.²⁶⁾

법환에는 ‘막숙물’을 비롯하여 ‘동카름물’, ‘서카름물’, ‘공물’ 등 물이 가장 풍부한 고장으로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기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도를 동.서도로 나누고 14개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그 14개 현촌중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와 예래의 2개의 현촌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²⁷⁾

당시 현촌의 모습과 생활상 등 규모를 알만한 기록은 없으나 법환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은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600여년전 서기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목호의 난 당시 범섬으로 도망쳐 온 목호 잔당들을 최영장군이 소탕한 마지막 격전지였던 역사의 현장으로 그 당시 군사에 관련된 지명(막숙, 군자왓, 병디왓, 배연줄이 등) 유래가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으로 봐서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가정이 추정되지만 이에 따른 후손이나 유물 등 그 어떤 흔적도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법환리에 설촌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전과 전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1540년경이다.

첫째. 법환에 최초로 입향한 사람은 연주 현씨 봉수(鳳守)공이시다.

봉수공의 선친이신 휘 온세(溫世)공께서 1510년경 남원읍 수망리에서 현 ‘하논’경으로 이주하여 서원을 열어 인근 주민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칭송이 자자했다는 기록이 연주현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온세공의 4남이신 봉수(鳳守)공께서 1540년경 농토가 비옥하고 맑은 생수가 넘

26)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2006. 12) 제주대학교 P. 16 : 26~P. 17 : 4

27) 탐라지(이원진. 1653) “二十六年 庚子 設東西道縣 縣村 卽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烘爐, 猊來, 山房, 遮歸, 等地也.....”

쳐 흐르고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해안지역인 법환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연주현씨 족보의 기록과 봉수공의 묘도 법환과 강정경계 지역인 효제동산에 있으며 아들 (장남 승관, 차남 승홍) 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법환동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별세하여 묘도 모두 종심당(종당)에 있어 매년 4월이면 이곳 효제동산과 종당에서 시제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과 공의 후손들이 460여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법환동에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구전과 어느정도 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 이때부터 본동에 설촌(設村)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수모르 서남쪽 큰가름(광대왓)에 연주현씨가 정착하여 살던중 한씨, 허씨가 같이 들어와 살면서 玄氏, 韓氏, 許氏가 마을형성의 3주체가 되어 서로 의형제를 맺어 거주하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씨는 지금의 법환리로 許氏는 서호동으로 韓氏는 통물을 거쳐 보목동으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하는데 언제 정착하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으나 1500년 중반경에 설촌이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셋째. 1610년경 谷山康氏 효길(效吉)공인 난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649년 原州邊氏이신 득한(得漢)공이 입향하였으며 1694년경에 곡산강씨 農軒公派인 樹(수)공께서 입향하였고 1670년경에는 軍威吳氏이신 태숙(泰肅)공이 동홍동에서 입향하였으며 1699년경 谷山康氏 만원(萬元)공께서 온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01년경에는 慶州金氏이신 시문(時文)공께서 의귀리에서 입향하였고 1711년경에는 信川康氏이신 취방(就邦)공께서 홍로에서 입향하였으며 1717년경에는 谷山康氏 農軒公派인 민중(敏重)공께서 표선리에서 입향하였고 1718년경에는 信川康氏이신 석완(碩完)공께서 위미리에서 입향 하는 등 1700년대와 1800년대를 거쳐 1900년대 초까지 많은 성씨들이 집중적으로 입향하고 있다.²⁸⁾

넷째. 법환마을은 현재 28개의 성씨로 구성되고 있어 각성촌이 되고

28) 법환향토지(2000. 2. 20“성씨별 입향상황”

있다.

다만 곡산강씨(신천강씨 포함)가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강씨 집성촌으로 불리만 하다.

이처럼 곡산강씨(谷山康氏)가 타성에 비해 높은 것은 곡산강씨 집단이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시기를 달리하여 9개 마을에서 이주해온 후 이들 집단이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을 불러 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성씨 집단들이 법환마을로 이주해온 시기를 보면 1800년대와 1900년대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법환마을이 대략 1500년대에 설촌되었다고 하나 1900년대 들어와 이주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환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성씨를 보면 곡산강씨(谷山康氏), 신천강씨(信川康氏), 제주고씨(濟州高氏), 곡부공씨(曲阜孔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경주김씨(慶州金氏), 광산김씨(光山金氏), 상산김씨(商山金氏), 김해김씨(金海金氏), 남평문씨(南平文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원주변씨(原州邊氏), 거창신씨(居昌愼氏), 평산신씨(平山申氏), 고령신씨(高靈申氏), 순흥안씨(順興安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군위오씨(軍威吳氏), 기계유씨(杞溪兪氏), 문화유씨(文化柳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고성이씨(固城李氏), 고부이씨(古阜李氏), 원주이씨(原州李氏), 전주이씨(全州李氏), 안동장씨(安東張氏), 천안전씨(天安全氏), 동래정씨(東萊鄭氏), 한양조씨(漢陽趙氏), 함안조씨(咸安趙氏), 상주주씨(尙州周氏), 여양진씨(驪陽陳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양천허씨(陽川許氏), 연주현씨(延州玄氏) 등이다.

그 후 여러 성씨들이 모여들어 대마을로 형성된 법환동은 특히 동족씨족 강씨들이 타성씨들 보다는 훨씬 많은 수를 가져 동족취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는 시대의 변천과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여러 성씨들이 혼합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여 생활해가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법환향토지(2000. 2. 20) 법환동마을회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2006. 12). 제주대학교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나. 호근동의 설촌유래

호근동은 서귀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서귀포 중심에서 마을회관까지 직선거리로 약 3.1km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서홍동과 서쪽으로는 서호동과 인접하여 경계를 이루면서 인가가 마주 접하여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쪽으로는 법환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한라산 자락이 마주하고 있는 마을인데 호근동의 옛 이름은 ‘호근머들(好斤磊. 好近磊), 호근머흘’이고 서호동의 옛 이름은 ‘구호근리(舊好近里), 서호근리(西好近里)’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 호근머들의 연가는 267호이다. 남자 566명과 여자 584명을 합하여 1,150명이고 초가는 1,053칸이다. ” 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호근늬(好斤磊)와 호근늬(好近磊)는 ‘호근머들’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好近은 ‘호근’의 음가자 표기이며 늬(磊)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 ‘머들’ 또는 ‘머흘’의 훈독자 표기이다.

‘호근록’(好近錄 : 1927년 許垠 훈장이 기록한 향토사)에 본리를 ‘好近’이라 이름한 것은 <虎>자가 변하여 <好>자가 된 것이다.

마을 서남쪽에 대광원(큰가름)이 있으니 옛날 선인의 거주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호근록'에는 지금 서호동 622번지 '허인보'씨의 집 자리(과거 허민씨집)에 고려말 정당문학까지 지낸 전북 남원의 조원(趙元)이란 사람이 국세가 위급함을 보고 바다를 건너와 조선조 개국 3년(1394. 갑술)에 여기에 터를 잡았으며 그 후 8세손 앵보, 앵진 대에 이르러 망하니 양천허씨가 장가들어 그 터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입도한 유명 인사들을 상당수에 달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원(趙元)이란 분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³⁰⁾

그리고 '호근록'을 쓴 허은훈장도 이를 입증할만한 문헌 기록은 못 찾은 듯 '본리'가 趙, 韓氏에 의해 설촌되었다고 하나 무엇을 증거로 믿겠는가? 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호근동에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수모루 서남쪽 '큰 가름'과 '통물' 일대에 사람이 살면서 1580년경 '趙氏'와 '淸州韓氏'

입도조 한천(韓蕝)공의 8대손 대응(大應)께서 원통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 덕원(德元)은 호근리 1,947번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이들에 의해서 설촌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趙氏, 韓氏 후예들은 다 흩어져 지금 본 동에는 전혀 살고 있지 않으며 韓氏 후예들은 보목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시대 중반부터 '원통과원'이 있었고 마을 이름이 '호근머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마을중심지인 '검은머들'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

29) 삼군호구간총책(정의군, 우면) “好近, 烟家 二百六十七戶 男 五百六十六口 女 百八十四口 合 一千一百五十口 草家 一千五十三間”

30) 好近錄(1927. 許垠 訓長에 의해서 기록한 향토사)

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趙氏 후예는 8세를 거쳐 앵보(鶯寶), 앵진(鶯珍) 형제대에 이르러 동생 앵진은 외지로 나가고 형 앵보는 후손이 없어 절손하게 되었는데 상천리(上川里)에서 양천허씨 철(哲)이란 분이 서기 1624년경에 조앵보(趙鶯寶)집에 장가들어 그 터에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아 장파, 중파, 말파로 갈렸으며 현재 11대에 이르러 서호동의 2대 성씨로 호근동의 3대 성씨로 번성하여 유명인사도 많이 배출하였다.

韓氏 후예는 8세 덕원(德元)대에 난산리에서 군위오씨의 상흥(尙興)公이 1646년 한덕원(韓德元)家에 장가들어 그 터에 살면서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13대에 이르고 있으며 호근동의 2대 성씨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호근마을을 설촌한 趙氏는 9대에 망하고 韓氏는 8세에 외지로 나간 셈이다.

1665년경에는 연주현씨(延州玄氏) 덕민(德敏)公이 입향하였고 후손들은 장,중,말 3파로 갈렸으며 또한 玄氏(새왓집)가지의 융은(隆殷)公도 1760년 허씨집에 장가들면서 수망리에서 입향하였다.

1680년경 경주김씨(慶州金氏) 완(完)公이 신흥리에서 입향하였고 다른 가지인 덕유(德裕)공이 의귀리에서 입향한 것은 1765년경이었다.

1683년경에는 신천강씨(信川康氏) 후건(厚健)公이 수산리에서 모친 여산송씨와 함께 호근리에 입향하여 군위오씨와 결혼 만수, 만완, 만득 3형제를 낳았는데 만완은 법환리로 만득은 강정리로 이주하였고 장파의 후손들만이 본 동네에 남아 살고 있다.

1685년경에는 광산김씨(光山金氏) 여택(汝澤)公이 신산리에서 입향하였고 해성(海成)公이 신례리에서 한씨집에 장가들어 입향하였으며 이후 같은 김씨 응헌(應獻)公은 1715년 토산리에서 들어와 허안(許岸)公의 딸과 결혼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

1722년경에 제주고씨(濟州高氏) 중강(重崗)公이 효돈에서 양천 허성(許晟)公의 사위로 들어와 정착하여 10대에 이르고 있고 봉림(鳳林)公 또한 1811년에 의귀리에서 양천 허씨집의 사위로 들어와 정착하였으며

다른 가지인 여락공은 1860년경 제주시 일도리에서 입향하였다.

1760년경에 동래정씨(東萊鄭氏) 성교(聖僑)公이 금악리에서 오정한의 딸과 결혼하면서 입향하여 9대에 이르고 있고 같은 성씨 유태(維泰)公은 1750년 토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86년경에는 군위오씨(軍威吳氏) 입도시조의 16세인 광보(光輔)公이 효돈으로부터 입향하여 후손들이 8대에 이르며 현재 서호동의 3대 성씨가 되고 있다.

1787년경에 연주현씨 광부(光富)公이 의귀리에서 광산 김윤옥(金允旭)公의 사위로 입향하였고 1800년에도 연주현씨 이현(以現)公이 수망리에서 입향하였다.

이와같은 성씨의 입향은 1800년대에서 1900년대초 까지 계속되어서 1860년에는 진주강씨(晉州姜氏) 종철(宗哲)公이 용수리에서 입향하였고 밀양박씨(密陽朴氏)도 입향하였다.

1864년에는 진주강씨 룡황(龍璜)公이 창천리에서 입향하였고 1872년경에는 진주진씨(晉州秦氏), 1890년경에는 인동장씨(仁同張氏), 1895년경에는 남양홍씨(南陽洪氏)가 구좌읍 하도리에서 입향하였으며 1909년경에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입향하였다.

여러 성씨들의 입향중 특이한 것은 광주김씨(光州金氏) ‘윤옥’의 경우로 그는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인데 6.25때 피난민으로 와서 남양홍씨가에 장가들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1900년대에 들어온 성씨는 진주유씨(晉州柳氏. 1964), 경주이씨(慶州李氏. 1966), 과평윤씨(坡平尹氏. 1966), 보성오씨(寶城吳氏. 1973), 풍천임씨(豐川任氏), 이천서씨(利川徐氏) 등이다.

이렇듯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성씨간 혹은 개인간에 질서와 다툼도 있었다.

1892년 4월에 마을 주민 사이의 반목으로 신호근리>신호리(새호근마을. 현 호근동 일부) 구호근리>서호근리(묵은 호근마을. 현 호근동 일부와 서호동)으로 나뉘어져 분리(分里)가 이루어졌다.

분리후 8년만인 1900년경(경자년)에 ‘허환’의 노력으로 마을을 다시

합쳐지지만 1903년(광부 7) 4월 16일에 ‘허환’, ‘허은’의 종족간 치욕사건으로 다시 나뉘게 되니 동쪽마을은 호근리(好近里) 서쪽마을은 서호리(西好里)라 하여 분리 되었으며 1913년 오늘날의 경계대로 다시 分里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호근동’이 되었고 동시에 행정동의 조정과정에서 서호동 및 법환동과 함께 대륜동에 속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호근리의 어제와 오늘(1999. 12) 호근동마을회

호근리리 근원을 찾아(濟農 金永禧. 1993. 3. 19)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호교 50년사(2002. 12. 30) 서호초등교 총동문회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다. 서호동의 설촌유래

서호동은 서귀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서귀포 중심에서 서북쪽 4km 어간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호근동 서쪽으로는 혁신도시와 강정동과 영남동 남쪽으로는 법환동 북쪽으로는 한라산 자락이 마주하고 있다.



서호동은 19C말 호근리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성장한 마을로서 호근리의 서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서호리’라 하였고 그 이후 호근리와 재병합 혹은 일부 구역의 재조정 등을 거쳐 ‘서호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서호동의 옛 이름은 ‘구호근리(舊好近里), 서호근리(西好近里)(오창명, 2007. P. 804~805)이다.

『호근록』(1927. 허은훈장에 의해서 기록한 향토사)에 의하면 ‘마을 서남쪽에 대광원(큰가름)이 있으니 옛날 선인의 거주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구전에 의하면 <통물>, <원통>, <고둔(염둔)> 등지에 2~3호, 5~6호씩 사람이 살았었다고 전해오는데 서호리 마을의 지번 1번지가 통물 머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통물에 근거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서호동에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수모루 서남쪽 ‘큰가름’과 ‘통물’ 일대에 사람이 살면서 1,580년경 ‘趙氏’와 ‘韓氏’에 의해서 설촌되었다고 하나 무엇을 증거로 믿겠는가? 하고 호근록을 쓴 허은 훈장도 이를 입증할 만한 문헌 기록을 못 찾은 듯 설촌 유래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호근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호동은 19세기 말 ‘호근머들, 호근머흘(好斤磊, 好近磊)’에서 분리되어 마을이 설촌되었기 때문에 설촌의 역사는 호근동의 설촌의 내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호 호근동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면 1,892년(고종 29) 4월에 ‘누대의 토호인 ‘허환’이 제멋대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한 반발로 김종현(金鍾鉉), 현규성(玄圭成), 오달백(吳達伯), 양명홍(梁明弘)

강사빈(康士斌)등이 마침 마을을 순시중인 察里使 李圭遠에게 등장을 올렸는데 그 결과 ‘허환’이 징계를 당하고 마을은 둘로 나뉘어 ‘신호근리(新好近里)’

라 하였으며 특히 마을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新자를 붙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舊자를 쓰게 하였다. (호근록, 分里部)

따라서 마을은 ‘신호근리’와 ‘구호근리’로 나뉘게 되었으며 1899년(광

무 3)에 『정의읍고지』(방리 .우면)에서도 ‘구호근리. 신호근리’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년후인 1900년(광무 4)에 ‘허환’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합쳐지지만 1903년(광무 7)에 ‘허환’, ‘허은’간의 ‘종족간 치욕사건’으로 다시 나뉘게 되어 동쪽마을은 ‘호근리’로 서쪽마을은 ‘서호리’로 分里가 되었다.

1907년에 ‘정의군 우면 서호리’가 되었고 1913년에 토지측량시 천지지경(天地員)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여 계곡(溪谷)을 따라 마을 경계로 삼으니 오늘날의 경계대로 다시 分里가 되었다.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 제 94호에 의거 ‘남제주군 서귀면 서호리’로 정비되었다가 1956년 서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남제주군 서귀읍 서호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서호동’이 되었고 동시에 행정동의 조정과정에서 호근동 및 법환동과 함께 ‘대륜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서호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성씨를 보면 晋州姜氏, 信川康氏, 濟州高氏, 慶州金氏, 光山金氏, 金海金氏, 密陽朴氏, 濟州梁氏, 軍威吳氏, 固城李氏, 古阜李氏, 慶州李氏, 全州李氏, 仁同張氏, 晋州秦氏, 陽川許氏

延州玄氏 坡平尹氏 등이다.

이중 양천허씨는 서호동이 2대 성씨로 군위오씨도 서호동의 3대 성씨로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호근리리 근원을 찾아(濟農. 金永禧. 1993. 3. 19)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서호교 50년사(2002. 12. 30)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 연구원

라. 새서귀포의 설촌유래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서귀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 승격으로 인한 시청사의 건립 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터전 개발을 위하여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신시가지 조성사업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1989년 12월에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고 1992년 6월에 대지조성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시가지 조성 전체 준공은 1993년 1월에 완료되었다.

서귀포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권인 고근산 바로 밑에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청이 1994년 4월에 준공되었고 아파트 및 개인주택 토지분양을 통해 전국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신시가지 마을이 설촌되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는 1,100세대에 3,500여명의 인구를 가진 전원도시로 발전하였으나 서호, 법환, 강정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지번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속감도 어딘지 모르게 이질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이 곳에는 서귀포시청를 비롯하여 경찰서,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전력, 우체국, 농협, 감협, 국민보험공단, 월드컵 경기장과 이마트 등 각 기관들이 들어서서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2012년에 중앙 여러 개의 기관들이 들어서면 새서귀포는 몰라보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 서귀포는 2000년 6월 10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마을회를 조직하고 대륜동 관할 새서귀포마을이라 칭하였고 마을회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월 25일 마을회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1월 1일부로 서귀포시 통반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광역통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6개통이 1개통으로 통합되고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대륜동 4통으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마을회칙을 광역통 실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2월 28일 새서귀포 마을 규약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새서귀포 마을회 규약

제2장 서귀포 서부 (구·중문면)



서귀포 서부 (구·중문면)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의 동쪽은 서호동. 법환동과 접하고 서쪽은 창고천(倉庫川)과 개금내를 경계로 안덕면 창천리. 대평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는 예래천, 중문천, 회수천, 도순천, 약근천, 강정천 등 제주도에서는 보기드물게도 하류에는 항상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색달천, 고지천, 궁산천 등 건천이 북에서 남쪽 바다로 흘러 내려간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31)

- 0. 강정동 유물 산포지, 대포동 바위 그늘 집자리 등은 기원전 500년전부터 기원전후에 이루어진 유적들이다.
- 0. 하예동, 상예동,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하원동, 월평동 유물 산포지 등은 AD 200년 ~ AD5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유적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귀포 서부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사시대(AD1년 이전)나 원사시대(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서귀포 서부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 전 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곽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의 속현이었고 그 중 예래현이 오늘날 서귀포 서부지역인 것이다.

1416년(태종 16)에 와서 동.서도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외적 방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건의하여 한라산 남쪽 200리 땅을 양분하여 東을 정의현(旌義縣), 西를 대정현(大靜縣)이라 하여 각각 현감을 두어 통치하게 하

31) 서귀포시지 상권(2001. 7. 1) 서귀포시

였으며 대정현에는 예래현(猓來縣), 산방현(山房縣), 차귀현(遮歸縣)을 예속시켰으니 서귀포 서부지역은 대정현 관할이 되었다.

1609년(광해군 1)에 판관 김치(金緻)가 동.서방리 약정(約正)을 설치하였는데 대정현에는 좌면, 우면을 두었으며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는 대정현 좌면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귀포 서부 지역내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0.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左面 : 江汀里, 芑宋里, 下院里, 大浦里, 中文里, 塞達里, 城山里, 上猓來里

下猓來里, 倉庫里

0.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左面 : 倉川里, 上猓來里, 下猓來里, 城山里, 塞達里, 中文里, 大浦里, 下院里

石宋里, 江汀里

0.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左面 : 江汀里, 道順里, 下院里, 回水里, 仲文里, 大浦里, 塞達里, 上猓里, 下猓里

0. 1899년(광무 3) 대정군읍지

左面 : 江汀里, 瀛南里, 道順里, 月坪里, 河源里, 上文里, 道文里, 中文里, 大浦里, 東中文里, 穡達里, 上猓里, 下猓里, 新猓里

0. 1904년(광무 8)

左面 : 江汀里, 瀛南里, 月坪里, 道順里, 河源里, 道文里, 大浦里, 上文里, 東中文里, 中文里, 穡達里, 上猓里, 下猓里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左面 : 瀛南里, 江汀里, 道順里, 河源里, 月坪里, 大浦里, 廻水里, 穡達里, 中文里, 上猓里, 下猓里

32)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2007).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 마을 명칭은 오늘날 법정동과 일치한다.

그 후 좌면이 된 후 현재까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0.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좌면 ‘풍헌’을 좌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 (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과 서기(書記)를 두었다.
- 0.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중문리에 개설하였다.
- 0. 1914년 3월 1일 정의. 대정 양군을 폐하여 ‘제주군’에 통합되었으며 중문동은 ‘전라남도 제주군 좌면’이 되었다.
- 0.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실시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좌면’이 되었다.
- 0.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0. 1917년 해안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통되었다.
- 0. 1935년 4월 1일 좌면을 ‘중문면’으로 개칭하였다.
- 0.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로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이 되었다.
- 0. 1981년 7월 1일에는 중문면이 서귀읍과 통합되어 ‘서귀포시’로 승격되어 종전의 리(里)가 동(洞)이 되었으며 대천, 중문, 예래,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등 12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 0.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가 되었다.
- 0.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의 면적은 143.4km²에 인구는 19,375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동이 10개이고 행정동은 3개이며 자연마을은 22개이다.³³⁾

<서귀포 서부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행 정 동	법 정 동
대 천 동	강정동, 월평동, 도순동
중 문 동	중문동, 대포동, 하원동, 회수동
예 래 동	상예동, 하예동, 색달동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 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도지(2006.) 제주도

33)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1. 중문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중문동(구.중문리), 대포동(구.대포리)과 회수동(구.회수리)과 하원동(구.하원리)등 구.4개리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중문동사무소

가. 중문동의 설촌유래

동쪽은 하원동 서쪽은 예래동 남쪽은 대포동 북쪽은 회수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마을 서쪽에 중문천제원이 위치하고 있다.

중문동은 400여년전에 중문리 동쪽 ‘웃터(上基)’인 ‘굿물동산(군물동산)’ 일대에 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 하며 그 후에 南平文氏, 李氏, 高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중문동의 옛 이름은 ‘중문’으로 한자 표기는 中文.仲文으로 나타나고 있다.

1702년의 『탐라순역도』(한라장축)에는 中文, 18세기초 고문서와 『호구총수』(전라도. 대정. 좌면),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 등에는 中文里(중문마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는 中文村(중문마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仲文里(중문마을), 仲文浦(중문개), 仲文院(중문원),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는 東文里(동중문마을), 上文里(웃중문마을), 中文里(중문마을),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上文(웃중문), 東中文, 中文, 일제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는 中文里, 上文洞

(웃중문), 鹿下岫(녹하지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에 ‘중문마을은 대정현 동쪽 3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154호 남자는 303명 여자는 431명’이다.³⁴⁾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 ‘중문의 연가는 132 호이다. 남자는 272명과 여자 359명을 합하여 631명이고 초가는 20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⁵⁾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현지. 방리. 좌면)에 ‘동중문마을(東文里)의 연가는 71호이다. 남자 136명과 여자 179명을 합하여 315명이고 초가는 18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³⁶⁾ ‘웃중문마을(上文里)의 연가는 29호이다. 남자 35명과 여자 35명을 합하여 70명이고 초가는 7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⁷⁾

34)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

中文里 東距 三十五里 民戶 一百五十四 男 三百三 女 四百三十一

35)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현지. 방리. 좌면)

中文 烟家 一百三十二戶 男 二百七十二口 女 三百五十九口 合 六百三十一 口 草家 二百間

36)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東中文 烟家 七十一戶 男 一百三十六口 女 一百七十九口 合 三百十五口 草家 一百八十間’

37)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上文 烟家 二十九戶 男 三十五口 女 三十五口 合 七十口 草家 七十間’

中文은 ‘중문’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중물’이라 하다가 한자 차용 표기로 中文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中文이라는 표기는 19세기 중후반에 ‘仲文’으로 쓰이기도 했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中文里가 커지면서 上文里, 中文里, 東中文里로 나뉘기도 하였다.

중문과 동중문의 지역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제연 냇줄기를 따라 물을 중심으로 천제연 옷소부근, 백구부근, 상여케물 부근인 앞거리 두어물을 가까이한 먼내모슬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는 저수량이 풍부한 고인물이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산내가 흐르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에 편리했다. 따라서 마을의 설촌은 뜻맞은 사람들 수십가호가 서로 모여 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이 없어 어느 성씨가 설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문마을의 형성은 예로부터 배형국이라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배의 부분 명칭이 지역 이름에 붙여져 지금도 남아 있다.

배의 이물(머리부분)은 지금의 먼내모슬에 대고 고물(배의 뒷부분)은 바다쪽을 향해서 정박(매인 배) 했는데 선장이 배의 갑실(갑실이 동산)에서 나와 횃대왓(물탱크 서쪽)에 불을 켜고 장기도루(새 중문다리 동쪽)에서 장기를 두는 형상이다.

배의 끝쪽은 작은 동산이며 치는 치돌이 동산이다. 닻줄은 중문초등학교 동쪽 200미터 지점인 닻밭에 매고 버릿줄은 버리왓(현 중문농협 하나로마트)에 매었다.

군물에 물이 많이 흘러 내리게 되면 배가 물에 떠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마을이 파동된다고 말한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다.

매인 배이기 때문에 중문사람이 외부에 나가면 활동적이지 못하고 외방 사람이 중문에서 활동하면 잘 된다고 한다.

웃중문리(上中里)라는 이름은 대정군 고지(1890년대 후반)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화전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삶을 이어갔는데 화전(火田)은 원시적 농경법의 한가지로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데 녹하지 뒤쪽 일부 움푹밭 일부와 섯단동산의 일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섯단동산(사단동)이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4·3사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장의 산간쪽에는 수십 가호가 군데군데 모여서 생활하였었는데 이 지역을 통털어 상문리라 불렀는데 중심은 섯단동산(사단동)인데 인근에는 냇줄기가 뻗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물이 고여있어 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단동 일부지역만 경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어 그속에 과거에 사람들의 주거지역임을 말해주는 대나무가 자라고 울타리를 둘렀던 많은 돌담들이 오랜 역사를 지켜주고 있다.

이 지역에 주거가 시작된 것은 매우 오랜 역사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마을의 없어진 것은 4·3사건 때 소개령이 내려지고 가까운 마을이나 친척을 찾아 흩어지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 살았던 후손들



이 지금 중문마을에 몇 가호가 함께 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대정군 좌면 上文里와 中文里를 통합하여 제주군 좌면 중문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이 되었다.

나. 대포동³⁸⁾의 설촌유래

대포동의 옛 이름은 ‘큰개’이다. ‘큰개’는 「탐라 순력도(耽羅巡歷圖)」(「한라장축(漢拏壯圖)」, 「탐라지도(耽羅地圖)」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등에 大浦村 [큰개마을], 「乾隆 56년 辛



(1791) 8월 일 대정현이정절목(大靜懸鰲正節目)」과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제주지도(濟州地圖)」 등에 大浦里 [큰개마을] 로 표기하였다. ‘큰개’에 대해서는 『제주읍지』(대정현지,방리)에 “큰개마을은 대정현 동쪽 3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75호, 남자는 105명, 여자는 193명이다.(大浦里, 東路三十五里,

38) 큰갯물지(2001),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民戶七十五, 男一百五, 女一百九十三)”, 『삼군호구가간총책』 (대정현, 좌면)에 ‘큰개’의 연가는 154호이다. 남자 326명과 여자 533명을 합쳐서 859명이고 초가는 223칸이다.(大浦,烟家一百五十四戶,男三百二十六口,女五百三十三口,合八百五十九口,草家二百二十三間).라고 하였다.

‘大浦’는 ‘큰개’의 훈독자 결합 표기이다. ‘大’는 ‘큰’의 훈독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큰개’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19세기후반에 다시 ‘大浦 [큰개]’마을로 분리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대포리(大浦리)의 일부(이때 일부는 회수리에 포함됨)를 제주군 좌면 대포리라 하였다. 1981년 중문면이 서귀포시에 포함되면서, 행정구역상 중문동에 속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오창명,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대포마을의 성씨별 족보기록을 바탕으로 대포 마을의 형성 시기를 가늠해 본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상으로는 원주 원씨가 처음 대포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 원씨 가문의 고증에 의하면, 시조로부터 14세손인 원효삼(元孝蔘;정미년 1547년생)이 조선 명종 22년(1567년)에 속칭 ‘절터왓’에 정착하였다.

선조 26년(1593년)에 임금의 소환 명령을 받았다. 대포에서 14년 동안 거주하던 원효삼은 임진왜란에 참전하가 위하여 귀향했다. 그러나 전란에 참전했던 원효삼은 1595년에 전사했다. 부인 류씨(柳氏)와 아들 원손(元遜)이 대포에 남아 영구히 정착하게 되었다.

그 근거를 추적해 보면 원효삼 자부(子婦)의 묘가 대포 북동쪽 ‘어둔마르’에 있고, 그 이후의 묘소들도 대포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음을 들 수 있다.

또 원효삼의 아들 원 손이 현재 대포 포구 북쪽 ‘절터왓’에 살다가(1580

년~1645년) 1645년 대포동 1572번지로 이주해 왔으며 원 손의 손자인 원취길(元就吉)은 8남 4녀를 낳아 부를 누리며 취락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부 이씨(古阜李氏) 가문의 고증에 따르면, 시조로부터 18세손인 이세번(李世蕃)이 중종 때 기묘사화(1519년)로 제주에 유배, 대정읍 신도리 속칭 ‘신물’에 정주하면서 가문을 번창시켰다.

임도조의 5세, 시조로부터 23세손인 이 감(李臧)이 1650년을 전후하여 대포로 건너와 대포 포구 동쪽 약 1Km정도 떨어진 속칭 ‘소동이터’에 자리를 정하고 5남을 낳아 살았다. 24세손인 이응원(李應元)의 5형제는 장성하여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중문과 회수리에 살기좋은 터가 있음을 알고 그 곳으로 이주해 갔다.

오늘날 중문의 고부 이씨 집안을 ‘갯집’(포구동네에서 이주한 이씨 집안), 회수에 거주하는 고부 이씨 집안을 ‘큰굴왓집’(동굴왓에서 이주한 이씨 집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씨 집안에서 처음 대포에 터를 잡았다는 ‘소동이터’는 지세가 험하여 내왕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농토가 척박하여 ‘동굴왓’ [東谷員]으로 옮겨 살았다고 한다. 회수는 ‘큰굴왓집’ 유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지금의 대포동 포구 북동쪽과 북쪽, 대포동 포구에 있었던 ‘큰갯물’ [大浦水]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한편 ‘동굴왓’ 남서쪽에 ‘소동이터’ [小童伊處]가 있는데, 이씨가 이 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한편 이 곳을 옛날 어린이들의 놀이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원주 원씨 뒤를 이어, 김해김씨(종손 김택춘)가 1660년 무렵에, 고부 이씨(종손 이창근)가 1679년에 각각 대포에 정착했다.

1700년대 초에는 풍천 임씨(任氏, 종손 임순학), 진주 강씨(姜氏, 종손

강성택), 평택 임씨(林氏, 종손 임장춘) 집안이 이주해 왔다.

뒤를 이어 1737년에는 김해김씨(종손 김창후), 1740년경에는 제주 고씨(종손 고계환) 집안이 대포로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다.

위의 설촌 유래는 현재의 성씨 후손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큰개’마을은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설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포 마을의 설촌을 뒷받침할 만한 고증 자료가 빈약하여 정확한 설촌 유래를 밝히기는 어렵다.

금번 대포 향토지 발간을 위한 각 성씨별 유래를 수집하여 열람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씨(元氏),이씨(李氏),김씨(金氏),임씨(任氏),강씨(姜氏),임씨(林氏),고씨(高氏) 가문에서 제출한 자료(족보)를 통하여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대포 마을의 설촌은 대략 1580년대로 추정된다.

그 밖의 성씨별 수집 자료는 입촌 내력의 연대가 늦을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고증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애매하였다.

대포 마을의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제시한 원주 원씨와 고부 이씨의 족보 자료이다.

특히 원주 원씨 14세손 원효삼이 대정읍 보성리에 거주하다가 ‘해상 교통(귀항하는 해상로)’이 편리하여 장래성을 인지하여 대포포구에 정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인가(人家)를 의지한 정착이 아니라 자연과 교통을 참작한 이주로 짐작된다.

그리고 대포라는 명칭도, 원씨 집안은 설촌 당시부터 ‘대성(大成)’의 의미로 ‘큰개(大浦)라고 불렀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

회수동³⁹⁾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하원동 서쪽으로는 색달동 남쪽은 중문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마을 동쪽에 동해방호소가 있었다.

조선조 정조시대에 대포리 거주 이씨가 처음 들어온후 50여 세대가 추가 이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갈망으로 마을 이름을 ‘도래물’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이후 1801년에는 101가구로 대촌을 이루었다.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의하면 ‘구동해소(臼東海所)/옛동호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구동해(臼東海)/옛동호, 동해촌(東海村)/동호마을’,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에 ‘도문리(道文里)/도래물마을’ 일제시대의 지도에 ‘회수리(廻水里)/도래물마을, 동회수(東廻水)/동도래물’등으로 표기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좌면)에 “도래물”의 연가는 46호이다. 남자 147명과 여자 155명을 합하여 302명이고 초가는 150칸이다. “(道文, 火因家四十六戶,男一百四十七口, 如一百五十五口. 草家一百五十間)”라고 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좌면)에 “도래물”의 연가는 46호이다. 남자 147명과 여자 155명을 합하여 302명이고 초가는 150칸이다. “(道文, 火因家四十六戶,男一百四十七口, 如一百五十五口. 草家一百五十間)”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도래물’이라고 한다. 「세종실록」(21년 윤 2월 임오), ‘동해소/동호소’의 기록과 「신동국여지승람」(권38,대정현,관방)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동호방호소’의 기록으로 볼 때 1510년에 ‘더내’(지금의 강정)에 있었던 ‘동호’방호소를 지금의 ‘회수’지경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동해(東海)는 ‘동호’(盆동호분 ‘신함,상;27’)의 음가자 결합표기로 ‘동

39) 서귀포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이'의 옛말이자 제주도 방언이다.

월평동과 강정동 사이의 냇가에 있는 '동호물'(민간에서는 '동이물'이라고 한다) 하류에 있는 개를 '동호개' 혹은 '동호물개' 라고 있는데 이 위쪽에 '동호방호소'가 있었다.

1510년에 '더내' '가내(加內)'에 있었던 동해방호소를 지금의 회수지경으로 옮기고서도 '동호방호소'라 하였고,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동호마을' '동해촌(東海村)'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의 옛 이름은 '도래물'로 불리던 샘 주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래물'이라고 하였고 한자로 회수(廻水) 또는 도문(道文)으로 표기하였다.

회(廻)는 '돌-'의 혼독자 표기, 도(道)는 '도'의 음가자표기, 수(水)는 '물, 물'의 혼독자 표기, 문(文)은 '물, 물'의 유사음 '문'의 음가자 표기이다. 도문(道文)은 좋은 뜻의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도문리(道文里)라 했으나 1910년경에 민간의 음성형을 혼독자로 표기한 회수(廻水) '도래물'로 바뀌었다.

'도래물'은 '돌아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때에 옛 대정군 좌면 회수리(廻水里)와 대포리(大浦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면 좌면 회수리(廻水里)라 하였다.

동회수(東海水)는 '동도래물'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회수' 동쪽마을을 이른다. '동도래물', '동회수(東廻水)'가 있다는데서 유래하였다.

라. 하원동⁴⁰⁾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도순동 서쪽으로는 중문동 남쪽으로는 월평동과 이웃하고

40) 하원향토지(1999),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있으며 천년고찰인 법화사와 영실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하원동의 옛이름은 居玉岳(龜岳>窟山峰>屈山峰)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岳洞(오름골)’ 혹은 ‘岳洞村(오름골마을)’이라고 하였다.



한자 표기 岳洞은 말 그대로 ‘오름골’의 한자 차용 표기이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 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이다.

18세기 중후반부터 下院里(하원리)라 하였으며 下院은 ‘알원’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19세기 중엽(1851년)부터 河院(하원)이라 하였다.

하원동의 설촌은 700여년전 법화사가 창건되었을 때 부터라고도 하는데 1408년(태종 8) 2월 정미조에 법화사 노비수가 280인이라는 사실로서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찾을 길이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그리고 성씨별 입촌사를 조사한 결과 1600년대초(350여년전)에 ‘여가빌레(呂哥磊)서쪽에 順興 安氏가 한림읍 귀덕리에서 입향하였다고 추정되며 1670년경 慶州 金氏가 대정읍 하모리에서 입향하였고 1700년경 晋州 姜氏가 강정동에서 입향하였으며 全州 李氏도 제주시에서 입향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성씨들이 본 마을에 입향하여 정착하고 있는데 1720년경 光山 金氏가 구좌읍 하도리에서 입향하였고 軍威 吳氏도 남원읍 의귀리에서 입향하였으며 忠州 池氏도 안덕면 화순리에서 입향하였다.

1760년경 海州 吳氏가 대정읍 인성리에서 입향하였고 1770년경에는 古阜 李氏가 대포리에서 입향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성씨들이 1800년대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입향하였다.

앞에 적은 하원(下院)이란 리명을 쓰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본다. 제주목 관아에서 촌락을 지역에 대한 지형이나, 목·현 등 관아의 필요에 의해서 명명되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을 이름자에 원(院)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볼 때 가까운 예로 그 당시 중문원(仲文院)이라는 역참을 중문과 회수 사이에 설치하여 목사 또는 중앙에서 파견한 “안무사”, “관찰사” 등이 지역 실정을 살필 때 쉬어가며 묵는 여관 구실을 하던 곳으로 보아서, 남사록에 보면 존자암도 역참 구실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법화사도 “법화원”이라는 명칭은 원(院)으로 일시 쓰였던데서 오는 원(院)자가 아닐까 한다.

제주목을 상으로 볼 때 산 넘어 아래쪽 “법화사”를 하원(下院)으로 보는 개념에서 하원(下院)이란 리명(里名)을 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원 이후에 중문원(仲文院)이 중문리에 개관되는데서 역참의 구실을 위한 존자암을 상원, 법화원을 하원(下院)으로 하는 방향에 따른 구분으로서 아래 하(下)자를 쓰고 역참 구실하는 원(院)자를 붙여 “下院”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한다.

“雍正 午年下院里 鄉徒坐目”(西紀 1727年)

“옹정 오년하원리 향도좌목”

이 자료의 내용중에 하원리(下院里)라는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마을 이름을 찾는 기록중에서 가장 오랜 사실이 되며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조들의 이름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에는 이름 밑에 우일수, 청주일본 정목일필 등의 기록으로 보아서 어떤 제의(祭儀)에 쓰일 물품을 부담하여 제공한 것을 년차순으로 기록하

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강부웅(姜富雄) 강씨 입향조(큰산목묘)

김최량(金最良) 광산김씨 비드르물묘

김운회(金運灰) 김최량의 子

이 우(李 雨) 전주이씨 입향조(색달)

안일제(安日第) 하원 호적중초 1권 631쪽

제9통 3호의 안종구(安宗丘)의 祖父

조세강(趙世江) 호적 중초 1권 68쪽 조인태의 부, 남원

현도웅(玄道雄) 현귀현의 부. 67세 함덕 중초 1권 89쪽

“용정 12년 8월 좌목”에는 전장의 설명 자료후 7년이 지난 기록인데 연호다음에 리명은 없고 주민의 서열이 바뀌고 제외된 이름과 추가된 이름이 사이사이에 끼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볼 때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 순력에서 없던 “하원(下院)”이 25년이 지난후에 처음 기록됨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의현과 대정현과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마을로써 도보 또는 말로 행차하는데 필요한 역참으로서의 위치와 법화사가 그 역참으로의 역할을 잠시나마 했다는데서 오는 “원(院)”자가 들어간 마을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이 형성되어진 근원은 무엇이었나를 볼 때 법화사, 동해방호소, 구산봉대, 점마청, 법화과원 등의 사찰 및 군 주둔지, 군사시설이 되는 봉수대, 팔소장과 연계되는 점마청 등의 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사람이 모여살게 되는 근원이 아니었나 추론해본다.

사실 기록으로 서기1408년(태종 8) 2월의 정미조 실록에 보면 법화사 노비수가 280人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승려의 수도 그에 비례하여 많았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이때에는 하원마을 전 지역이 법화사의 둔전일 가능성이 높다.

태종의 윤허로서 법화사 노비를 30人만 빼고 모두 둔전에 사역하거나, 군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들이 갈곳이 대부분이 법화

사를 중심으로해서 흠어져 살아왔다고 보아진다.

또한 연대와 세기가 바뀌어 구산봉대 뒷 기슭에 동해 방호소가 가내에서 이전해 설치하면서 군주둔지로서 발전하는데 따라 군역에 종사하는 인원과 그 가족들이 방호소 주위에 정착하여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구산봉수대는 군 작전상 그 시대에 있어 중요한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이 모이게 되었으며 구산봉대 앞에 악동(岳洞)이란 마을이름이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표시되고 있다.(1702년)

이렇게 볼 때 고려말, 이조초기에는 법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 마을형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조시대에 와서는 사찰이 쇠함에 따라 사찰주위는 “법화원”이라는 과원을 개설하여 공납하도록 하는 관이 관리하는 과원이 생겨나게 되고, 법화사 남측에 점마청이 개설되어 팔소장에서 생산되는 우마를 점마하는 관청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법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마청이 인근 거리의 위치에 있으며 동해 방호소가 점마청과 인접한 거리이며, 그 앞에 구산봉수대가 있어서 우마의 생산관리하는 팔소장, 점마청과 연계됨을 볼 수 있다.

또 그에 가까이 방호소, 봉수대 등 사람이 모여서 되는 시설 등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촌락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하면서 초기 촌락형성의 기초가 되고, 점차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촌락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는 시기가 1600년대로 보아진다.

서기 1851년부터는 “하원리(下院里)”가 하원(河源)으로 마을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시대부터 우리마을이 반촌(班村), 문촌(文村)으로 변모하는 시대적 전환기로 볼 수 있다.

하원리 호적중초의 기록에 보면 이름앞에 쓰는 직함이 그 이전(1850년)에는 무관이 대다수를 점하다가 1850년 이후 부터는 문직, 향교직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원리의 “하”자는 글자자체가 ‘아래’, ‘중심에서 떨어진 곳’등의 뜻을 지녔고, “원(院)”자는 1850년 되고서는 역참구실에서 벗어났으며 사찰도 쇠하여서 “원(院)”의 의미가 없어지므로서, 마을의 뜻있는 어른들께서 법화샘과 원두물의 뜻을 담아 음을 같이 하면서 뜻을 고쳐 하원(河源)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대천동

법률 제 3425호(1981.4.13 공포)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강정동(구. 강정리), 용흥동(구. 용흥리), 도순동(구. 도순리), 월평동(구. 월평리), 영남동(구.



영남리)등 5개마을을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대천동의 대천(大川)은 강정천의 큰내(大川)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큰내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대정현. 산천)에 加內大川(더내큰내), 『탐라지』(대정현. 산천)에는 大加來川(큰덜랫내), 『탐라지도』와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는 大加內川(큰더넛내)로 표기되어 있고 오늘날 지도에는 道順川(도순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가. 강정동⁴¹⁾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법환동 서쪽으로는 월평동 북쪽은 도순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용천수가 많아 예전에는 벼농사를 지었으며 지금은 강정천 수원지가 서귀포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다.



강정동에 언제 설촌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700여년전 또는 400여년전에 ‘아끈내’ 상류의 ‘소왕이물(沼旺水)’ 동쪽 ‘고상머들’ 또는 ‘더넛동네’ 일대에 金海金氏, 濟州高氏, 坡平尹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했다고 하는데 이동네에 한때 瑞息病(서식병)이 번져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침을 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결국 고상머들 동네에 살던 선인들이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의 강정동네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정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현재의 강정동네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은 강정동을 가래현 또는 가래촌으로 불리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강정동 4264번지는 예부터 속칭 ‘대궐터’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지금도 옛 건물의 유편으로 보이는 기와조각과 이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 대리석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강정동이 가래현(村)으로 불리었던 시대는 서기 1300년(충렬왕 26)이전으로 보아지며 속칭 대궐터에서 발견되는 유편들은 옛 가래현 청사의 자취가 아니면 옛 탐라국왕(또는 성주)의 별관이 세워졌던 자취인

41) 강정향토지(1996),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래현(村) 당시의 선인들이 현재의 강정동민의 조상이었느냐 하는 점은 분명치 않으며 오랜 옛 적부터 강정마을이 계속적으로 존속하였느냐 하는 데에도 많은 의문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강정동 인근에 묘가 모셔지고 있는 각 성씨별 강정입주최 선대 조상들이 현 후손들로부터 10~13대의 조상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후 姜氏, 趙氏 洪氏 李氏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강정마을 주변에는 ‘정의논’ 일대(마을 서남쪽부분)에 기원전 200년경쯤에 옛 마을이 들어서 있었고 확인되는 유물로 보아 이 옛 마을은 점차 ‘앞물’ 일대로 주거지역을 이동하였던 것 같다.

「대정현지(大靜懸志)」,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좌면 강정마을(江汀里)은 동쪽 거리가 47리(里)이다. 민호(民戶)는 96가구이다. 남자는 190명이고 여자는 257명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강정마을(江汀里)에 대해서 대정현에서의 거리와 민호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비로소 행정적인 마을에 관한 파악과 실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것이다.

고지도(古地圖) 「탐라지도병서」에 의하면, 소가래천(小加來川)·대가래천(大加來川)의 동쪽에는 새수촌(塞水村)이 있으며, 북동쪽에는 고둔촌(羔屯村)과 고둔과원(羔屯果園)이 있다. 그리고 소가래천·대가래천의 서쪽에는 강정포(江汀浦)와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제주삼현도(1),(2)」에도, 「탐라지도병서」와 마찬가지로 새수촌(塞水村), 고둔촌(羔屯村), 고둔과원(羔屯果園), 소가래천(小加來川), 대가래천(大加來川), 강정포(江汀浦),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통 리(里)는 25호(戶) 이상일 때 붙이고 25호(戶) 미만일때는 촌(村)으로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강정 마을은 그 이전에는 25호(戶)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1709년 이전에는 강정촌으로 부르다가 25호(戶) 이상이 되자 강정마을(江汀里)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소가래천(小加來川)·대가래천(大加來川)의 남서쪽에 강정마을(江汀里)이 나타나며, 소가래천·대가래천의 동북쪽에는 고둔(羔屯)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건륭 60년(1795) 5월 일 강정리 을묘식 호구단자(乾隆 六十年(1795) 五月 日 江汀里 乙卯式 戶口單子)」에 의하여 볼때도 강정마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신라때부터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14개 현촌(懸村)이 형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조선 시대에는 17개 현촌(懸村)이 형성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17개 현촌(懸村)을 삼읍(三邑)에 분속시켰으며 강정은 대정현 좌면에 속하게 되었다.

강정마을은 먼저 세종 21년(1439)에 동해방호소(가내관방)가 설치되었다. 이 동해방호소에는 마·보병 군인이 56명 있었다. 이런 군사 방어시설인 동해방호소의 주위에는 촌락이 형성되어, 강정 마을을 이루는 기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동해방호소는 1510년(중종 5)에 현동쪽 45리인 현재 회수동 지경으로 옮겨졌다.

1709년의 고지도상에도 새수촌(塞水村), 고둔촌(羔屯村),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촌(村)이 강정마을(江汀里)로 발전 및 형성되어 갔음을 지리지(地理志)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통해서 명확히 파악되었다.

즉 문헌 기록상의 강정마을 최초기록은 세종 21년(1439)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나. 용흥동⁴²⁾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신시가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도순동 남쪽으로는 강정동과 이웃하고 일주도로에 접하고 있는 마을이다.

용흥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 윤시번(尹時蕃)이 처음 입주하면서 설촌 되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내팻- 내밖(川外)’이라 불리어 졌으며 전설에 따르면 설촌 당시 유명한 지관을 찾아 마을의 지세를 살피게 한 즉 남쪽과 북쪽이 매우 험하여 남쪽에는 팽나무, 북쪽에는 천년송(소나무)를 심으라 하여 마치 닭의 우리모양 아늑한 마을로 가꾸어 오다가 소나무는 후대에 벌목하여 배를 지어 바다로 떠났다가 수신(水神)의 동티를 얻어 급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⁴³⁾

『탐라지』(대정현. 과원), 『탐라순력도』(한라장축), 『제주읍지』(대정현 지도) 등에 ‘고둔(羔屯)/염둔. 염돈,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고둔촌(羔屯村)/염둔마을, 『대정군지도』에 ‘영남리(瀛南里), 월산동(月山洞)/월산골, 고둔(羔屯)/염둔, 궁산동(弓山洞)/활오름골, 세초지(細草旨)/세초마르, 기목동(機木洞)/틀남골’ 등으로 표기하였다.

고둔(羔屯)은 ‘염둔, 염돈’의 차자 표기로 원래 염둔과원이 있었다.

영남(瀛南)은 한라산을 일컫는 영주산(瀛洲山)의 영(瀛)과 남쪽을 뜻하는 남(南)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이름이다.

42)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6), 서귀포시지(2001)

43)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32(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19세기 중반에 ‘염둔.고둔(燕屯), 내팻/용흥리(龍興里), 종복이왓/월산동(月山洞), 서치마르, 활오름/궁산동(弓山洞), 틀남밧/기목동(機木洞) 등으로 부르던 중산간 마을을 합쳐서 영남리라 하였으며 한 동안은 마을 이름을 신흥동(新興洞)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18세기 말의 『제주읍지』에는 강정리와 도순리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행정상으로 강정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3사건때 소개령에 의하여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강정리로 내려와 살았으며 4.3사건이 진압됨에 따라 박두평(朴斗平)씨에 의해 1953년부터 ‘내팻’ 내외 지역에 마을을 재건하면서 현재의 마을로 복귀하여 용흥리(龍興里)라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 용광리(龍光里), 용흥리(龍興里), 영남리(瀛南里)로 바뀌기도 하다가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하면서 대천동에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도순동⁴⁴⁾의 설촌유래

도순동은 서귀포 시가지에서 8km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용흥동, 남쪽은 강정동, 서남쪽은 월평동, 서쪽은 하원동과 이웃하며 동쪽 옆으로 강정천이 흐르고 마을 북쪽에는 녹나무 자생지가 있으며 현재 복원사업과 함께 보호수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도순동의 설촌은 740여년전 속칭 ‘쇠태왓’에서 발견되는 기왓장이 고려

44)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후기에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법화사에서 사용될 기와 등을 구운 가마터로 추정되어 1269년(고려 원종 10)이후에 자연 마을이 설촌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다른 구전은 600여년전 ‘돌송이’ 일대에 利川 徐氏, 全州 李氏, 古阜 李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든믈 고지세’ 일대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며 일찍부터 ‘돌송이’ 또는 ‘돌생이’로 불려왔고 한자 차용 표기로 石宋.石宋(돌송이) 등으로 표기해 왔다.

石(석)은 ‘돌’의 훈독자 표기이고 石(돌)은 ‘돌’의 음독자 표기이며 석을(石乙)도 ‘돌’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宋(송)은 ‘송’의 음가자 표기이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는 ‘石宋(돌송이)’,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는 ‘石宋里(돌송이 ㅁ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는 石宋村(돌송이 ㅁ을), 19세기의 고문서와 주변의 비석에는 石宋員(돌송이),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道順里(도순ㅁ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는 ‘道順里, 古旨洞(고지세)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⁴⁵⁾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는 ‘돌송이 ㅁ을은 대정현 동쪽 4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1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34명이다.⁴⁶⁾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도순의 연가는 123호이다. 남자 231명과 여자 328명을 합하여 559명이고 초가는 172칸이다.⁴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돌송이’의 한자 표기인 石宋. 石宋의 표기가 조금 천박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1858년)에 이르러서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道順(도순)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함풍 팔년 무자식 정월 일 대정현 도순리 호적중초(咸豐 八

45) 서귀포시지 상권 P. 286 (2001. 7. 1) 서귀포시

46)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

‘石宋里 東距 四十五里 民戶 五十一 男 九十 女 一百三十四’

47)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道順 烟家 一百二十三戶 男 二百三十一 女 三百二十八 合 五百五十九口 草家 一百七十二間’

年 戊子式 正月 日 大靜縣 道順里 戶籍中草)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1858년(고종 9) 1월 이전에 호적중초에는 𣎵宋里(돌송리)로 표기 하였지만 1858년 1월 이후의 호적중초에는 道順里(도순리)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월평마을이 오랫동안 도순 마을에 속해 있었는데 1861년(철종 12)에 와서 분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도순동은 행정적으로 대천동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월평동⁴⁸⁾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강정동 서쪽은 대포동 북쪽은 하원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월평동의 옛 이름은 ‘큰벵디’ 또는 ‘드벵디’라고 한다. 월평은 18세기 이전의 고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9세기 중.후반의 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부터 독립된 행정마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강정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후반의 『제주삼읍전도』에는 大坪里(큰벵디마을), 19세기 말 문헌인 『제주군읍지』(제주지도)와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 등에는 月坪里(들벵디마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 ‘月坪里(월평리), 潺

48) 월평향토지(1992),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洞(잔굴.잔굴) 등으로 표기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들벵디의 연가는 48호이다. 남자 88명과 여자 113명을 합하여 201명이고 초가는 90칸이다.⁴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들벵디. 들벵디’라고 부른다. 한자 표기 月坪은 고유어 ‘들벵디’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月은 ‘들’의 훈독자 표기이고 坪은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 ‘벵디. 벵디’의 음가자 표기로 둘째 음절 ‘디. 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월평동의 설촌시기는 서기 1854년(철종 5. 갑인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부이씨(古阜李氏)들이 설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부 이씨들이 월평마을에서 가정 오래 거주해온 성씨중의 하나이며 그들의 입촌시기(入村時機)가 갑인년(甲寅年)과 유사하다는 데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설촌은 어느 한 성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고부 이씨들이 설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고부 이씨들과 함께 월평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나 그 이전부터 월평지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고부 이씨와 함께 월평동 설촌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개별 가구들의 거주연한 등을 조사해 보면 마을이 설촌되었다고 생각되는 갑인년 이전에도 월평동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에는 개별 가구들이 현재의 월평마을과 무그래메, 존골, 동물개 등에 독가로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가구수가 적고 분산되어 있어 마을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부 이씨들과 다른 성씨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이후에 비로소 마을의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고부 이씨들은 마을에 들어와 서바틀(西

49)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月坪 烟家 四十八戶 男 八十八口 女 一百十三口 合 二百一口 草家 九十間

半月)일대를 모두 차지하였으며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마을이 설촌된 해라고 생각되는 갑인년은 지금부터 139년전인 서기 1854년인 것 같다. 월평마을의 도갑에 보관되어있는 호적중초로는 지금부터 101년전인 서기1891년(광서(光緒) 17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도순리(道順里) 도갑에는 지금부터 131년전인 서기1861년(함풍(咸豐)11년)의 월평리 호적중초가 보관되어 있다.(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월평리 호적중초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그리고 서기1855년(함풍 5년)의 도순리 호적중초에는 함풍 11년 월평리 호적중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서기1861년(함풍 11년)에 월평마을이 도순리로부터 분리 되었음을 의미한다.(월평리 호적중초가 도순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도 월평이 원래 도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2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고부 이씨들과 여타의 성씨들이 월평으로 이주한 것은 갑인년이며 그들의 이주를 계기로 2~3년 뒤에 월평마을이 도순으로부터 분리, 설촌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부 이씨들이 도순에서 월평으로 이주할 때에 숙질간이 이주했다고 구전된다. 호적중초를 통해 살펴보면 이 숙질은 종욱(宗旭)과 경실(慶實)이다.

숙부인 종욱은 경실보다 나이가 5살 아래였으며 월평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다시 도순으로 돌아간 듯 하다. 그리고 경실도 이주 당시에 이미 나이가 60이나 되어 실질적인 설촌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설촌이 이루어진 것은 경실의 아들대에서다. 경실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으며 그들은 각각 혁빈(赫彬), 중빈(仲彬), 향빈(恒彬)이다.

이중 중빈(仲彬)이 이주 당시에 도순에 남아 있었으며 월평으로 오지 않았다.

장남인 혁빈(赫彬)은 이주는 함께 하였으며 자식 세대까지는 월평에 살았으나 그 이후에 다시 도순으로 돌아가 현재 월평에는 그의 후손 두 가구만 살고 있을 뿐이다.

고부 이씨들에 의해 실제적인 설촌 조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항빈(恒彬)(제주 입도조인 世蕃의 11세손)이다. 별도 하루방이라고도 지칭되는 그는 월평에 이주한 뒤 마을설립에 노력하다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

과거에서 낙방한 그는 월평으로 돌아왔으며 묘소는 상예리(上猊里)의 서별지(西別池) 북쪽에 있다.

현재 월평에 거주하고 있는 고부 이씨는 대부분 그의 후손이다.

지금부터 130~140년전에 사람들이 월평마을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생산기술의 발달이라는 이유가 있다.

원래 월평마을의 토지는 수분 함유량이 많고 찰흙에 가까워 밭농사로는 부적당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설촌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월평지경에 살던 사람들은 농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동물개 부근에 살면서 어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0년 이전까지 밭에서 조 등만 재배하던 시절에 월평마을의 토지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월평에는 역기왓이 많았다. 역기왓은 역기라는 풀이 자라는 밭이라는 의미로서 늪지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역기왓은 밭농사가 안되는 황무지라는 의미이다. 이 역기왓을 이용하여 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기술이 발달되면서 월평마을에도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부터 월평마을의 토지는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토지로 평가되었다.

고부 이씨들이 도순에서 이주하여 온 시기에 함께 도순에서 월평으로 이주해온 성씨로는 晋州 姜氏, 豊川 任氏, 光州 金氏, 金海 金氏 등이 있다.

함풍 11년의 월평리 호적중초에 있는 나머지 성씨들 즉, 진주 강씨, 함덕 현씨, 김해 김씨, 제주 고씨, 옥구 송씨 등은 그 이전부터 월평지경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거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인 것으로 짐

작된다.

이렇게 월평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처의 거주지로 남자들이 이주하여 온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구전된 바에 따르면 안씨 또는 현씨가 가장 먼저 월평지경에서 살았다고 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월평동은 마을의 형성 초기부터 주위의 마을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마을의 구성원들이 하원,도순에서부터 이주하여 왔을 뿐 아니라 강정과는 유사한 생계방식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월평동과 주위의 세 마을 사이의 관계성은 당 본풀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용준이 채록한 하원당 본풀이에 의하면 (현용준 1980:758-9) 제석 천왕과 신전이 서로 먹는 음식으로 형, 아우를 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돼지고기를 먹는 신전은 동생이 되어 월평,강정을 차지하고, 제석 천왕은 형이 되어 하원,도순을 차지하였다.

이는 양 지역의 생계방식에서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월평과 강정의 본향신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보아 목축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원과 도순의 본향신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경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하원과 도순은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이며 강정과 월평은 해안마을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생계방식의 차이가 본향신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월평동은 마을 형성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독립된 마을로 인정되지 못하고 도순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도순에서 월평동의 호구단자가 발견된다는 사실과 월평동에서 보관되고 있는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주신문 1989년 1월 19일자 4Page에는 월평동에서 발견된 등장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그 등장에 의하면 월평동은 매년 특산물로 육지부 특

산물과 바다 특산물을 모두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지리적으로 바다에 인접한 월평동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 특산물을 바쳐야 했고 중산간인 도순의 일부로 간주됨으로써 동시에 육지산물의 특산품을 바쳐야 했었다.

월평동이 오늘날과 같은 마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4.3항쟁(1948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월평동 주위에 소규모의 자연 마을들이 여럿 있었으며 월평동은 지금보다 마을 규모가 작았다. 즉 월평과 도순 사이에는 준골이 있었고 월평의 선창인 동물개에도 사람이 거주했었다,

그러던 것이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에 성(城)을 쌓게 되고 주위의 소규모 마을들은 모두 소개하여 마을 안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월평동은 비로소 현재와 같은 규모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14년에 대정군 좌면 월평리와 하원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좌면 월평리라 하였고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대천동 소속이 되었다.

마. 영남동의 설촌유래

영남동은 행정구역상 현재 강정동에 속해 있지만 토지의 지번은 영남리로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린 마을의 자취를 확인해 주고 있다.⁵⁰⁾

영남마을 안에서 보면



50)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1998) 활림사

서남쪽은 도순 녹차공장이며 북쪽으로는 어점이악이 동남쪽으로는 고근산이 있고 그 고근산과 겹쳐져서 범섬이 보인다.

이 영남 마을에는 현재 전씨 노인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30여년을 살고 있지만 4·3사건이 있기 전 마을이 융성했을 때는 50여호가 넘는 작지않은 마을이었다.

영남마을은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없어서 설촌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당초에 영남마을 위쪽으로 몇 호씩 흩어져서 화전을 일구어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마을로 모여들었다.

영남마을 출신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에 설촌되었다고 한다.

영남동이라는 지명은 대정현이 있을 당시(조선중엽) 대정현에서 마을이름을 적어 올리라고 하므로 마을의 촌로중에 한학을 한 사람이 ‘영남(瀛南)’이라는 마을이름을 지어 올렸으며, 그 이후로는 기록에 영남이라고 적고 있다.

기록에 영남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1898년에 있었던 ‘방성철의 난’이다.

화전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이 민란에 영남마을 사람들도 참여를 했다.

일제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영남동은 일제초기부터 하나의 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있었던 범정사 항일운동 당시의 재판기록에도 영남리가 나오며 특히 192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생활상태조사:제주도」에도 중문면을 11개리로 나누면서 영남을 하나의 행정리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리명은 일제의 패망시까지도 변동없이 통용되었다.

4·3사건 당시의 마을의 상황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버려서 1948년 8월경에는 16호에 인구 92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이장은 김창현씨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이 난다.

영남동에 대한 소개령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음력 10월 20일 경에 마을이 불탔다는 것이다. 4·3사건을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폐촌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 피의 희생으로 대가 끊어져버린 집안도 많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유년기의 아동들이었기에 고아로 자랐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도순,법환 등지로 한두명씩 흩어져서 살았다. 현재는 1970년경 육지부에서 들어온 전씨가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3. 예래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상예동(구. 상예리)과 하예동(구. 하예리), 색달동(구. 색달리)등 구3개리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가. 상예동·하예동⁵¹⁾의 설촌유래

동쪽으로 중문동 서쪽으로는 군산봉 북쪽은 색달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현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예래마을은 약2천년전 해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서가 깊은 마을이다. 고인돌·바위그늘집자리·유물산포지 등 청동기 시대의 선사 유적은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적석시설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중 뗏돌방아 노래 한 구절에 “열내당개 여배나 들라 칠(七)성같이 벌려 진권당 담월같이 다모다드령 먼데객당 매마저보라” 즉, 열내당개에 왜놈



의 배가 드러오기만 해보아라 도내 각처에 사는 도민(내외친척인권당)이 몰려와서 왜놈무리를 격퇴하겠다는 부녀자까지 단결된 도민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써 임진란 이전 왜놈들이 우리나라 변방을 침공하던 시절 노래인듯하며, 열내당개가 그 옛날 탐라국(제주도)과 당나라간에 무역하던 천연 양항(良港)으로 (현재도 좋은 어항(漁港)이지만) 추측되는 것은 唐書,東夷傳 耽羅條에

51) 예래동지(1993), 예래생태마을(2007),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唐高宗,龍朔初年(西紀 661年) 탐라국주유 이도라(耽羅國主儒 李道羅)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입조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열내는 1,300년에 이미 부락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고려중엽 삼별초군(高麗中葉 三別抄軍)이 제주에서 패하니 원(元)나라가 제주를 100년간 점령(占領)하여 목장십개소장(牧馬十個所場)을 설치(設置)하여 원본국(元本國)에 군마(軍馬)를 진상할 적에 말길(당캐에서 화순쪽으로



가는 옛길)을 통하여 당캐로 반출하였다 하며, 탐라지에 보면 1300년(고려 충렬왕 26年) 안무사 오식(按撫使吳湜)이 제주에 부임하여 동서도 십사현(東西道 十四縣)을 두었는데 그 중 일현이 예래현(猊來縣)이니 그 규모와 영역이 지금의 읍면(邑面)정도일 것으로 보며 지금의 소남집터가 현청터이고, 주위에



창고왓 솔대왓(소매왓) 병막(兵幕) 등이 당시 기관의 터이라고 전하여 오고있는데, 거문절(東寺) 서절터(西寺)등도 당시 불교가 성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며, 그후 서기1405년(李朝 太宗5年) 현제(縣制)를 폐지하고 제주, 정의, 대정 3군(郡)으로 개편하니 예래(猊來)는 대정군 관할로 들어가고 대정현쪽에 살던 소남집 임씨(任氏)선조 소유지에 군청을 설치하고 대신 현청터는 주택에 주어

서 즉, 교환하였다 한다.

그러나 군청이 이동함에 따라 관속부차를 비롯한 관계 부민들이 따라가고, 또 다른 환경이 불리하였음인지 각기 분산하여 차차 부락이 없어진 것 같다.

예래동의 설촌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참고문헌은 찾을 수가 없으나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처음 설촌은 현재 마을의 동쪽이며 城山岳(속칭 자스름 동산) 동남쪽 속칭 ‘남바치’에 울담과 기왓장, 노리물과 전신당, 晩芝沙(만지사)와 근이술에 울담과 대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지사, 남바치’ 등에 사람들이 살다가 현위치로 옮겨 설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⁵²⁾

그후 서기 1,600년경 강윤원씨(姜允元(예래동 설립시조, 만지세좌수)이 지금의 상예동(上猊洞)에 입주하고 같은 년대에 경주인(慶州人), 김익공(金諡公), 김행연(金行鍊), 선세(先世)가 명월(明月)에서 지금의 하예동(下猊洞) 앞테속골에 입주한 다음 임정립공(任正立公)이 강택(姜宅)에 입취(入娶)하여 200년간 폐허였던 현청터(지금 소남집터)에 입주하고, 다음 강위보공(姜渭輔公 괴앗집 선조)이 임택(任宅)에 입취입주하고, 다음 김오(金吳), 이양진(李梁秦), 고성정(高成丁), 나장현(羅張玄), 명택(名宅)이 차차 입주하니 대촌(大村)이 되고, 서기 1,750년대에 상예(上猊), 하예(下猊)로 분리되고, 1873년에 당포(唐浦)는 안덕면 대평리(安德面大坪里)로 편입되었으며 1981년 색달(穢達)을 포함한 예래동(猊來洞)으로써 서귀포시(西歸浦市) 12개동 중의 하나가 되었다.

숙종초 예래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申命圭’의 ‘默齋記(묵재기)’에는 예래를 ‘延來村(연래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猊”字의 한자를 里名에 쓴 것은 년대가 미상하나 ‘猊來’를 ‘열리’로 발음하는 것은 來 ‘ㄹ’이 ‘猊’에 합음되어 ‘열’로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猊來(예래)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붙여졌을까 ?

열내당캐는 1,300년전이고 猊來縣(예래현)이라는 글자는 680년전이니

52)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48 (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아마도 이때쯤에 里名으로 붙여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풍수지리설로 보아 어떤 고승(高僧)이 지나다가 마을 이름을 물어보니 열내라고 하였다.(이때까지도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내, 물, 산, 개 등이 많이 쓰여져 주위에 창고내, 벼내, 버린내, 중물(후에 중문), 도래물 등으로 미루어 보면 열내가 맞을 것이다.

즉 창고내와 상대적으로 바다쪽으로 열려진 내 일수 있기 때문에 고승(高僧)은 한참 생각하다가 열내를 한자로 직역하면 개천(開川)이니 말음상 구정물 흐르는 개천이 될 것임을 감득하였음인지 “열내를 그대로 두면 병(病)이 많겠다. 서북쪽 군산상봉(軍山上峰)이 사자형상(獅子形狀)이므로 동남쪽에 보이는 호도(虎島)의 범기운을 막을 수 있으니 열내의 원음(原音)에도 가까운 예래(猓來)라고 하면 병(病)이 없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그대로 되었다 하며 호도(虎島)는 예래(猓來)에서 볼 때 우형(牛形)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소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 속칭 불래낭소 부근에서 4~6세기전 유물이 발굴되기도 하였고, 속칭 빌레거리에서 자기가 출토되었으며, 속칭 남맞치 부근에서 불상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런점을 토대로 해서 추정해 보면 4~6세기전에 설촌(設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색달동⁵³⁾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회수동 남쪽으로는 중문동 서남쪽에 예래동과 이웃하고 있는 마을이다. 색달동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옛 문헌들을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전 속칭 ‘막은골’이라는곳에 光山 金氏가 처음으로 거주하면서부터 설촌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望巢鷄(망소계)에 金海 金氏가 정착하였고 후에 앞밭이라는 곳에는 慶州 金氏가 군남캐에는 晉州 姜氏와 軍威吳氏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

53) 색달향토지(1996),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고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하며 마을 이름도 처음에는 塞達(색달)이라 부르던 것이 후에 와서 穡達里(색달리)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본동, 군남동 천서동의 3개 동네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⁵⁴⁾



색달동의 옛 이름은 ‘막은다리, 막은골’인데 한자 표기로 塞達(색달)이라 하다가 19세기 중반경에 穡達(색달)로 바뀌었다.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塞達川(색달천)/막은다릿내’,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塞達村(색달촌)/막은다리마을’, 『호구총수』(대정현. 좌면)에 ‘색달리(塞達里)/막은다리마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穡達里(색달리)/색달마을’, 일제시대의 지도에도 ‘穡達里(색달리)/색달마을, 牛步岳洞(우보악동)/우보악오름마을, 川西洞(천서동)/넛새왓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 ‘막은다리마을은 대정현 동쪽 3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37호 남자는 85명 여자는 74명이다.’⁵⁵⁾

『제주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 ‘색달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105명과 여자 215명을 합하여 320명이고 초가는 103칸이다.’⁵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색달마을 경내에 살기 시작한 것은 예래현의 설치보다 1,2백년 전 쯤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은 ‘들렁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고 색달동 2610번지에는 기왓장 조각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54)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46(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55)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 ‘塞達里 東距 三十里 民戶 三十七 男 八十五 女 七十四’

56) 제주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穡達 烟家 一百十戶 男 一百五十口 女 二百十五口 合 三百二十口 草家 一百三間’

이 근방은 ‘주승케’라 부르는데 主僧(주승)이라 함은 곧 승려를 말함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 곳이 절터가 아니었던가 추측해 보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유감이다.

이 주승케에서 조금 남쪽으로 간 곳의 지명을 ‘절왓’이라 부르는데 지명이 생긴 연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며 ‘절왓’이란 절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신당(堂)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옛사람들은 정착하여 살게 되면 으레 신당을 설치하였다.

사람이 부족한 힘을 신에게 의지하려는 의존심이다. 즉 신이 있고 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당의 역사는 아주 오래인듯하다. 옛 어른들 시대부터 누가 언제 설치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고 마을이 생기면서 설치된 아주 오랜 당이라 여겨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주승케 근방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에 개여물과 감수물 등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물이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바닷가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구의 침입도 손쉽게 않았으리라 믿어진다.

1730년대 호조참판(戶曹參判) 김명현씨가 호근리에서 주승케 고(高)씨 문중으로 장가들고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 때에도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명현씨가 사망한 후 셋째아들이 이 곳을 떠나므로써 이곳의 거주 역사는 일시적이거나 중단되었다가 1850년대 장씨 등이 감수동에 입주하여 움으로써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600년대에 유지남드르(생수물 북쪽)에 사람들이 입주해 왔다.

이 때부터 신작로 남쪽인 주승케를 알색달리라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일주도로 남쪽에서 일주도로 북쪽으로 주거지가 옮겨진 셈이다.

유지남드르에도 몇 호가 살았는지는 모르나 그 곳이 밭들이 작게 조밀한 것으로 보아 7,8호가 거주하지 않았나 여겨지지만 이 역시 수수께끼이다.

그렇다면 김해김씨(金海金氏) 김진업(金振業 金東好의 11代祖)씨가 유

지남드르에(1690년) 입주하기 전의 적어도 5,6백년의 색달마을의 주거 역사는 사료를 발굴하지 못하여 그 내력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에 이른다.

1690년이후의 주거 역사이나마 이를 조명해 보고 발전과정과 애환 서린 조상들의 생활상을 밝혀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마을발전의 귀감으로 삼는 길이 될 것이다.

1300년(충렬왕 26) 제주에 14현을 두었을 때 주민들은 한 곳에 집단 거주하지 않고 소수의 호수가 흩어져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색달마을 경내에도 다수의 호수가 거주하였고 촌(村)이란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색달마을을 색달촌(塞達村)으로 불렀을 것이고 즉 예래현 색달촌이다. 색달(塞達)로 마을 이름이 붙여진 연유는 알 수가 없으며 처음에 주승케 근방을 막은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왜 막은골이라 불렀는지 문헌도 없고 전해오는 이야기도 없어 예측하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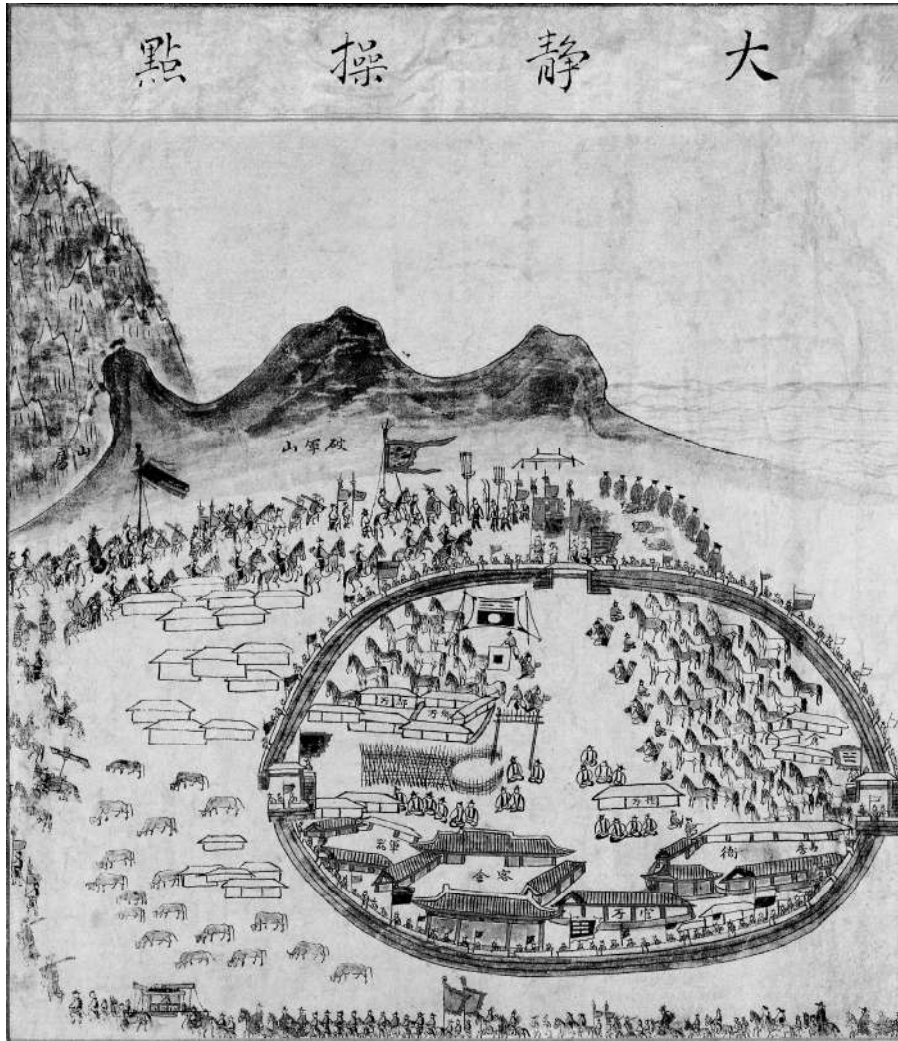
막은골의 글자 색임에 의해서 막을색(塞)자를 써서 색달촌이란(塞達村)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색달이란 마을이름이 붙여진 과정을 추정해 보면 1200년대부터 제주연안에 왜구들이 침입이 잦아 제주 사람들에게 인명과 재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 색달마을 해안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구가 침입하여 상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어서 왜구의 침입이 드문 듯하다. 그래서 이곳을 막은골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마을 이름이 막을 색(塞) 색달에서 거들 색(穡)자 색달리로 바뀐 원인은 기록도 없고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도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추측하기로는 마을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 글자를 바꾸는 것은 주민의 소원에 의해서 관청에서 승인되어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마을에서 막을 색(塞)자를 쓰면 마을의 발전을 막는다해서 풍요로움을 거둘 수 있는 거들 색(穡)자로 고쳐 쓰겠다는 것을 대정현감에 소원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시기에 김해 김씨 입촌조 김진업(金振業)의 7대조인 김성태(金成兌)씨가 대정현 형방(刑房)직에 재직한 시기로 보아 이 어른이 마을이름

글자를 바꿀 것을 현감에 소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 대 정 읍



대정읍(大靜邑)

대정읍의 동쪽은 안덕면 서광·덕수·사계리와 접하고 서쪽과 남쪽은 바다이며 북쪽은 제주시 한경면과 경계를 이룬다.

대정읍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⁵⁷⁾



이를 살펴보면

- 해안사람 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가 상모리 및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1만 5천년전의 구석기인이 생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하모리 유물 산포지, 가파도 유물 산포지 및 패총 등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상모리 유물 산포지 및 패총 등은 BC 500년 ~ 기원전후의 유적들이며
- 통일리·일파리·하모리·신도리 고인돌, 가파도 고인돌군(群)등은 탐라형성기인 BC 200년 ~ AD 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대정읍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57) 남제주군지 1권 P.444~445, P.453~467, 남제주군 2006. 강창화, 서귀포문화원 2008.
10.20지방문화 발전 세미나 자료. 남제주 문화유적 P.10, 남제주문화원 2007

고내(高內), 애월(涯月), 광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猥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산방현이 오늘날 대정읍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대정현에는 예래현, 산방현, 차귀현을 예속시켰으니 대정읍 지역은 대정현 관할이었다. 이에 따라 대정읍은 옛 대정현 읍성이 있었던 중심 고장이기도 하다.

1789년(정조 13) 호구 총수에 의하면 대정읍 지역은 안덕면과 통합되어 있었고 현의 우측에 있다 하여 우면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다 1870년경에 안덕면은 우면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현의 중앙에 놓여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 58)

따라서 대정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右面 : 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募瑟浦里, 下募瑟浦里, 日果里, 敦浦里와 현 안덕면 관내인 通泉里, 柑山里, 洞水里, 鑿川里, 自丹里, 今勿路里가 포함되어 있다.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방리조

右面 : 東城里, 西城里, 上募瑟浦里, 下募瑟浦里, 日果里, 敦浦里와 현 안덕면 관내인 今勿路里가 포함되어 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

右面 : 桃源里, 武陵里, 永樂里, 新坪里, 日果里, 下募里, 上募里, 保城里, 東城里

58)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4,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 호구 가간총책

右面 : 安城里, 仁城里, 保城里, 上募里, 下募里, 東果里, 日果里, 新坪里, 永樂里, 武陵里, 桃源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右面 : 安城里, 九億里, 仁城里, 保城里, 上募里, 下募里, 加波里, 東果里, 日果里, 新坪里, 永樂里, 武陵里, 新桃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후 우면이 된후 대정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우면 풍헌을 우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초대면장 吳基龍)을 판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인성리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에 소속되었고 우면을 대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대정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3년 면사무소를 인성리에서 상모리로 이전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이 되었고

○ 1956년 7월 8일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다.

○ 1959년 1월 1일 대정읍 무릉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2004년 7월 1일 무릉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대정읍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대정읍 면적은 78.55km²며 인구는 16,792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리는 13개이고 행정리는 23개이며 자연마을은 3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가파도가 871,547m²이고 마라도가 299,346m²이며 모두 유인도이다.

현재 대정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상 모 리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 모 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동 일 리	동일1리, 동일2리
일 과 리	일과1리, 일과2리
안 성 리	안성리
인 성 리	인성리
보 성 리	보성리
신 평 리	신평리
구 억 리	구억리
가 파 리	가파리, 마라리
영 락 리	영락리
무 룡 리	무룡1리, 무룡2리
신 도 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1. 하모1리의 설촌유래

故老들의 말에 의하면 하모리는 ‘논물거리(沓水巷)’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日果里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곳 주민이 넘어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大靜地方에서도 일과리日果里와 屯浦리는 古村으로 알려



져 왔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기록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모슬포리에 처음 왔다는 李尙吉은 古阜李氏 濟州入島 始祖 李世蕃의 玄孫이요 그의 父李光春의 墓가 日果里 가시악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광춘은 일과리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직계손이 일과리에 살고있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상길(李尙吉)이 모슬포리에 온 것은 17세기 중엽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상길은 1640년 출생이므로 20대에 온 것으로 보아 1660년경이 되기 때문이다.

모슬포리가 처음 설동(設洞)된 때는 언제인지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년대(年代)를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선주민(先住民)의 입주연대(入住年代)와 통적(統籍)에 나타난 인구통계의 통계 등을 고찰하여 어느 정도 추측하여 보면 모슬포리 설동(設洞)의 시작은 15세기 말엽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대정현(大靜縣)이 설치되어 80여년 뒤요 모슬진(募瑟鎭)이 설치되기 이전이다. 진(鎭)이 설치되자 관방(關防) 인원(人員)의 배치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였으니 하모리 통적(1771)에 군사직이 많은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해안(海岸) 통천수(通泉水)가 있어 식수(食水)가 풍부한 ‘논물거리’에 처음 취락이 형성된 후 부락은 차차 동쪽으로 확대(擴大)되어 서상동(西上洞), 중하동(中下洞), 상동(上洞), 당전동(堂田洞)이 형성되었고 해안(海岸)지대에 돈지동, 영수동이 형성되었으니 여기에는 풍부한 식수(食水)가 있을 뿐 아니라 방호소(防護所)가 설치되어 영사(營史)와 군졸이 살았기 때문이다.

해안부락은 모슬포 항구가 발달됨에 따라 모슬포 중심시가(中心市街)로 되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무수물 부락이 생겼다가 폐동되고 멜케부락이 형성되었으나 최남의 해안 저근개 부락은 일제(日帝)시대 비행장 건설로 폐동되었으며 골뫼 부락도 비행장을 피하여 서동(西洞)으로 통합되었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와서 정드모루에 새로이 부락이 이루어져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 1985. 8. 1 행정편의를 위하여 남제주군 동(洞)·리(里)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모 1·2·3리를 분리하였다.

※참고문헌. 모슬포(募瑟浦), 박용후(朴用厚) 5. 90. 도서출판 제우문화

2. 하모2리의 설촌유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하모리는 하모 3리 서쪽에 자리잡은 논물거리에서 처음 마을이 형성되어 모슬개 등으로 불리어 오다 전 마을 통틀어 부를 때는 모슬리라 함과 동시에 제1모슬리, 제2모슬리, 제3모슬리로 분리 하였다.



이를 조선조 영조 25년(서기 1749년) 쯤에 이르러 다시 상모슬리, 하모슬리로 고쳐 불렀으며 하모슬리는 동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가운데 끼인 중모슬리는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기에 상, 하 모슬리에 분산 통합되었고,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 통치아래 상모슬리와 하모슬리를 상모리, 하모리로 고쳤으며, 1914년 5월 일제에 의해 토지 세부 측량이 실시되어 마을 경계를 확정지었다.

1985년 8월 1일 남제주군에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모 1리, 하모 2리, 하모 3리로 분리되어 하모 2리는 북쪽에는 대정여자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신영물, 동쪽에는 상모리를 경계선으로 상동일부와 당전동, 영수동을 관할 구역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옛날 당(堂)이 있어 무당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와 빌었다는 데서 동명을 『당밭』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당전동(堂田洞)’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설도 당시 한 풍수가가 지나다가 이 못(池)에 이르러 물한모금 떠

마시고서 “물맛이 참 좋아서 마치 神靈水 같다.” 한데서 이 못을 『신영물』 또는 『신영수』라 불렀으며 현재는 ‘영수동(靈水洞)’이라 부르고 있다.

3. 하모3리의 설촌유래

우리지방은 해안의 풍부한 용천수와 어자원은 물론 모슬봉, 가시악 등 산과 들에서 짐승사냥과 열매 채취가 용이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하모리, 동일리, 일파리, 가과도 등지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상모리 산이수동 바닷가에 선사인들의 주거지가 있고 패총무덤에서 출토된 공열토기와 팽이꼴토기로 미루어 2,200여년전 철기시대에도 모슬포를 중심으로 산이수동에서 가시악 부근까지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모리는 대정지역에서 일찍이 설촌된 일파리와 영락, 무릉 그리고 대정현청이 설치되었던 보성리 사이로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15세기말경 식수와 바다를 따라 이곳으로 옮겨 살기 시작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일파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모리 논물거리(산이물지경)에 넘어와 거주하면서 설촌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모슬봉과 단산 사이에 있는 들메기에서 취락이 형성된 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모슬포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설도 있

어 문헌기록이 없는 현재로서는 모슬포리의 정확한 설촌유래는 차후에라도 정확한 사료(史料)에 의해 찾아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모슬포리는 처음에는 동은 제1모슬포리 서로는 제2, 제3모슬포리라고 하였다가 1749년(조선 영조 25년)경 상, 중, 하 모슬포리로 바뀐 것을 하모리 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뒤 중모슬포리는 폐지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의 통치가 있게되자 상모슬리와 하모슬리를 상모리, 하모리로 고쳤다.

1914년 5. 15일 소유지를 등기하도록 고시하여 토지세부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때 마을 경계가 확정되었다.

1985년 8월 1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모리가 1, 2, 3리로 분리되었고, 하모 3리는 상동, 서상동, 중하동, 돈지동으로 자연부락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募瑟浦의 由來

우리 마을 設村은 人口가 많이 增加됨에 따라, 사람들이 海邊가에서 점점 많이 살게 됨으로써 바다로 나가 漁獲物을 잡으며 生活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터전인 바다를 開拓하려고 하니 船着場인 浦口가 없어서 不可能하였다. 그러자 우리마을 古阜人 李宅, 李座首라는 어른께서 全 里民 役夫를 總動員하여 작은 浦口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浦口 이름을 命名할 적에 이름은 募瑟峯, 마을은 募瑟里로 일컬으니, 이 浦口는 게포字를 써서 募瑟浦라 칭하게 되었다. 그후 인구증가와 더불어 점점 포구가 발전하여 일제말기에는 한섬코지를 매립하여 물양장을 확장하고 앞바다에 있는 빗진여에 방파제를 쌓올려 오늘날의 포구가있다. 지금은 모슬포 港口라고 稱하고 있으며, 大小船舶 百餘隻이 碇泊하고 漁業基地

로 크게 活用하고 있다. 他地方 海上交通도 發達되면서 運送業에도 使用을 하고 있다.

日帝時代에는 慕瑟浦 港口와 日本과 大阪間 連絡船인 君代丸이란 連絡船이 連絡하여 많은 本道出身者들이 大阪에 居住하고 있다.

慕瑟浦라는 由來는 자그마한 개창이름으로 지금은 上慕里와 下慕里, 東日里 一帶가 慕瑟浦로 명칭되어져 내려오고 있다.

◎ 下慕里라는 里名の 由來

古老의 口傳에 衣하면 慕瑟峯 東南쪽 ‘들매기’란 地境에 人家가 設村이 되면서 마을의 이름을 村夫들이 議論 끝에 뒤에 있는 오름이 慕瑟峯이라 하였으니, 里名을 慕瑟里라 하였다. 慕瑟峯이라함은 아득한 太古에 오름이 形態가 玉女가 앉아 비파를 잡은 形狀이라하여 잡을 慕字 비파瑟字 오름 峯字를 넣어서 慕瑟峯이라 稱하였다. 慕瑟里가 繁昌하여 人家가 西쪽 海岸까지 分布되어 西紀 1749年 英祖 二十五年 己巳年에 分離되어 東은 上慕瑟里, 中慕瑟里, 西는 下慕瑟里였다.

◎ 西紀 1910년 韓日合邦 後 瑟字를 빼고 下慕里라 稱하고 있다.

洞內形成은 食水에 따라 部落이 形成되었다. 西山伊水洞內, 여지물洞內, 神靈水洞內, 무수물洞內로 形成되었다가 무수물 洞內는 敗洞에 이르렀다. 그 후 南쪽으로 정드마루, 갈못, 광대원, 적은개洞內가 形成되었는데, 西紀 1942年頃 日本軍 軍事基地로 撤去令이 내려져 敗洞되었다. 그後 마을이 繁昌大村이 되어 西紀 1942年頃 日帝行政上 部落을 分離하였는데, 上洞部落, 西上洞部落, 中下洞部落, 當田洞部落, 靈水洞部落, 돈지동部落, 下洞部落 等 7개 部落으로 形成되어 當時 部落 責任者는 理事長이라 呼稱하였다. 그後 西紀 1985年度 里行政區域 便上 下洞部落을 一

里로 하고 靈水洞, 堂田洞, 上洞一部를 二里로 하고 上洞, 西上洞, 中下洞, 돈지동을 三里로 하여 現在까지 維持하고 있다.

4. 상모리의 설촌유래

상모리는 하모리와 함께 모슬포에 속하였으며 처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1모슬리라고 하였다가 상.중.하 모슬리로 개칭 되었고, 그 뒤 1749년경 중모슬리는 폐지되었으며 상모리의 취락형성은 처음 “들메기”(속칭 정지논 서쪽)에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모슬봉앞 절좌에 두 번째로 취락이 형성되고 세 번째로 현재 위치로 남하하여 먼저 대동과 서상동(2리)이 형성되고 차차 남쪽으로 확장되어 중하동 서하동((3리)이 생기고 한편 동쪽으로는 이교동과 산이수동(1리)이 형성되었으며



잠시동안 알오름 마을이 생겼다가 일제시대에 폐동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상.하모리로 개칭하였고 1914년 5월15일 소유주를 등기하도록 고시하여 토지세부측량을 실시하면서 마을경계가 확정되었고 1985년 7월 1일 남제주군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상모 1.2.3리로 분

리되었다.

5. 동일리의 설촌유래

동일리는 원래 일과리와 한마을로 “날외”라 불렸으며, 용수가 풍부한 곳에 자연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서기 1884년(고종 21년) 현 동일리가 일과리와 분리 추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후 1900년(고종 37년)이 되어서야 일과리에서 분리되어 동일리로 호칭하게 되었다.

1919년 8월 자연부락 천미동이 동일2리로 분리되었다가 4.3사건으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해안으로 이주하여 동일리로 합쳤다가 1987년 7월 1일 또다시 천미동을 동일2리로 분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일과리의 설촌유래

서림에 많은 용천이 있어 아주 오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 지역에 분포된 고인들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음. 지금부터 약450여년 전 조선중종(中宗)말엽에 전쟁과 사화로 세상이



이 어수선했던 지자 정치에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초야에 묻혀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전에 의하면 일과1리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임진왜란이 반발로 정규안(丁奎安)씨의 15세조 정운이 아들이 지씨와 임씨를 대동하여 난을 피하여 선친을 찾아 일과리(日果里)에 정착하게 된 것이 일과리 설촌의 근원이라 전해 지고있으며 지금부터 400여년 전후에 설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오늘에 일과리는 과거 “날외”라고 불렀는데 날외(일과)가 설동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00년 일과리와 동일리로 분리되었으며 그후 일과리는 일과1리.2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인성리의 설촌유래

가. 설촌

조선(朝鮮) 태종(太宗) 16년(西紀 1416年)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제주도는 동서도(東西道)로 양분(兩分)되어 대정(大靜), 정의현(旌義縣)이 설치되고, 태종(太宗) 18년(西紀 1418年)에 현감



(縣監) 유신(兪信)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정성(大靜城)을 축성(築城)하였고, 성축의 둘레는 4,890척(2,092m)이고, 높이는 17尺4寸(7.44m), 폭은 7尺4寸(3.16m)이며, 성문(城門)은 동·서·남문(초기에는 북문까지 4개의 성문)3개의 성문으로 되어있다.

나. 대정고을

대정(大靜)고을 지역은 산방촌(山房村) 중간(中間)에 위치(位置)하여 남쪽으로 모슬봉(慕瑟峯), 송악산(松岳山), 단산(簾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당산봉(堂山峯)을 끼고 있어 넓은 평원(平原)을 이루고 대정읍(大靜邑)의 중심부(中心部)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지역적(地域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소재지(縣所在地)가 되었던 것이었다.

일찍이 산방촌(山房村)에서 부락(部落)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갔으나

현(縣)을 설치(設置)한 뒤 성(城)을 축조(築造)하고 주민(住民)들이 성(城)을 중심으로 모여와서 동(東), 서(西)로 부락이 발전하여 동쪽부락(部落)을 동성리(東城里)로, 서쪽 부락(部落)을 서성리(西城里)라 칭하였다.

안성리(安城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戶籍簿)에 의하면 光緒 5년(西紀 1879년)에 처음 안성리(安城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인성리(仁城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戶籍簿)에 의하면 光緒 17년(西紀 1891년)에 인성리(仁城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호적부(戶籍簿)에 의하여 추정한다면 동성리(東城里)는 안성리(安城里)로 개칭(改稱)하였다가 안성리(安城里)에서 인성리(仁城里)가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성리(保城里)는 서성리(西城里)에서 光緒 13년(西紀 1887년)에 보성리(保城里)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인성리(仁城里)는 성(城)을 사랑한다. 또는 인정(人情)이 두터운 곳이라는 뜻이며, 안성(安城)은 성(城)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고, 보성(保城)은 성(城)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다. 향사(鄉舍)의 분리

구전(口傳)에 의하면 光緒 17년(西紀 1891년)경 안성리에서 인성리가 분리되면서 향사분배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자 강풍헌(風憲, 姜齊炯)께서 “그렇다면 나의 의견에 따르시겠냐”고 물어 부민들이 찬성을 하자 강풍헌께서 톱을 갖고 향사 지붕으로 올라가 상모르를 반으로 잘라, 동쪽을 인성리, 서쪽을 안성리로 분배하였다. 인성리 부민들은 동쪽 자른 집을 분배 받아서 인성리 174-1번지에 초가 15평(坪)을 향사로 건립하였으나 부지가 좁고 건물이 협소하였다.

서기 1937년(당시 신성갑<申聖甲> 구장<區長>)에 독지가 오태운

(吳泰運)씨께서 현 부지(인성리 292번지, 98평)를 기증하여서 향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서기 1960년 3월 강수선 리장 당시 개축하였고, 서기 1979년(당시 정종화 이장)에 마을회관(2층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서기 1996년(김창옥 리장)에 증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안성리의 설촌유래

안성리(安城里)의 설촌은 대정현(大靜縣) 설치와 함께한다. 대정현 설치이전 이 고장에 입주민은 동헌(東軒)터(현 보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풍천임씨(豊川林氏) 나주정씨(羅州正氏) 여산송씨(礪山宋氏)등이 거주하였으며 북문 밖 수월이 못(水月池) 근처에 해주오씨(海州吳氏) 원주원씨등 삼백여 호가 취락을 이루어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곳 대정 고을에 대정현이 설치된 것은 1416년(조선 태종16년)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吳湜)은 제주에는 백성이 많아지면서 소송이 끊이지 않으며, 한라산 북쪽 한곳에만 관아(官衙)가 있어 제주목 산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아를 왕래하는 것이 불편 할 뿐만 아니라 토착세력들이 불법적인 약탈을 종종 일삼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한다. 당시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방통치를 위해 8도 체제하에 군현(郡縣)의 정비를 시도하던 때와 일치하여 제주에 3읍(제주목,대정현,정의현)체제가 탄생하게 된다.이

리하여 태종16년(1416년) 대정현을 설치하고 현감을 두었다.

행정구역은 동쪽으로 법환리, 서쪽으로는 판포리에 미쳤다. 그후 법환리는 서귀면에 두모,저지,조수 판포리는 구우면(舊右面)에 편입 되었다.

우리고장 대정고을은 남쪽으로 단산과 송악산, 우측에 모슬봉, 좌측에 산방산, 북쪽으로 한라산을 등지고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기에 현청 소재지가 된 것으로 본다.

대정현 설치 2년후인 태종18년(1418년) 대정현감 유신(兪信)에 의해 1개월만에 대정현성(大靜縣城)을 와성 하였다고 한다. 성은 동 서 남 북 4문이 있었다. 선조(1568~1608)때 북문은 웅성(壘城)으로 쌓았다가 후에 폐쇄하였다.성안에는 관아(官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민가(民家) 일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 방리(坊里)명칭 동성리(東城里)

현성을 쌓은 후에 명칭을 성안(城內)이라 불러오다가 성안으로 모여드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선조 중엽(1568~1608)에 성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직선도로를 경계로 동쪽은 성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동성리(東城里), 서쪽은 서성리(西城里)라 이름하여 두개 마을로 나누어 졌고 동성리는 제주목과 정의현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객사인 영안관(瀛安館) 향사당(鄉社堂) 향교(鄉校) 송죽서원(松竹書院) 연무정(演武亭)등 주요 관아들이 있었다.

나. 동성리에서 안성리(安城里)로 개명(改名)

안성리 개명과 인성리의 분리고증(考證)은 호적중초(戶籍中草)와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찾아 볼수 있다.

호적중초는 조선시대 호적대장으로 매 3년마다 군.현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호적중초는 호구동태를 파악하고 지방관아에서 필요로 하

는 군역과 세금징수, 신분관계 파악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하였다. 호구단자는 자기 집안의 호구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호적신고서라 할 수 있다. 매 3년마다 각 호의 구성원과 노비 동거인 까지 기록하여 제출 하였다.

우리 마을에 소장하고 있는 호적중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光緒五年正月日大靜郡己卯式 戶籍中草 第二右面 第七東城里<改里>安城里”

이씨(李氏)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호구단자에는 “光緒五年正月日 大靜郡己卯式 戶口單子 第二右面 第七 東城里<改名> 安城里”라고 기록 된 것에서 개리(改里)와 개명(改名)이라는 표기가 다를 뿐 동성리는 광서5년인 서기1879년1월에 안성리로 마을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호적중초에 기록된 호구동태는 원호241호 작동48통 인구도합 1411명으로 안성리는 대촌(큰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안성리(安城里)에서 인성리(仁城里)분리(分里)

광서17년 호적중초와 호구단자에는 각각 다음과같이 기록하고 있다.

“光緒十七年正月日 大靜縣乙酉式 戶籍中草 第二右面 第七 安城里”

“光緒十七年正月日 大靜縣乙酉式 戶口單子 第二右面 第八 仁城里”

위에서 광서17년(1891년) 인성리라는 리명이 처음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 제7 안성리에서 제8 인성리로 분리 되었음은 확실하나 분리연대가 문제가 된다. 3년전 작성한 광서14년 호적중초와 호구단자에 인성리 분리라는 문구가 없다. 광서17년 호구단자에도 인성리 분리라는 문구없이 제8 인성리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로보아 분리연대는 광서14년과 17년사이인 광서15,16년(1889~1890)에 안성리에서 인성리가 분리되었음을 추정 할 수가 있다. 분리(分里)된 원인은 당시 고씨(高氏)와 이씨(李氏) 집안을 중심으로 마을이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 되어 마을 향사집 상모루를 둘로 나누어 안성, 인성 두 마을의 향사를 각각 지으므로 분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라. 안성리(安城里)에서 구억리(九億里)분리(分里)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일제는 침략정책을 강화 하기위하여 1914년에 대정(大靜) 정의(旌義) 두군을 제주군(濟州郡)에 통합 시켰고 1915년에는 도제(島制)를 실시하면서 안성리에서 구억리가 분리 되었다.

본래 구억리는 안성리 본부락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구석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용기(甕器)가 만들어 지던 곳이다.

참고문헌 : 보성초등학교-1986, 향토지 대정고을의 역사 (성심인쇄사)
 제주도교육청-1993년,우리고장 제주도 (일신옵셀인쇄사)
 제주도-2006년, 제주도지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제주문화원-2006, 대정군지 (일신옵인쇄사)
 인성리마을회-1998,인성리향토지(유경문화인쇄사)
 영락리-2006, 영탈리지 (태화인쇄사)

9. 보성리의 설촌유래

보성리(保城里)의 설촌유래는 그 명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이전에 “두레물”이라는 지하수가 솟는 샘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하여 왔고 탐라기년에 의하면 고려25대 충렬왕25년(1300년) 도서도현을 설치하여 산방이라 불리었고 조선태종16년(1416년)대정.정의현을 신설할 당시에는 풍천임씨(豐川任氏), 나주정씨(羅州丁氏),여산송씨(礪山宋氏)등이 거주하는

고을로 형성되어 왔다.

당시 대정현(大靜縣)이 중심지인 성내의 주요 관아가 본리를 중심으로 건치 되었으니 동헌(東軒)터와 각종 관아가 현재 속칭 “동헌터”(현 보성초등학교)부근에 설치되어



옛 이름 그대로 불리어 왔으며 선조(宣祖)중엽에 동성리와 서성리로 대정고을을 칭명하여 고종(高宗)초(1864년)까지 불리어 오다가 동성리는 인성리와 안성리로 분리하고 고종24년(1887년)에는 서성리가 보성리로 개칭되었다.

또한 보성리 상동마을은 그 지형이 돛귀(猪耳)와 같이 생겨 부촌을 이룬다는 설에 따라 옛부터 설촌 되어오다 고부이씨(古阜李氏),여산송씨(礪山宋氏),한양조씨(漢陽趙氏)등이 씨족이 마을을 형성하고 아울러 특이한 몇몇 씨족중심의 마을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 신평리의 설촌유래

신평리는 1862년 (철종13년) 보성리 서부에 새로이 약 20가구가 이주하여 취락을 형성된 것이 지금 신평리 상동부락이다. 그후 고종원년(1864년)에 대정군 당시 동삼리(東三里) 서사리(西四里)에 속한 일과리(日果里)의 일부를 대정군수 강위중의 건의에 의하여 보성리(保城里) 일부와

일과리 일부를 각각 분리, 이를 통합하여 신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신평리는 본시 “웃날외” 또는 “웃날래”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리(里)분리와 더불어 지세가 평지라는 데서 한자표기에 의하여 “신평리”(新坪里)라 이름하였다.



11. 구억리의 설촌유래

지금으로부터 약250여 년전 지금 구억리(九億里)상동부락(上同部落) 동쪽에

“다리논물”이라는 못이 있는데이 물주위에 조씨(趙氏), 문씨(文氏)가 살아서 조가(趙家)집터, 문도령 집터라고 불리우고,

또 상동부락(上同部落) 서쪽에 양씨(梁氏)가 살았으므로 양가(梁家)집터, 그 남쪽으로는 고씨(高氏)가 살아서 “고광우”(과목) 집터라고 불리우고 있다.

구억리는 처음 조(趙) 문(文) 양(梁) 고(高)씨등이 와서 살면서 용기를



만들기 시작 하였으니 이것이 구역리 요업(窯業)의 시작이다. 얼마뒤 이들은 한경면(翰京面) 저지리(楮旨里) “명이논”으로 가버렸고, 그후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하였는데 경주김씨(慶州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직접 육지에서 건너왔고, 고씨(高氏)는 제주(濟州)도련(道蓮)에서,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전남(全南) 진도(珍島)에서, 남양홍씨(南陽洪氏)는 애월(涯月) 중엄(中嚴)에서, 진주강씨(晉州姜氏)는 애월(涯月) 수산(水山)에서, 과평윤씨(坡平尹氏), 김해김씨(金海金氏)는 무릉리(武陵里) 인향동(仁鄉洞) 동북쪽“세비나리”에서 넘어와 부락을 형성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목축과 요업(窯業)에 종사하며 살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생산하는 도기(陶器)를 행상으로 식량이나 생필품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섬 전체에 공급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처음으로 정착한곳은 안성리(安城里) 상동(上洞)이었으나 1915년 안성리에서 분리하여 부락명칭을 구역리라고 한 것은 “가래동산”(구역리624-1일대)이 있는데 이곳에서 맷돌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옆에 큰 밭(산23번지)이 하나 있는데 그 밭 구석이 9개가 되어서 구석밭(九석전)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구석밭을 한자음으로 표기 한 것이 구역리이다. 이 리명을 지은이는 1915년경 안덕면(安德面) 서광리(西廣里) 훈도 김행위라는 분이라고 전해진다. 초대이장은 박달천(朴達千)인데 마을 발전에 많은 공로가 있었다고 전한다.

1931년도에 안성리에 있던 대정보통학교(大靜普通學校)가 모슬포(募瑟浦)로 이설하자 당시 구장이었던 조기학(趙基鶴인), 학교건립 기성회장 강진숙씨등 몇몇 마을 유지를 중심으로 일본에 있던 고태규 김여권씨 등 도움으로 1944년도에 북초등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개교, 당시 주변 마을인 서광리 한경면 산양리 명의논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을 하였다.

1943년 4.3사건 발발 중산간부락 소개령에 따라 전 주민이 인근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의 모슬포 등지로 임시 먹을 식량만 가지고 마을을 내려온

후 구역리 마을에 집과 식량 심지어 우마 가축까지 정부령에 의해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후 1950년도에 구역리마을로 수복 재건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내에 축성하고 우막을 짓고 살면서 집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현재 행정구역상 구역 안성 보성 3개리가 결합된 마을이다.

12. 가파리의 설촌유래

가파도 하동 포구에는 개경 입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2년에 건립된 가파도 개경 12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의 내용을 봄으로써 설촌배경과 해방이전의 역사를 가늠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加波島 開經 一百二十週年 記念碑

<측면>

가파도 입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온 도민의 정성으로 1962년 당시 리사무소 입구에 기념비를 건립하여 영원히 증표로 삼으려 하였다. 내용문장이 한자 조각이 되어 있어 해석이 곤란하므로 다시 한글로 해설문을 별도 조각하여 가파도의 관문인 황개 포구 입구에 1985년 9월 19일에 이설 나란히 건립하였다.

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리민의 조상들은 현종, 임인 이래 상·하모슬리에서 건너와서 목야지인 본도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고 해안을 개발하여 우수한 어장지를 만들어 금일의 번영과 행복과 평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들 후손 리민일동은 개경 이 회갑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조상의 노고와 그 봉적에 감사하면서 이에 기념비를 건립하는 바이다.

<정면>

本島 古稱 蓋島, 蓋波島, 加波島, 加乙波知島, 더위섬, 本題 國畜馬牧地 李朝 成宗時, 御乘良子莫產出 英祖二十六年 犧牲進貢用 黑牛 五十頭 放牧以來 憲宗六年 庚子 英國船 來泊 畜牛 砲殺 去力去後 廢牛場 同八年 壬寅 開耕 許可 李廣廉 主管 上·下摹瑟里民 往來 開墾耕 轉人 耕稅 納司僕司 自哲宗 末頃 人耕民定住 西紀 一八八六年 乙酉 日本人 潛水器 漁業者 吉村與三郎一行 定着 人漁是 我國 潛水器 漁業, 創始地 旦 翌 丙戌年頃 吉村 甘薯栽培法 傳授于 有志 金龍興 比是 近世 濟州 甘薯栽培之嚆矢也 一九一四年 下摹里 所管 觀脫 加波里 呼稱 教育 高宗初 漢文 訓學 以來 人村輩出 辛酉年 金成洙 創設 里立 辛酉義塾 一九四七年 加波國民學校 創立 引繼 一九二三年 항개 西防波堤 築城 一九三六年 沿海漁業 鰯漁撈法 導入 傳播 屬島 馬羅島 火口 開墾 一八八三年 癸未 本里 戶數 乙酉年 四十戶 現在 戶數 二百十二戶 人口 千三十六人

(해설문)

이 섬 옛 이름은 개도, 개파도, 가파도, 가을파지도, 더위섬이라 불렀고 처음에는 나라에서의 소와 말을 기르는 목장지로서 이조 성종때 1469년 임금이 타시는 양마를 산출한 곳이다. 영조 26년 1750년 나라에 바치는 희성 진공용 (소) 50마리 방목한 이래 현종 6년 1840년 영

국선이 내박하여 축우를 총으로 쏘아 잡아간 후 폐우장이 되었다. 동 8년 임인년 1842년 이광림 주관으로 개경을 받아 상·하 모슬리민들이 왕래하면서 개간 경작하기 시작해서부터 나라에 납세하였다. 철종 말 경 1863년 이 섬에 소와 쟁기로 밭가는 법이 들어오면서 주민이 살기 시작했다.

1885년 을류 일본 잠수기 선업자 길촌여삼랑(요시무라) 일행이 정착하면서 입어후 우리 잠수기 어업이 발달한 시초지다. 뒷해 병술년 1886 길촌여삼랑이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도입하여 재배법을 전수 받아 본리 유지 김용홍 역시 근세 제주도 고구마 재배를 장려했다.

1914년 하모리 소관에서 분리되어 가파리라 부르고있다. 교육은 고종초 1863년부터 한문 훈학하기 시작해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배출되었다. 신유년 1921년 김성숙의원 주관으로 신유의숙학교 창설, 1947년 가파국민학교 창립 인계하고 1923년 항개 서방과제를 리민의 협력으로 축성, 1936년 연해어업 멸치, 자리 어로법 도입 우리 조상님들이 연구 개발하여 오늘과 같이 제주도 멸치, 자리, 어로법이 발달한 시초이다.

가파도는 선사시대 유적이 알려져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후 기록이 전무하다가 조선초기의 기록에 지명 및 목장이 설치되어 일부 사육하는 관리만 있다가 조선후기인 지금으로부터 140여년 전부터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가파도 학수보고서.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2001

13. 마라리의 설촌유래

마라도는 본래 무인도로서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문헌이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전해오는 설에 의하여 추리할 수 밖에 없다. 전해져 내려 오는 말에 의하면 개척 이전의 마라도는 ‘금섬’으로 불리워지는 섬으로 인



근 지역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기며 접근을 꺼렸던 섬이다. 섬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주변 해역의 파도가 높고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망종이 지나면 불규칙하게 변화하던 날씨가 풀리고 해상에서의 위험도 적어진다. 이 때에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섬에 상륙하여 나무를 베어 가고 해산물도 채취해 가는 일이 있었다.

현재 활망당의 당신(堂神)으로 섬기고 있는 처녀도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해 가려던 사람 중에 최초로 희생된 사람일 것이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어 오던 섬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고종(26대) 21년 1884년부터이다. 당시 대정골에 거주하던 김씨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하자 친척들이 모여 상의한 후 고을 원님에게 섬의 개척을 건의한 결과 이듬해 제주목사 심현택이 공식적으로 인가하여 이주가 가능해졌다.

김씨가 마라도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파도와 모슬포에 거주하던(나씨, 김씨, 이씨, 강씨, 한씨, 황씨, 심씨 등) 사람들이 지원하여

앞장섬으로써 여러 세대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라도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주로 보리나 조, 콩, 고구마 등 밭 농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섬을 개척해야만 했다.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할 당시에는 섬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했다고 한다. 얼마나 무성 했던지 그 나무들로 제주 특유의 나무 절구인 「남방애」를 만들기도 했고 또, 집 재목과 가구를 만들다가도 남아, 하늘을 찌를 듯이 뻗뻗한 숲이 온 섬을 덮었다.

이주민들은 농경에 필요한 경작지를 마련하고자 숲을 태워 없애고 탄 자리를 일구어 농지로 바꾸어 나갔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고향을 떠나 온 이주민 중의 한 사람이 환한 달밤에 통소를 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뱀이 몰려 왔다고 한다. 놀란 이주민은 섬 내의 많은 뱀을 제거하기 위하여 숲에 불을 질렀는데, 타기 시작한 나무는 석 달 열흘이 지나서야 불길이 멎었고, 이때 뱀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다를 헤엄쳐 제주도의 동쪽 지방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마라도는 뱀과 개구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개척된 농경지에 농사가 시작되었고 수년 동안은 경작하는 작물마다 풍작을 이루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1915년 일본인들은 이 곳에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 입도하였으며, 이 등대의 여러 시설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울타리 돌담 뿐인데, 그 흔적을 보면 얼마나 완벽한 시설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해방 후 행정 구역 상으로 대정읍 가파리 소속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1년 4월1일 남제주군 반설치(班設置) 조례 및 리장 정원 조례 개정 에 의거 마라도 1·2반을 삭제하고 가파리에서 마라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지번은 가파리로 되어 있다.

현재 마라도 등대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기가 끊겨도 중단 없이 저 바다를 향해 불빛을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 위성항법 장치도 설치해 마라도 주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게 기상 상태 등을 즉시 위성으로 쏘아줄 수 있다.

마라도 등대는 10초마다 한번씩 불빛을 반짝인다. 불빛이 가 닿는 거

리는 38km,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끼면 불빛 없는 바다에 공기압축기로 사이렌 소리를 낸다. 30초마다 한번씩 울려주면서 항해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도에 제주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마라도 등대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등대이다.

14. 영락리의 설촌유래

우리 제주도의 경우 대다수 마을의 설촌역사는 古典과 古地圖에 의하면 대략 500년에서 100년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

永樂里도 언제부터인가 선인들이 이 땅에 등지를 틀고 삶을 살아 왔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 갈 소중한 터전이다.



그렇다면 永樂里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이고, 촌락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언제이며, 행정구역상의 里洞 단위 마을로 認許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또 永樂里라는 里名이 命名된 배경은 무엇인가 등 영락리 설촌의 내력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오창명 교수는 그의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에서 ‘永樂里는 적어도 17~18세기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라 하였고, 吳洪晳 교수는 그의 학위논문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에서 永樂里의 경우 ‘同族聚落成立年代’를 200~300年 전으로 기술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

이다.

그러나 영락리의 설촌과 관련된 문헌기록이나 유물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몇몇 기록의 斷片들이거나 口傳으로 전해오는 자료들 뿐이므로 考證에 확실한 기록이나 유물·유적을 중심으로 설촌의 유래를 구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다행히 영락리 마을에는 현재 ‘永樂里 戶籍中草’와 ‘統籍’, ‘戶口單子’ 등 20여 冊과 ‘鄉約’ 그 밖에 몇 건의 雜文 書類가 里民會館의 ‘서등계’에 보존 보관되어 있어서 당시(19세기 중반)의 人口動態와 戶主의 職役 등의 實相이 부분적으로나마 전해 지고 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설촌관련 행정서류가 유실되어(故 玄성기 님이 ‘失文하여 本草文이 없다’고 확인) 마을의 역사를 증빙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다른 기록이나 고증에 필요한 유적·유물 등이 전무한 상태여서 설촌 초기의 역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永樂里 鄉土誌 편찬사업은 설촌 이래 처음으로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定立하는 역사적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史的 考證이나 검증된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하는데 이미 밝혀진 문헌, 문서류(戶籍中草, 道誌, 郡誌 등)상의 기록 이외에 혹시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영락리 설촌 내력을 찾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탐문 탐색하느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節에서는 기록물에 나타나는 永樂里 設村年代의 몇몇 서로 다른 主張(記錄)을 檢討 음미해 보고 향민구비로 전해지는 ‘壬子造幕甲寅設洞說’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가. 1734년 設洞說

이 기록은 ‘부락의 설촌과 발전의 유래를 정리하는 제주의 향사’ 179호(1980년 5월 22일(월)자 제남신문 4면)에 게재된 기획 연재물이다.

여기에 따르면 영락리는 서기 1732년에 조막하고 그 두해 뒤 즉, 지금 (서기 2004년 기준)으로부터 정확히 270년 전인 서기 1734년에 설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때를 干支를 代人하면 ‘壬子年 造幕에 甲寅年 設洞’이 되는데 이 설동년대는 조선왕조의 영조 10년에 해당한다. 또 이 기록은 ‘그 후 영락리는 서기 1855년 咸豐 5년(중국 연호) 정월에 이르러 동리 가구수가 20餘戶로 늘었으며 이 때부터 마을 이름이 영락리로 불려졌다고 한다’는 설명까지 곁들여 있다.

이를 요약하면 영락리는 1730년대 초에 설동하였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1850년대에 와서 가구수의 증가 등에 따라 세 모습을 갖춘 마을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설동관련 내력의 출처는 당시 마을의 元老이신 趙恒寬 님의 증언과 설명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752年 ‘新設洞’說

이 기록은 正齋 高炳五 先生이 撰述한 『元大靜郡誌』 草稿本の 里名條에 ‘永樂里, 英祖 壬申 新設洞’ 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이 무척 아쉽다.

正齋 先生은 上幕里 출신 유학자로서 韓末의 유학자 田愚를 師事하였고 뛰어난 文筆家였으며(文友 權純命과 交遊) 일제 말엽에는 강압적인 創氏改名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少數 節概派 儒林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향토사학자로서 大靜郡의 역사와 문화의 조사, 연구에도 심혈을 경주하여 방대한 양의 史實을 체계화한 郡誌의 완성 등 다대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그가 남긴 영락리 설동 연대 ‘1752년 신설동’ 설은 필시 확실한 고증에 의한 단정적 기록으로 보이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서 아쉽다.(이 초고본에 의하면 武陵의 경우는 永樂보다 6년이 앞선 영조 22년 병인 1746년에 설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1773年 設洞說

이 기록은 진성기의 『남국의 지명유래』의 대정읍 편에 ‘영락리, 서기 1773년도에 설촌된 부락으로서 소위 南場이었던 국유지를 마을 설립과 동시에 분할한 마을임’이라고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해(年度)는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인 朝鮮朝 英祖 49년인데 干支로는 癸巳年에 해당한다. 저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속학 분야에 폭넓은 연구와 많은 저서를 남기 郷土史學者이다. 이 분을 통하여 永樂里 設村에 대한 역사적 배경 등 정확한 고증을 기대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직접 면담과 자문 과정을 통해서도 ‘1773년 설촌’의 근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

라. 18世紀末葉(1794) 設洞說

永樂里를 포함하는 武陵, 新桃 지역을 흔히 ‘西三里’(또는 서 6개리)로 부르는데 옛 大靜縣의 이 西部地域은 고려시대부터 차귀현(遮歸縣)이 있었던 곳으로 朴用厚의 『大靜邑 略史』에 의하면 “...이 곳은 元의 牧場이 있던 곳으로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고...(중략) 맨 서쪽은 西場(新桃), 그 동쪽은 中場(武陵), 남쪽은 南場(永樂)이라고 하여 毛洞場을 3개장으로 구분하였고 그 3개장에 각각 부락이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中場部落(枸木里)은 純祖 11년(1811)에 武陵里로 개칭하였고, 南場 부락은 永樂里라고 하였다.”라는 등의 문맥으로 볼 때 永樂里도 純祖朝의 1800년대 初에 이미 일정한 규모의 촌락을 이루어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남장부락은 永樂里라고 하였다.’라는 시점이 1811년이니까 ‘造幕’이니 ‘設村’이니 하는 村落 形成의 初頭時期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도 굳이 첫 설촌을 하였다는 갑인년을 찾는다면 그 年代는 언제쯤일까. 가장 가까이 소급해 볼 수 있는 갑인년은

1794년(正祖 18년)에 해당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해는 바로 우리에게 흥년의 대명사로 전해지는 ‘개빈년 승년(甲寅年 凶年)’에 해당하는 연대이기도 하다.

마. 1854년(壬子造幕 甲寅設洞)說

영락리 설촌이 19세기 중엽으로 기록된 몇몇 단편적인 기록물들이 보이는데 대체로 加波島 黑牛牧場의 폐쇄와 관련짓는 내용들이다.

즉 英祖 26년(1750)에 牧使 鄭彦儒가 加波島에 牛牧場을 설치하고 黑牛 50두를 방목하여 진공용으로 사육 중이었는데 憲宗 6년(1840)에 英國 함대가 가파도 해안에 정박하여 大砲로 人畜을 살상하고 소를 약탈하는 등 진공우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자 나머지 소들을 永樂里 지경인 모동장으로 옮겨 습屯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때를 같이 하여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움막을 짓고 농지를 개간하면서 설촌의 기반을 닦았다는 요지이다.

15. 무릉리의 설촌유래

가. 설촌 유래

본리는 1612년 조막하였다 하나 훨씬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00년경 13~14세대가 모여 살았다는 선인들의 고증으로 짐작할수 있다.

1614년에 설동하고 1701년 무자년에 현 둔포리에서 분향하여 구남무기(구목리)라 불려져 왔다.

그후 1614년 (효종5년) 갑오년 대정 현감 변만향이 현 신도리의 옛이름인 둔포리란 마을 명칭이 좋지 않다 하여 도원리로 개칭되고 이웃마

을인 본리의 명칭도 부락민들의 논의를 거쳐 옛 중국고사에 선정처인 무릉도원의 머릿글자를 따서 구목리를 무릉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0년경 급격한 인구증가로 무릉1, 무릉2리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졌으며, 설동당시 맨처음 입주한 분은 白氏라고 하며 첫 경작지는 전답음요수(前踏飲要水) : 일명 ‘앞논물’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무릉리 3128번지 임대라고 전해지고 있다.

설촌후의 씨족을 보면 백씨, 정씨, 황씨, 홍씨, 김씨등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후 임씨, 이씨, 강씨, 문씨, 오씨등 많은 성씨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무릉리 부락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목리(枸木里) 당시 행정책(行政責)은 리집강(里集綱)이라 하여 리(里) 최고 책임자를 정민장(政民長) 차위(次位)에 존의(尊儀), 농감(農監), 기찰(紀察) 그 밑에 하소인(下召人)을 두어 리행정(里行政)을 펴 나갔다.

외침을 막기 위하여 활쏘기 사격연습장과 ‘술대왓’이라는 지명이 붙은 쏘대(활쏘기 할때의 과녁)가 있고 군마를 거두어다 낙인을 찍던 수마터(水馬處)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사장동’쏘대왓’이라



는 지명이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1850년 경에는 무릉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동장이란 관용목장이 있었는데 서장(西場) 신도리경, 중장(中場) 무릉리경, 남장(南場) 영락리경 등 3장이 있었다고 한다.

원 대정군지에 의하면 모동장은 현(縣) 서쪽 15리 대정읍 무릉리에 있으니 조위(調圍)37리요 마우감(馬牛監) 각 1인 군두(群頭) 1인 목자(牧子) 18명이었으며 원래는 우마를 함께 방목하고 감목(監牧)도 따로 있었는데 그후 말이 점점 줄어서는 까만소(흑우)와 말을 길러서 말은 군마로 사용 하였고 까만소(흑우)는 육용으로 국가에 진상 하였다고 한다.

나. 마을 위치

대정읍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해안 및 중산간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신도 1리, 동쪽으로 영락리와 접해 있고 읍 중심지와 8.1km, 시청소재지와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 마을어원

고래통, 부사리, 가메앞, 덩불이뭇, 하리통, 수마터, 쓸대왓, 사장동, 구목리, 전지동, 암모루 암마을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16. 신도리의 설촌유래

가. 設村의 由來

본리에 인가가 형성되기까지는 신석기 시대로 보인다.

최근 신도리 1466번지에 대지를 정리하던중 돌도끼등이 나왔는데 기원

원년을 전후하여 사람이 살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고려시대 제주도가 “元”이 지배하에 있을 때 10소장과 별도로 각 소장에서 차출한 우마를 반출하기전 임시로 모두 어 방목관리 하던 도동장(모듬장))을 셋장 중장 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면 (1750년英祖 25년 가파도에 흑우장을 이곳 모듬장으로 옮겼음)서기 1250년을 전후하여 목장을 관리하던 목자와 가족, 자고네 포구등 자연포구를 이용한 해산물 채취등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10가구 이상이 인가를 형성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무렵부터 된 개 (屯浦)란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중종 14년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1520년 고부이씨 입도로李世蕃이 당시 대정현 돈포에 유배생활을 하며 훈학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7년



적거 생활하시다가 졸묘 현 고산리 신물경) 이무렵 까지 집단으로 취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여세대이상 인가는 있었다고 추측된다.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왜구(해적)의 노략질을 피해 1588년경 녹남봉 서쪽기슭에 마을 터전을 마련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1599년도 맨처남 “술랑통”과“ 윤남못” 음료수를 개정(진성기 남국이지명유래)

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집단 취락이 형성되었다.

나. 된개 (敦浦) 로 命名

서기 1620년 광산김씨가 입촌하여 거주했다는 구전이 있으며 김해 김



씨 金如東이 1670년에 입촌하여 거옥대 지경에 거주하면서 훈학에 전념했다고 전해오며 그 후에 들은 현재 본리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같이 100여년동안 점차 인가가 늘어났으나 행정단위마을로 면모를 갖추기에는 미흡하던중 경주김씨 德亨씨가 1691년에 한림 수원에서 이주하여 왔으며 이때 마을 어른들이 중지를 모아 1698년 지금까지 지역명으로 불리어 왔던 된개 (屯浦)를 敦浦로 한자표기를 바꾸어 대전현 서면(후에 우면)13동으로 등제하게 된다.

이후부터 마을명을 敦浦로 표기했으며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리 마을명은 “된개”로 통용 되고있다.

이때 관할 구역을 동으로 굽은오름 서는 바다 남으로 日果里에 경계를 접한 돈두악 북으로는 두모와 접한 당산봉으로 4표를 정해 마을이 경계를 삼았었다.

1) 무릉리 분동(分洞)

200여년 이상 구전으로 내려오는 임자조막갑인 설동이 무릉리 설동이 유래인것 같다.

1730년을 전후하여 구남무기에 인가들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732 (임자)년에 조막하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1794(갑인)년에 설동하여 된개에서 분리 되었다.

무릉리라 마을명을 지은것은 마을 원로들이 중지와 1794(갑인)년 장원급제한 변경봉씨(후에 내직을 거쳐 대정현감.만경현령.사헌부장령 이조참의 역임)의 의견을 받아 무릉리라 명명 하였다.

2) 자연취락형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745년경 삼각골에 경주 김씨 일가가 거주 했었으며. 1750년을 전후하여 곤물,군물, 고분장도 등에도 사람들이 거주하였으나 현존하지 않고 있다.

3) 논각

1750년경 “묵은텃개”에서 태우를 이용하여 어로생활을 하던 사람 과 “삼각골, ‘멜케” 등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현 신도 2리 포구를 생활터전으로 집주하기 시작한것이 이 마을의 형성 유래 다.

4) 비지낭케 (비자동)

비자동이라 함은 속칭 산아진 밭에서 현 신도1리 쪽으로 비자나무 가 무성했다고 해서 비지낭케라 부르게 되었으며 당초 ‘골물’케에 살 던 제주 제주부씨일가가 오로코미를 거쳐 1795년 현재 비지낭케 중심지인 2087번지에 옮겨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 형성이 시작되었 다.

다. 桃原으로 개명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 향교에 주축을 이루는 선비들이 이 고장에서 많이 배출되고 1772년 원주 변경봉공이 중문에서 이주하고, 1781년 급제한 예조좌랑 김용 1794년 장원급제 대정현감 반경현령 사헌부장령 이조참의를 지낸 변경봉등 중앙에 대거 진출하여 마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문촌으로서 타지방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천시여기던 한자표기로 “개” 浦字를 마을 이름으로 쓰는 것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촌의 품위에 걸맞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논의 하던중 1811년 (신미)본리출신 변경봉공이 대정현감으로 부임하면서 본리에서 분리 설동된 마을명이 무릉리임으로 도원으로 개명하는 것이 좋다는 중지를 모아 개명했다.

관할구역은 현 무릉2리,인향동,곤물, 뽕두못,전지동 한장동 일부가 포함된 현 신도리 경계이다.

라. 신도로 改名

1899년을 전후하여 씨족간의 갈등으로 씨족분향 (일명바둑분향)이란 오점을 낳고 도원 순창으로 분동되고 말았다.

경민장 (1906년이후 이장)이 두 사람이 되었다.

마을이 분리 운영되기를 15년 여간 지속되다가 한일 합병후 1914년 3월 행정구역이 개편될때 대정군 이 대정면 으로 바뀌어지면서 본리는 新道로 개명할 것으로 하여 현재의 新都里가 되었다.

1914년 이전까지 본리에 속했던 인향동 뽕두못,전지동이 무릉리로 편입되었고 한장동 일부분은 고산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토지조사가 끝나는 191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도리를 1구와 2구에 분리되었다.

관리 구역은 1구는 현 신도1리 구역과 大巨洞(큰케왓) 2구는 현 신도2리와 비자동, 대거동은 1909년 인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새나무곳은 1900년 경부터 인가가 7세대 정도 정착 거주하다가 4.3사건당시 이주 폐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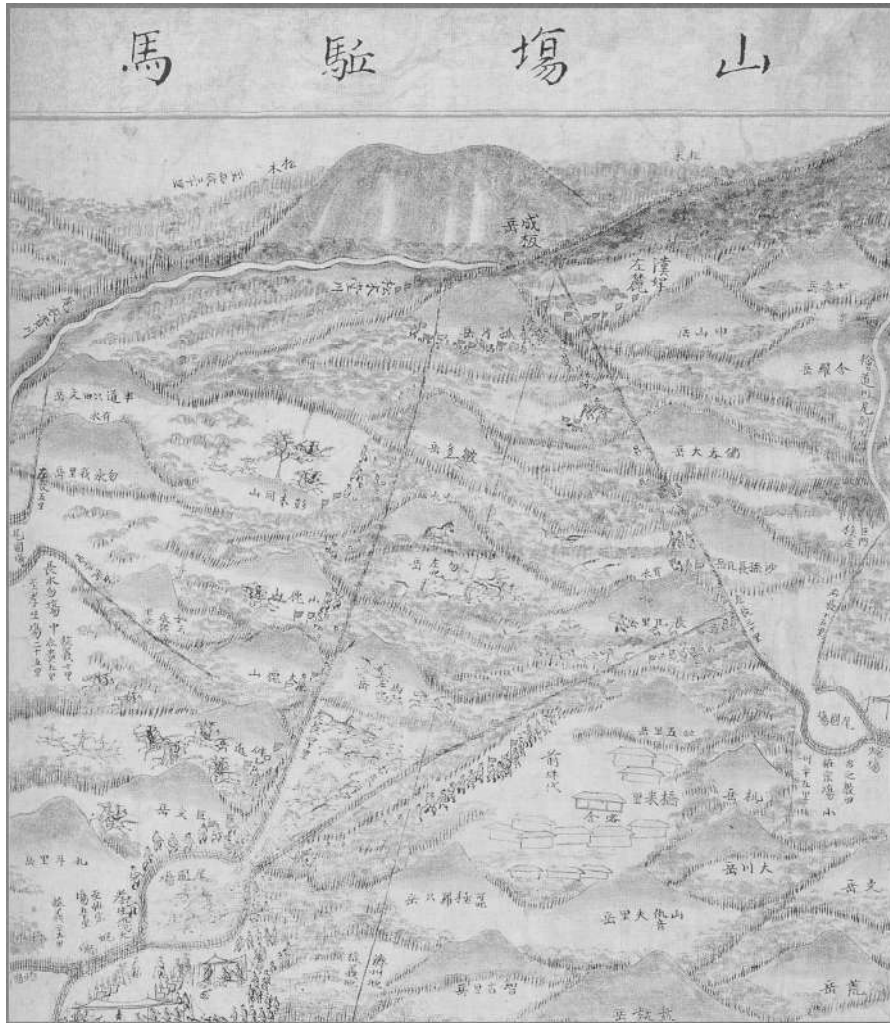
마. 신도3구 분구

광복후 현 신도3리 주민들이 생활여건에 맞도록 마을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거동은 신도1구에서 비자동은 신도

2구에서 분구해 줄것을 행정당국과 절충 1946년 3구로 분구되었다.

서기 1953년 행정 직제개편으로 구를 리로 하고 각 리마다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통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 4 장 남 원 읍



남원읍(南元邑)

남원읍의 동쪽은 표선면 토산리와 접하고 서쪽은 하효동, 상호동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는 강우시에만 유하하는 건천이지만 신흥천, 의귀천, 서중천, 전포천, 종남천, 신례천 등 산간에서 발원하여 남쪽바다로 흘러간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⁵⁹⁾



- 한남리, 남원리, 태흥리 신석기 유적 등은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며
- 신례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탐라국 형성기인 BC200년 ~ AD3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하례리, 남원리, 태흥리 유물 산포지, 하례리 바위 그늘집 자리 등은 탐라 전기인 AD200년 ~ AD500년 어간의 유적들이며
- 신례리와 한남리 바위 그늘집 자리 등은 탐라후기인 AD500 ~ AD1105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남원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

5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34~159쪽

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동도현에는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金寧), 토산(兎山), 호아(狐兒 : 일명 狐村)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호아현 전체와 토산현 서부가 오늘의 남원읍 지경이다. 이렇게 토산현과 호아현이 고려 충렬왕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남원읍은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설촌역사도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함(張含)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으니 당연히 남원읍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의하면 남원읍 지역에는 호촌면(狐村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말에 대정현이 면을 개편할 때 남원읍은 정의현 읍성인 성읍리(城邑里)와 과히 멀지 않은 거리에 놓여있고 현의 중앙지역에 위치함으로 중면(中面)에 속하게 되었다. 그때 면을 구획함에 있어서는 정의현에 있어서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좌측에 있으면 좌면으로, 우측에 있으면 우면으로, 중앙에는 중면하는 식으로 방위에 따라 명명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면 토산리(兎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溫川里)가 분리 되었다. 60)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에 온천리가 서중면 관할로 표시되

60)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17쪽

어 있음을 미루어 보아 동중면과 서중면 분할을 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확정된 듯 하다. 따라서 남원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¹⁾

○ 1789년(정조 13)호구 총수

狐村里面：水望里，東義貴里，保閑里，西義貴里，火等里，又尾里，狐村里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中面：水望里，東衣貴里，西衣貴里，保閑里，火等里，又尾里，狐村里， 이때 남원읍은 현 표선면의 表善里，細花里，兎山里，加時岳里，安坐岳里와 함께 정의현 중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西中面：又美里，保閑里，溫川里，衣貴里，東衣里，水望里，漢南里，東衣貴里，禮村里，梧旨里

○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西中面：溫川里，水望里，漢南里，東衣貴里，西衣貴里，東保閑里，西保閑里，上禮村里，下禮村里，東爲美里，西爲美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 가간총책

西中面：溫川里，水望里，東水里，東衣里，新衣里，漢南里，保閑里，東保里，西衣里，東美里，新美里，爲美里，禮村里，下禮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西中面：新興里，衣貴里，漢南里，泰興里，南元里，新禮里，爲美里，下禮里，水望里

한편 중면이 된 후 남원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중반에 중면 토산리(兎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溫川里)가 분

6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61~83쪽

리되었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서중면 풍헌을 서중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의귀리 1495번지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 가시리)와 토산리 일부를 서중면 온천리에 통합하고 마을이름도 신흥리(新興里)라 하였다. 그리고 이때 동중면의 안좌리 일부를 수망리에, 우면(右面) 상호리(上孝里)일부는 하례리에 각각 병합되었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26년 3월 20일 면사무소를 남원리 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 1928년 서중면의 마을명칭은 신흥, 태흥, 남원, 의귀, 수망, 한남, 위미, 신례, 하례 등 9개리로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 1935년 4월 1일 서중면을 남원면으로 개칭하였으며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이 되었다.
- 1960년 5월 1일 위미리 2892-2번지에 남원읍 위미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 2004년 7월 1일 위미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남원읍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남원읍의 면적은 188.45km²에 인구는 18,495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리가 9개이고 행정리가 17개이며 자연마을은 4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위미리에 지귀도(地歸島)가 있으며 면적은 87,424m²이다.

현재 남원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남 원 리	남원1리, 남원2리
신 흥 리	신흥1리, 신흥2리
태 흥 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의 귀 리	의귀리
수 망 리	수망리
한 남 리	한남리
위 미 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신 례 리	신례1리, 신례2리
하 례 리	하례1리, 하례2리

1. 남원1리의 설촌유래

남원1리는 서중천(西中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태흥1리이고, 서쪽은 연덕벵디에 있는 셀룻개연대(金路浦煙臺)로 위미 3리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바다이며 북쪽은 남원2리와 접해있다.



남원1리는 서중천 하류에서 서쪽으로 500m정도 떨어진 해안가인 속칭 ‘성뒷왓’지경에서 신석기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기원전 2,000년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⁶²⁾

그러나 선사시대(기원이전)나 원사(原史)시대(AD1~300)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서웃귀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해안가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후 광지동(廣池洞 : 넓은못동네)일대에 동래정씨(東萊鄭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김해김씨(金海金氏)가, 그리고 제산잇개 일대에 제주고씨(濟州高氏)가 들어왔고, 이어서 다른 씨족들도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갔다.⁶³⁾

이 마을은 원래 서의귀리(西衣貴里)에 속하였으며 서의귀리는 20세기 초에 귀(貴)자를 생략하여 서의리(西衣里)라 하였다.

조선시대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서의리 남쪽을 남원리라 하였다.

남원이란 이름은 옛날 이 마을북부에 의귀원(衣貴院)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

6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0쪽

63) 오창명 제주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28쪽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남원(南院)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남쪽의 으뜸이라 하여 원(院)을 원(元)으로 고쳐 불러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불리지고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 : 일명 狐村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서의귀리가 되었고, 18세기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서의귀리(西衣貴里)가 되었다.⁶⁴⁾ 한편 서의귀리라는 표기과정에서 귀(貴)를 생략하여 서의리라고 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이 마을은 서중면에 속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으며 마을 북쪽의 서의리와 남쪽에 위치한 남원리를 구분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이때 남원리와 서의리(西衣里)를 합쳐서 남원리라 하였다. 그 뒤 해인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남원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남원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의귀리에 두었던 기관도 일주도로변으로 이전케 되었다. 이에 따라 의귀리 1532번지에 두었던 경찰주재소를 1925년 4월 5일 남원리 1243번지로, 의귀리 1495번지에 두었던 서중면사무소를 1926년 3월 20일 남원1리(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고 남원1구와 2구로 나누어졌다. 즉 북쪽에 설촌된 서의리지역을 남원

6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92쪽

1구로, 해안마을인 제산잇개와 광지동일대는 남원2구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가 되었다. 그후 남원2구는 남원1리로, 남원1구는 남원2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원1리는 비안동(飛雁洞), 중앙동(中央洞), 광지동(廣池洞), 신성동(新成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비안동은 남원리 220번지 일대이며 읍사무소 북쪽 300m지점이다. 이 지역일대에는 돌무더기가 많으며 지형은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듯한 형상이므로 ‘놀안이며들’이라 하였다. 놀안이는 날다의 날(飛)자와 기러기 안(雁)자의 합성어이고, 머들은 돌무더기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중앙동은 남원중학교 서쪽에 위치하여 남원1리 중심마을이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 하였다. 광지동은 남원리 1480번지 일대(동부소방서 남원119안전센터)에 위치한 동네이다. 남원리 설촌터의 하나이고, 넓은 연못이 가운데 있어 연유한 이름이다. 후에 한자 표기로 광지동(廣池洞)이라 하였다. 신성동은 광지동 서쪽 일주도로변에 형성되었으며 1941년에 새로 설촌하였기에 신성동(新成洞)이라 하였다.

65)

이곳 2490-8번지 연덕벵디에는 1439년(세종 21)에 축조한 금로포연대(金路浦煙臺, 쉼룻개연대)가 자리 잡아 해안을 경계하고 유사시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신성동마을은 1948년 4·3사건으로 남원1리 본동으로 소개하였다가 1957년에 복귀하여 정착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남원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

65) 남제주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09-213쪽

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가 되었다. 현재 남원읍의 소재지로서 행정, 교육,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⁶⁶⁾

2. 남원2리의 설촌유래

남원2리는 서중천(西中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태흥1리이고, 서쪽은 위미3리이며, 남쪽은 남원1리 그리고 북쪽은 의귀리와 한남리에 접해있다. 이 마을은 의귀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서웃귀’라고 칭했다.



이 마을의 설촌은 1374년(공민왕 23) 합적(哈赤)의 난 때 목호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 : 탐라지에는 職員石邦里甫介⁶⁷⁾)가 죽었고, 그 부인 정씨(鄭氏)가 일생동안 개가하지 아니하여 그 후에 열녀비가 인근 정비못(한남리 4번지일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적어도 1374년 이전에 설촌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후 동래정씨(東萊鄭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군위오

6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6~267, 296~297쪽

67) 탐라지 정의현조에는 ‘職員石邦里甫介’라 하였으며, 증보탐라지, 제주읍 일도리 담수계 편집 1954년 392쪽에도 ‘職員石邦里甫介’라 하였음.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 10월(丙午)조에는 정의현직원(職員)석아보리개(石阿甫里介)라 하였고, 도광(道光) 14년(1834년 순조 34) 3월 절제사겸방어사인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운 열녀정씨지려에는 고려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지처로 되었다.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252쪽에는 심재집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先是旌義衣貴村 有軍校夫姓之妻 未詳 何姓夫死 守節 事聞旌閭鄭實 得聞古語載於 周洪兩傳之下

씨(軍威吳氏)가 들어왔으며 마을외곽에 산재한 선묘의 연대를 미루어 500여년 이전에 이곳에 정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후 김씨, 고씨, 송씨가 정착하여 마을이 확산되어 갔다.

1750년경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서의귀원(西衣貴院), 정씨문(鄭氏門)이 표기되어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서의귀리(西衣貴里)가 표시되어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여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서의귀리가 되었고,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서의귀리(西衣貴里)가 되었다. 한편 서의귀리라는 표기과정에서 귀(貴)를 생략하여 서의리라고 하였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는 서의귀리 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1호, 남자는 70명, 여자는 115명이다. (西衣貴里 自官門 西距三十里, 民戶三十一, 男七十, 女一百十五)⁶⁸⁾

남원2리에는 조선시대 원(院)을 설치하였다. 원이란 역원(驛院)이라고도 하며 목(牧)과 현(縣)을 왕래하는 주요도로변을 따라 여행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세운 관립여관이었다.⁶⁹⁾

해동지도 제주삼현도에서 서의귀원(西衣貴院)⁷⁰⁾, 탐라지초본에 의귀원(義貴院)⁷¹⁾, 남사일록에 의귀원(衣貴院)⁷²⁾, 정의군지도에 의귀원(衣貴

6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0쪽

6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1쪽

70) 1750년경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5쪽

71) 李源祚 탐라지초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240쪽

院)⁷³⁾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의귀원에서 구한길(남원2리~한남리경계)을 따라 자배봉 앞을 통하여 서쪽으로 나가면 또 하나의 역원인 영천관(靈泉館)에 이른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서의리(西衣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에 펴낸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는 서의리의 연가는 116호이다. 남자 246명과 여자 260명을 합하여 506명이고 초가는 225칸이다.(西衣, 烟家一百十六戶, 男二百四十六口, 女二百六十口, 草家二百二十五間)⁷⁴⁾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으며 마을 북쪽의 서의리와 남쪽에 위치한 남원리를 구분하였다.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으며 이때 행정구역폐합으로 남원리와 서의리를 통합하여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남원리라 하였다. 1915년에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남원리가 되었다.

1925년 4월 4일에는 경찰주재소를, 1926년 3월 20일에는 서중면사무소를 각각 의귀리에서 남원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을 남원면으로 개칭되었고 남원1구와 2구로 나누어졌다. 즉 북쪽에 설촌된 서의리 지역을 남원1구로, 해안마을인 재산잇개와 광지동 일대는 남원2구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가 되었다. 이후 남원1구는 남원2리, 남원2구는 남원1리로 변경되었다. 1948년 4·3사건으로 마을은 남원1리로 소개하여 한동안 폐허가 되었다가 1950년 월산동에 성을 쌓아 재건하였다. 이때 남원1구와 남원2구가 남원리로 통합되었다가 1953년 현재의 남원1리, 남원2리로 분리되었다.

현재 남원2리는 수은동(水銀洞), 월산동(月山洞), 서의동(西衣洞) 등 3개의

72) 李增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1, 143쪽

73) 1872년 정의군지도,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1쪽

74)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29쪽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수은동은 남원리 2490-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있는 못의 물이 너무 맑아 달이 떠올라 물에 비치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초 수월동(水月洞)으로 부르다가 수은동으로 바뀌었다. 월산동은 남원리 1092번지 일대이며, 130여년전에 설촌된 마을로 서의동과 남원1리 중앙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을 내려다보면 초승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의동은 남원리 683번지 일대이며, 설촌한지 오래된 마을로 ‘서쪽웃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3. 신흥1리의 설촌유래

신흥1리는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표선면 토산2리이고, 서쪽은 태흥3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신흥2리로 남원읍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여우내’ 또는 ‘여온내’로 불리었



고, 1872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온천리(溫川里)로

표시되어 있다. 1780년경에 처음으로 이씨가 방구동(防龜洞 349번지)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후 계속되지 않고 대가 끊기고 말았다. 1791년에 이웃 토산리에서 경주김씨가 방구동으로 넘어와 정착하였고, 인근 보말동(保末洞)에는 1835년에 김신창이 들어와 기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경주김씨(慶州金氏), 제주고씨(濟州高氏),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토산현(兎山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토산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토산리에 속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 마을은 온천리(溫川里)라 칭하였고 토산리에서 분리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에 온천리가 서중면관할로 표시되어 있음을 미루어보아 동중면과 서중면을 분할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획정된 듯하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동중면)에 온천의 연가는 51호이다. 남자 97명과 여자 102명을 합하여 19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溫川 煙家五十一戶 男九十七口 女一百二口 合一百九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⁷⁵⁾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온천리가 되었다. 이때 온천리는 서중면의 동의리(東衣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와 토산리(兎山里)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리라 하

75)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16쪽

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흥리가 되었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신흥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가 되었다. 그후 1961년 8월 보말동(保末洞)과 방구동(防龜洞) 지역을 신흥1리로, 온천동(溫川洞, 여우내 일대), 고수동(古水洞, 박수물 일대), 석수동(石水洞)을 신흥2리 관할로 정하였다.

현재 신흥1리는 보말동과 방구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보말동은 보말개라고도 하며, 이 일대지형이 마치 바닷가에 서식하는 패류의 하나인 고동처럼 형성된 데다 자연포구를 이루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이후 한자표기에 따라 밤고동의 제주어인 보말의 음을 취하여 보말동으로 표시했다. 방구동은 이 일대 지형지세가 거북이 형국으로 된 능선으로 마을을 에워싸 방어한다고 하여 방구동이라 하였다.⁷⁶⁾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흥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가 되었다.⁷⁷⁾

4. 신흥2리의 설촌유래

76)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32~333쪽

7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87~288·343~344쪽

신흥2리는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표선면 토산1리이고, 서쪽은 태흥3리이며, 남쪽은 신흥1리다. 그리고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나 표선면 가시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원래 ‘여우내’ 또는 ‘여온내’, ‘드슨내’



을’ 등으로 불리었고, 1872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온천리(溫川里)로 표시되어 있다. 1760년(영조 36)경에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여온내에 들어와 살면서 동네가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살던 집을 ‘동집’과 ‘웃동집’, ‘섯집’ 등으로 불렀다. 또한 200여 년 전에는 ‘석동이터’ 일대에도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후 ‘고승이물’과 ‘박수물’ 일대에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고수동(古水洞)’이라 하였고, ‘물도왓’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수도동(水道洞)’이라 하였다.⁷⁸⁾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토산현(兎山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토산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토산리에 속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 마을은 온천리(溫川里)라 칭하였고 토산리

7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5~346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41쪽

(1760년(영조 36)경에 토산에서 광산김씨인 鳴秋, 鳴輝, 鳴煥 3형제가 여우내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음.)

에서 분리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에 온천리가 서중면관할로 표시되어 있음을 미루어보아 동중면과 서중면을 분할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확정된 듯하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동중면)에 온천의 연가는 51호이다. 남자 97명과 여자 102명을 합하여 19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溫川 煙家五十一戶 男九十七口 女一百二口 合一百九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⁷⁹⁾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온천리가 되었다. 이때 온천리는 서중면의 동의리(東衣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와 토산리(兎山里)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리라 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흥리가 되었고,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가 되었다. 그 후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11월 14일 해안마을로 소개를 하여 한겨울을 보낸 후 1950년 봄에 다시 옛 마을중심부에 축성을 하고 되돌아왔다. 1951년 음 1월 15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마을청년 3명이 순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1961년 8월 신흥1리와 2리로 나누게 되었는데 신흥2리는 속칭 온천동(溫川洞 여우내일대)과 석수동(石水洞 석동이터일대), 고수동(古水洞 고승이물과 박수동, 물도왓일대) 등 3개의 자연마을으로 이루어져있다. 온

7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6쪽

천동은 신흥2리 중심마을이며, 마을 안에 생수가 없어 미지근한 봉천수(奉天水)를 식수로 사용하였다하여 온천동이라 칭하였다. 석수동은 신흥리 800번지 일대이며 200여년 전에 석동이란 이가 처음 이주해와 정착한 데서 ‘석’자를 취하고 물이 좋은 곳이라 하여 ‘수’자를 취하여 석수동이라 지었다. 고수동에는 고승이 물이 있으며 고씨성을 가진 스님이 지나다가 목욕을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박수물은 이 지방에 샘이 없어 물이 박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박수물일대는 원래 서토산이라 불렀고 일제강점기인 1913년 세부측량시 신흥리로 넘어오게 되었다. 물도왔은 물두둑 밖의 밭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⁸⁰⁾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흥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가 되었다.

80)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37~341쪽

5. 태흥1리의 설촌유래

태흥1리는 의귀천을 경계로 동쪽은 태흥2리이고, 서쪽은 서중천으로 남원1리와 접하고 있다.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의귀리이다.

이 마을 옛 이름은 ‘펼개’로 불리었고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⁸¹⁾,



남사일록(南槎日錄, 1679~1680)⁸²⁾,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圖 1703)⁸³⁾,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⁸⁴⁾,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중반) 등에 벌포(伐浦 : 펼개)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소금밭에 펼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제주삼읍전도(1872)⁸⁵⁾, 정의군지도(1872)⁸⁶⁾,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⁸⁷⁾ 등에는 보한리(保閑里)로, 정의군읍지(1899)에 서보한리(西保閑里)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태흥1리와 태흥2리간을 흐르는 의귀천하류인 해변 서쪽 경작지에서 괏지식 적갈색 토기편과 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귀천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법련사 부근일대의 경작지에서도 괏지식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탐라전기(AD 200~500) 때의 유물들로 보아지며 이에 따라 태흥1리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

81) 남사록역주(상), 제주문화원, 2008, 126쪽

82)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143쪽

83)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1쪽

8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85)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44쪽

86)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0쪽

8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⁸⁸⁾

이 마을의 설촌은 서기 1100년경 태흥리 1553번지를 비롯한 속칭 소수(沼水)물 근처인 묵은가름을 중심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와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에 여산송씨(礪山宋氏), 경주김씨(慶州金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진주강씨(晉州姜氏), 동래정씨(東萊鄭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장수총고분과 장수무덤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후미에 이를 기록키로 하겠다.⁸⁹⁾

1270년(원종 11) 9월부터 제주도바닷가 300여리에 걸쳐 환해장성을 쌓았는데 그 석성유적이 태흥1리 해안에 지금도 140여미터가 남아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하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보한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9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58명이다.(保閑里 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十九 男三十五 女五十八)⁹⁰⁾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서보한리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서보한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8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8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9쪽

9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보한의 연가는 102호이고, 남자 208명과 여자 220명을 합하여 428명이다.(保閑 煙家一百二戶 男二百八口 女二百二十口 合四百二十八口)⁹¹⁾라고 하였다.

1902년(광무 6)에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인 이기원(李基元)과 이 마을 김계형(金桂滢)이 의논하여 태흥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구와 2구로 분리되었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1리는 서소동(西沼洞), 가원동(加元洞), 진은동(陣隱洞), 위엄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소동은 태흥1리 바닷가에 바닷물에 육지가 켜지는 포구가 있어 이를 세수개 또는 서수포라 하였다. 그리고 태흥1리 서중천 중류에 길이 300m, 폭 40m, 수심 7m나 되는 깊은 소(沼)가 있어 이를 소서물이라 하였다. 서소동은 서수포와 소서물이 머리글자를 따서 서소동이라 하였다. 가원동은 메머들 남동쪽에 조성된 마을이며, 진은동은 복병을 감추었던 숲이라는 데서 연유했다는 설과 장수총의 주인공인 날개 돋은 장수가 관군에 쫓겨 도망치다가 이곳에 숨었다가 잡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위엄동은

9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므르테기(물러진연디, 망대동산)와 갓므르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⁹²⁾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흥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가 되었다.

○ 태흥1리 전설

<날개 돋은 장수무덤>

이 마을에는 어느 장수의 무덤인지 모르나 오래전부터 장수총(將帥塚) 또는 장수무덤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 장수총은 태흥리 1579의 6번지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1,500m 올라간 진은동에 있으며 길이 2.4m, 높이 60cm의 절석(切石)으로 기단은 네모를 이루고 있다.

이 고분(古墳)은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굴하였으며 무덤속에는 잘 다듬어진 석관으로 짜여진 관이 나왔고 거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인골 1구(一軀)가 보존상태가 양호한 채로 드러났다.

이 석관이 짜임새가 물방울도 스밀 여지없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였기에 인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외에도 고려소병(高麗燒瓶), 금속철저(金屬鐵箸 : 금속젓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지금은 이 무덤터에 석관으로 사용했던 석관 일부분만이 나뒹굴고 있다.

이 장수총 전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9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5~306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25~228쪽

태흥1리 서소동 하천에는 소서물이라는 규모가 큰 소(沼)가 형성되어 있다.

그 옛날 이 소 옆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다른 아이에 비해 훨씬 골격이 크고 이미 치아에는 이가 돋아있었다.

얼핏 보아도 범상치 않은 아기였다. 하루는 엄마가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놓고 물을 길러갔다가 와보니 애기구덕에 아기가 없었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며 방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기어 다니지도 못했던 애기가 벽장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올려놓았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렸다.

그러고는 또다시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놓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집에 들어와 보니 분명코 눕혀둔 아기가 방안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하여 어머니는 아기가 잠든 사이에 살짝 겨드랑이를 들쳐보니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기절초풍하게도 그곳에는 날개가 돋아있었다.

그 당시는 날개 돋은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관가에 알려야했고 관가에서는 그런 아기는 장차 역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찌감치 유년기때 죽여 없애 버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를 고민하다가 차마 자기 아들을 고자질할 수가 없어서 비밀로 하기 위하여 형겁으로 겨드랑이를 싸매고 키웠다.

그 아기가 6~7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이미 키가 8척장신으로 자랐고 힘이 장사라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폭이 40미터나 되는 소수물을 단번에 뛰어넘고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한손으로 쓱 뽑아버렸다.

이러자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한입두입 걸쳐 모르는 이가 없도록 세상에 널리 퍼졌다.

드디어 관가에서도 이를 알고 군사를 풀어서 그 장수를 포박해오게 하

였다. 그래서 관가의 군사가 출동하여 붙잡으려 왔다.

그러나 장수가 먼저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는데 모세물에서 옷귀오름까지 한발에 뛰어올라 턱 주저앉으니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만 오름정상이 푹 꺼지면서 낮이 나가고 말았다.

장수는 다시 연덕동산으로 한발을 뛰니 그만 우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앉아버리니 이번에는 태흥리 진은수(陳隱藪)에 가서 숨어버렸다. 그렇게 장수가 난동을 부리니 잡을 도리가 없게 되자 관가에서는 장수부모를 결박 지은 후 아들(장수)을 잡아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그의 아버지가 체념을 하고 아들(장수)에게 독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관가에 알리니 군사들이 즉시 들이닥쳤다. 군사들은 장수의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먼저 자른 후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장수를 죽여도 마음을 놓지 못하여 석관에 개판널도 석판으로 하고 봉분도 돌덩어리로 쌓았으며 그 구멍 전부 자갈로 매워 장수가 또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오름이 낮이 나갔다하여 낮이오름(魄梨岳, 의귀리 531번지 일대)이라 하였고 연덕동산이 무너졌다하여 무너진연덕(의귀리 1111번지 일대)라 하였다.

6. 태흥2리의 설촌유래

태흥2리는 동쪽은 태흥3리이고, 서쪽은 의귀천을 경계로 태흥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의귀리 및 신흥2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은 ‘펼개’로 불리었고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⁹³⁾, 남사일록(南槎日錄, 1679~1680)⁹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矚

93) 남사록역주(상), 제주문화원, 2008, 126쪽

1703)⁹⁵),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⁹⁶),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중반) 등에 벌포(伐浦: 필개)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소금밭에 필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제주삼읍전도(1872)⁹⁷), 정의군지도(1872)⁹⁸),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⁹⁹ 등에는 보한리(保閑里)로, 정의군읍지(1899)에 동보한리(東保閑里)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를 살펴보면 태흥1리와 태흥2리간을 흐르는 의귀천하류인 해변 서쪽 경작지에서 광지식 적갈색 토기편과 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귀천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법련사 부근일대의 경작지에서도 광지식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탐라전기(AD 200~500) 때의 유물들로 보아지며 이에 따라 태흥2리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¹⁰⁰⁾

이 마을의 설촌은 서기 1100년경 태흥리 153번지를 비롯한 속칭 소수(沼水)물 근처인 묵은가름을 중심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와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에 여산송씨(礪山宋氏), 경주김씨(慶州金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진주강씨(晋州姜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94)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143쪽

95)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1쪽

9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97)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44쪽

98)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0쪽

9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10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 248번지 등명대해안에는 1439년(세종 21) 벌포(伐浦)연대를 설치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하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보한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9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58명이다.(保閑里 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十九 男三十五 女五十八)¹⁰¹⁾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동보한리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동보한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보한의 연가는 53호이다. 남자 116명과 여자 108명을 합하여 224명이고, 초가는 89칸이다.(東保 煙家五十三戶 男一百十六口 女一百八口 舍二百二十四口 草家八十九間)¹⁰²⁾라고 하였다.

1902년(광무 6)에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인 이기원(李基元)과 이 마을 김계형(金桂滢)이 의논하여 태흥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2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0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10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구와 2구로 분리되었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2리는 뒷못통(後池洞), 조치명동(朝雉鳴洞), 금성동(金城洞), 무도동(武道洞), 가시승물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뒷못통은 태흥리 588-1번지 일대 태흥초등학교 동북쪽 500미터지점이며, 이곳에 165㎡에 이르는 연못이 있어 생활용수로 이용하였는데 마을의 뒤쪽에 있다하여 뒷못통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차용표기에 따라 후지동(後池洞)이라고도 한다. 조치명동은 태흥리 372-2번지 일대이며 아침이면 이곳에 꿩들이 모여들어 아침을 알려주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성동은 태흥리 921-4번지 일대이며, 동산이 마치 성(城)처럼 생겨 성을 두른 동네라 하여 금성동이라 하였다. 무도동은 태흥리 1011-1번지 일대이며 무사들이 모여 무예를 연마하는 도장으로 이용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시승물동은 태흥리 571-1번지 일대 동쪽 4거리이며, 이곳에 커다란 우물이 있었는데 이를 가시승물이라 하였고 이곳에 형성된 동네를 가시승물동이라 하였다.¹⁰³⁾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흥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가 되었다.

10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9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30~233쪽

었다.

7. 태흥3리의 설촌유래

태흥3리는 동쪽은 신흥1리이고, 서쪽은 태흥2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신흥2리와 접하고 있다.

태흥3리는 신흥천 서쪽으로 500m정도 떨어진 해안가(태흥리 8번지 일대)에 탐라전기 (AD 200



~ 500) 때인 괭지리식 토기편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태흥3리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¹⁰⁴⁾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 관하에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保閑里)가 되었다.

10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이 마을의 설촌은 1500년경 110번지 부근 안지왓집터에 안씨(安氏), 강씨, 장씨(張氏)가 살았다고 전한다. 그후 1796년경 8번지 부근에 현영주, 김석봉, 양천년, 정씨, 강씨가 살면서 인가가 형성되었으며 그곳 지명을 산변포(産邊浦)라 칭하였다. 1860년경 36번지 일대에 오영화(吳永化), 김일방(金日邦), 고종문(高鍾文), 오영지(吳永智), 송정우(宋禎祐), 고종진(高宗珍) 월평의 강장의, 고사장 등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덕돌포(德丕浦)라 칭하였고, 중면 보한리에 속하였다. 그후 1915년경 삼석동(189~200번지 일대)에도 홍(洪), 강, 오(吳), 현(玄), 김(金), 양(梁), 고씨(高氏)와 현주사(玄主事) 그리고 165번지에 의귀리에 살던 김희은이 입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보한리라 칭하였다. 1902년(광무 2)에 보한리를 태흥리로 개칭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3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1년에는 삼석동(三石洞), 덕돌포(德丕浦), 산변포(産邊浦)를 합하여 삼덕동(三德洞)이라 칭하였다. 삼덕동이라 함은 1931년 현여경과 오두익이 삼석동과 덕돌포 그리고 산변포를 일괄하여 삼(三)와 덕돌포의 덕(德)자를 따서 삼덕동이라 하였다. 그중 삼석동은 태흥리 189~200번지 일대 입석천부근에 큰돌 3개가 세워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돌포는 현재 태흥3리 62~1, 62~6번지선 포구부근이며, 1860년에 유학사 오영화, 유향별감 김일방, 고종문, 오영지, 송정우, 고종진, 월평의 강장의, 고사장 등이 들어와 살면서 포구이름을 덕돌포 또는 덕독개라 칭하였다. 산변포는 태흥리 8번지선 바닷가로서 1796년경 이 부근에 현영주, 김석봉, 양천년, 정씨, 강씨 등이 이주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면서 자연포구이므로 산

변포 또는 노린할매개라 하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925년 1구와 2구로 분리하여 삼덕동은 2구에 속하였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3리는 삼덕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3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흥3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가 설치되었다.

8. 의귀리의 설촌유래

의귀리는 동쪽은 신흥2리이고, 서쪽은 한남리와 남원2리이다. 그리고 남쪽은 남원1리, 태흥1리, 태흥2리이고, 북쪽은 수망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은 옷귀 또는 옥귀라 하였고 남사록 (南槎錄 권 3, 1601~1602)에 오이리



(五耳里), 탐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의귀촌(衣貴村),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圖, 1703)에 의귀(衣貴),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에 동·서의귀(東·西衣貴), 호구총수(戶口總數 호촌면 1789)에 동의귀리(東衣貴里), 서의귀리(西衣貴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18세기중반)에 의귀(義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및 동여도(東輿圖, 1800년대 후반)에 의귀촌(衣貴村), 제주삼읍전도(1872) 및 정의군지도(1872) 등에 의귀리(衣貴里), 동의귀리(東衣貴里), 서의귀리(西衣貴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동의리(東衣里), 서의리(西衣里)로 표시되어 있다.¹⁰⁵⁾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를 살펴보면 2003년 5월 남원~의귀간 남조로확장공사시 냇이오름 북동쪽 유물산포지에서 삼양동식 절갈색 토기편과 석재편이 수습되었다.¹⁰⁶⁾ 이는 탐라초기(BC200~AD200) 때의 신석기유물들로 보아지며 그에 따라 의귀리 지역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도 탐라초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10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9쪽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0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5쪽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으로 부터 450여 년 전에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먼저 들어왔고, 그 후에 제주고씨(濟州高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군위오씨(軍威吳氏), 광산김씨(光山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 관하에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지경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출신인 김만일(金萬鎰)은 무과에 급제하여 1582년(선조 15) 순천부에 소재한 방답진(防踏鎭) 첨절절제사(僉節制使)가 되었다. 그는 좋은 말 1,300여 필을 조정에 헌납하여 종1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되어 ‘헌마공신’이 되었고, 후손들도 감목관직을 대대로 세습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동의귀리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동의귀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8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7호, 남자는 175명, 여자는 198명이다.(東衣貴里 自官門西距二十八里 民戶四十七 男一百七十五 女一百九十八)¹⁰⁷⁾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동의귀리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동의리가 되었다. 이때 동의리는 서중면의 치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의리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258명과 여자 266명을 합하여 524명이고, 초가는 305칸이다.(東衣 煙家一百十戶 男二百五十八口 女二百六十

10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0쪽

六口 合五百二十四口 草家三百五間)¹⁰⁸⁾라고 하였다.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동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비공직 신분으로 유지되었던 면장을 관임 관대우 국가관리로 보직시켰다. 따라서 면장은 군수(1915년부터 島司)의 보조기관으로써 독립된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케 되었다. 이에 따라 1912년 서중면사무소는 의귀리 1495번지에 개소하였다.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수망리와 동의리 일부를 통합하여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의귀리라 하였다. 그때 동의리 일부는 신흥리에, 서의리는 남원리에 각각 통합되었다. 당시는 의귀리가 마을중심에 면사무소가 소재하였고, 그 부근인 현재 중앙동의 버스정류소 네거리에서 제2의 귀교(개턴물)까지 거리에는 5일장이 열렸다. 이 장에는 주변에 주민들은 물론 육지상인들도 몰려들어 초석, 짚신, 버섯, 잡화를 비롯한 생필품 등을 판매하여 가히 저잣거리를 방불케 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장터 또는 장판거리라 불렀다. 더불어 1914년부터 토지세부측량이 시행되자 이에 따른 토지조사요원과 측량기수 등이 체재하기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의귀리가 되었고, 1922년부터 조선호적령이 공포되자 호적등재를 위해 관련주민들이 뺑질나게 면사무소를 왕래하였다. 더불어 1923년에는 제주경찰관 주재소가 의귀리 1532번지 전 향사자리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순사부장이하 3명이 순사가 배치되었고, 형사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주재소를 드나들게 되었다. 이러자 자연히 의귀리는 많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고 명실상부한 면의 중심지가 되어 마을은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 호황도 한때였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뚫리면서 도전역이 일주도로 위주로 교통체제가 개편되었다. 따라서 일주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의귀리 등을 통하여 동서로 연결된 간선도로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신작로

10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0쪽

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25년 4월 5일 제주경찰서 경찰관주재소를 남원리 1243번지로 이설하였다. 더불어 1926년 3월 20일 면사무소도 신작로변인 남원리 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의귀리 5일장도 자동 소멸되었고, 마을의 번영도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4·3사건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해안마을로 소개했다가 1949년 7월 다시 올라와 마을을 재건하였다.

현재 의귀리에는 중앙동(中央洞), 월산동(月山洞), 산하동(山下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있다. 중앙동은 의귀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이다. 월산동은 중앙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동산에 올라 떠오르는 달을 쳐다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하동은 뽕시오름(醜梨岳) 바로 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뽕시오름 발치에 자리잡은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¹⁰⁹⁾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의귀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의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가 되었다.

○ 제주마의 본고장 의귀리

의귀리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하여 1276년(충렬왕 2) 원의 목마장을 설치한데 이어 조선조 때에는 제10소장관할에 들어가 있었다.

16세기말 한라산 동남부 일대의 사마(私馬)목장 (후에 山馬場)은 어

109)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25~329쪽

는 국마목장보다 번창하였으니 이는 의귀리출신 김만일(金萬鎰)의 공이다.

김만일은 본관이 경주이며 1550년(명종 5) 7월 14일에 정의현 옷귀(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어모장군이홍(禦侮將軍利弘 : 후에 資憲大夫工曹判書추증)의 아들로 태어났고, 1632년(인조 10) 10월 27일 별세하였다.

그는 어릴때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도량이 넓어서 인격적으로 출중한 면모가 엿보였다. 일찍 무과에 급제하여 1582년(선조 15)경 순천부방답진(順天府防踏鎭)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제수받았다.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의귀리에 돌아와 앞으로 말의 필요성을 예견하였고 의귀리에서 교래리까지 목장을 설치하여 마축의 개량과 번식에 힘썼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은 삼시에 증식되어 가히 1만여필을 사양하게 되었고 또한 가문도 날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차에 국가에서는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임진왜란을 당하여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국력은 파탄하여 민생은 험벗고 기아에 허덕였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무수한 전마(戰馬)가 죽어갔고 수축(獸畜)은 굶주린 백성들에 의하여 도살되어 말의 사육두수는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쓰는 전마, 민간에서 일을 시키던 역마(役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런 고난의 시국을 맞아 김만일은 가만히 좌시만 하는 것은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거룩한 우국충정을 발휘하여 국가에 말을 헌납하기 시작하였다.

- 1594년(선조 27)에 사목장(私牧場)에서 사육하는 양마(良馬) 500필을 전마(戰馬)용으로 나라에 헌납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김만일의 공로가 가상함을 들어 국영목장 10소장내에 동별목장(東別牧場)과 서별목장을 설치 관리토록 하였다.

- 1620년(광해군 12)에 또다시 전마 500필을 헌납하자 광해군은 김만일을 친히 불러 그의 공을 치하하면서 헌마공신(獻馬功臣)의 호와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종2품)직을 제수하고 그의 장자 대명(大鳴 1605년 무과급제)을 보성군수(寶城郡守), 차자 대성(大聲)은 당상관(堂上官), 손자 려(礪)에게는 본도의 변장(邊將)을 제수하였다.
- 1627년(인조 5)에 또 다시 전마 400~500필을 헌마하자 조정에서는 1628년(인조 6)에 그에게 승정대부(崇政大夫 종1품)에 서직(叙職)하였다. 뿐만아니라 3대를 추증하여 참의(參議), 참판(參判), 판서(判書)를 증직하였으니 가문에 일대 영광이었다.
- 1658년(효종 9)에 김만일의 3남 대길(大吉)과 손자 반(礪)이 또다시 전마 208필을 나라에 헌납하였다. 이때 효종은 제주목사 이회(李檜)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서별목장을 산장(山場)으로 만들어 말을 사양케 하였다. 그리고 김만일의 3남 대길(大吉)을 제1대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에 임명하였다. 이 산마감목관직은 대대로 세습되어 내려오다가 1892년(고종 29)에 그 직제가 폐지되었다.

위귀리는 이처럼 말사육을 통해 나라에 공헌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룬 마을이요, 전도 목장가운데서 가장 번창하였던 산마장 중심마을이었다.

이래서 2008년 4월 25일 의귀리민 일동이 ‘제주마의 본향의귀’라는 비를 세웠다.¹¹⁰⁾

○ 의귀리 전설

110) 장덕지 목마장과 남제주, 남제주문화 제2호, 2005, 82쪽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1982, 59~60쪽

오기찬 헌마공신 김만일공의 생애와 업적 및 평가, 2006, 남제주문화원 지방문화세미나, 7~11쪽

제주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2007, 117~118쪽

<의귀리 설촌과 호종단>

호종단(胡宗坦)은 중국 송나라때 복주(福州)태생으로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가 절강성을 거쳐 상선을 타고 고려에 귀화하였다.

고려예종은 그를 후대하여 좌우위록사(左右衛錄事)에 보직하였다가 권직한림원(權直翰林院)을 거쳐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를 제수(除授)하였다.

그는 풍수지리와 잡예(雜藝)에도 능하였다.

당시 제주의 혈(穴)에서는 설 새 없이 인결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주에서 인결이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물혈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 들어와 각 처로 돌아다니며 정혈(正穴)에다 쇠꼬챙이를 쿡쿡 찌러 넣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대혈(大穴)중의 하나인 수망리경 민오름앞 반데기왓(수망리 산 19번지)의 정통(正統)과 입도맥(入道脈)에 압침(壓針)을 하고는 바닷가로 이어진 맥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수망리에 사는 경주김씨 청년 한 분이 선친이 별세하자 상복차림으로 버섯을 따려고 반데기왓 숲으로 들어가 목이(木耳)버섯이 있나 없나 두루 살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굵은 철침이 땅에 깊숙이 꽂혀있는 게 보여 무심코 뽑아버렸다. 이때 대혈을 누르면서 내려가던 호종단은 전혀 맥이 죽지 않고 있음을 이상케 여겼다.

그래서 반데기왓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압침은 뽑혀있고 상복차림을 한 청년이 목이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이곳에 꼽은 침을 뽑았느냐고 묻자 그 청년은 아무리 말 못하는 땅이지만 생땅에 침을 꽂아 놓은 게 좋아 보이지 않아 뽑았노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호종단은 그 청년의 관상을 살펴보니 천복을 타고 난 상이며

압침을 무심코 뽑아버린 것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호종단은 그곳에 선친의 묘를 쓰라고 했다. 그러면 밭복을 하여 자손이 번창하고 부자로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호종단은 그 청년에게 밭에 힘을 주어 지맥을 단단히 밟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 청년은 시키는대로 땅을 밟고 있으려니 밭바닥이 너무 뜨겁고 진동이 심하여 그만 밭을 조금 움직이고 말았다.

바로 그때 그 밟았던 땅속에서 청비둘기 한쌍이 푸드득하고 솟구쳐 한 마리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다. 아니~ 이럴수가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 얼마 후에 호종단이 되돌아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것을 알고는 “그렇게 단단히 타일렀으나 밭을 움직이다니!”하고 한탄을 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 묘를 쓰시오. 1백년 후에는 맥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것이니 밭복이 조금 늦어질 뿐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남으로 내려와 청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지어 살되 산나무를 그대로 기둥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김씨 청년은 그 말에 따라 선친의 묘를 그곳에 썼다.

그리고 호종단이 가르쳐준 의귀리 땅에 산나무를 기둥으로 삼아 초가 집을 지었다. 그러자마자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니 농작물이 잘 자라 대풍을 맞았다.

그래서 가세가 날로 부유해져 1백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자 그 현손(玄孫)이 성장하여 장가를 들었다.

당시 처가는 말을 수백필이나 보유한 부농이었다. 처가는 그런 부잣집이었지만 밭이나 집을 물려주지 않고 겨우 웅마(雄馬) 한 마리를 물려주었다.

그 사위는 이 말을 받아다가 목장에 놓아먹이는데 하루는 이 말이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말을 찾으러 산야를 뒤지다가 다시 그 목장엘 가보았다. 그런데 이외에도 이 웅마가 1백여마라의 자마(雌馬 암말)을 거느리고 의젓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말은 전부 처갓집 것이었다.

사위는 곧 처가에 찾아가 말떼를 몰아가도록 하자 처가댁에서는 즉시 목장에 가서 말떼를 몰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처가댁 말들은 다시 사위가 기르는 웅마가 있는 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몰아가면 말들은 스스로 사위의 웅마를 따라오고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처가에서도 지쳐버렸는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하고 그 말떼를 전부 사위에게 주어버렸다. 그러자 사위는 일약 부자가 되었고 말은 계속 번식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1만여필이 말을 사육하게 되었다. 바로 이 사위되는 분이 김만일(金萬鎰)이었고, 후에 조정에서 말을 진상하여 현마공신이 되었다.

그의 3남 대길(大吉.)은 산마감독관(山馬監督官)이 되었고, 이 직은 1892년(고종 29) 폐지될 때까지 12대에 걸쳐 83명 자손이 세습하였다.

그리고 그 일족들이 도내에 많이 번성하여 큰 씨족으로 성장하였다.¹¹¹⁾

9. 수망리의 설촌유래

수망리는 동쪽은 신흥2리이고, 서쪽은 한남리이며, 남쪽은 의귀리이다. 그리고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나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을 ‘물우라’, ‘무라’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정의현 산천, 1530)에 수망(水望),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摠地圖, 18세기중반),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경) 등에 수망촌(水望村),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111)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27~328쪽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374~377쪽, 장덕지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2007, 341쪽

정의군읍지(旌義邑誌, 1899년) 등에는 수망리(水望里)로 표시되어 있다.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전도(1872) 정의군지도(1872) 등에 수망악(水望岳 : 물우라오름)이라 표기한 오름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물영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수망리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¹¹²⁾



이 마을의 설촌은 550여전 전에 경주김씨(慶州金氏)가 속칭 ‘돛박낭밭’ 일대에 터전을 잡은 후 점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수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수망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1호, 남자는 103명, 여자는 100명이다.(水望里 自官門西距二十五里 民戶三十一戶 男一百三 女一百)¹¹³⁾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수

11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11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수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수망의 연가는 39호이다. 남자 86명과 여자 80명을 합하여 166명이고, 초가는 63칸이다.(水望 煙家三十九戶 男八十六口 女八十口 合一百六十六口 草家六十三間)라고 하였다.¹¹⁴⁾

수망리는 20세기 초반에 동수망(東水望)과 수망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으나 1912년의 「구한국 행정구역 명칭일람」에 수망리만 나타남으로 동수망과 수망은 1905년경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¹¹⁵⁾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그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일부를 통합한 후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수망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수망리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수망리가 되었다. 한때 이 마을은 앞동산동네[前童山洞], 장고못동네[長鼓洞], 따비튼물동네 등 자연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 때 큰 피해를 당하여 한때 폐동까지 되었고 1950년 봄에 재건되어 현재는 향사동(鄉舍洞) 일대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마을 역시 향사동 1개로 이루어졌다.

앞동산동네는 오늘의 수망리 301~2번지 일대이며 향사동으로 개칭되었다. 장고못동네는 수망리 산164번지 일대인 민오름 뒤에 형성된 동네였다. 물이 오래 고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약 110여년전 이 연못주변에 고씨, 조씨 등 6~7가구가 작은 화전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4·3사건시

11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11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337쪽

폐동되었다. 따비튼물동네는 수망리 200번지 일대 수영약 북쪽 1.5km지점에 형성된 동네였다. 널따란 평지에 990m²에 이르는 넓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화전민 40여 가구가 모여들어 축산을 하고 콩과 팥 등 밭작물을 파종하며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¹¹⁶⁾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수망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가 되었다.

○ 수망리 전설

<물영아리>

수망리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를 올라가면 수망리 산189번지에 표고 508m의 물영아리(水靈岳)라는 야산이 있다.

수망리에 사람들이 들어와 설촌한 직후에 일이다. 어느 가정에서 소를 방목하였는데 그 소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는 젊은이가 소를 찾아 들판을 헤매었으나 소를 찾을 수가 없자 드디어는 물영아리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소는 보이지를 않자 젊은이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11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337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17~321쪽

그러던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여보게 젊은이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소 값으로 이곳에 큰 연못을 만들어 놓겠네.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소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 오면 소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다시 소를 한 마리 사서 사육하면 살림이 윤택해질 것이네!”하고는 사라졌다.

그 즉시 청년은 눈을 뜨게 되었고 사방을 바라보니 이미 석양이 뉘엿뉘엿 비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삼시에 덮여지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은이는 비를 맞는데도 옷은 전혀 젖지를 않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제야 젊은이는 종전에 꿈속에 나타났던 백발노인이 하던 말을 어렵뜻이 짐작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우르릉~ 팡’하는 천둥소리가 하늘을 두 쪽 나게 만드느라 싶더니 번갯불이 번쩍 비추자 젊은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 폭우는 어느새 그쳤고 동쪽하늘에 해가 솟아오르려할 즈음에 젊은이가 깨어나 앞을 바라보니 오름정상 봉우리는 간 데가 없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호수가 이루어졌다.

젊은이는 이 천지개벽할 사태에 눈이 휘둥그레지다가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가 동네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그런 후 그 젊은이는 암만해도 예삿일이 아니므로 백발노인이 하던 말을 명심하여 소를 사서 부지런히 사육하였더니 점점 부자가 되었다. 그런 후 오름정상에 물이 여물게 가득 찼다는 뜻에서 ‘물영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부근일대에 방목하는 소들은 목이 마르면 으레 이 물을 마시러 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일대 축산업이 날로 번성하게 되었다.

10. 한남리의 설촌유래

한남리는 동쪽은 수망리와 의귀리이고, 서쪽은 위미리이며, 남쪽은 남원 2리이다.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내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이름을 부등개라 불리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 권38, 정의현 산천, 1530)에 화등지(火等枝 부등개), 탐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부등천촌(夫水¹¹⁷川村 부등개내마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囑, 1703)에 부등(夫水 부등개), 제주지도(濟州地圖, 1700년대 전반)에 화등촌(火等村 부등개마을),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경)에 화등촌(火水村 부등개마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년),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년), 정의군읍지(旌義邑誌, 1899년)에 한남리로 표시되어 있다.¹¹⁸⁾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한남리 1063-1번지 서중천변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만기(滿期)에 해당되는 점렬문(點列文)계 토기와, 이중구연(二重口緣)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기원전 2,000년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아득한 옛날에 한남리부근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¹⁹⁾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117) 등(水)은 이두에 많이 쓰이는 글자이며 등(等)의 축약형이다.

11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3-332쪽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 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38~48쪽

11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38쪽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마을에 입촌 씨족들을 살펴보면 처음 입촌은 1550년(명종 5)경 허씨(許氏)성을 가진 분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그 다음은 한양조씨(漢陽趙氏)가 들어와 살았다. 이 한양조씨는 부자로 살았지만 무남독녀였다. 그래서 신천리에 살던 연주현씨(延州玄氏) 득호(得浩)가 조씨댁 사위로 들어와 살았다. 그 후 1735년(영조 11)경에 군위오씨(軍威吳氏) 경창(景昌)이 한남리 현태수(玄泰叟)의 사위가 되어 한남리에 들어왔다. 또한 제주고씨 일침(日瞻)이 서흥리에 살다가 모친 현씨를 따라 이 마을에 들어왔다. 다음 남평문씨(南平文氏) 태종(泰宗)이 하효리에 살다가 이 마을로 이거하였다. 그후 여산송씨(礪山宋氏) 상언(祥彦)이 붉은오름과 민오름 등지에서 축산을 하다가 1900년(광무 4)경에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이외에도 장씨(張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이 점차 이 마을에 입주하게 되었다.¹²⁰⁾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화등리(火等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화등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6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19명이다.(火等里 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三十六 男九十 女一百十九)¹²¹⁾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화등리(火等里)가 되었다. 19세기 중반에 화등리는 한라산 남쪽에 있

120)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 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57~61쪽

12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3쪽

는 마을이라는 뜻인 한남리(漢南里)로 바뀌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이때부터 화등천(火水川·火等川) 또는 부등천(不水川·不等川) 등으로 불리던 하천명칭도 서중면이 되면서 서중천(西中川)으로 변경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한남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234명과 여자 228명을 합하여 462명이 고, 초가는 220칸이다.(漢南 煙家一百十戶 男二百三十四口 女二百二十八口 舍四百六十二口 草家二百二十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폐합시 한남리에 의귀리 일부를 통합시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한남리가 되었다. 그후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하였고 생존자는 해안마을이나 의귀리 등에 흩어져 살다가 4년 7개월이 경과된 1953년 7월 1일에야 마을이 재건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대전동(大田洞)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한때 이 마을은 고나물동네, 머채왓동네, 빌레가름 등 자연마을이 있었다. 고나물동네는 한남리 북쪽 한남천변에 형성되었고, 이 하천에 고나물이라는 깊은 소(沼)가 있어 식수와 가축급수용으로 쓰였다. 그렇게 동네를 이루고 살아오다가 4·3사건시 폐동되었다. 머채왓동네는 한남리 산76번지 일대였고 현재 공동목장으로 쓰고 있다. 이 지역에 돌무더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머채는 돌무더기가 많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화전농을 하는 주민들이 몇가구 모여 동네를 이루고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 빌레

가름은 지표면 바로 밑에 암반이 널려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24가호 130여명 주민들이 고씨집성촌을 형성하고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¹²²⁾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한남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한남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가 되었다.

○ 열녀정씨비에 대한 고찰

열녀정씨비가 남원읍 남원2리와 한남리 경계선도로 북쪽편 한남리 4번지에 세워져 있었다. 비석이 세워졌던 곳이 한남리이므로 한남리편에 열녀정씨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첨부하기로 하겠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은 열녀정씨가 살았던 시대에 의귀리, 남원2리, 한남리 일원에 목양관리를 위한 목호들과 축산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인들이 함께 정착하였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분히 마을의 정주역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1273년(원종 14)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격파하자 원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아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1276년(충렬왕 2) 원은 본국의 말을 갖고와 수산평(水山平)에 풀어 넣고 몽골식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이때 남원읍의 중산간일원에는 천연적으로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져 목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122)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02~308쪽

이에 따라 1300년(충렬왕 26)에는 마필이 크게 증가하고 사육시설과 운영요원이 확대되었다. 이래서 몽골양목인인 목호(牧胡)들이 중산간 일대인 의귀(동·서웃귀)와 한남등지에도 많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목호들은 천성이 강포(強暴)하고 호전적이라 고려의 관민을 살해하고 백성들을 노비로 부리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고려조정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사실 탐라는 고려의 영토이면서도 목호 때문에 정령(政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었다.

그러다 1367년(공민왕 16) 원이 망한 후에도 목호세력인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를 합적(哈赤 : 목호)의 난이라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1374년(공민왕 23) 최영(崔瑩)을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慶尙)도 등 3도의 도통사(都統使)에 임명하고 전함 314척과 군사 25,605명의 대군을 인솔하고 제주목호를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이 난에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 탐라지에는 石邦里甫介)가 죽었다. 그의 부인 정씨(鄭氏)는 자식이 없고 미모가 뛰어났다. 이 정씨를 탐낸 안무사의 군관들이 유혹했지만 정씨는 끝내 듣지 않고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열렬한 그의 정절이 조정에 전해지자 정려(旌閭)되었고, 1834년(순조 34) 3월에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웠다. 이 비는 만인에게 정표하기 위해 도로변에 세웠는데 이로 인하여 지명을 정비(鄭碑)못이라 하였다.

이 비는 정면에는 烈婦鄭氏之碑라 횡서로 쓰여 있고, 그 아래 해설문이 종서로 적혀있다.

高麗石谷里甫介之妻 哈赤之亂其夫死

고려 석곡리 보개의 처가 합적의 난에 그의 남편을 잃었다.

鄭年少無子有姿色 按撫使軍官强慾娶之

정씨가 나이가 젊은데다 아들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무사의 군관이 억지로 아내를 삼으려하였다.

鄭以死自誓引刀 慾自勿竟不得娶至老不嫁事

정씨는 죽기를 맹세하고 칼을 당겨 찌르려함으로 끝까지 그의 뜻을 빼앗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늙도록 개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 비석 후면에는 중서로 이렇게 쓰여 있다.

到處見聞 가는 곳마다 보고 들으니

莫非其惠 그 은혜 아님이 없네.

重修古跡 고적을 중수해서

且矜無后 후없는 이를 불쌍히 여겼다.

特下後根 특별히 훗날에 그 근본을 드리워

改造石碑 돌비석을 새로 고쳤다.

牧使 韓公 (韓應浩목사를 일컬음)

道光十四年三月 일 [1834년(순조 34) 3월]

이 비는 남원읍 남원2리와 한남리 경계도로 북쪽편인 한남리 4번지 감굴과수원에 세워져 있었으나 2008년 9월 시점에는 한남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비신의 높이는 58cm, 너비는 30cm, 두께는 10c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비석으로 글씨는 선명하게 보인다.¹²³⁾

123) 탐라지(정의현조 인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359쪽

남제주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2006, 325쪽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251~252쪽

남제주 문화유적, 남제주문화원, 2007, 249~250쪽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63~164쪽

제주사 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302쪽

○ 한남리 전설

<한남리 설촌자인 허씨와 당>

한남리 마을을 설촌한 허씨는 정승벼슬을 지냈는데 같은 허씨인 하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부인과 아들 일곱 형제와 더불어 단란하게 살아가다가 하루는 그는 부인과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대정땅 물 막은 섬인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그런 후 허씨는 다시 부인을 얻었는데 그 작은 부인이 큰 부인과 자식을 왜 귀양 보냈느냐고 하면서 데려다 함께 살자고 자꾸 정승에게 졸랐다.

허정승은 하는 수 없이 이를 허락하니 작은 부인은 배를 빌어 마라도에 가서 큰 부인을 만나 모시러 온 경위를 설명하고 함께 한남리 땅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큰 부인과 아들들도 절해고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던 때라 기꺼이 작은 부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하여 배를 타고 물에 이르자 작은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일곱 형제를 업고, 안고, 걷게 하면서 먼저 집으로 갈 터이니 형님은 바다에 익숙하니까 바닷을 잡고(해산물을 채취) 뒤따라오시오.”라고 하였다.

사실 한남리 땅은 중산간지역이라 해산물을 먹어보기가 어려운 고장이라 큰 부인은 이를 수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큰 부인은 해변에서 열심히 바닷을 잡고 집에 도착해보니 막내가 보이지 않았다. 큰 부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작은 부인이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귀찮아 내버리고 왔다고 생각하고는 막내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그 막내아들은 작은 어머니 치마폭에 뽕여 길을 가다가 그만

소르르 하게 살짝 길가에 빠지고 말았다.

작은 어머니와 형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리운 고향으로 부지런히 걸어나갔다.

그러자 막내는 길을 잃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가시에 눈이 찢려 그만 봉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길을 잃고 돌아다녔다.

큰 부인은 무작정 막내를 찾아 돌아다니다보니 힘도 들었고 갈증이 몹시 일어났다.

그때 멧돼지가 지나간 발자국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눈에 띄어 그 물을 빨아먹었다. 그러자 입에서 돼지똥과 오줌냄새가 몹시 일어나 몸에서 악취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주변을 뒤졌더니 봉사가 된 막내를 다행히 찾을 수가 있었다.

그 연락을 받은 큰 부인이 구역질나는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오자 정승은 더럽다고 크게 화를 내며 큰 부인을 내쫓아버리니 할 수 없이 이곳 당밭에 살았다.

그 이후 큰 부인은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지내다 이곳 당신(堂神)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당밭에 치성을 드리러 갈 사람은 하루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당은 고분당¹²⁴으로 옮겨졌고, 또 다시 당밭머리 큰 폭낭알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¹²⁴⁾

<한남리 빌레가름 설촌>

빌레가름은 한남리 마을 북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서중천 동쪽 동산 위에 펼쳐진 넓은 들판이다. 이곳은 원래 ‘섯홈밭’이라고 불렸다.

이곳 동네는 원형인데 가운데가 남북으로 돌빌레가 뻗혀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빌레가름’이다.

124)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03~304쪽

마을중심의 돌빌레는 길 이 되었고, 길 동쪽에 주로 고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다가 점차로 길 서쪽에도 거주하기 시작하여 30여 호를 이루었다.

제주고씨 영곡공 17세손 도훈장 제룡(濟龍)은 선조 대대로 90여년 동안 동집터에서 터전을 닦아오다가 유명한 풍수가 ‘정 당장’이 빌레가름에 새 터전을 자리 잡으면 향후 100년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 서기 1846년 오촌당숙인 익검(益檢), 익모(益模), 익년(益年)과 함께 이곳 빌레가름으로 이주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집안은 1948년 4·3사건 때까지 103년간 많은 유립을 배출하며 풍요롭게 살아왔다. 정당장의 예언에 따라 100년을 채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화(禍)를 면할 수 있었지만 100년을 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103년째 되던 해 1948년 4·3사건을 만나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¹²⁵⁾

11. 위미1리의 설촌유래

위미1리는 동쪽은 위미2리이고, 서쪽은 종남천 넘어 신례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신례리와 접하고 있다.

위미1리의 옛 이름은 ‘웨미’, ‘웨밋개’이다.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과 탐라순력



125)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향토지 편찬위원회, 2007, 89쪽

도(耽羅巡歷圖 漢拏壯囑, 1703) 등에 우미포(又尾浦 : 뽕뎡개), 우미촌(又尾村 : 뽕미믈),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18세기후반)에 우미촌(又尾村 : 뽕미믈),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우미리(又美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서위미리(西爲美里),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 1904)에 동미(東美 : 동위미), 신미(新美 : 새위미), 위미(爲美)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¹²⁶⁾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南槎錄)에는 정의현의 수륙군을 열거하며 병선을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서쪽 30리에 우미포(又尾浦)가 있다고 적었다.

1439년(세종 21)에 위미리 2878번지에 우미연대(又尾煙臺)를 설치하여 왜구내침을 감시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위미리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위미1리 실존은 1600년경에 고좌수(高座首)가 상위미 큰터왓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후 셋뽕미(말고랑터)에는 한좌수(韓座首)가 들어와 살았다. 1700년경에는 가운데썰일대에 연안김씨(延安金氏)가 들어왔다. 이어서 연안김씨의 사위가 된 제주고씨(濟州高氏)와 이때를 전후하여 군위오씨(軍威吳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여산송씨(礪山宋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¹²⁷⁾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2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314쪽

12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72·313쪽
위미리지, 위미신용협동조합, 1991, 55쪽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우미리 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16호, 남자는 341명, 여자는 439명이다.(又尾里 自官門西距四十里 民戶一百十六 男三百四十一 女四百三十九)라고 하였다.¹²⁸⁾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새위미의 연가는 79호이다. 남자 192명과 여자 208명을 합하여 400명이고, 초가는 225칸이다.(新美 煙家七十九戶 男一百九十二口 女二百八口 合四百口 草家二百二十五間)라고 하였다. 또한 위미연가는 102호이다. 남자 238구, 여자 237구를 합하여 475구이고, 초가는 203칸이다.(爲美 煙家一百二戶 男二百三十八口 女二百三十七口 合四百七十五口 草家二百三間)¹²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미리(爲美里)는 19세기말에 이르러 동위미(東爲美)와 서위미(西爲美)로 나뉘었다. 동위미와 서위미의 중간음인 위(爲)를 생략하여 동미(東美), 서미(西美)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또 신미(新美)가 분리되어 동미, 서미, 신미 등 3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3개 마을은 1910년 이전에 위미(爲美)로 통합된 듯하다.¹³⁰⁾

그리고 마을명칭은 18세기에는 우미리(又尾里), 19세기중후반에는 우미리(又美里)로 되었다. 그러다 19세기말에 위미리(爲美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자왈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

12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쪽

12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쪽

130)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1쪽

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 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폐합때 위미1리 일부(생길악지역)는 신례리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¹³¹⁾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으며 그후 위미1리와 2리로 나누어졌다.

현재 위미1리는 서성동(西城洞), 대화1동(大和1洞), 대화2동(大和2洞), 명륜동(明倫洞), 상위미동(上爲美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성동은 위미1리 서쪽 섯벵디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고, 대화동은 위미1리 해안인 가운데섬, 조랑개, 앞개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명륜동은 대화동 위쪽의 웃동네와 마루왓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상위미동은 웃뽕미라고도 하며 명륜동 위쪽 감낭굴(柿木洞)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1960년 5월 1일 남원면 위미출장소가 신설되었으나 2004년 7월 1일 폐지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위미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

131)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1쪽
학림지, 남원읍 하례2리, 1994, 49쪽

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가 되었다.

○ 위미1리 전설

<상위미 설촌터와 고좌수>

고좌수가 400여년 전 상위미(웃뽕미) 큰터왓에 들어와 터를 잡으니 이때부터 위미리 설촌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짓고 드넓은 토지를 경작하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니 위미리에서는 가장 큰 세력가였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마을사람들이 상위미 지경에 밭에 일을 가노라면 영락없이 고좌수가 불러서 자신의 집일을 시켜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좌수의 일을 무상으로 하여야 했다. 그는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었고 욕심도 많았기에 다른 사람이 지닌 물건도 제 마음에 들었다하면 억지를 써서라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차차 고좌수의 방자한 행동과 많은 재력이 정의현에 알려졌다.

바로 고좌수의 집에 가면 없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녔다.

이런 소문을 들은 현감은 고좌수에게 망신을 주려고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고좌수에게 “너희 집에 탕건 100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좌수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 있습니다. 그 정도야 저희 집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하고 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현감은 내심 크게 놀랐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탕건이 당시 모자대용으로 쓰는 것이라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현감이 놀리려고 한 말에 그것도 100개나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자 현감은 즉시 관원을 불러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고좌수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다.

그래서 정의현 관원이 고좌수를 데리고 상위미로 향하였다. 그때 고좌수는 관원을 따라가면서도 근심이 가득하였다.

사실 집에는 탕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탄로 나면 자기는 곤경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한남리 사령골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고좌수가 엄숙한 태도를 취하며 “현청의 높으신 관원을 땅을 밟고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이곳까지 배와 무명을 깔도록 할 터이니 그런 후 그 피륙 위를 밟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 관원은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는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자 고좌수는 거의 뛰다시피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황급히 일부 하인들에게는 위미리 마을안을 돌아다니며 탕건 100개를 수거해 오도록 하고 일부 하인에게는 창고에 있는 배와 무명을 꺼내어 한 줄로 한남리 사령골까지 깔도록 하였다.

그런 후 고좌수는 초조하게 탕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하인들이 헐레벌떡 탕건 100개를 짊어지고 도착하였다.

이를 보자 고좌수는 ‘살았다!’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를 창고에 넣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관원을 상위미 집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그 관원은 길에 칸 천위를 걸어 고좌수 집에 이르니 대기하던 고좌수가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우선 탕건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고좌수가 앞장서서 창고안으로 안내하였다. 바라보니 100여개나 되는 탕건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일이 현청에 보고되자 고좌수의 명성은 정의현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떨쳤다. 이런 고좌수도 그 수명은 끝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의현청에 혼자 다녀오다가 그만 술에 취해 한남리 사령골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그런 며칠 후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에 의해 고좌수의 시신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세히 살펴보니 이때까지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바로 그 고좌수가 아닌가? 그 청년은 순간 분노를 느낀 나머지 허리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어 시신에 있는 성기를 절단하고 그것을 시신이 입에다 물려버린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

한편 고좌수 가족들은 뒤늦게 사망소식을 듣고 비참한 죽음이지만 체면 때문에 성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래서 육지에서 유명한 지관을 청해 와서 명당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육지지관이 현지에 도착해서 소문을 들으니 고좌수가 재력과 위세가 도도했지만 워낙 인심을 잃고 있어서 좋은 음택(뫓자리)을 보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소모하고 뫓자리 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고좌수 부인은 지관이 하는 일 없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일이 지나도록 무의도식하고 있었으나 시치미를 떼고 정성껏 대접하였다.

이에 그 지관은 망인은 비록 달갑지 않았지만 그 부인의 마음씨에 탄복하여 부인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명당자리를 골라주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 뫓날부터 정의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위미2리 대성동 지경에 뫓자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뫓자리를 보아는 후 그 지관은 고좌수의 부인을 불러서 주위를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당부를 했다. “이곳은 ‘황년지지’라는 명당터인데, 하관을 할 때는 누구도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인과 믿을 수 있는 충직한 하인 한 명만 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아

래가 바뀌도록 얹어서 매장을 하고 일이 끝난 후는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을 파헤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꼭 지켜야 가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지관은 즉시 떠나 버렸다.

이런 후 상가에서는 임시토룡을 했던 고좌수의 시신을 묘소로 옮겨 매장을 하게 되었다. 이때 부인은 지관이 하던 말을 명심하여 일가친척들에게 지관이 특별히 당부한 일이라며 하관은 저와 충직한 하인 한 사람만이 하겠으니 이해를 해 달라고 했다.

일가에서는 이상케 생각은 하면서도 지관이 시킨 일이라고 하니 부인이 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부인과 나이 든 하인 한 사람만이 하관을 하려고 천막을 쳐서 외부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 후에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부인이 관을 얹어서 묻으라고 하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잘못하는 일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다 지관이 시키는 일이니 너는 아무 소리 말라.”고 엄명하고 관을 얹어놓고 개관을 덮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니 앞으로 입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상한 장례가 끝났고 그럭저럭 유수같은 세월이 흘렀다. 고좌수의 아들 형제도 성장하면서 큰 키에 힘도 몰라보게 불끈불끈 솟구쳐 자꾸 밖에 나가 싸움을 하고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이 소문은 이 동네 저 동네 퍼졌고 정의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때 부인은 아들들이 천하장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 뒤통자 기운으로 장수가 나게 될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부인은 두 아들을 불러 앉이고는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람이란 때가 올 때까지 근신하고 기다려야 하니 경거망동은 삼가도록 엄중히 타일렀다.

그러나 아들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고 더구나 큰 아들은 “이 좁은 제

주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좀 더 큰 뜻을 펴보겠다.”며 한양으로 가버렸다.

집에 남은 작은 아들은 형마저 없으니 온통 자기세상을 만난 것처럼 동네 사람과도 싸움질을 하여 두드리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아버지때부터 재산을 일구어 놓은 충직한 하인들에게까지 난폭한 짓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하인들도 이 덕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충직한 하인이 “이 놈아, 제 애비 시신도 뒤집어 묻은 주제에 왜 그렇게 망동을 부리느냐.”며 편잔을 주고는 훌쩍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이게 웬 말이냐?”며 그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방금 하인에게 들었다며 아버지 시신을 얹어 묻은 게 사실이라고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던 어머니도 둘째가 아버지 시신을 얹어 묻었다면 불효라며 계속 다그치자 사실은 우리 가문을 흥하게 하기 위하여 지관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너는 모른 척 하라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아니었다. 어머니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역군들을 이끌고 고좌수의 묘로 가서 파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개판을 걷어내자마자 황새 두 마리가 뒷발을 세우고 막 날려는 자세로 있다가 그만 ‘푸드덕~’하고 날아가 버렸다. 앗~ 모여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아~ 우리 가문은 이제 망했구나.”하고 장탄식을 하다가 큰 며느리를 즉시 불렀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애야, 우리 가문은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두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 숨어 살아라. 그리고 어린애를 잘 키워 우리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라!”고 간곡하게 주문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엮고 집을 막나가자마자 큰 아들이

서울에서 중죄를 지어 관아에 잡혔다는 기별이 왔다.

그러나 비운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얼마 없어 현청에서 관원들이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인도 알지도 못하였는데 집안을 뒤진 관원들은 마룻장 밑에서 당시 민가에 소지를 못하게 한 화약이 석 섬이 나왔고, 담배씨도 한 섬이나 나왔다.

이러자 관원들은 이 물건이 역적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추어 놓은 게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부인과 둘째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지만 집안에서 엄연히 화약과 담배씨가 나왔으니 변명해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이래서 부인과 둘째는 관아에 잡혀가고 고좌수 가문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상위미에 있는 큰터왓의 ‘쥐두리터’에서는 기와편과 각종 질그릇 파편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좌수의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¹³²⁾

○ 개화를 선도한 위미항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2월에 일제는 한반도와 일본간에 자유도항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6월부터 제주~오사카(大阪)간 항로에 취역한 기미가요마루(君代丸 930톤)가 도내 주요항구를 빙돌면서 도내 젊은이들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공업지대로 실어 날랐다.

1929년의 경우 제주도에서 22,487명이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중 위미항을 이용한 승객은 2,357명이나 되어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도일한 항구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미항에 모여들게 되니 위미항 주변에는 상공업이 뒤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132) 남제주군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2006, 383~386쪽

- 위미1리 앞개 서쪽편 냇빌레 지경의 밍금애에서는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초기 선박산업이 일어났다.
- 조천 출신 황순하(黃舜河)씨가 위미항 북쪽 고망물 위쪽에 소주공장을 세워 순도 35도가 넘는 술을 제조하니 부산과 목포등지에서 대 인기였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 이 돈으로 후에 오현학원을 세워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 조천 출신 김재방과 황지하가 각각 위미항 입구(현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당시 전방(塵房)이라 부르는 잡화상을 개설하니 대호향이었다.
- 위미항 입구에 이 마을 정난향 여사가 여관을 개설하였으니 도일하기 위해 모여든 이용객들이 끝이질 않았다.
- 대정 출신 고은표가 위미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일주도로 남측에 이발소를 열었다. 당시 남원면에서 단 하나의 이발소라 모여든 이용객들로 분주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게 대단한 일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문명에 소외되었던 농촌주민들에게는 신 문명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게 당시 남원면에서는 근대 상공업의 효시였고, 따라서 후에 위미리지역 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2. 위미2리의 설촌유래

위미2리는 동쪽은 위미3리이고, 서쪽은 위미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한남리와 접하고 있다.

위미2리의 옛 이름은 ‘뽕미’, ‘뽕밧개’이다.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囑, 1703) 등에 우미포(又尾浦 : 뽕미개), 우미촌(又尾村 : 뽕미마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18세기후반)에 우미촌(又尾村 : 뽕미마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우미리(又美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동위미리(東爲美里),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 1904)에 동미(東美 : 동위미)로 표시되어 있다.¹³³⁾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南槎錄)에는 정의현의 수록군을 열거하며 병선을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서쪽 30리에 우미포(又尾浦)가 있다고 적었다.

이 마을에는 1500년(연산군 6)경에 자배봉수(資盃烽燧)를 설치하여 왜구내침을 감시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위미리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 위미2리 설촌은 1600년경에 현 위미1리경 상위미 큰터왓에 고좌수(高座首)가 정착을 한 이래, 위미2리경 신세기마을에 성씨(成氏)가 들어와 살았다. 또한 안가름(현 상원동) 일대에 양천허씨(陽川許氏), 남양홍씨(南陽洪氏), 신천강씨(信川康氏) 등이 들어왔고, 그들이 살았던 터를 지금도 홍비장터, 강의방터라 전해져 내려온다. 그 후 250여년 전에는 군위오씨(軍威吳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연주현씨(延州玄氏)가 들어와 거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

13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7~318쪽

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우미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16호, 남자는 341명, 여자는 439명이다.(又尾里 自官門西距四十里 民戶一百十六 男三百四十一 女四百三十九)라고 하였다.¹³⁴⁾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위미의 연가는 69호이다. 남자 136명과 여자 158명을 합하여 289명이고, 초가는 189칸이다.(東美 煙家六十九戶 男一百三十六口 女一百五十八口 合二百八十九口 草家一百八十九間)라고 하였다.¹³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미리(爲美里)는 19세기말에 이르러 동위미(東爲美)와 서위미(西爲美)로 나뉘었다. 동위미와 서위미의 중간음인 위(爲)를 생략하여 동미(東美), 서미(西美)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또 신미(新美)가 분리되어 동미, 서미, 신미 등 3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3개 마을은 1910년 이전에 위미로 통합된 듯하다.¹³⁶⁾

그리고 마을명칭은 18세기에는 우미리(又尾里), 19세기중후반에는 우미리(又美里)로 되었다. 그러다 19세기말에 위미리(爲美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134) 남제주군 문화유적분포도, 남제주군, 2003, 210쪽

13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7쪽
(남, 여 합계가 틀림)

13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8쪽

‘자왈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 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2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으며 그후 위미1리와 2리로 나누어졌고, 1989년 4월 6일에는 위미2리에서 위미3리가 분할되었다.

현재 위미2리는 세천동(細川洞), 상원동(上元洞), 대성동(大成洞), 대원상동(大原上洞), 대원하동(大原下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세천동은 근내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근내는 ㄱ는내 즉 좁은 하천을 가리킨다. 위미2리 가장 동쪽에 있는 동네이다. 상원동은 동카름의 마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안카름인데 1940년 강인규 구장이 유지들과 의논하여 상원동으로 개칭하였고, 위미2리 가장 서쪽에 있는 동네이다. 대성동은 위미2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자배봉 남쪽 망앞(望前)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대원동은 상원동 동쪽 일대에 형성된 동네로 동쪽은 대원상동, 서쪽은 대원하동으로 나누어진다.¹³⁷⁾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

137)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3쪽

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다.

13. 위미3리의 설촌유래

위미3리는 동쪽은 남원리이고, 서쪽은 위미2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한남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경계선에 있는 남원리 2490~8번지에는 1439년(세종 21) 금로포연대(金路浦煙臺)를 축조하였다. 이 금로포연대를 ‘셀로개연대’라고도 칭하였다. 이에 따라 연딴, 연딴벵딴, 일제강점기 50,000분지 1 지형도에는 한자로 연대동(煙臺洞)으로 표시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이 마을의 설촌은 1833년(순조 33) 374번지에 고영훈(高榮訓)이 정착하면서 차차 입주자가 늘어 30여호 가까운 동네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위미리(又美里)가 되었고, 이 마을은 종정동(宗正洞)이라 개칭하여 위미리에 속해 있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자왈 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3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방위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이 남원리와 위미리 등지로 소재를 하였던가 4·3사건이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든 1952년 다시 40여호가 되돌아와 마을을 재건하였다.

현재 위미3리는 종정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정골, 종정굴로도 불리는데 종정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그 후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하자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고, 1989년 4월 6일에는

종정동은 위미3리로 분리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3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가 되었다.

14. 신례1리의 설촌유래

신례1리는 동쪽은 위미1리이고, 서쪽은 하례리이며, 남쪽은 신례2리, 북쪽은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신례1리의 옛 이름은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狐村)’이라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책자 등에 호아,



호촌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653년(효종 4)에 간행된 탐라지 건치연혁조에 보면 1300년(충렬왕 26)에 도내에 현촌(縣村)을 설치 하였고, 그 중에 ‘호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08년(융희 2)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군치(郡置)연혁 전라도조에는 ‘호아’로 기록하였다. 한편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정의·대정 고적조에는 ‘호아’는 일명 ‘호촌’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 ‘호아’가 나중에 ‘호촌’으로 변경된 듯하며 지명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⁸⁾

그후 예촌, 예촌으로 불려왔고 하례리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호아현(狐兒縣), 조선시대에 한때 호촌면(狐村面)의 중심마을 역할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6년 5월 정유 5일)에 호아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호촌리, 탐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호촌(狐村), 탐라지(耽羅誌, 1653)에 호촌리(狐村里),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와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摠地圖, 18세기중반) 등에 호촌(狐村), 호구총수(戶口摠數, 1789, 정의·호촌면)에 호촌리(狐村里),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와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예촌리(禮村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상예촌리(上禮村里)라 하였다.

이 마을의 설촌은 1300년(충렬왕 26)에 호아현이 신하례리 지방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마을에는 성씨(成氏), 문씨(文氏), 조씨(趙氏)가 들어와 설촌하였다고 하며, 그 근거로 ‘성구성이왓(1002번지)’, ‘문세운이터(1005번지)’, ‘조조기돌래(992번지)’ 등 지명이 현존하고 있다. 처음 들어온 성·문·조 삼씨가 거주한 이후 점차 제주양씨(濟州梁氏), 광산김씨(光山金氏), 군위오씨(軍威吳氏), 동래정씨(東萊鄭氏), 연안김씨(延安金氏), 연안이씨(延安李氏), 나주김씨(羅州金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입주하여 마을은 확대되어 갔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호촌리(狐村

138)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1993, 717쪽

里)는 정의현 관할이었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호촌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46명, 여자는 181명이다.(狐村里 自官門西距四十五里 民戶四十九 男一百四十六 女一百八十一)라고 하였다.¹³⁹⁾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750년(영조 26)에 호촌리 서남부에 오지리(烏旨里, 까마귀마루)가 설촌되었다. 그러나 호촌리라는 마을명칭은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1813년(순조 13)에 호촌리는 예촌리(禮村里)로, 오지리(烏旨里)는 분리되면서 오지리(梧旨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875년(고종 12)에 마을명칭이 상예촌리(上禮村里)로 변경되었으나 얼마 없어 다시 예촌리로 환원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예촌리(禮村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예촌마을의 연가는 144호이다. 남자 316명과 여자 353명을 합하여 66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禮村 煙家一百四十四戶 男三百十六口 女三百五十三口 舍六百六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예촌리에 위미리 일부(생길악지역), 하예촌리 지역일부(닥남벵디 일부)를 병합하여 신례리(新禮里)라 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해변마

13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28쪽

을은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 반면에 정의읍성이 있었던 성읍리에서 시작하여 신흥2리, 의귀리, 한남리, 신례1리를 경유하여 우면(후에 서귀면)으로 이어지던 교통체제는 그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신례1리를 비롯한 중산간 마을은 점차 지역사회발전이 둔화되고 말았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례리가 되었다. 그 당시 신례리는 현재의 중산간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은 1구, 남은 2구였다. 신례리는 사가동(四街洞), 만지동(滿池洞), 역원동을 관할하였고, 신례리 2구는 공천포(貢泉浦), 부전동(釜田洞), 상방동(上方洞), 종남동(宗南洞)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으로 신례1리는 큰 피해를 당하였고, 12월 12일 공천포로 소개하여 한겨울을 보낸 후 1949년 3월에 신례1리 사가동에 축성을 하고 다시 올라왔다. 1949년 9월 1일 지금의 한전변전소사옥 뒷길 즉, 상방터와 종남동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은 신례1리, 남은 신례2리로 확정하였다.

현재 신례1리는 사가동(四街洞), 만지동(滿池洞), 역원동, 부전동(釜田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사가동은 마을중심 네거리에 형성된 동네라 하여 한자차용표기로 사가동이라 하였다. 만지동은 마을 서북부 만지넷도 서쪽에 위치한 동네이다. 역원동은 사가동 남쪽에 형성된 동네이며, 부전동은 마을 남쪽지역인 속칭 가마왓부근에 형성된 동네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례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

다. 이에 따라 신례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가 되었다.

15. 신례2리의 설촌유래

신례2리는 동쪽은 위미1리이고, 서쪽은 하례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신례1리와 접하고 있다.

신례2리의 옛 이름은 ‘공새미(貢泉味)’였다. 바닷가에서 양질의 생수가 풍부하게 솟아올라 공새



미(송샘)이라 불리웠다. 오늘날 한자차용표기로 공천포(貢泉浦), 공천포(公泉浦), 공천포(空泉浦)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 마을의 설촌시기는 불과 140여년 밖에 안 되지만 신례천넷가 동쪽바위에 비교적 규모가 큰 2개의 큰 바위그늘집자리가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적갈색 토기편을 수습하였다. 또한 신례리 지석묘 제1호(우뽄ㄴ루)와 신례리 지석묘 제2호(너븐들)가 이 고장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는 탐라초기(BC200~AD200)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부근에는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¹⁴⁰⁾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

14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4~147쪽

공천포지, 남원읍 신례2리, 1994, 33~41쪽

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의 설촌역사는 전라남도 해남에 살던 윤인호(尹仁好)가 1834년 겨울에 제주에 유배되어 지금의 조천읍 동백동이라는 곳에 살았다. 그 아들인 윤성표(尹聖表)가 구성녀(具成女)라는 배필을 맞아 혼인을 하여 살다가 1873년(고종 10)에 따뜻하고 물 좋은 땅 신례2리(貢泉浦·公泉浦)을 찾아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은 바닷가이므로 어자원이 풍부하고 모래판사이로 풍부한 생수가 용출하여 살기에 적당한 곳이므로 인근 위미리에서 연안김씨(延安金氏)와 하례리에서 제주양씨(濟州梁氏) 등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공천포라는 마을이 형성되었다.¹⁴¹⁾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예촌리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예촌리에 위미리 일부(생길약지역), 하예촌리 일부(닥남벵디 일부)를 병합하여 신례리(新禮里)라 하였는데 공천포도 신례리에 속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이 마을은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

141) 공천포지, 남원읍 신례2리, 1994, 70쪽

군 남원면 신례리가 되었다 그 당시 신례리는 현재의 중산간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은 1구, 남은 2구였다. 신례리 2구는 공천포(貢泉浦), 부전동(釜田洞), 상방동(上方洞), 종남동(宗南洞)을 관할하였는데 상방동과 종남동은 1948년 4·3사건으로 폐동이 되었다.

현재 신례2리는 공천포(貢泉浦)와 황학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공천포는 바닷가 동네로 주민들이 거의가 이곳에 모여산다. 바닷가에 천연적으로 좋은 용천수가 솟아나 호아현에 청정한 샘물을 바친다하여 공샘미로 불리웠다. 황학동은 공천포 북쪽 신례1리와 접해있는 동네이며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하여 항애골로 부르게 되었고 이를 황학동이라고도 한다.

1949년 9월 1일 지금의 한전변전소사옥 뒷길 즉, 상방터와 종남동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은 신례1리, 남은 신례2리로 확정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례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례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가 되었다.

16. 하례1리의 설촌유래

하례1리는 동쪽은 신례리이고, 서쪽은 효례천 넘어 하효동과 상효동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하례2리와 접하고 있다.

하례1리의 옛 이름은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狐村)’이라 하였다. 하

레리는 신레리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호아현(狐兒縣), 조선시대의 한때 호촌면(狐村面)의 중심마을 역할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6년 5월 정유 5일)에 호아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호촌리, 탐



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호촌(狐村), 탐라지(耽羅誌, 1653)에 호촌리(狐村里),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와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摠地圖, 18세기중반) 등에 호촌(狐村), 호구총수(戶口摠數, 1789, 정의·호촌면)에 호촌리(狐村里),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8세기후반, 정의현·면촌)에 오지리(烏旨里),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와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오지리(梧旨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하예촌리(下禮村里)라 하였다.¹⁴²⁾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를 살펴보면 효례교 북동쪽 500m지점 평탄지(유물산포지 1지구)에서 갈색토기편을, 그리고 예촌망 과수원(해안가 유물산포지)에서 소량의 토기과편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례천 냇가 동쪽 절벽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공이 등 석기류, 또 한군데 효례천 동쪽절벽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향아리형 토기, 공이, 흙돌, 동물뼈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탐라전기 때인 AD200~500년 어간에 사용했던 유물들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하례1리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¹⁴³⁾

14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77~278, 321~322, 327~329쪽

이 마을은 1300년(충렬왕 26)에 호아현(狐兒縣)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하례1리 설촌은 1700년 이전부터 원주변씨(原州邊氏), 양천허씨(陽川許氏), 광산김씨(光山金氏), 1700년대가 되자 고부이씨(古阜李氏), 신천강씨(信川康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제주양씨(濟州梁氏), 연안김씨(延安金氏), 남평문씨(南平文氏), 1800년대에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입촌하여 마을이 확장되었다.¹⁴⁴⁾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호촌리(狐村里)는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 95-11번지 예촌망(禮村望)에는 1439년(세종 21) 호촌봉수(狐村烽燧)를 축조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하였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호촌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46명, 여자는 181명이다.(狐村里 自官門西距四十五里 民戶四十九 男一百四十六 女一百八十一)라고 하였다.¹⁴⁵⁾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4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1~155쪽

144) 하례마을, 남원읍 하례리, 1998, 44~47쪽

14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28쪽

1750년(영조 26)에 이르러 가마귀믈루에 사는 대표 7호(原州邊氏, 古阜李氏, 信川康氏, 延州玄氏, 濟州梁氏, 延州玄氏, 南平文氏)가 모여 협의 끝에 새로운 마을을 탄생시키고 마을이름을 오지리(烏旨里 : 가마귀믈루)라 하였다.¹⁴⁶⁾ 그러나 가마귀집 같다고 하여 오지리(烏旨里)라고 칭했던 마을이름은 당시 현감의 인증을 받지 않고 마을자체 내에서만 통용되었던 명칭인 것 같다. 그것은 이후에도 호촌이라는 마을이름이 지도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813년(순조 13)에 오지리(烏旨里)를 오지리(梧旨里)로 개칭하였고, 1875년(고종 12)에는 하예촌리(下禮村里)로 변경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하예촌리(下禮村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하예촌리 연가는 92호이다. 남자 203명과 여자 201명을 합하여 404명이 고, 초가는 280칸이다.(下禮 煙家九十二戶 男二百三口 女二百一口 合四百四口 草家二百八十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하예촌리는 신례리 일부와 상호리 일부를 통합함과 동시에 하예촌리를 하례리(下禮里)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관할이었다.¹⁴⁷⁾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하례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하례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가 되었다. 1945년초에 학림동 주민들이 당국에

146) 하례마을, 남원읍 하례2리, 1998, 41~42쪽

147)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8~339쪽

건의하여 하례2구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으로 그해 11월 하순에 하례2구 주민들은 해안마을인 하례1리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즉시 복구가 되지 않아 하례2구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행정마을인 구(區)로서의 기능을 자동 상실하였다. 1949년 1월 3일에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민들이 희생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1962년 6월 9일 4·3사건으로 소개가 되었던 학림동(鶴林洞)지역을 다시 복구하여 재건하였다. 1965년 4월 8일에는 하례2리가 승격되어 하례1리에서 행정리가 분리되었다.

현재 하례1리는 태성동(太成洞), 장성동(長成洞), 망장포(望場浦)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태성동은 하례1리 동남부에 형성된 동네로 크게 이룬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성동은 하례1리 중심마을 서쪽에 위치하여 그 형상이 하천으로 빙 에워싸여 마치 성을 두른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장포는 하례1리 동남쪽 바닷가에 형성된 동네이며, 왜구의 내침을 살피 봉화를 올리는 등 방어시설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강장포(綱張浦)라고도 했는데 바다에 그물을 많이 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하례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하례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가 되었다.

17. 하례2리의 설촌유래

하례2리는 동쪽은 신례1리이고, 서쪽은 효례천 넘어 상호동이며, 남쪽은 하례1리이고, 북쪽은 교래리와 아라동에 접하고 있다.

하례2리의 옛 이름은 ‘직세’라 하였고, 일제강점기때 50,000분의 1 지



도에는 직사동(直舍洞)으로 표기하였다. 원래 이 마을은 예부터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리(狐村里)에 속해 있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 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1429년(세종 11)부터 성종어간에 제주도의 해발 200~400m 어간의 야초지를 빙 둘러 목마장을 설치하고 이를 10개 소장으로 나누었다. 그중 9소장은 서귀포소장 관내의 국축마(國畜馬)와 사둔마(私屯馬)를 점검하는 곳이 바로 이곳 1656번지를 중심으로 한 직사(直舍)땅이었다. 이 점마소 북편으로는 팽나무 등을 비롯한 오래된 고목들이 울울창창하게 자라며 병풍바위가 동서로 길게 뻗어 절묘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의현

에서 시작하여 중면을 넘어 우면(右面)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마을을 거쳐 영천악(靈泉岳)과 갈악산(葛岳山) 사이로 뚫려있었다.

영천악은 하례2리 마을 바로 서쪽 상호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오름 서록(西麓)에 영천관(靈泉館)과 영천사(靈泉寺)가 건립되어 있었다. 그 당시 영천관은 정의현과 대정현을 왕래하는 관리들과 제9소장의 점마를 위해 내방하는 관리들이 유숙하는 관립여관이었다.

원래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 조세진(趙世珍)이란 사람이 단신으로 육지에서 들어와 지금의 썸밀도 북측 금물과원(禁物果園)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화전민들은 뽕디왓, 올난도, 어웁도, 발진무루 등지에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화전민들이 점차 아랫마을로 내려와 직사, 돈드르, 두수오름(頭首岳) 북쪽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750년(영조 26)에 현재 하례1리 지경이 가마귀집 같다고 해서 마을이름을 오지리(烏旨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명칭은 현감의 인증을 받지 않고 마을자체 내에서만 통용되었던 이름인 것 같다. 그것은 이후에도 호촌이라는 이름이 지도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813년(순조 13)에 오지리(烏旨里)를 오지리(梧旨里)로 개칭하였고, 1875년(고종 12)에는 하예촌리(下禮村里)로 변경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하예촌리(下禮村里)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관할이었다. 또한 하예촌리(下禮村里)를 하례리(下禮里)로 개칭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하례리가 되었다. 직세 땅은 바로 하례리 일부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초에 하례리 본동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느낀 나머지 마을주민들은 당국에 건

의하여 하례2구로 인가를 받았다. 초대 구장에는 부윤방(夫允芳)이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하례리가 되었다.

1948년에 4·3사건이 발발하자 그해 11월하순에 해안마을로 소개를 당하였고 14년 동안 폐허처럼 지내다가 겨우 1962년 6월 9일에야 마을을 재건하였다. 1965년 4월 8일에는 하례2리가 승격되었고, 1967년에 녹곤수 동산과 두수오름어간 야초지대에 양마(洋麻)단지가 조성하여 33세대가 입주하였고 황무지 100정보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공업화과정에서 나일론사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양마재배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양마단지가 공업원료작물단지로 다시 감귤단지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학림동(鶴林洞)과 감귤단지(柑橘團地)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학림동은 제2효례교 북쪽 200m지점 예기소 입구 계곡 일대가 학(鶴)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학림계곡이라 하였다. 바로 이 계곡위에 형성된 동네라 하여 학림동이라 하였고, 감귤단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하례2리가 되었다. 이 지역은 5·16도로 인근에 놓여있고 서귀포시 중심부와 멀지않은 곳에 자리 잡은 관계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이 1994년 7월 8일에 개소되었다. 또한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1996년 12월 26일에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2006년 7월 1일 구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져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8년 8월 7일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이 마을 1558번지에 신설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하례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가 되었다.

었다.

○ 하례2리 전설

<하례2리 설촌과 조세진>

고려를 개국할 때 풍양(豐壤)인으로 조맹(趙孟)이라는 개국공신이 있었다. 그 12세손인 조세진(趙世珍)은 조선 성종연간(1470~1494)에 혈혈단신으로 입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원래가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형도 좋은 곳을 택했다.

그는 무주공산과 같이 아무도 살지 않은 썸밀도 북편에 입주를 하여 하례2리에 첫 설촌자가 되었다. 그 지경은 동쪽에서 시작한 능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참을 가다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그 위에는 푸른 상록수가 덮여있고 그 바로 남쪽부터 양지바른 평지가 형성되었으니 기름진 옥토였다.

그 분지 남쪽으로는 서쪽에서 효례천이 동으로 흘러와 남쪽인 바다로 내려간다. 그 하천 북편 밀림속에서 생수가 팔팔 솟아오르니 이게 썸밀도였다. 그 야말로 배산임수의 양지바른 땅이고 좌청룡우백호가 갖추어진 명당이었다.

그뿐 아니라 정의현과 대정현간 중간 위치에 놓여있고 더욱이 정의·대정간 도로가 이 분지남쪽을 지나니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그러니 관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는 이 조세진 댁에서 유숙을 하게 마련이라 가히 원(院)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요지에서 이재(理財)에 능한 조세진은 주막을 경영하여 어느새 거부로 성장하였다.

그 당시 이 고장의 부자라면 조세진과 그 동쪽 예촌마을에 사는 양수진(梁壽津)을 꼽을 정도였다.

이렇게 소문이 정의현에 퍼지자 관가에서는 이들이 혹시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닌가하고 관원이 나와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고를 관원이 조사를 나온다는 전달을 받은 조세진과 양수진 두 사람은 위미리 망오름(자배봉)까지 배와 무명을 일렬로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관원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이를 맞이하여 천위로만 걷게한후 예촌에 당도하였다. 양수진 댁에 도착한 관원은 “소문난 부자라면 무엇이든지 안 가진게 없어야 하는데, 혹시 총과 화약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당시 총과 화약이 은밀히 민가에 공급되어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관청에서는 이를 색출하여 소지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물음에 양수진은 “저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관원은 “그러면 당신은 별로 부자가 아니구먼.”하면서 서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래서 조세진댁에 이르렀다. 조세진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산해진미로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재산이 많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었다.

이때 관원이 “예촌 양수진은 부자라 해도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양수진보다는 한결 잘 사는 부자로 보인다. 요즘 부자라면 총과 화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유도질문을 하니 조세진은 주저함이 없이 총과 화약이 없는데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관원은 대동한 포졸들에게 “여봐라, 이놈을 당장 결박하여라.” 하니, 우르르 포졸이 달려들어 단번에 묶어버리고 말았다.

조세진은 자신을 과시하려다 그만 관원의 유도질문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죄인이 되고 말았다. 백번 후회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체형은 주지 않고 관청에서 재산만 몰수하고 이 마을에서 쫓아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곳에서 울분을 삭이며 조세진은 서상호로 가서 정착하였다. 그는 서상호에 물이 없음을 알고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팠더니 지하수가 용출하였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해결하였으니 후세인들이 그 공을 잊지 않고 조가물(조개물)이라 명명을 하였다.

조세진은 서상호에 살면서도 옛친구인 예촌 양수진과 사돈을 맺었다.

그러니 조세진의 딸이 양수진의 아들인 양담(梁潭)과 혼인을 하였다. 서상호에서 2대를 거주한 조씨일가는 3대째 성읍리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후손들이 발복하여 성읍, 표선, 수산 등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잘 살아가고 있다. 하례2리 조세진이 살던 땅은 1526년(중종 21)경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조정에 진헌할 곶을 재배하기 위하여 과원을 조성하였다. 이게 바로 금물과원이고, 하례리 1570번지일대이다.¹⁴⁸⁾

148) 학림지, 남원읍 하례2리, 1994, 24~26쪽

성산읍의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하고 서쪽은 표선면 하천리, 성읍리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제주시 구좌읍이다.

성산읍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¹⁴⁹⁾ 이를 살펴보면



- 온평리 유물산포지와 신양리폐총 등은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신천리 고인돌, 신산리 고인돌 등은 탐라국 형성기 때인 BC200년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그리고 성산읍 온평리에는 혼인지(婚姻池) 유적이 있으며 이는 탐라국 개국에 따른 삼성신화(三姓神話)를 탄생시킨 지역이기도 하다.

고려말에 편찬한 영주지(瀛州誌)에 의하면, 영주(瀛州)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홀연히 세 신인(三神人)이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났다. 장(長)은 고을나(高乙那), 다음(次)은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매우 크고 비범한 모습이였다. 늘 가죽옷을 입고 고기만을 먹으며, 바다고기 잡이와 사냥으로 일을 삼고 살았다.

삼신인은 온평리(溫平里) 해안에서 벽랑국(碧浪國) 삼공주를 맞이한 후 해안 근처에 있는 조그만 못(池)에서 목욕제게하고 나이차례대로 서로 짝을 맞추어 혼례식을 올렸다고 한다.

세신인은 곧 나이 차례로 세공주와 각각 혼인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149) 남제주군지 1권 471, 485, 489쪽. 남제주군 2006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高乙那)는 제일도(第一都), 양을나(梁乙那)는 제이도(第二都), 부을나(夫乙那)는 제삼도(第三都)에 자리를 정하였다.

이로부터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가꾸게 되니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하여 놓았다. 이렇게 하여 탐라국이 개창 되었다고 한다.¹⁵⁰⁾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 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역사적으로 성산읍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와서이다.

이를 살펴보면,

- 1270년(원종11)부터 고려조정에서는 영암부사(靈岩副使) 김수(金須)와 시랑(侍郎) 고여림(高如霖) 등에게 명하여 탐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환해장성을 쌓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여림의 관군은 동제원(東濟院)에서 삼별초의 별장 이문경(李文京)에게 패하자 이번에는 삼별초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동원하여 환해장성을 축성하였다. 그 잔해가 온평리 해안에 2.5km, 신산리 600m가 남아 있다.
- 1271년(원종12) 삼별초의 장군 유재섭(劉在燮)이 전선 80여척을 이끌고 들어와 김통정(金通精) 장군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현 성산읍 고성리에 석성(石城)을, 성산기슭의 오적포(烏賊浦)에서 수마포(受馬浦)까지 약 1km 토성을 쌓고 이곳을 본영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귀일촌 향파두리로 옮겼다.¹⁵¹⁾
- 1277년(충렬왕3) 원은 수산평(首山坪)에 동아막(東阿幕)을 세워 말 160필, 소, 낙타, 양, 고라니 등을 방목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인 탐자적(탐刺赤)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여기서 양육된 말은 일출봉 서녘 기슭 바닷가에서 육지로 실려 갔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포구를 지금

150) 탐라성주유사 69-74쪽. 탐라성주유사편찬위원회. 1979

151) 성산읍지 252쪽. 성산읍. 2005

도 수마포(受馬浦)라 하고 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되었다. 1416년(태종16) 5월에 도 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서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의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旌義縣)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洪爐縣)을 예속시켰다. 그 정의현 읍성이 바로 고성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읍성이 동쪽에 치우쳐 대정현(大靜縣)과 거리가 100리나 되고 왜구내침에 방비가 어렵다하여 1423년(세종5)에 읍성을 진사리(晉舍里, 현 성읍리)로 이전 하였다.

1789년(정조13) 호구총수에는 마마면(牟爾面), 성읍면(城邑面), 촌읍면(村邑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 말에 정의현의 면을 개편 할때 현의 좌측에 놓여 있으므로 좌면으로 명명 하였다.

따라서 성산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²⁾

○ 1789년(정조13) 호구총수

고마면(牟爾面) : 종달리(終達里), 역돌리(力𪛗里), 오조리(吾召里),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

성읍면(城邑面) : 성읍리(城邑里), 궁산리(弓山里)

촌읍면(村邑面) : 난산리(蘭山里), 여온리(與溫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楓里), 하천미리(下川尾里), 신천미리(新川尾里)

○ 18세기 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좌면 : 종달리(終達里), 신달리(新達里), 력석을리(力石乙里), 오조리(吾召里),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 궁산리(弓山里), 성읍리(城邑里), 난산리(難山里), 여온리(與溫

152)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의 종합적연구 I 61-83쪽,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楓里), 신천미리(新川尾里), 하천미리(下川尾里)

○ 1872년 제주삼읍전도

좌면 : 성읍리(城邑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豐里), 하천리(下川里), 신천리(新川里), 서난산리(西蘭山里), 동난산리(東蘭山里), 신산리(新山里), 여온리(與溫里), 성산리(城山里), 역돌리(力覓里), 종달리(終達里), 수산리(水山里), 상고성리(上古城里), 하고성리(下古城里), 오조리(吾照里)

○ 1899년 정의군 읍지

좌면 : 력돌리(力覓里), 신흥리(新力覓里), 오조리(吾照里), 고성리(古城里), 성산리(城山里), 상수산리(上水山里), 하수산리(下水山里), 동온평리(東溫平里), 서온평리(西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豐里), 신평리(新坪里), 신천리(新川里), 하천리(下川里), 성읍리(城邑里)

○ 1904년(광무8) 제주목의 삼군 호구가간총책

좌면 : 력돌리(力覓里), 오조리(吾照里), 고성리(古城里), 성산리(城山里), 수월리(水月里), 화남리(花南里), 온평리(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신산리(新山里), 삼달리(三達里), 신흥리(新豐里), 신평리(新坪里), 신천리(新川里), 하천리(下川里), 성읍리(城邑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의 변천

정의면(旌義面) : 성산리(城山里), 고성리(古城里), 오조리(吾照里), 시흥리(始興里), 수산리(水山里), 온평리(溫平里), 난산리(蘭山里), 삼달리(三達里), 신산리(新山里), 신흥리(新豐里), 신천리(新川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19세기말에 종달리는 정의군 좌면에서 제주군 좌면으로 이관 되었다.

그 후 좌면이 된후 성산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06년(광무10) 9월 21일 좌면 풍헌을 좌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 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고성리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 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이 되었고 좌면을 정의면으로 개칭하였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하천리와 성읍리는 동중면으로 이관 되었으며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 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4년 정의면사무소를 고성리에서 성산리로 이전하였다.
-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면의 명칭을 소재지 마을 이름을 따서 성산면으로 개칭 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이 되었다.
- 1951년 12월 31일 신산리에 성산면신산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1961년 9월 1일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 322-3번지로 이전하였다.
-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 하였고
- 1982년 5월 24일 면사무소를 고성리 1023-2번지로 이전하였다.
- 2004년 7월 1일 신산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성산읍이 되었다.

2009년11월 말 현재 성산읍의 면적은 107.67km²이며 인구는 14,381명이다.

지역내 법정리는 11개리이고 행정리는 14개리이며 자연마을은 29개이다.

성산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고성리	고성리, 신양리
성산리	성산리
오조리	오조리
시흥리	시흥리
수산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온평리
난산리	난산리
신산리	신산리
삼달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평리	신평리
신천리	신천리

1. 고성리의 설촌유래

고성리는 성산읍사무소 소재지의 마을로 동쪽은 일출봉이 솟아있는 성산리와, 동북쪽은 오조리, 서북쪽은 수산리, 남쪽으로는 신양리, 서쪽은 온평리에 접해 있다.

고성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00년대의



고려조 때로 봐야 할 것이다. 여몽(麗蒙)연합군에 의해 삼별초군이 패한 후 원의 조정에서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삼은 것은 1277년(고려 충렬왕 3) 부터였다. 이후 제주는 100년 동안 원나라의 목장이 되는데, 당시 고성리를 포함한 수산평도 이들의 목장이었다.

조선조 효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내었던 이원진(李元鎭)이 1653년(효종 4)에 쓴 〈탐라지〉에 의하면 ‘옛 정의현은 현 동쪽 27리에 있다. 원나라 목자 합적(哈赤)이 여기서 본주의 만호(萬戶)를 살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271(고려조 원종 12) 5월에 삼별초가 진도의 용장성(龍藏城)이 함락되자 잔여병력과 통수권을 이어받은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제주에 들어왔다. 때를 같이하여 남해현(南海縣)을 점거해 있던 유존섭(劉存燮) 장군도 김통정 장군이 제주에 입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선 80여 척을 이끌고 들어왔다. 김통정 장군은 먼저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시설을 착수하였는데 성산포에 외성을 쌓고 고성리쪽에 내성을 쌓아 이 곳을 본진으로 삼았으나 지리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고 상륙하는 여몽군과 접전하는데 불리하다고 느껴 귀일촌(貴日村) 향과두리로 옮겨갔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미루어 보면 고성리의 설촌 연대를 1200년대 고려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³⁾

1416년(조선 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 장합(張合)의 계청에 따라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동에는 정의현, 서쪽에는 대정현을 두었다. 그 당시 치소는 고성리에 두었는데 위치가 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고 해변에 너무나 가까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그래서 1423년(세종 5) 도안무사 정간(鄭幹)과 판관 최치렴(崔致廉)이 정의현성을 진사리(晋舍里:城邑里)로 옮겼다.

고성리의 옛 이름은 고성(古城)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정의현, 고적)에 고성(古城)/옛성, 탐라순력도에 구수산(舊首山)/옛수산,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상고성리(上

153) 성산읍지 P.948, 남제주군 성산읍, 2005

古城里:웃고성마을), 하고성리(下古城里:알고성마을)이라 했고 정의읍지에 고성리(古城里:고성마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¹⁵⁴⁾

구전에 의하면 고려조(1259~1274)에 지금 고성리의 속칭 ‘장만이동산’ 부근에 현씨가 처음 설촌하였다고 전해지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현씨 자손도 이 마을에 거주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¹⁵⁵⁾

그 이후 ‘간돈지’ 일대에 군위오씨가 살았으며, 경주김씨, 동래정씨, 남양홍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고성리 마을은 ‘가마’, 남작(南昨), ‘남정리’ 등으로 불리워지다가 고려조 원종 때 삼별초군이 상륙하여 방어시설을 갖추면서 석성(石城)을 마을 주위에 쌓아 이를 백산성(白山城)이라 했는데, 조선조 태종 2년에 정간(鄭幹)목사가 옛성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고성리(古城里)』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일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 한 번은 이들의 침입을 받고 성이 괴멸된 적이 있어 『괴성리』라고 불리운다는 설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두 이름을 두루 사용한다.

이 마을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때는 대략 서기 1200년 대 고려조 말기로 보고 있다. 원나라가 『수산평』에 목장을 만들면서 거주자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1416년(조선조 태종 16) 5월에 제주가 삼읍으로 분할되면서 『고성리』는 정의현청의 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바다가 가까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여 진사리(지금의 표선면 성읍리)로 옮겨지고 이후 1609년에는 정의현 좌면 면역소 소재지가 되었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좌면은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이 되었다.

1933년에는 행정리 ‘고성리 1구’, ‘고성리 2구’로 나뉘었다.

1934년에는 면사무소를 성산리로 이전하였고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

154)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6~347, 2004

155) 성산읍지 P.948, 2005

군 성산면 고성리가 되었고, 1951년 4월에는 고성1구를 고성리로, 고성2구를 신양리로 정하였다. 1961년 9월에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로 옮겼고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을 읍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1982년 4월 고성리 현재의 위치에 읍사무소 청사를 준공하였다.

현재 고성리는 큰동네, 장만이동, 동남동(東南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고성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가 되었다.

○ 고성리의 전설

<고성리 홍효자>

조선조 헌종(憲宗) 때에, 고성리에 홍 효자(본명 洪達漢)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봉양에 칭송이 자자했다.

홍 효자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당시 제주백성들은 가난하여 이부자리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던 때였다. 홍 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눕게 되자, 홍 효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좋은 이부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래서 아버지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아 모시고, 자신은 갓옷을 입은 채 마루바닥에 자면서 구병을 계속했다.

구병하면서 홍 효자는 똥을 맛보았다 한다. 아버지의 똥은 날이 갈수록 단맛이 더해 갔다. 홍 효자는 ‘똥 냄새가 곳어야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인

데, 똥 냄새가 단것을 보니, 속히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면서 양천통곡(仰天痛哭)했다.

홍 효자는 또 살생(殺生)을 아니했다.

아버지 구병을 하는 데에, 갓옷을 입은 채 마루 바닥에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목욕을 아니함은 물론, 머리도 빗지 않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을 걱정하는 것이니 이가 일 것은 당연하다. 어찌나 이가 많이 일었는지 갓옷의 바느질 틈마다 이가 박혔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홍 효자는 아버지의 병환도 차도가 있자 양지 바른 마당 구석에 앉아 이를 잡기 시작했다. 이를 잡는다 해도 실은 죽이는 게 아니라, 털발의 틈새마다 허영게 기어 다니는 이를 하나하나 주워서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라고 한들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때 마침 말총장수가 말총을 사러 들어왔다. 말총장수는 제주도의 말총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사 모아 가지고 육지로 내어다 파는 행상꾼이었다.

말총장수는 홍 효자 집 마당에 들어서 홍 효자가 이 잡는 것을 한참 들여다 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이가 많이 일 수도 없으려니와, 이 잡는 방법이 하도 걸작이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말총장수는 이렇게 우둔한 인간은 한 번 골려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 여보시오. 그 많은 이들을 어찌 하나하나 잡아 냅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지요.”

“어찌하면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습니까?”

말총장수는 갓옷을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애질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었다.

홍 효자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살생을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인품이 순박해서 말총장수의 조롱을 알아채지 못했다. 갓옷은 시루에 넣어 찌면 윤기가 다 빠져서 구워 놓은 오징어처럼 되어 다시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

홍 효자는 곧 부인을 부르고는 ‘이 갓옷을 시루에 담고 찌버리지요 이들이 없어지게.’하며 옷을 넘겼다.

찌넨 옷을 보니 영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자, 홍 효자는 크게 탄식을 했다.

“하, 그거 공연한 놈 말을 들어서 이 다 죽여먹고, 가죽옷도 못 입게 되어 버렸네!”

이렇게 매일 탄식을 하는데, 말총장수는 말총을 사 거두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배를 놓았다. 풍파가 세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바람이 잔잔해진 것 같아서 배를 놓으면 곧 풍파가 일어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자지 않았다.

말총장수는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에게 가서 문복(問卜)을 했다. 점쟁이는 ‘천하대효(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러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말총장수는 홍 효자를 조롱한 죄를 깨치고 홍 효자를 찾아갔다. 너בות이 큰 절을 하고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하고 사죄를 했다.

그리하여 홍 효자의 마음을 풀어 놓은 후에야 순풍(順風)이 일어 배를 띄워 갈 수가 있었다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홍 효자는 제사에 쓸 고기라도 살생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사가 돌아오면 곧은 낚시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곧은 낚시에 물러오는 고기는 제사에 쓰라고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상에 올렸다. 제사때가 되면 곧은 낚시에도 꼭꼭 쓸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 일설(一說)에는 바닷고기를 산 채로 물그릇에 넣어 제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다시 바다에 놓아 줬다는 얘기도 있다.

1704년(숙종 30)에 효자로 정표(旌表)되었다. 1720년(숙종 46)의 국장(國葬)을 당하자 스스로 백랍(白蠟)을 채취하여 초를 만들어 바쳤으나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홍 효자는 ‘도랑쉬(月郎峰)오름’ 꼭대기에 단을 쌓고 그 초에 불을 붙여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추모의 정을 다하였다. 이러한 행적이 조정에 알려져 1746년(영조 25)에 왕명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교지를 내렸고, 그 후에 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교지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관직을 내렸다. 이 정려문 전면에는 ‘忠孝 同知中樞府事 洪達漢之閭’라 쓰여 있고, 1749년(영조 25) 11월에 세워졌다.

한편 홍 효자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26번지 수산리 동쪽 구한길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2. 성산리의 설초유래

성산리는 제주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성산일출봉이 우뚝 솟아있는 마을이다. 오래 전에는 썰물이 되었을 때만 고성리와 왕래가 되는 섬과 같은 지형이었으나 1940년 터진목을 매립하여 제주 본섬과 연륙시켰다.



성산리 설촌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전이나 일출봉과 성산포항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수 밖에 탄 방법이 없다.

성산포에 처음 사람이 왕래하였다는 기록으로는 일본인 진수길상(津守吉祥)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특사로 갔다 백제를 거쳐 귀국하는 도중에 풍파를 만나 성산포구에 표착한 일이 있는 후 일본인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내용과 중국 원나라 훌필렬(忽必烈)이 1200년 일본을 칠 때에 성산포에서 발진하여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⁶⁾

156) 제주도지, 제주도, 1982.

그리고 1271년(고려 元宗 12)에 삼별초가 제주를 점거할 당시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성산(城山) 북록에 토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 1439년(世宗 21)에는 성산(일출봉)에 봉수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1601년(宣祖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에 보면 김상헌은 그 해 10월 13일 성산 진해당(鎭海堂)에 유숙하였다.

그는 수산방호폐성과 원의 목양지인 수산평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성산토성에 대하여는 길이가 2,000척, 높이는 9척으로 성내에 수만명을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 성은 1597년(宣祖 30) 이경록(李慶祿) 목사 때 쌓았다. 그리고 성산을 오르내리는데 이따금 잔도가 가설되어 있고 1579년경 이경록 목사 재직시 성중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1702년(肅宗 28)에 이형상(李衡祥) 절제사(節制使)가 삼읍을 순력하면서 그린 탐라순력도에 성산관일(城山觀日)을 보면 진해당구지(鎭海堂舊址), 봉천수(奉天水), 성산망(城山望)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을 원로들도 일출봉 분화구 안과 우뚝개 함몰지 등에서 발견되는 기왓장등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사록이나 탐라순력도 등을 참조하면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설촌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산리에 처음 정착한 가문의 족보나 구전으로 미루어 보면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00년대 초반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성산리에 가장 먼저 입촌한 이는 1818년대로 제주 고씨 중시조 영곡공 고득중(高得宗) 14대 손자인 고연손(高連遜)과 15대손인 상호(尙好) 부자가 구좌읍 김녕리에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부터 1830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청주한씨 한기종(韓基宗)이 구좌읍 김녕리에서, 군위오씨 오형(吳滢)이 구좌읍 상도리에서, 거창신씨 신의범(愼義範)이 조천읍 신촌리에서, 연주현씨 현여락(玄汝洛)이 성산읍 신

천리에서 속속 이주, 삶의 터전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⁵⁷⁾

성산리의 옛 이름은 청산(靑山)/성산리(城山里)이다. 민간에서는 성산을 청산(靑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옛날 이 일대에 숲이 울창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짙푸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1597년(조선조 선조 30)에 이경록(李慶祿) 목사가 수산성에 있던 수산방호소(水山防護所)를 이 곳으로 옮겨 고려조 말기에 삼별초난에 의해 조성된 토성을 개보수하여 성산진의 성을 쌓을 때 관사(官舍), 즉 공해(公廨)를 지으면서 수많은 나무를 벌목하였다 한다. 그래도 동백, 두충, 적을 등이 울창하여 청산이란 이름을 지켰다. 정조 때인 1780~1789어간에 간행된 제주읍지와 그 부속의 대정현지, 정의현지 각 방리조에는 정의현 좌면에 성산리가 표기되지 않았다.¹⁵⁸⁾

1872년 제주삼읍전도 등에 성산리로 나타나 있다.¹⁵⁹⁾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고 1934년에는 면사무소를 고성에서 성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성산리가 되었다.

1949년 1월 18일 성산리에 제4구 경찰서가 신설되어 성산, 구좌, 표선면을 관할하였고 동년 2월 13일 제4구 경찰서는 성산포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57년 7월 26일 성산포경찰서가 폐쇄됨에 따라 성산지서로 격하되었

157) 성산읍지 P.864~86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58) 제주도지 1권P.921~922, 제주도, 1993

159)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1~342, 2004

다.

또한 1961년 9월에는 면사무소를 성산리에서 고성리로 이전하였다.

현재 성산리는 오정개와 수마포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성산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성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가 되었다.

3. 오조리의 설촌유래

오조리는 제주의 동남부에 위치한 마을로서 북쪽에는 시흥리, 서쪽에는 고성리와 접하고 있다.

마을 동편에 푸른숲으로 덮여있는 식산봉이 솟아 있고 동쪽바다 너머에는 우도가 보이고 동남쪽에는 일출봉이 있다.



오조리 392번지(현 성산고등학교 북동쪽 바닷가)에는 1439년(世宗 21)에 오소포(吾召浦)연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

치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한 일이 있었다.

그 연대에서 식산봉쪽으로 바다를 끼고 성곽의 흔적이 있으며 고려시대기와 자기의 파편이 많이 널려있다. 지금의 ‘안카름’일대에는 ‘절터’, ‘창터왓’, ‘연대밑’, ‘마재포’ 등의 지명이 있으며 이 부근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자기편들이 발견된다.

기단석(基壇石)으로 보이는 석재 유물이 밭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로 미루어 오조리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보아진다. 또한 1653년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에 의하면 “오조포(吾照浦)는 정의현 동쪽 35리에 있다. 어부의 집이 10여 호 있는데 겨울과 봄에는 와서 살고 여름이 되면 옮겨 간다. 대개 우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이 떠들면 반드시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뿌리채 뽑아놓고 농작물을 해치는 고로 정착하여 살 수 없었으나 지금은 자연히 부락을 이루어 겨울에 오고 여름에 떠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1601년 김상헌(金尙憲)에 의해 쓰여진 「남사록」 “지지(地誌)에는 그 아래 오조포(吾召浦)에 어부의 집 수십 호가 있는데 겨울과 봄에 와서 살고 여름에 떠나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오조리 설촌은 600여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⁶⁰⁾

처음에 제주부씨와 은진송씨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 오씨, 강씨, 김씨, 홍씨, 현씨 등이 입주하면서 마을은 차차 확장되어갔다.

오조리의 옛 이름은 ‘오줄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관방)과 「남사록」(권3)에는 오조포(吾召浦 : 오줄개)로, 「탐라순력」에는 오조포(吾照浦), 오조촌(吾照村), 식산포(食山浦 : 밭밧개), 「호구총수」에는 오소리(吾所里),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및 「정의읍지」에는 오조포(吾照浦), 오조리(吾照里)로 표기되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정의현 좌면 오조리(吾照里)로

160) 성산읍지 P.892~893, 남제주군 성산읍, 2005

굳어졌다.¹⁶¹⁾

오조촌(吾照村)/오조포(五照浦)/오조리(吾照里), 이 마을은 고려조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조 성종 무렵에는 『안가람』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오조촌(吾照村)』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왜구의 침입이 잦아 다시 『새가람』으로 옮겨 앉았다고 한다. 조선조 세종조에 이웃마을인 고성리에 정의현청이 들어서면서 이 곳에는 수전소(水戰所)를 두니 관리들과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 오조포(吾照浦)는 한때 이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으나 지금은 마을의 중심 포구를 일컬으며 성산항과 마주한 어항이다. 이 마을의 이름 오조(吾照)는 성산 앞바다 일출봉 건너에서 떠오른 해가 햇살을 퍼면 가장 먼저 와 닿은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것이라 한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조선술에 능한 목수들이 많았고 또 어로행위도 활발하여 온갖 선박들을 제조했던 곳이기도 하다. 덕분에 제주의 다른 바닷가 마을에서는 이미 잊혀 졌거나 아예 사용한 적도 없는 <적판>이며 <쌈판> 배 등에 관한 자료를 구전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제주섬의 동쪽 어촌으로서 잠수(潛艘)들이 주로 배를 타고 나가 어장에서 조업하는 <뱃물질>이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오조리가 되었다. 현재 오조리는 상동과 하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

16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3~344, 2004

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오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가 되었다.

○ 오조리의 전설

<도훈장 오봉조(吳鳳祚)이야기>

훈장 오봉조(1730 영조 6~1815 순조 15)는 성산읍 오조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군위이다. 아버지 오후찰(吳厚札)과 어머니 김해김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모친과 사별하고 계모 청주한씨의 인자한 가르침으로 문장과 시조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차례 문과에 응시했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정의서당의 훈장을 지냈는데 출장한 제자들을 배출시켰다. 그 대표적인 제자는 다음과 같다.

오봉조 훈장이 겪은 유년기 일화가 전해진다.

오봉조 훈장은 이 마을 서북쪽 대왕산(大旺山) 기슭 그의 무덤의 비문(고명학이 짓고 문성표가 썼음)에 의하면 1730년(영조6)에 태어나서 1815년(순조 15) 6월 17일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나이를 따져 그는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271년 전쯤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며, 여기 소개하는 전설도 그의 나이 6세인 150년 전쯤의 이야기가 된다.

오훈장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으므로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 계모는 여느 계모와는 달리 대단히 현명하고 인자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양반집 태생이었으나 전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오조리에 온 후부터는 무래질(해녀질)을 배우고 바다엘 다녔다.

하루는 계모가 마당에 곡식을 널어 놓고 바다에 잠수질을 나가면서 선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라’하고 당부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 격인 선생도 그녀가 들여왔던 것이었

다.

그런데 그 날 오후에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자, 무래질하던 계모는 바다에서 급히 돌아왔다. 그러나 널었던 곡식은 이미 말끔히 들어진 다음이었다.

계모는 독선생과 아들을 불러 앉히고 호되게 나무랐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누가 곡식을 들이라고 했느냐는 꾸중이었다.

“젖은 곡식은 다시 말리면 되지만 흘러가 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야 없지 않느냐?”는 질책이었다.

오훈장과 선생은 크게 깨닫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도훈장까지 올랐다.

그가 도훈장이 된 후 몇 해 안되어 그의 계모가 세상을 떠났다. 오훈장은 엎드려 통곡하고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였다. 당시의 예법으로는 계모에게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장령, 부정랑같은 제자들이 부당하다고 말렸으나 그가 나서서 말했다.

“내 친어머니는 나를 낳고 바로 죽었다. 그 후 오늘 돌아간 계모가 나를 기르고 가르쳐 오늘의 나를 있게 했으니 그 기른 정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서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이에 제자들은 스승의 인품을 더욱 우러르고 따랐다고 한다.

오훈장은 도훈장 당시 ‘정의서당 흥학발(旌義書堂 興學跋)’을 써서 제주도의 인재등용을 적극 진정하였다고 한다.

4. 시흥리의 설촌유래

시흥리는 서귀포시 맨 동쪽에 있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마을 뒤편에 두산봉(斗山峰)이 자태를 뽐내고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우도(牛島)가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이 설촌된 것은 약 500여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촌락이 형성되기 전 1450년경 시흥리의 상징인 두산봉(옛 이름 멀미) 남쪽 대섬머세(竹磊와 貝塚이 남아있다)에서 한씨 또는 이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갈(葛 또는 굴)씨가 들어와 살았고, 갈씨는 물을 찾아 대선못(지금은 매립되었음) 부근의 ‘갈가집터’로 이주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바다에서 바닷고리나 해조류 등을 얻기 위해서 이씨가 현재의 667번지에 이주해 왔고 구좌읍 하도리에서 부씨(서자 부대봉)가 들어와 이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다가 부씨는 666번지에 옮겨 살았다 하며 이씨의 자손은 번성을 못했지만 부씨의 자손은 번성했다 한다.

같은 연대에 하동 속칭 남가물 동네 910번지에 한씨가 살았다 하며 뒤를 이어 강씨가 527번지에, 하동 905번지 당밭에는 현씨가, 상동 758번지에는 다른 현씨가 살았다. 그 후 다른 성씨들이 속속 입주해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당시 마을의 통치는 대씨족에서 도맡았으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씨족간 파벌이 생겨나고 세력다툼과 힘자랑 같은 완력으로 다스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혜를 모아 향약을 제정하고 집회를 개최 주민의 결의에 의했지만 역시 별족의 대표자가 마을의 대표가 되었다.

마을의 행정은 영이뜸(尊里), 공원(公元), 경민장(警民長), 기찰장, 동장, 자주(소임)를 두어 행해졌다. 이제(里制)가 실시되자 구장이 마을 행

정을 총괄하였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호적이 정리되었다.

마을명이 심돌이라는 것은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힘이 센 탓이며 마을 곳곳에 ‘산돌(깊이 박혀 있어서 파낼 수 없는 돌)’이 산재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심돌(力厓)’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런 탓인가 모르지만 이 마을에는 장사에 대한 전설이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시흥리라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채수강(蔡洙康) 정의군수 당시 정의현의 처음 마을이라는 뜻에서 정의군 좌면 시흥리(始興里)라 하였다. 이 때 마을의 규모는 150여 호였다.¹⁶²⁾

문헌에 나타난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789년 호구총수에 역돌리(力厓里), 18세기 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에 역석을리(力石乙里), 1872년과 1904년의 제주목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역돌리(力厓里)로 1914년에는 현재와 같이 시흥리(始興里)로 표기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이 때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시흥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시흥리가 되었다. 시흥리는 현재 상동과 하동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162) 성산읍지 P.924~92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가 되었다.

○ 시흥리의 전설

<장사에대한 전설 심돌 부대각>

심돌(시흥리의 옛이름)에 ‘부대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의 아들도 또한 힘이 세여 ‘부주사’라 불렸다. 아버지 부대각은 경사생이고, 아들은 갑자생이었다.

부주사도 몸집이 워낙 커서 소소한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였는데, 아버지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인이 ‘호부견자(虎父犬子)’라 했으니 부대각의 풍채는 가히 짐작할 만하였다.

부대각은 심돌 동네 어귀에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곁 큰 팽나무 밑에 나와 기침을 ‘어험’한다. 그러면 심돌 상하 동민들은 누구나 그 기침 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만큼 음성도 컸던 것이다.

부대각은 심심하면 거리에 나와서 ‘우리 추렴하주’하여 그 나이 또래 벼들과 돼지를 잡아서 먹었다. 추렴이란 밋이서 돈을 모아 돼지 따위를 잡아 갈라 먹는 일이다. 부대각이 제안하면 그의 벼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돼지가 크든 작든 간에 서너 명이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말끔히 먹어 치웠다. 아마 반 이상은 부대각이 먹었을 게 분명하다.

부대각은 아들을 데리고 육지 장사를 자주 다녔다. 미역을 싣고 가 팔고 쌀을 사 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강경(江景) 장관에서의 일이었다. 부대각은 어디 가도 그랬지만, 강경 장관에서도 좀 거만하게 설치고 다녔다. 힘이 세니 무서운 데가

없어 그럴 법도 하였다. 강경 사람들은 저게 누구인가 하다가 제주 사람임을 알았다.

“제주 섬놈이 거만하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는 부대각을 단단히 혼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20여 명이 꿈무니마다 방망이를 차고 부대각이 머무는 주막에 몰려 들었다.

먼저 겁이 난 건 주인이었다.

“부선달, 몸을 좀 피하시오. 위험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법. 그들 소원이 꼭 나를 죽이고 싶다면 소원대로 하게 내 버려 두시오.”

부대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 부주사가 문 밖으로 나갔다. 아들은 이 때 열아홉 살이었다.

“이번만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거만한 짓을 안하시도록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부대각은 아들이 뭘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화가 울컥치밀었다.

“못된 자식하곤. 그까짓 놈들에게 빌면서 목숨을 살아서 뭇할 것이냐!”

야단을 쳤다.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를 때려 죽이고 싶거든 저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서 죽여라. 집안에서 때려 죽이면 주인에게 폐가 되지 않으냐!”

부대각의 말에 청년 오륙 명이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양쪽으로 갈라서 부대각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부대각은 등을 벽에 딱 붙이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참동안 온 힘을 내어 끌었으나 청년들은 부대각의 등을 벽에서 떼어 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던 어른 한 사람이 청년들을 만류했다.

“너희들 대여섯이 벽에 붙인 등도 떼지 못하는데, 만일 저 양반이 힘을

낸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청년들은 슬금슬금 물러서서 사과를 했다.

부대각은 사과를 받아 들이고, 덕분에 그 청년들을 시켜 미역을 수월히 팔고 쌀을 사 싣고 돌아오게 되었다.

배를 놓아 섬 하나 안 보이는 바다에 온 때였다. 수적(水賊) 배가 나타났다. 수적을 만났다고만 하면 물건을 다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판이었다.

뱃사공들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부대각은 짐짓 모른 체하고 ‘웬일이냐?’하고 큰소리를 쳤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무곡(貿穀)을 다 이 배로 옮겨 실어라.”

수적들의 호통이었다. 부대각은 벌떡 일어서며 배 닻을 잡아 ‘북’ 무질러 끊어 허리에 턱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쌀 먹서리를 확확 잡으며 공 던지듯 수적의 배로 내던졌다. 수적의 배가 나뭇잎 출렁이듯 출렁이며 금방 침몰할 것 같았다.

그제서야 수적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목숨만 살려 주십사’고 빌었다. 부대각은 도리어 수적 배의 물건까지 빼앗고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시흥리를 ‘심돌’이라 부른다.

5. 신양리의 설촌유래

신양리는 고성리와는 같은 법정리이고 고성리 일주도로변에서 700m 남쪽으로 내려간 해안마을이다. 1439년(세종 21)에는 고성리 57번지(신양리 섬지코지)에 협자(俠子) 연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신양리의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의 일이다 어로와 해조류 채취를 위하여 고성리의 정씨(鄭氏)와 김씨(金氏) 등이 이주해 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설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앞바다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하는 둠북, 감태 등 해조류가 많이 생산되고 해변이 넓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기에 편리한 관계로 다른 마을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신양리의 옛이름은 ‘섬재개’와 ‘방뒷개’다. 「중종실록」 5년 9월(기사) 조에는 수산포(水山浦:물밧개)로, 「남사록」 권3에는 협재포(俠財浦:섬갯개, 섬밧개)로, 「탐라순력도」와 「탐라지도」 등에는 협재포(俠才浦)로, 「호구총수」에는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산양리(山陽里)로, 「정의읍지」에는 방두포(方頭浦:방뒷개)로, 「제주읍지」 정의현, 방리조에는 산양리(山陽里)로, 18세기 후반(1780~1789)에는 신양리(新陽里:새 해가 뜨는 마을)와 산양리(山陽里:산의 해)가 고성리와 함께 존재하였다.

신양리 마을은 조선조 말엽인 서기 1894년에 어로행위를 생활의 근간으

로 하는 이들은 『고성리』에서 내려와 움막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설촌의 시초였다. 그 후 천연적으로 조성된 수많은 포구를 이용한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하니 많은 이들이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서기 1909년에는 『고성리』에 둔 조합장이 행정을 관장하였고 1915년 일제에 의해 도제(島制)가 실시되면서 정의면 고성리라 하였다가 1933년 고성리에서 고성리 2구가 되면서 자치행정리가 되었으나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한 지면을 공유하려 했다.

이 마을은 곡식을 수량으로 하는 말(斗)과 같이 우묵하게 생겼는데 머리 쪽은 막히고 밑은 터졌다고 하여 『방두포(房斗浦)』라고 했고 주민들은 <방뒤>라 불렀는데 새로 신설된 마을이며 살기에 편하다고 하여 <신안동(新安洞)>이라 잠시 부르다가 해방이 됨과 아울러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마을, 또 금방 떠오른 새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마을이라 하여 『신양리로 바꾸어 오늘날에 이른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고지도와 문헌에는 신양리와 산양리가 사라져버렸다.

일제 때에 50,000분의 1 지도에는 방두동(方頭洞:방뒷골), 방두포(方頭浦:방뒷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¹⁶³⁾

따라서 신양리는 19세기 중반부터는 정의현 좌면 고성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09년에는 입주자가 점차 증가하여 50여 호에 이르자 고성리에 속한 조합장(초대 조합장 鄭洪圭)을 두게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 고성리에 속하였으나 1933년 고성리에서 분리하여 고성리 2구가 되었으며 초대구장에 강세윤(康世潤)이 취임하여 자치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였다. 이 때부터 포제(酺祭)도 분리하여 지내게 되었는데 지

16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48~350, 2004

금의 협자연대 서쪽에 포제터를 마련하고 국신지령(局神之靈)이란 신을 모셔 정월 본제(本祭)와 칠월 별제(別祭)를 행해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생활을 기원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마을 명칭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새로 형성되고 살기 편안한 마을이라는 뜻의 신안동(新安洞)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1951년 4월 23일 마을의 고성리에서 행정리를 분리하면서 신양리(新陽里)라 칭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양리가 되었다.

현재 신양리는 동동과 서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양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가 되었다.

○ 신양리의 전설

<섬지코지와 선돌>

신양리에서 자라목처럼 동남쪽으로 뻗은 ‘섬지코지(협지곶)’ 북동쪽 해안가에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암석이 있다. 이를 두고 ‘선돌’ 또는 ‘왕자바위’라고도 한다.

이 거대한 기암은 높이는 약 30m, 둘레는 15m 정도인데 색깔은 흑회색으로 직립형(直立形)이다. 이 바위의 상층부는 ‘가마우지’라는 바다새가 서식하면서 배출해놓은 배설물로 온통 뒤덮혀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위 이름이 ‘선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서 있는 돌’이란 뜻이고 ‘왕자바위’라 붙여지게 된 것은 이 거대한 기암에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먼 옛날 이 곳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었다. 어느날 동해 용왕의 아들이 목욕을 하면서 유희를 즐기는 선녀들을 지켜 보고는 그녀들의 미모에 반해 이 곳으로 오게 되었다. 용왕의 아들은 선녀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 갔다. 유희를 즐기며 목욕을 하던 선녀들은 물 위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날개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하늘 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하늘 나라 옥황상제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온 선녀들을 보고 금족령을 내려 다시는 지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수려한 왕자의 모습을 본 선녀들은 왕자를 만나기 위해 지상에 내려가기를 간청했으나 옥황상제의 엄명은 단호해 아쉬움의 눈물을 남몰래 흘려야만 했다.

한편 왕자는 앓으나 서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선녀들의 모습을 잊지 못해 매일 밤 ‘섬지코지’를 찾아 들었어나 그녀들은 볼 수 없었고 출렁이는 파도소리만 들어야 했다.

그는 상사병에 몸져 눕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름시름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는 부왕마저 자리에 눕게 되자 신하와 백성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이 소식을 들은 충성스런 신하가 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 왈, “왕자에게 이르시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선녀들이 내려왔던 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백일 후 병이 나을 것이요.”

꿈 속에서 선녀들을 찾아 헤매던 왕자는 그 날부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 이윽고 9십9이째까지 기도는 계속되어

하루를 남겨놓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나절을 보낸 왕자는 마지막 기도를 위해 용궁문을 나섰다. 그러나 이게 웬 조화인가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일더니 파도가 으르렁거리려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지 않은가.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던 왕자는 파도를 헤치며 용궁을 빠져 나왔지만 집채만한 파도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섬지코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역부족이었다. 갇은 고초를 겪으며 그가 기도처에 도착했을 때는 성산일출봉 뒤로 붉은 해가 하늘을 밝게 열고 달빛의 수레를 거두어 들고 있었다.

왕자는 ‘안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수레의 끝을 잡기 위해 바다를 받치고 뛰어 올랐다. 그러나 고작 30m, 그는 허공에서 손만 허우적거렸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본 옥황상제는 왕자의 애절한 사랑을 깨달았음인지 그 자리에 돌이 되게 하고 선녀들을 내려 보내 이 곳에서 목욕하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6. 수산1리의 설촌유래

수산1리는 제주도의 동남부지역이고 고성리 중심부에서 3km 떨어져 있고 대수산봉(大水山峰) 북쪽에 형성된 중산간마을이다.

조선조 제주절제사(節制使)를 지낸 이원진(李元鎭)이 쓴 탐라지 제주



목건치연혁조에 따르면 1277년(고려 충렬王 3년)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약 1세기간)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

루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몽골 말 160여 필을 제주도에 방목하게 하였다. 이를 관리하는 동아막은 수산평(현 수산2리 경 속칭 남다리 서남쪽 1km 지점)에 설치하여 목양(牧養)토록 하였다. 그 때 원의 기황후(奇皇后)가 탐라적(塔羅赤)으로 하여금 소, 말, 낙타, 나귀, 염소를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호(牧胡)를 두어 감목(監牧)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산평에는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가 가득하였으니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하였다고 ‘탐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가 탐라를 지배하며 수산평에 말들을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는 취락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을 방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石器)가 발견되기도 했다.

1439년(세종 21)에는 제주도안무사(濟州都 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왜구를 방비하기 위하여 수산진방호소(水山鎭防護所)를 설치하였다. 그 성의 둘레는 1,164척이고 높이는 16척 규모인데 군관(軍官) 3인, 서기(書記) 7인, 방군(防軍) 85인을 두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수산리 2039-1번지 대수산봉(大水山峰)에 봉수대를 쌓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이로 미루어 설촌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800여 년 전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구전에 의한 설촌은 고씨, 문씨, 서씨, 임씨가 입주하여 살다가 수재, 한재, 풍재, 전염병 등으로 대부분 사망하고 일부에는 인근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주했다고 전하여진다. 지금도 큰 동네 외곽지대에 고송이위원(高松伊圀園), 문무학동산(文武學童山), 임창희위원(林昌希圀園), 서상희위원(徐相希圀園), 서문창이왓(徐文昌이밭) 이란 지명 등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500여 년 전에 강(康)씨가 입촌했으며 그 후에 한씨, 오씨, 고씨, 김씨,

조씨 등이 입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⁶⁴⁾

물뢰/물미/수산리(水山里), 수산리의 이름이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마을의 설촌은 ‘남다리/남더러’라는 곳에 사람이 맨 처음 들어와 살면서부터였는데, 고려조 충렬왕(忠烈王) 때 서기 1277년에 ‘원(元)나라의 마소를 수산평(首山坪)에 목양(牧養)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본디 큰 「물뢰」를 <수산(首山)>으로 불렀으나 약 500여 년 전에 이르러 주민들이 물이 귀한 곳이라 이를 구하는 의미에서 「물뢰」라 했고 이를 후에 한자 표기화하면서 「수산(水山)리」라 표기했다.

마을 이름을 「수산(水山)」이라고 하게 된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와 인(仁), 지(智), 수(水)를 놓고 취하였던 때문이라고 한다.

수산리는 원래 수산(首山)이라 칭하였는데 수(首)는 우두머리임과 동시에 ‘처음’, ‘먼저’, ‘머리’ 등으로 쓰이고 ‘꾸벅거린다’는 뜻으로 양반이나 선비가 사는 마을이름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하여 수산(水山)으로 개칭하였다. 그 수산이라는 의미는 지자요수(知者樂水:지식이 많은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와 인자요산(仁者樂山: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의 ‘수(水)’자와 ‘산(山)’자를 따왔다고 한다. 그러니 어느 마을 명칭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수산리(水山里), 19세기 말에는 알물미(下水山里), 1905년 정의군 좌면 수산리라 하였다.¹⁶⁵⁾

1896년 10호를 1통으로 하는 십호작통제가 시행되었고 그 당시 수산리는 수산2리와 황무술이(黃茂數)까지 한마을로 경민장(警民長:1894부터 경민장제 시행)이 관할하였다. 지금의 수산1리는 당시 22개통, 수산2리는 4개통, 황무술이는 1개통으로 도합 27개통이었다.

황무술이라는 지명은 수산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숲

164) 성산읍지 P.996~997,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65)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1~352, 2004

이 우거진 곳이며 150여 년 전에 김씨, 우씨, 강씨, 채씨 등이 설촌하여 살다가 1933년 경 김씨와 우씨는 구 좌면 종달리로, 강씨는 동중면 하천리로 떠나면서 마을은 폐동되었다.¹⁶⁶⁾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 수산1리에 속해 있던 수산2리는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1939년에 수산2리로 행정업무를 분리운영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가 되었다.

1948년 4·3 사건시 11월 21일경 소개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12월 1일 다시 돌아와 마을 중심부에 축성을 하고 살았다.

1957년 면조례로 수산1리와 수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였다. 현재 수산1리는 동동, 서동, 중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수산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가 되었다.

○ 수산리 전설

166) 수산리지 P.23,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4

<쌈마을의 설촌과 대봉이터>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 수산리 속칭 진빌레 동네에 대봉이터란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대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축산을 생업으로 하여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슬하에 후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하염없는 시름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시주승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부처님께 시주를 후히 하고 지성으로 빌면 자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봉이는 황소 한 마리를 시주하고 지성으로 빌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뒤에 부인이 태기가 있는 게 아닌가. 대봉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한달에 소 한 마리씩 10개월 동안 10마리를 잡아 먹여 얻은 자식이 딸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대로 양육에 온 정성을 다한 결과 일장월취하여 체구가 유달리 크고 힘이 장사였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동네에 여장사가 태어났다고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부인이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대봉이는 너무 기뻐 다시 소를 잡아 부인을 보신시켰는데, 이번에도 여아를 낳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다 아홉 마리만 잡아 먹었다. 그러나 낳아 놓고 보니 아들이라 ‘아불싸 그럴 줄 알았으면 여섯 마리쯤 더 잡아 먹일 걸.’ 하고 후회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성으로 양육한 결과 누나 못지않을 만큼 체구나 체력이 대단하였다.

이 두 남매가 나이 20이 되었을 때 조천리에서 전도에 걸쳐 씨름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대봉이는 자식놈의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 아들을 경기에 출전토록 하고, 그보다 힘이 센 딸을 남장시켜 후견인으로 보냈다. 드디어 단오날이 닥쳐 제주 삼읍에서 내노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였고 많은 관중이 모여 들었다. 시간이 되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나 다를까 아들은 승승장구하여 씨름왕이 되는 찰라에 관중들이 수근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내에서는 삼읍의 지역세를 겨루는 경우가 많은 때였다. 아들의 기세를 보아 하니 그를 당할 자가 없음을 알고 모관(조천리는 모관 지경) 사람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 발모듬으로 아들을 처치하려 하는 것이었다.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기하던 남장한 누나가 ‘내가 씨름왕이 된 저놈과 대결을 하겠다. 나는 모관의 서촌에 살고 있지만 저놈 정도는 능히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호령을 하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관중들이 동의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다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황소 열 마리를 먹고 태어난 딸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그 경기를 치루지 않았다면 아들은 정잇놈이라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기가 꺾여 돌아왔던 것이다.

씨름에 이긴 누나는 샛길로 재빨리 돌아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동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누나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야기를 듣던 누나가 동생이 측은하여 마지막에 대결한 사람이 면식이 있는 사람 같지 않더냐고 물었다. 그제야 동생이 그 사람이 남장을 한 누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 가족이 환성을 질렀다. 그래서 대봉이의 딸이라고 하면 제주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7. 수산2리의 설촌유래

수산2리는 수산1리에서 서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 남쪽으로는 난산리와 온평리, 북쪽으로는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와 접하고 있는 중산간마을이다.



1277년(고려 忠烈王 3년)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약 1세기간)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몽골 말 160여 필을 제주도에 방목하게 하였다. 이를 관리하는 동아막은 수산평(현 수산2리 경 속칭 남다리 서남쪽 1km 지점)에 설치하여 목양(牧養)토록 하였다. 그 때 원의 기황후(奇皇后)가 탐라적(塔羅赤)으로 하여금 소, 말, 낙타, 나귀, 염소를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호(牧胡)를 두어 감목(監牧)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산평에는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가 가득하였으니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하였다고 ‘탐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가 탐라를 지배하며 수산평에 말들을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는 취락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을 방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石器)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산2리는 800여 년 전에 정(鄭)씨, 문(文)씨, 정(丁)씨, 이(伊)씨가 설촌했다고 전해지나 설촌 후에 이들은 속칭 곳앞에 정착하여 촌락을 이루어 농경과 수렵으로 생활했을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후 홍씨(洪氏), 김씨(金氏), 정씨(鄭氏), 박씨(朴氏), 부씨(夫氏), 고씨(高氏), 오씨(吳氏) 등이 이주해 왔다고 하나 생활여건이 좋은 인근 마을이나 인척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에 제주 고씨 영곡공파 26세손 고윤태(高允泰)가 수산1리에서 이주해 와 정착한 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씨는 세 곳에서 이주해 왔는데 1800년 경에 군위오씨 11세손 중말파인 오덕기(吳德起)가 신평리에서, 1830년경에는 군위오씨 12세손 중파인 오종요(吳宗耀)가 표선면 토산리에서, 1870년 경에는 군위오씨 13세손인 오대행(吳大行), 오승환(吳丞環), 오승복(吳丞福) 삼 형제가 수산1리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하였다.

강(康)씨는 1810년경 신천강씨 설봉공파 14세손 강봉인(康逢仁)이 오조리에서, 양씨는 1890년경 제주양씨 사직공계 17세손인 양응준(梁應俊)이 구좌읍 평대리에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다.

수산2리 옛 이름은 흘앞(訖前:곶앞) 또는 곶앞, 화남동(花南洞:花前과 같은 뜻으로 곶앞), 황무술(黃茂薮)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1896년 10호를 1통으로 하는 십호작통제가 시행되었고 그 당시 수산리는 수산2리와 황무술이(黃茂薮)까지 한마을로 경민장(警民長:1894부터 경민장제 시행)이 관할하였다. 지금의 수산1리는 당시 22개통, 수산2리는 4개통, 황무술이는 1개통으로 도합 27개통이었다.

황무술이라는 지명은 수산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곳이며 150여 년 전에 김씨, 우씨, 강씨, 채씨 등이 설촌하여 살다가 1933년 경 김씨와 우씨는 구좌면 종달리로, 강씨는 동중면 하천리로 떠나면서 마을은 폐동되었다.¹⁶⁷⁾

1905년 정의현 좌면 수산리라 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

167) 수산리지 P.23,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4

(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 수산1리에 속해 있던 수산2리는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1939년 수산2구로 행정업무를 분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수산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60여 호 정도 마을을 형성한 수산2구 곳앞 마을은 11월 21일경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었다. 그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청년들이 인근 야산으로 피신을 하였고 그 곳 주민들은 수산1리 주민과 함께 고성리 등지로 소개를 하였으나 청년들이 집을 비운 가족은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12월 1일경 수산2리 주민들은 수산1리 주민과 함께 수산1리로 옮겨와 힘겨운 집단생활을 하다가 1954년 5월에야 현재의 수산2리 마을을 재건하였다.

1957년 면조례로 수산1리와 수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였으며 현재 수산2리는 화전동 1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수산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가 되었다.

8. 온평리의 설초유래

온평리는 제주도에서 자연 마을로는 가장 긴 5.5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동 쪽으로는 고성, 신양리, 서 쪽으로는 신산리와 접하고, 서북쪽으로는 난산리와 접하고 있다.

탐라국의 개국신화에서 고, 양, 부(高, 梁, 夫) 삼



신인이 벽랑국(碧浪国)에서 건너온 삼공주를 황루알(온평리) 바닷가에서 처음 맞이하여 혼인지에서 혼례를 올렸다고 하였다. 또한 1974년 화성개 근처에서 돌칼을 발견하였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지 학술조사팀에 의해 혼인지굴과 서근케 묵은열운이 등지에서 많은 유물 파편들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1270(고려 元宗 11) 삼별초의 입도에 대비하여 축성하였다는 ‘환해장성’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복원 사업중에 있으며 ‘탐라기년’에 의하면 이 성의 중간수축을 1845년 겨울에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의 항쟁기에 해촌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한 환해장성이 축성되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세력이 약한 노비와 평민들은 부역과 방어에 동원되고 세력이 있는 토호나 양반들은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마을을 설촌하게 되었다.

이 때 ‘열운이’라는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곳이 ‘묵은열운이’이다.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800여 년 전 부터이며 처음 문씨(文氏)와 함씨(咸氏)가 설촌하여 세력을 얻고 살다가 무슨 이유에 서인지는 몰라도 몰락했다 한다.

그 후 약 400여 년 전, 1576년경 현재 온평리 마을이 형성된 주변, 묵은 ‘열운이’, ‘권돌’, ‘다래물’, ‘진동산’, ‘돌개’ 등지에서 생활하던 씨족들 중 연주현(玄)씨가 현 마을로 이주해 오자 나머지 씨족들도 이주해 왔으며 이들 중 고씨(高氏), 강씨(康氏), 송씨(宋氏)가 입주하였다.¹⁶⁸⁾

마을을 형성한 씨족들 중 강씨(康氏)는 돌개에, 현씨(玄氏)는 다래물에, 이씨(李氏)는 빈넛골에, 고씨(高氏)는 고치미모루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진다.

1439년(世宗21)에는 온평리 서포구 ‘진선머리’ 일대에 열운포수전소(閱雲浦水戰所)를 설치하여 병선 1척에 격군(格軍) 85인과 사관(射官) 15인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 때 온평리 1335-1번지에 말등포연대(末登浦煙台)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¹⁶⁹⁾

온평리의 옛이름은 “여을온” 또는 “열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봉수대조에 “여을온”, 1601년 남사록(권3)에 “여온포”, 1653년 탐라지에 “열운포”,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영혼포”,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영혼포 또는 영혼촌, 「호구총수」(정의, 존읍면)에 여온리(與溫里), 탐라지 초본에 열운포, 또 1750년경의 해동지도 중 제주 3현도에 “영혼포”, 1887년과 1895년의 고문서에 “온평리”, 1899년의 정의군읍지와 지도에 “동·서 온평리”, 속읍청사에 열운이, 토지대장에는 열운이 등으로 표기하였고 1914년 이후의 탐라약도에는 “온평리”, 탐라기년에는 “열운이”라고 표기하였다. 제주읍지 정의현 방라조(아세아문화사)에는 여온리라 하며 “민호는 95호이고 남자는 265명, 여자는 326명(계 591명)”이라고 하였고 “삼군호구기관총책” 정의군 좌면 열운이의 연가는 104호이며 남자 280명, 여자 264명(합 544명)이라고 하였다. 여러 문헌들을 봐도 온평리의 이름이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영혼포”와 연혼포 영혼촌이라는 뜻은 한자 뜻 그대로 제주도 개

168) 성산읍지 P.1040,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69) 남제주군지 P.638~640, 남제주군, 2006

벽신화인 “고, 량, 부” 세 성이 벽랑국(금관국)에서 건너온 세 선녀를 온평리 바닷가인 “황루알”에서 맞이하여 “혼인지”에서 혼례를 올리고 수렵과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삼성신화”와 연관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열운이”는 주로 “열온이”로 호칭하다가 19세기 중반에 와서 “온평리”로 개칭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온(溫)은 따뜻하다는 뜻과 평(平)은 산이 없고 평평하다는 뜻으로 “온평”이라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말(1899)에 와서는 “동·서 온평리”로 호칭하다가 다시 현재와 같은 “온평리”로 통합되었다.

20세기 초에 온평리(溫平里)로 통합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좌면 온평리와 신산리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온평리라 하였다.¹⁷⁰⁾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온평리는 1동,2동,3동,4동으로 이루어졌다.¹⁷¹⁾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온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되었다.

○ 온평리의 전설

<땅에서 솟아난 세 신인이 나라를 열다>

170)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3~355, 2004

17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6, 2004

사람이 살지 않던 아득한 옛날, 한라산 북녘기슭 땅에서 세 명의 신인(神人)이 솟아났다. 차례로 솟아난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 삼형제는 용모가 의젓하고 기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량도 넉넉하고 활발했다. 그들은 거친 산야를 뛰어 다니며 사냥을 해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 동쪽바다를 내려다보던 삼형제는 자줏빛 나무상자가 떠 내려와 바닷가에 머무는 걸 발견했다.

“어? 저게 뭐지? 가보자.”

나무상자를 열어보니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새알 모양의 옥함(玉函)을 지키고 있었다.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십오륙 세의 아리따운 처녀 셋이 나왔다. 또한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씨앗도 들어있었다. 남자는 삼형제에게 절을 하더니 엎드려 말했다.

“나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의 사자(使者)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아 곱게 키웠습니다만, 혼기가 되어도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 탄식하던 차에, 서쪽바다의 상서로운 기운을 보시고, 산기슭에 신(神)의 아들 세 사람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며 세 공주를 데려가라 하셨습니다. 부디 혼례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말을 마친 사자는 구름을 타고 홀연히 날아가 버렸다. 삼형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차례로 짝을 정해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물 좋고 기름진 곳을 골라 역시 차례로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했다.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 했다.

이때부터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말과 소를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져 마침내 인간세상인 ‘탐라국’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혼인지는 일주도로 제주시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북쪽으로 500여 미터 지점에 있으며 1971년 8월 26일 제주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세 신인의 이야기인 개국신화의 흔적은 지금도 제주 곳곳에 남아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그들이 솟아난 구멍은 ‘모홍굴’, 곧 지금의 제주시 중심에 있는 ‘삼성혈’이며, 성산읍 온평리에는 세 공주를 맞은 바닷가 ‘황루알’과 혼례를 올리기 위해 목욕재계한 연못인 ‘혼인지’가 있으며 지금도 황루알에는 삼신인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처음 올라올 때 디딘 말발자국이 아련히 남아있다

한편 제주시 화북동에는 세 신인이 거처를 정하기 위해 활을 쏘았다는 장소인 ‘활쏘디왓’이 있고, 그때 쏜 화살촉 자국이 선명한 ‘삼사석’이 모여져 남아있다.

※참고문헌. 제주도(2001). 「제주역사문화관광 가이드북」. 도서출판 각
제주도(2003). 「제주관광메뉴얼 Jeju」. 도서출판 각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남제주문화원(2006)

9. 난산리의 설촌유래

난산리는 온평리에서 한

라산쪽으로 2.4km, 신산리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있고 북으로는 수산리, 서북쪽으로는 표선면 성읍리와 접하고 있다. 1975년 도로포장용 골재를 채취하다가 속칭



‘면의모루’ 옆에서 돌도끼 2점, 돌끌 1점이 발견되었으며, ‘새모슬’에서는 돌바가지 1점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것들로서 그 때부

터 사람이 살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100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난산리는 현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인 ‘새모슬’에서 경주김씨(998~1009)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살다가 현 위치로 이주하여 직촌제 시대에는 난미촌으로 1380년 경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1970년대 난산리 면의모루 동네에서 마제석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면 입주 연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듯하며 제주 3읍시대에 취락은 절정에 이르렀고 양반 유림촌이 형성되어 중핵취락으로 변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²⁾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모슬’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당팔골’이 있고 동쪽 300m 지점에 식수용 물통인 ‘동물’이 남아있음을 보거나 ‘새모슬’에서 돌바가지 1개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조선중기 때에 군위오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고, 그 후에 다시 오씨와 김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된 것은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이 살기 좋다 하여 입주하였다. 그러나 지형이 신산리로 기울어져 있어 부귀(富貴)가 흘러가버린다고 믿어 ‘앞빌레(절간 앞)’에 방사탑(防邪塔)인 ‘거옥대’를 세우기도 했다.

난산리의 옛이름은 ‘난미’이다. 「탐라지도」에 ‘亂禿村/난미믄’, 「제주삼읍도총지도」에 ‘亂毛村/난미믄’,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東蘭山里/동난미믄’, ‘西蘭山里/서난미믄’, 「정의읍지」와 「정의지도」에 ‘蘭山里/난미믄’, 일제시대의 지도에는 ‘蘭山里/난미믄’, ‘蘭野里/난드르믄’ 등으로 표기되었다.

「제주읍지」에는 “난미촌은 정의현 관문에서 동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8호, 남자는 143명, 여자는 212명이다.(難山里, 自官門東距二十里, 民戶五十八, 男一百四十三, 女二百十二)”라 하였고,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난미의 연가는 84호이다. 남자 243명과 여

172) 난산리지,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99

자 255명을 합하여 500명이고, 초가는 135칸이다.(蘭山, 烟家八十四戶, 男二百四十五口, 女二百五十五口, 舍五百口, 草家一百三十五間)”이라 했다.

민간에서는 ‘난피, 난미’라고 한다. 18세기 중후반에 동·서난산리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반 다시 蘭山里로 통합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좌면 난산리, 그리고 성읍리(城邑里)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난산리로 하였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난산리는 종종 옛 이름인 난미라 부르고 있으며 상동과 하동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¹⁷³⁾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난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가 되었다.

10. 신산리의 설촌유래

신산리는 북쪽으로 2km 거리에 난산리가 있고 북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독자봉(獨子峰)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2km를 가면 온평리가 있

17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6, 2004

고 서쪽으로는 삼달 2리와 접한 해안마을로서 성산읍 서부지역이 거점이다.

1439년(世宗 21)에는 신산리 1785번지 독자봉(獨子峰)에 봉수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신산리의 설촌은 고인돌, 본향당, 독자봉수, 말등포연대, 환해장성 등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신산리 625번지 신술목(신이 사는 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곳에 연주현씨 일가와 곡산강씨 일가 20여 호가 촌락을 이루어 살다가 생활환경이 변하고 식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바닷가 용천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산물 채집 등 여러모로 생활하는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춘 지금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안카름(중하동지역)으로 내려왔다.

1601년(宣祖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에 보면 김상헌은 정의현의 구룡군을 열거하며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동쪽 15리에 말등포(末登浦)가 있다 하였다.

마을 이름은 말등포, 말등촌(末等村:곶등개울)으로 불리어오다가 200여 년 전 어떤 풍수사의 도움으로 신산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18세기 말에는 정의현 좌면 신산리로 표기되어 있다.

신산리의 옛 이름은 ‘그등개, 그등애’이다. 「남사록」과 「탐라순력도」 등에는 ‘末等浦/곶등개’, 「탐라지도」에는 ‘末等浦/곶등개’, ‘末等村/곶등

개막을',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末等浦/근등개, 末等烽/근등개봉, 新山里/신산마을, 「정의읍지」에는 '新山里/신산마을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에는 “신산리는 정의현 관문에서 동남쪽으로 18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48호, 남자는 135명, 여자는 147명이다.(新山里, 自官門 東南距十八里, 民戶四十八, 男一百三十五, 女一百四十七)”라 하였고,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신산의 연가는 79호이다. 남자 208명과 여자 238명을 합하여 446명이고, 초가는 122칸이다.(新山, 烟家七十九戶, 男二百八九, 女二百三十八口, 合四百四十六口, 草家一百二十二間)”이라 했다.

18세기 후반에 '근등개, 그등애'는 신산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신산리는 속칭 '신산·신산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산리 일부 지역을 제주군 정의면 신산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신산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산리가 되었다.

신산리는 현재 동상동, 중하동, 서동, 신서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가 되었다.

11. 삼달1리의 설촌유래

삼달1리는 삼달2리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독자봉(獨子峰)을 경계로 신산리와 접하고 통오름(桶岳)을 사이에 두고 난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또한 서북쪽으로는 남산봉(南山峰)을 기점으로 성읍리와 맞닿아 있다.



대개의 마을들이 그러하듯이 이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설촌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구전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 부락이 형성되었던 곳이 더러물래(川) 주변이었다. 그 형상이 마치 누워있는 강과 닮았다 하여 와강(臥江)이라 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와강 마을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 한상이터와 수옹이터를 중심으로 경주김씨, 청주한씨, 진주강씨, 제주고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5, 6여 호의 가구를 이루며 살았는데 크게 번창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749년(영조 25)에 신천리에서 신천강씨가 자녀 육남매를 데리고 와강리로 이주했는데 점차 와강리의 중심적인 문중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까지도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 후 1761년(영조 37) 광산김씨와 제주고씨가 들어왔고 또다른 신천강씨가 온평리에서, 그리고 곡

산강씨가 하천리에서 이주하여 옴으로써 와강리는 차츰 마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와강이라는 리명(里名)은 양반이 사는 곳으로는 적합지 못하다 하여 삼달(三達)이라고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해 낸 분이 강성익(康聖翊) 공이다.

공의 공적은 삼달1리에 자리잡은 헌수단(獻壽檀)의 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공은 일명(一鳴)의 자로서 자는 오응(吳應), 호는 명재(明齋)이며 조선 영정조시대 지평(持平), 장령(掌令)벼슬 등을 역임하면서 청렴과 충직으로 명성을 떨치던 분이다.

공이 지평직을 맡은 1795년(正祖 19) 조정에서 와강이라는 지명이 좋지 않다고 함으로 부강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는 고을을 뜻하여 삼달이라고 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삼달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를 풀이해 본다면 사람이 통달해야 할 세가지를 뜻하는 이름인데 “첫째로 조정에서는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로 고을에서는 웃어른을 섬겨야 하며, 셋째로 세상에 보은과 백성을 위하는 것을 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삼달, 즉 셋을 통달하면 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천(賤)한 사람은 이 곳에 살 수 없었으며 그로서 반촌(班村)으로 발전하여 왔다.

강성익 공은 이 곳에 헌수단을 건립하여 임금님의 만수와 국태민안을 소원하였으니 지나는 사람마다 하마(下馬)해서 경허한 마음을 표했으며, 오늘날에는 마을의 문화재로서 향토자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설촌 3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와강 마을을 최초로 개척했던 제주고씨, 청주한씨, 진주강씨 일가가 살았다는 한상이터, 수옹이터 등이 구전으로 남아있으나 그 후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오래 정착하지 못

하고 타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경주김씨 장손만이 유일하게 삼달2리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삼달1리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들의 성씨를 통계하여 보면 신천강씨와 그보다 조금 늦게 입주한 광산김씨 문중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신천강씨가 와강리에 입주할 당시 광산김씨는 성익공의 매와 제주고씨 역시 성익공의 매와 광산김씨는 성익공의 장녀와 군위오씨는 차녀와 혼인함으로써 삼달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고씨외계인 동래정씨와 김씨외손인 연주현씨가 인척관계를 맺으며 이 곳에 뿌리를 내려 강, 김, 고, 오, 정, 현 육성이 삼달1리의 역사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해 오고 있다.¹⁷⁴⁾

삼달리는 탐라순력도에 와강(臥崗:와갱이)으로, 탐라지도 등에 와강촌(臥江村),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등에 삼달리(三達里) 등으로 표기되었고, 1795년(정조 19)에 정의현 좌면 삼달리가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던 <더러물내>의 지형지세가 마치 강이 누워있는 것과 같다 하여 <되미모루>라 하여 와강이(臥江理)라 부르던 것이 변형되어 『와갱이』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은 『신천리』에서 신천강씨(新川康氏)가 자식 육남매를 데리고 조선조 영조 25년(1749)에 이주해 오면서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얼마 후 양반이 사는 마을로 『와강이』는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강성익(康聖翊)에 의해 부강(富強)하고 만사형통(萬事亨通)할 수 있는 마을임을 강조하여 『삼달리』로 바꾸었다. 이 마을의 이름에 숨은 뜻이 내포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이 통달(通達)해야 할 세덕목이 있는데 이를 통하면 천한 사람이 없다 하여 첫째 규율이 중요하고, 둘째 웃어른을 섬겨야 하고, 셋째로 세상에 보은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 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에 예속되었고 좌면이 정의면(旌義面)으로 변경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

174) 성산읍지 P.1144, 남제주군 성산읍, 2005

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삼달리가 되었다.

1946년 와깁이지역을 삼달1리로, 분들잇개를 포함하는 주어코지 일대를 삼달2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삼달1리는 와깁이라는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¹⁷⁵⁾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삼달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가 되었다.

12. 삼달2리의 설촌유래

삼달2리는 삼달1리 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산리이고 서쪽으로는 신평리와 경계를 접하는 해안마을이다.

삼달2리는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신평리에 살던 유명한 풍수가인



175)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58~360, 2004

강순신(康舜信:谷山)이라는 분이 자손 만대에 번영을 누릴 곳을 찾아 성산, 신양리 등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성산리 통밭에 10냥을 주고 주거지를 마련하였지만 왜구의 침입과 바람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가에서 한사코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신양리쪽에 거주지를 정하려 하였으나 물이 귀한 관계로 포기하였다. 그렇게 주거할 땅을 찾아 고심하던 그는 주어(駐漁)지역을 둘러보았는데 분야포(分野浦)에서는 맑은 샘물이 용출하고 주위에는 토지가 널려 있어서 현 삼달2리 44번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이 마을 사정은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 걱정이 없었고, 농사가 잘 되어 양식도 걱정이 없었으나 왜구의 침입은 예외가 아니어서 안주에 어려움이 많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현재 삼달1리 540번지로 이주하여 왜구의 침입이 없을 때만 주어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890년경(고종 때) 왜구의 침입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주어에 상주하게 되었고, 이 때 광산김씨를 사위로 맞게 되는데 이로서 김씨 일족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후 삼달1리에서는 경주김씨가, 우도에서는 김해김씨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1920년경에는 20여 호가 거주하게 되었다.¹⁷⁶⁾

삼달2리의 옛 이름은 분들잇개와 주어코지다.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과 ‘탐라지도’ 등에는 분입포(分入浦:분들잇개), ‘호구총수’ 정의, 촌읍면에는 삼달리(三達里)로 되어 있다. 일제 때 지도에 대동리(大同里)라 표시되었는데 큰골왓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듯하다.¹⁷⁷⁾

구전에 의하면 지금의 「신산리」에 속하는 「분드르」의 <분야포(分野浦)>에서 <대포(大浦)>에 이르는 바다는 수산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에

176) 성산읍지 P.1144~1145,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77)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0, 2004

서도 다양한 어족(魚族)이 모여드는 바다라고 하여 「주어(駐漁)」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제주군 정의면 삼달리에 속하였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2년 속칭 ‘곽새왓’ 네거리를 기점으로 1구와 2구로 나누어 마을 행정을 집행해 왔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가 되었다.

1946년에 과거 1구는 삼달1리, 2구는 삼달2리가 되었으며 현재 주어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삼달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가 되었다.

13. 신평리의 설촌유래

신평리는 성산읍의 맨 서쪽 마을이며 천미천을 경계로 표선면 세화1리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은 삼달1리, 북쪽은 성읍1리, 남쪽은 신천리와 접해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이 마을을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속칭 족새루던 데못(道韻台地)은 청룡이고 장자못 동산은 백호이며 곱주리동산은 안산(案山)이다.

신평리의 설촌연대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돌



칼, 돌도끼와 해안에 있는 고인돌 등 선사시대의 유물로 미루어 보면 선사 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촌락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1423년(世宗 5년) 정의현이 고성리에서 현 표선면 성읍리로 이전되면서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1439년(世宗 21)에는 신평리 1657-1번지 남산봉에 봉수대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여 연통(煙通)을 받아 대변청에 알렸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마을에 현씨 이방이 살던 집터라 지칭된 속칭 ‘선이방터’와 현비장의 무덤이 있어 연유한 ‘현비장골’이란 지명이 있다.

선이방(玄吏房), 선비장(玄裨將) 등 지명에 관직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씨 성을 가진 관리들이 퇴임하고 읍성(邑城)이 가깝고, 천미천에 식수가 풍부하여 모여 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또한 부씨, 변씨, 고씨도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751년경 광주조씨인 조량(趙良)이 입촌하였고 1684년(肅宗 10)경에 오치원(吳致元), 오계원(吳啓元) 형제가 입주하였고, 1726년(英祖 2)에는 신천강씨인 강영흥(康穎興)이, 같은 해 뒤를 이어 경주김씨 김광수(金光燧)가 입촌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광산김씨인 김광원(金光元)이 입주한 뒤 임씨, 홍씨,

김해김씨, 청주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 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아 지금과 같은 촌락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중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마을이 커지며 인구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반상이 구별되면서 향족(鄕族)과 이족(夷族)이 구별되었고 향족은 내의 위쪽, 토족은 내의 아래쪽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자 윗마을은 웃넛끼(上川尾), 아래마을은 알넛끼(下川尾)라 부르게 되었다.

『신평리』, 『신천리』, 『하천리』 세 마을을 본디 <넛끼>라 했는데 이는 내(川)의 꼬트머리라는 뜻이다. 처사 오억령의 묘비와 호장 강필번의 묘비에 <천미촌(川尾村)>, <川尾理>라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디 한자어로는 <개로천(介路川)>이라 했고 <진순내>라고도 불리웠다. 조선조 중기에 이르러 반상의 구별이 심해짐에 따라 향족(鄕族)과 토족(土族)으로 구별하면서 향족은 내(川)의 위쪽, 토족은 아래쪽으로 모여살면서부터 윗마을을 『웃넛끼』라 하여 한자어로는 『상천미(上川尾)』, 아래마을은 『알넛끼』라 하고 『하천미(下川尾)』라고 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지금도 이 곳에는 천미천을 끼고 형성된 마을 신평, 신천, 표선면 하천리, 이 세 마을을 통틀어 넛끼라 부르고 신평리를 상천미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¹⁷⁸⁾

신평리는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천미촌(川尾村 : 내각믄을)로 「호구총수」(정의 촌, 읍면)에 신평리(新豐里),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상천리(上川里 : 웃내각믄을)라 하였다.¹⁷⁹⁾

그러다가 1840년에 이 마을의 대학자인 오진조(吳眞祚)가 오장헌(吳章獻)의 패공고사(沛公故事)를 따라 신평리라 개명하였다. 그 후에 나온 「정의읍지」와 「정의지도」 등에 신평리(新豐里)와 신평리(新坪里)로 표기되어 있다.

178) 성산읍지 P.1168~1169, 남제주군 성산읍, 2005

179)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1~362, 2004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신평리와 신평리가 공존해 있었으나 1910년경 신평리는 신평리에 통합되었다.

신평리(新豊里)란 이름은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을 지향하여 그렇게 뜻을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1840년(철종 6)에 이 마을 사람 오진조(吳眞祚)에 의해 명명되어 지금에 이른다.

천미천은 내각의 한자용 표기이며 상류는 진손천(辰巽川), 하류는 개룻내(介老川)라 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평리라 하였으나 같은해 제주군 정의면 신평리가 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성산면 신평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평리가 되었다. 현재 신평리는 본동과 큰개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가 되었다.

○ 신평, 신천, 하천의 마을이름에 대하여

원래는 신평(新豊)·하천(下川) 두 마을을 ‘내끼’라 칭했었다.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가 고종때 강학수 현감이 하천리를 분리시키고 속칭 ‘묵은가름’에서 현재의 위치로 부락을 옮겼다고 한다.

신천리는 마을 이름이 보여주듯 마을 형성이 늦게 되었다. 천미포란(川尾浦亂) 때만 하여도 불과 5, 6호였다고 한다. 아마 천미포란을 겪고 천미연대가 외적 방어상 더욱 중요시되어 많은 군사를 주둔시킴으로 인하여 호수가 증가되지 않았는가 한다. 신평리는 오(吳)씨가, 신천리는 현(玄)씨가, 하천리는 강(姜)씨가 주성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다.

신평, 신천, 하천 세 마을은 원래 '내끼'라 불리어졌다. '내의 끝 냇가'라는 뜻인 듯하다. 문자로 기록할 때는 내의 끝이라는 뜻을 따서 천미촌, 혹은 천미리라 기록하였다. 이의 최초의 기록은 처사 오억령(吳億齡) 묘비와 호장 강필번(康弼藩) 묘비에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는 곧 천미천을 말하는데, 천미천은 천미촌이 이루어진 후 마을 이름 천미촌으로 인하여 다시 생겨난 이름이고 원래 이 내의 이름은 '개로천, 진순내'라 불렸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아 지금과 같은 집단부락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왕조 중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히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불어났다. 또 반상의 구별이 심하여짐에 따라 향족(鄕族)과 토족(土族)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향족은 내의 위쪽, 토족은 내의 아래쪽을 알내끼(下川尾)라 부르게 되었다. 천미포란 이후에 천미연대 부근에 마을이 이루어져 '새로 된 내끼'라는 뜻에서 신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세 마을, 즉 신평, 신천, 하천을 통틀어 지금도 노인들은 '내끼'라 부르고 있고 신평리를 상천미(上川尾)라 부르는 사람도 많다. 하천리와 신천리는 마을 이름을 바꾼 일이 없지만 상천리는 순조, 철종 년간에 당시 대학자인 오진조(吳眞祚)가 오장헌(吳章獻)의 패공고사(沛公故事)를 따라 신평리라 고쳤고 고종 말년에 마을을 둘로 나누어 신평리, 신평리라 부르다가 다시 합쳐서 신평리라 불렀다. 위에 적은 오진조의 문집에 정의풍촌(旌義豊村)이라고 적혀 있고 광무 8년에 기록된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신평리, 신평리, 하천리라 적혀 있다. 융희 2년의 호적단자에

는 신평리만 기록되고 신평리는 없다.

14. 신천리의 설촌유래

신천리는 성산읍과 표선면의 경계를 이루는 천미천 동쪽에 형성된 해안 마을로 북쪽으로 3km, 동쪽으로 2km를 가면 신평리에 이른다.

이 마을 일주도로 남쪽 해안에는 10만 평이나 되는 잔디밭이 펼쳐지며 신천마을의 하목장이었다.



이 목장 내에 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신석기시대와 탐라시대 유물이 패총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신천리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⁸⁰⁾

1439년(世宗 21)에는 신천리 267번지에 천미연대(川尾煙台)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2인을 배치하여 왜구를 감시하였다.

1552년(明宗 7) 5월에 왜적이 천미포(川尾浦)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2일이나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 때 의문책으로 김충렬(金忠烈) 목사와 김인(金仁) 현감을 파직하고 남치근(南致勤) 목사와 신지상(慎之祥) 현감으로 교체하였다. 1554년(明宗 9) 5월에 또다시 왜선 1척이 천미포 근처에 정박하였다가 10여 명이 상륙함으로써 교전이

180) 성산읍지 P.1196~1197, 남제주군 성산읍, 2005

벌어졌고 그 중 1명을 사살하니 왜구는 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퇴각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시기에 아마도 신천리 지역에 설촌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신천리에는 500여 년 전에 현씨, 고씨, 최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신천리는 「중종실록」 5년 9월 기사(己巳)와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는 천미포(川尾浦 : 내깍개)로,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천미포(川尾浦 : 내깍개), 천미장(川尾場 : 내깍장), 천미촌(川尾村 : 내깍마을)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천미(川尾)는 내깍의 한자용 표기이다.

신천리 마을은 본디 『신평리』, 『하천리』와 한 마을로 『내끼』라고 불리워지다가 <웃내끼>를 『신평리』, <알내끼>를 『하천리』라 하여 분리되었던 것을 냇가를 분기점으로 다시 <알내끼>에서 <셋내끼>를 잘라내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 것이 『신천리』다.

처음 이 마을이 설촌되기는 약 380여 년 전 조선조 광해군 원년(서기 1609년)에 당시 <셋내끼> 한복판에 있던 『천미연대(川尾煙臺)』에 근무하던 이들과 『신평리』와 『하천리』 주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어로행위를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이주하면서였다. 설촌터는 신평리 지경과 하천리 뚝밭과 인접한 두 지역으로 바닷가였다. 설촌 씨족들은 현(玄), 고(高), 최(崔)씨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1915년에 정의면 『신천리』라 하였다가 성산면 『신천리』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신천리라 하였으나 같은 해 하천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정의면 신천리가 되었다.¹⁸¹⁾

1915년 제주도(濟州島) 정의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정의면을 성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

18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P.362~363, 2004

제주군 성산면 신천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자로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성산읍 신천리가 되었다. 현재 신천리는 상동가 하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가 되었다.

○ 신천리의 전설

<용궁올래와 칼선도리>

바닷가에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이 즐비하여 『용머리』라고 하며, 그 바로 앞의 바다 속에 일직선의 길다란 골짜기가 형성되어 물에서 보면 질푸른 물결이 울렁이므로 남해용궁(南海龍宮)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 『용궁올래』, 그 옆의 칼날처럼 서 있는 바위를 『칼선도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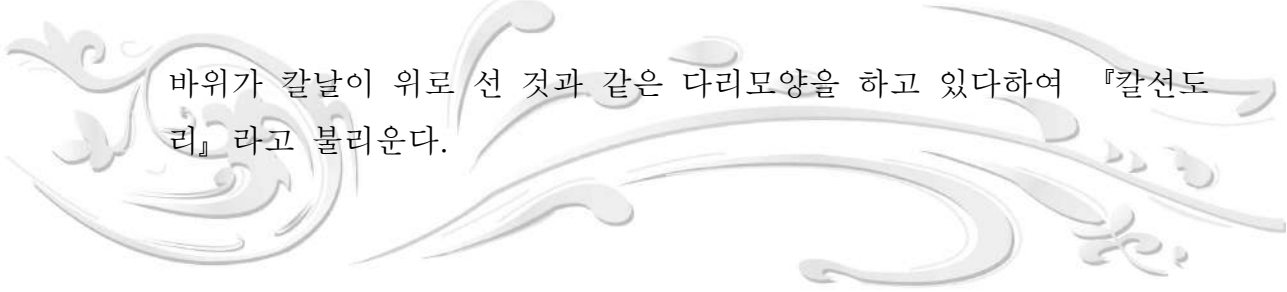
이 바다는 주변의 다른 잠수바다에 비해 수심이 깊고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 평소 잠수들이 물질을 기피하는 곳이다. 옛날 옷내끼에 사는 상군 잠수 송씨는 혼자서 곧잘 이 『용궁올래』에서 물질을 했는데, 그만치 물질도 잘하고 대담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 곳에서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전복이 보였다. 송씨는 자맥질해 들어갔다. 미리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물질은 깊었다. 도무지 전복을 딸성 싶지 않았으나 욕심을 내어 빗창을 전복

옆구리에 찢러 넣었다. 그 순간 정신이 아팠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햇볕이 쨍쨍 내리쬘고 강아지가 깨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가 싶었는데 나타나 꼬리를 살살 흔들며 따라오라는 듯이 굴었다. 송씨가 강아지를 가보니, 이견 별천지였다.

아방궁같은 집들이 즐비하고 길을 오가는 이들의 의복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사스러웠다. 송씨는 냇을 잃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다. 정의고을 웃내끼 사는데 물질을 하다가 전복을 발견하고 빗창을 찢러넣었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저도 모르게 여기에 있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니 여기는 남해용궁이라 세상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며 만일 들어온 것이 용왕에게 알려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줄테니 어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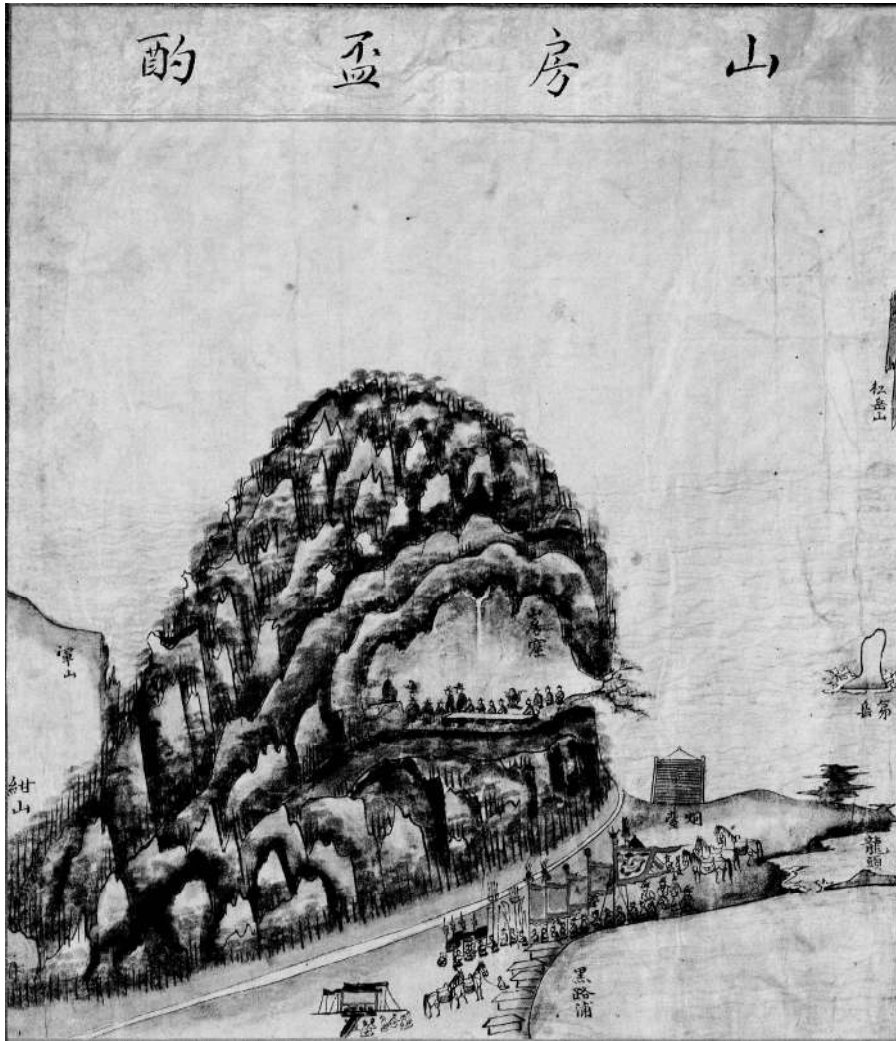
그 아가씨가 송씨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다짐받기를 인간세상에 나가고 싶으면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씨는 시키는 그대로 했다. 막 용궁을 벗어날 무렵 그 아름다운 별천지를 한번 더 보고 싶었다. 고개를 뒤로 돌리자마자 사방천지가 깜깜했다. 깜짝 놀라 앞을 보니 수문장이 가로 막고 서있었다.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왔느냐고 그는 불호령을 쳤다. 송씨는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세상에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자신이 죽고나면 그들은 누가 돌보느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수문장은 함부로 침입한 죄 마땅하나 늙은 부모를 생각하여 살려준다고 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처음 보았던 강아지가 다시 나타나 꼬리를 흔들면서 길을 안내했다. 강아지를 뒤따라 나와보니 전복을 따려던 『용궁올레』 까지 왔다. 송씨는 살았다고 만세를 불렀다. 그 바로 직후 『용궁올레』 옆에 칼날 같이 날카로운 바위가 우뚝 솟아 올랐는데 이는 남해용궁으로 세상사람들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



바위가 칼날이 위로 선 것과 같은 다리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칼선도리』라고 불리운다.

제6장 안 덕 면



안덕면(安徳面)

안덕면의 동쪽은 상예동과 하예동에 접하고 서쪽은 대정읍 상모리, 안성리, 구덕리, 제주시 한경면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이다.

안덕면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⁸²⁾ 이를 살펴보면

-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가 대정읍 상모리 및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1만 5천년전의 구석기인이 생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사계리 유물 산포지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화순리 고대마을 유적, 창천리 고인돌, 창고천 고인돌 등은 탐라 형성기인 BC200년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안덕면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 와서 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광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산방현이 오늘날 안덕면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대정현에는 예래현, 산방현, 차귀현을 예속시켰으니 안덕면

182) 남제주군지 1권 P.445, 467~470. 남제주군 2006
남제주문화 유적 P.10. 남제주문화원 2007

지역은 대정현 관할이 되었다.

1789년(정조 13) 호구 총수에 의하면 대정읍 지역은 안덕면과 통합되어 있었고 현(縣)의 우측에 있다 하여 우면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다 1870년경에 안덕면은 우면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현의 중앙에 놓여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안덕면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3)

○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右面：현 안덕면 관내인 通泉里, 柑山里, 洞水里, 礬川里, 自丹里, 今勿路里와 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募瑟浦里, 下募瑟浦里, 日果里, 敦浦里 가 포함되어 있다.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방리조

右面：현 안덕면 관내인 今勿路里, 自丹里, 犯川里, 洞水里, 柑山里, 通泉里와 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募瑟浦里, 下募瑟浦里, 日果里, 頓浦里 가 포함되어 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

中面：沙溪里, 德修里, 和順里, 甘山里, 倉川里, 通泉里, 光淸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 호구 가간총책

中面：倉川里, 上川里, 柑山里, 桶泉里, 和順里, 廣坪里, 東光淸里, 光淸里, 德修里, 沙溪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中面：倉川里, 上倉里, 上川里, 柑山里, 和順里, 德修里, 沙溪里, 東廣里, 西廣里, 廣坪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그리고 1870년경에 대정현에 중면을 신설 하면서 지금까지 우면에 소속되었던 사계리, 덕수리, 화순리, 감산리, 통천리, 광청리가 중면 관할이

18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4

되었고 이때 좌면에 있던 창천리를 중면으로 이관한 것으로 보아진다.¹⁸⁴⁾
그 후 중면이 된 후 안덕면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중면 풍헌을 중면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서광리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중면이 되었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17년 면사무소를 서광리에서 감산리로 이전하였으며
- 1935년 4월 1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39년 11월 12일 면사무소를 감산리에서 화순리로 이전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이 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안덕면이 되었다.
- 2007년 7월 24일 화순리 1961번지에 신축 이전하였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안덕면의 면적은 105.55km²며 인구는 9,824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리는 10개이고 행정리는 12개이며 자연마을은 1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사계리에 형제도1(兄弟島)과 형제도2가 있으며 면적은 53,006m²이다.

184) 안덕면지 총괄편 P.419, 안덕면 2006

현재 대정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화 순 리	화순리
사 계 리	사계리
덕 수 리	덕수리
서 광 리	서광동리, 서광서리
동 광 리	동광리
광 평 리	광평리
상 천 리	상천리
상 창 리	상창리
감 산 리	감산리
창 천 리	창천리, 대평리

1. 화순리의 설촌유래

화순리는 제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감산리, 서쪽으로는 사계리와 덕수리, 북쪽으로는 상창리가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있는 해안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는 월라봉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산방산이 북쪽으로는 논오름이 위치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자리로 불리워져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된 곳이다.



화순리 해안사구(海岸砂丘)에는 패총(貝塚)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물들은 오래 전인 기원전후 시기에 송국리형 주거지를 바탕으로 조성된 대규모 거점취락지역으로 137동의 취락유적과 유물이 대량발굴되고 앞으로 더욱 북서쪽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거주인은 주거, 생산, 분묘, 제의, 폐기, 생업활동역 등 공간 분할이 명확히 이루어져있는 마을로서의 통제와 질서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집단체계가 되었던 마을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동 되었는지는 밝힐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없고보면 화순리 설촌에 대해 산방현 치소와 왕자터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다.¹⁸⁵⁾

1300년(忠烈王 6) 탐라에 15개 현을 설치할 때 그 중에 산방현이 있었다. 산방현치소가 화순리 지역이라고 추정할 때 치소와 함께 설촌이 되었

185) 제주화순리유적 발굴조사보고(본문1). (재)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다면 그 설촌시기는 1300년으로 내다볼 수가 있다.

양왕자(梁王子)터를 근거로 하는 설촌설은 화순리 333번지 일대에 ‘왕자터’가 있고 왕자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추정이다. 이에 따르면 화순리 설촌은 탐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1400년 전에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제도가 폐지된 1402년(太宗 2)까지로 600여년 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음은 원세조(元世祖)의 후손이기도 한 운남국 양왕(雲南國梁王)은 신흥 명나라에 의해 운남의 수도인 곡정(曲靖)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명에서는 그의 태자인 백백(伯伯)과 그 아들 육십노(六十奴) 등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그 적소(謫所)가 바로 화순리 ‘왕자터’라고 한다. 그 시기를 미루어 보면 1300년대 말부터 조선 초기인 1400년대 초까지 설촌 역사를 600여년 전으로 소급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논제 중 어느 하나도 역사적 실체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전해지고 있음을 제시할 뿐이다.

그 후 1400여년 전인 신라 초기부터 600여년 전인 고려 말까지 이 지역에는 현재 씨족들이 아닌 주민들이 한때 설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주민들 선조가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은 1609년 창녕성씨(昌寧成氏) 성은진(成恩珍)이 영은동으로, 1690년대에 밀양박씨(密陽朴氏) 박언일(朴彦逸)이 동수동(洞水洞:골물, 화순리 웃동네)으로, 1696년 제주양씨(濟州梁氏) 양수담(梁遂淡)이 범천동(犯川洞:화순리 482번지 일대)으로, 1715년 충주지씨(忠州池氏) 지응해(池應海)가 서동(西洞) 만주왓(화순리 1854번지 일대)으로 각각 입촌하였다. 그 이후 강씨, 고씨, 이씨, 김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¹⁸⁶⁾

화순리 옛이름은 범내(犯川), 벗내, 범내왓, 벗내왓, 그리고 골물(洞水: 화순리 웃동네)이라 불렸다. 1653년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대포(大

186) 화순리지. 화순리지편찬위원회. 2001

浦:한개)로, 1702년 「탐라순력도」(한라장측)에는 범포(犯浦:범내)로, 1709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등에 범천촌(犯川村:범내마을), 동수촌(洞水村:골물마을, 곳물마을))등으로 불리어왔다. 또한 19세기 중반 「탐라지초본」(권4, 대정현, 산천)과 「탐라지」(남만리본)등에는 번천(樊川:번내)로 표기되었다.¹⁸⁷⁾

이렇게 범천동과 동수동은 독립적인 마을로 존속해 오다가 1840년(헌종 6) 초반에 마을 비중이 번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범천(犯川)이라는 한자음이 좋지 않다고 하여 한학자들에 의해 서로 화합하고(和) 순하게 살라(順)는 의미로 화순리라 하였다. 이래서 대정군 우면 화순리가 되었다.

1870년(고종 7)에 대정군에 중면(中面)이 신설되자 대정군 중면 화순리가 되었다.

18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가 되었다.

현재 화순리는 본동과 곤물(곳물)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화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가 되었다.

187)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 사계리의 설촌유래

사계리는 동쪽은 화순리(和順里)이고 서쪽은 대정읍 인성리(仁城里)와 상모리(上募里)이다. 북쪽은 덕수리(德修里)와 대정읍 안성리(安城里)이고 남쪽은 푸른 남해바다이다.



사계리는 금물로리(今勿路里)라고 했으며 이는 이두(吏讀) 표기인데 ‘금물’은 검다는 뜻이고 ‘로(路)’는 길을 뜻하므로 즉 검은 길을 따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 금물로리 지경은 당초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이고 지금의 윗동네인 상동 대로변이다.

사계리는 바닷가에 사람 및 동물 발자국 화석이 있고 신석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점혈문토기 등의 생활유적이 다수 발견되는 유물 산포지가 있다. 선주족(先住族)들의 정주와 이동에 관한 연관기록 또한 없으나 발견 유적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계리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자은골(장은골) 일대에 김해김씨(金海金氏)가, 큰물동네 일대에는 제주양씨(濟州梁氏)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사계리는 1653년(孝宗4) 발행된 「탐라지」(대정현, 산천)에는 금로포(金路浦)로, 1702년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중반에 나온 「제주삼읍도 총지도」에는 흑로촌(黑路村:검은길마을)으로, 1872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사계리(沙溪里:사계마을)로, 일제시대 지도에

는 사계리(沙溪里), 토기동(土基洞:토깃골), 산방동(山房洞:산방골) 등으로 나와있다.¹⁸⁸⁾

1780년경 대정현의 방리조에는 금물로리는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고 1784년(정조 8)부터 아래쪽에 위치한 사계(沙溪)와 그곳에서 5리쯤 위쪽에 위치한 신당(新堂:새당)이 같은 금물로리면서도 사실상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래서 1840년(헌종 6,道光 20)에 구 경민장(具擎民長)과 이 존위(李尊位)가 마을 이름을 사계리로 부르게 하여 달라고 진정적인 첩정(牒呈)을 대정현에 올렸다. 그리자 대정현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회시가 내려 1840년부터 사계리라 하였고 그보다 북쪽에 있던 신당은 덕수리라 불렸다.¹⁸⁹⁾

이 때는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으나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대정군 중면에 들어갔다.

사계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1840년에 깨끗한 모래를 시냇물에 비유하여 사계(沙溪)라 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이설은 이 마을을 맨처음 설촌한 이가 김(金) 씨임을 잊지 않으려는 뜻으로 이 마을 출신 구염조(具念祖)가 유학의 거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호를 따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한때 사계와 동사계로 나뉘어 있었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사계리로 통합되면서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그 다음해인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가 되었다.

현재 사계리는 대전동(大田洞), 송죽동(松竹洞), 용해동(龍海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188)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89)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사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가 되었다.

3. 덕수리의 설촌유래

덕수리는 안덕면의 맨 서쪽에 위치하여 일주도로와 서부관광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동쪽은 화순리(和順里)이며 북동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 북서쪽은 서광서리(西光西里), 남쪽은 사계리(沙溪里), 서북쪽은 대



정읍 구억리(九億里), 서남쪽은 대정읍 안성리(安城里)와 접하고 있다.

1625년(仁祖 3)경에 김해김씨(金海金氏), 진주강씨(晋州姜氏), 남평문씨(南平文氏) 등이 지금의 곳바구리를 중심으로 고분밭 근처에서 목축 및 농경사회를 이루며 정착하였다.

그 뒤 점차적으로 송씨(宋氏), 양씨(梁氏), 이씨(李氏), 윤씨(尹氏), 박씨(朴氏), 고씨(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큰가름(東洞)과 덕수굴(西洞)로 마을이 점점 커졌다고 한다. 또 1770년경에는 도련동(道淵洞, 上洞)에 사람이 입주하면서 3개의 자연마을로 마을이 형성되었다.¹⁹⁰⁾

190)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덕수리의 옛 이름은 쇠당 또는 새당이라 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쇠당촌(刷堂村:쇠당마을)으로, 18세기 말의 고 문서에는 쇠당(刷堂)으로, 「탐라지초본」(권4 대정현, 과원)과 19세기 중반의 호적중초 등에는 신당(新堂:새당)으로,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및 「대정읍지」 등에는 덕수리(德修里)로, 일제 때 50,000분의 1 지도에는 덕수리(德修里), 동동(東洞:동동네), 도이지동(道伊訖洞:도리못골)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새당마을은 1784년(정조 8)에 금물로리(今勿路里:금을질마을, 사계리)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¹⁹¹⁾

그래서 새당은 자단리(自丹里)로 되었다가 1831년(순조 31)에 상동은 자단리로 남고 하동은 다시 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840년(헌종 6)에는 새당이라는 호칭이 불길하다 하여 송문규(宋文奎)씨가 더욱 부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덕수리(德修里)로 마을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이 래서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다가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이제는 대정군 중면 덕수리가 되었다.

19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현재 덕수리는 동동(東洞), 서동(西洞), 도이연동(道伊淵洞:道淵洞)으로 나누고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191)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덕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설촌 초기부터 농기구의 일종인 ‘보습’을 제작하는 <토불미> 혹은 <청탁불미>가, 공예 기능공들이 들어옴으로써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부업 형태로 발전하여 주민 생활근간이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고유한 민속이 오래도록 원형을 잃지않고 보전된 마을로 <토불미> 말고도 연자매를 만드는 과정을 노래한 <방앗돌 굴리는 노래>가 전수되었고, 지붕을 이는 짚줄을 놓을 때 불리워지는 <일소리> 등도 전해지는 등 민속문화의 보고이다.

4. 서광서리의 설촌유래

서광서리는 동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와 동광리(東光里), 서쪽은 대정읍 구억리(九億里),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 북서쪽은 한경면 저지리(楮旨里), 남쪽에는 덕수리(德修里)가 자리잡고 있다. 안덕면의 서쪽 끝마을이며 중산간지역에 위치해 있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때 중원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였고, 1231년(高宗 18) 몽골군이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高宗 19) 6월에 수도를 강화도(江華島)

로 옮기고 장기항전의 각오를 굳혔다. 그러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피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元宗 11) 원에 굴복하고 개경환도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三別抄:左別抄, 右別抄, 神義軍)는 몽골에 굽힐 수 없다고 항거하고 진도를 거쳐 최후의 거점인 제주도 항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하였다. 이들은 온 도민을 동원하여 항파두리 내, 외성과 환해장성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자단리(自丹里) 곳 일대에 숨어 살았으니 이것이 서광리 설촌의 시작이었다.¹⁹²⁾

서광리의 옛이름은 자단리, 광챙이, 서광챙이다.

1625년(인조 3)경에 동광리와 서광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가 1872년(고종 9)에는 광청리(光淸里)가 되었다. 1898년(光武 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된 후 1912년에 광청리를 서광리(西廣里)라 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廣)이 된 것은 광챙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東廣里)와 서광리(西廣里)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¹⁹³⁾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됴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고 1938년에 광해악(廣蟹岳)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1구, 서쪽은 서광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한 후 군 토벌대가 11월 초순에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 전전궁궁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을

192)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193)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2구(서리)는 1950년 봄에, 동광리는 1953년 4월에야 간장리(동광리내)로 재건하였다.¹⁹⁴⁾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廣蟹岳)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는 하사관 교육대를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¹⁹⁵⁾

1963년 10월에 건곤동(乾坤洞)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서리는 사수동, 진부동, 응전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서광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가 되었다.

5. 서광동리의 설촌유래

서광동리는 광해악(廣蟹岳)을 사이에 두고 서쪽 서광서리와 나누어졌다.

동쪽은 상창리, 남쪽은 화순리, 남서쪽은 덕수리(德修里) 그리고 북쪽은 동광리(東光里)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194) 제주4.3유적.제주도/제주4.3연구소.

195)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남제주문화 창간호.남제주문화원.2004

그 때 중원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였고, 1231년(高宗 18) 몽골군은 고려에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高宗 19) 6월에 수도를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장기항전의 각오를 굳혔다. 그러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은 파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元宗 11) 원에 굴복하고 개경환도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三別抄:左別抄, 右別抄, 神義軍)군은 몽골에 굽힐 수 없다고 항거하고 진도를 거쳐 최후의 거점인 제주도 향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하였다. 이들은 온 도민을 동원하여 향파두리 내, 외성과 환해장성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뿔단이(自丹里)곶 일대에 숨어 살았으니 이것이 서광리 설촌의 시작이었다.¹⁹⁶⁾

서광리의 옛이름은 자단리, 광챙이다.

1625년(인조 3)경에 동광리와 서광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가 1872년(고종 9)에는 광청리(光淸里)가 되었다. 1898년(光武 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된 후 1912년에 광청리를 서광리(西廣里)라 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廣)이 된 것은 광챙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東廣里)와 서광리(西廣里)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¹⁹⁷⁾

196)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됨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고 1938년에 광해악(廣蟹岳)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1구, 서쪽은 서광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동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한 후 군토벌대가 11월 초순에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 전전궁궁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을 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2구(서리)는 1950년 봄에, 동광리는 1953년 4월에야 간장리(동광리내)로 재건하였다.¹⁹⁷⁾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廣蟹岳)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는 하사관 교육대를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¹⁹⁸⁾

1963년 10월에 건곤동(乾坤洞)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동리는 건곤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197)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98) 제주4.3유적. 제주도/제주4.3연구소.

199)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남제주문화 창간호. 남제주문화원. 2004

이에 따라 서광동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가 되었다.

6. 동광리의 설촌유래

동광리는 동은 광평리(廣坪里)와 상천리(上川里), 서쪽과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 남쪽은 서광리(西光里) 및 상창리(上倉里)에 접하고 있다.

동광리는 지금으로부터 360여년 전에 동광리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만주동(만주골) 일대에 임씨(任氏)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670년(憲宗 11)경에는 마을 서부에 광산김씨가 입주하여 삼(麻) 농사를 주로 하였으므로 삼밭구석(麻田洞)이라 하였다. 그 후 1700년대 제주 양씨, 진주하씨 등이 지형이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과 같다 하는 무동이왓(舞童洞)에 정착하면서 마을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²⁰⁰⁾

동광리는 원래 자단리(自丹里:동광, 서광)에 속해 있었고 옛 이름은 자단리(自丹里), 광챙이, 동광챙이다.

「대정군읍지」와 「대정지도」 등에 신청리(新淸里:새광챙이)로, 1872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광청리(光淸里:광챙이)로 변경되었다. 광청리는 원래 대정군 우면에 속하였는데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이



200) 4. 3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제주4.3연구소.1990

제는 중면 관할이 되었다.

1898년(光武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새 광청이)라 하였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대정군 중면에는 동광청(東光淸)으로,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동광리(東光里), 무전동(舞田洞:무동이왓), 조숙개동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⁰¹⁾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2년 경에 동광리(東光里)를 동광리(東廣里)로 개칭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廣)이 된 것은 광청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은 제주군으로 통합되었고 이 때는 제주군 중면 동광리가 되었으며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관할에 들어갔다.

화전민들이 대다수였던 무동이왓은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하여 1862년(철종 13)에 임술농민봉기와 1898년(光武 2)에 일어난 무술농민봉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1918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되찾겠다는 범정사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마을은 일제시대 무동이왓에 100여 가구, 조수래에 10여 가구, 사장밭에 3가구, 삼밭구석에 40여 가구, 간장리에 10여 가구 등 도합 160여 가구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또한 중산간 마을이지만 개화운동이 일찍 일어나 1925년경에 이 마을 주민 강위경(姜渭慶)씨가 광선사숙(廣善私塾)을 개설하여 숙장과 2명의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9년에 와서는 다른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동이왓에 2년제 동광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감산리에 있었던 안덕 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지방에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부근에 있던 창천, 서광, 상천, 덕수, 색달 등지에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취학하였을 정도였다.²⁰²⁾

201)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02) 4. 3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제주4.3연구소.199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난 후 11월 15일 위치적으로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마을에 갑자기 토벌군이 들이닥쳤다. 그 즉시 마을은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처참한 희생을 당하였다. 그래서 초토화된 이 마을은 폐동이 되었다가 1953년에야 간장리만이 재건되었고 무동이왓, 삼밭구석, 조수재 등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동광리에는 신병 제1숙영지와 하사관 교육대 제2숙영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1969년에 중산간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거새왓’에 양잠개척단지를 조성하여 33가구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양잠사업의 쇠퇴로 입주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축산과 일반작목으로 전환하여 자립하게 되었다.

이제는 서부관광도로, 한창로, 산록도로 등이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마을은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동광리는 본동과 양잠단지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동광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7. 광평리의 설촌유래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이고,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上川里)와, 남서쪽은 동광리(東光里)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의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서기 1750년(英祖 26)경 현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래’, ‘조가동’의 이름이 있고 현존 지도에는 조가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광평리 뒷동산은 고백이란 분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손은 한명도 광평리에는 살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는 화전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주해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뒤 쿡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당시 나라에서는 광평리 지역이 축산의 적지라 하여 국마장을 개설, 운영하였다. 따라서 광평리는 최초 화전민들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뒤에 국마장의 설치로 부락세가 커지기 시작했다.²⁰³⁾

한림읍 동명리 출신이었던 정만석(鄭晩錫) 훈장의 행적을 보면 1900년(光武4)과 1904년(光武8)에 각각 광평리에서 훈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203)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있는 바 이런 서당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이 곳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광평리의 옛 이름은 넓은곳, 넓은술, 넓은드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읍지」(대정현지, 도로) 등에 광수(廣藪:넓은곳)로, 「제주군지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광림평(廣林坪:넓은곳드르)으로, 「대정군읍지」(방리)에 광평리(廣坪里:넓은드르믈)로, 일제시 50,000분의 1 지도 상에는 광평리(廣坪里), 마통동(馬洞洞:말 통동네), 조가동(趙哥洞:조가웨 동네) 등으로 표기되었다.²⁰⁴⁾

이 마을은 19세기 말 이전에는 자단리(自丹里:동서광리)와 광청리(光淸里:광챙이)에 속해 있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통동, 조가동, 조숙동을 병합하여 광평리(廣坪里)라 하였고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목축이 성해짐에 따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전입자가 늘어 4·3 사건 전에는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대 정도 모두 70여 세대가 살아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고 한다.²⁰⁵⁾

그러다가 1948년 4·3 사건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막통’어귀인 고베기동산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本洞)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04)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05) 향토지(남제주) 안덕지역. 제주대학교.1994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광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8. 상천리의 설촌유래

상천리는 동쪽은 색달동(穢達洞), 서쪽은 동광리(東光里), 남쪽은 상창리(上倉里), 남동쪽은 상예동(上猊洞)과 접하고 북쪽은 영아리오름(靈阿利岳)이다.

상천리는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흰 사슴(白鹿)이 상천마을에 있는 궤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았으므로 모록밭 또는 백록동(白鹿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230여년 전 조씨, 박씨, 김씨 등이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흘동네, 거머흘, 췌망에움, 큰빛대기집터 등에 정착하여 목축과 농사를 지음으로써 설동되었다고 한다.

1884년(高宗 21)의 수해와 1885년의 연이은 태풍으로 한림, 애월, 한경 등지의 해안마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마을이 급속히 확장되어 100여 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자 하창리(下倉里:창천리)에서 수차례 같은 마을로 합칠 것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정서상 독립된 마을로 남겠다고 하여 하창리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천리의 옛 이름은 모록밭이다. 18세기 중엽에 발간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부연(鳧淵:울리소)으로, 1899년의 「대정군읍지」(대정지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상천리(上川里 : 웃내마을)로 표기되었다. 이리하여 대정군 중면 상천리가 되었다.²⁰⁶⁾

19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은 제주군에 통합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11월 13일 토벌대가 들이닥쳐 주택은 불에 타고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그 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리자 일부 주민은 해안 마을로 내려가고 일부 주민은 산야에 은신하며 해마다가 희생을 당했다. 이 마을이 복구된 것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구역이 해제된 9월이었다. 그러나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흘동네, 거미홀은 영영 폐동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천리는 ‘모록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본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상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되었다.

206)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9. 상창리의 설촌유래

상창리는 동쪽으로는 상예동(上猊洞), 서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 북쪽은 상천리(上川里), 남쪽은 창천리(倉川里), 감산리(柑山里)와 화순리(和順里)에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의 지형지세를 보면 동쪽으로 ‘보름이’,



서쪽은 산방산(山房山), 북쪽은 병악(並岳), 남쪽은 군산(君山)이 자리잡고 그 사이 마을이 평평하고 넓게 자리잡고 있다.

풍수지리설로는 바둑판형이라 하여 보름이와 산방산이 바둑을 두고 병악과 군산이 남북에서 훈수를 하는 것과 같은 바둑판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웃성구못’, ‘동성구못’, ‘서성구못’이 있어 생활용수로 활용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 마을에는 1755년(英祖 31)에 동남쪽에 있는 양아리콴(明羅洞:상창리 458번지)에 진주진씨 진석범(秦碩範)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군위오씨 오정규(吳廷揆)가, 상창리 동쪽인 개남산밭 일대에 제주양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 후에 김씨, 오씨, 이씨, 강씨 등이 입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 마을은 본디 창고천리(倉庫川里)에 속해있어 웃창고내라 하다가 1900년(光武4) 대정군에 진정하여 창천리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그래서 대정군 중면 상창리(上倉里)가 되었다.

1909년 1월에 행한 상창리 호구조사에 따르면 호수는 144호이며 인구는 남자 220명, 여자 290명으로 도합 510명이었다. 당시로서는 제법 큰 마을이었다.²⁰⁷⁾

18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통합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12월 9일 상창리에도 소개령이 내려 창천으로 피난을 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희생을 당했다. 그러다가 1949년 5월에 상창리 중심부에 성을 쌓고 올라와 다시 재건하였다. 그러나 10여 호가 살던 대난도는 영영 폐동이 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창리는 본동과 신남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상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가 되었다.

207)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0. 창천리의 설촌유래

창천리는 안덕면의 동쪽 끝 마을이다. 창고천을 넘어 동쪽은 상예동(上猓洞)이고 서북쪽은 상창리(上倉里), 서쪽은 감산리(柑山里), 남쪽은 대평리(大坪里)와 접하고 있다.

창천리는 1674년(顯宗 15) 봄에 모슬포 출신 강위빙(姜渭聘)에 의해 설촌되었다. 이 곳에 삶을 개척한 강위빙은 1643년(仁祖 21)에 우면(대정) 모슬포(募瑟浦:상모리)에서 강진(姜晋)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31세가 되던 1674년 봄에 대정현의 유향좌수(留鄉座首)로서 관내를 순력중인 제주절제사를 맞이하기 위해 정의, 대정현 경계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 때 강위빙 좌수를 만난 절제사는 강좌수가 고상한 인품임에도 의복이 초라한 것을 눈여겨 보고 아마도 빈궁한 살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측은한 생각도 가지고 있던 참인데 그 행사가 서진하다가 마침 창고천 머리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 이 때 목사가 강좌수를 부르더니 지금의 창천초등학교 북측을 가리키면서 저 땅에 집을 지어 살면 필시 당대에 대정갑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강위빙 좌수는 절제사의 말씀을 명시하고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장남이었지만 부모 슬하를 떠나서 창천리 160번지로 이주하였다.

그는 신천지나 다름없는 낯설고 물설은 고장에서 외로움을 참으면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 정착하였다.

그 후 오태연(吳泰連), 김두강(金斗岡), 오중방(吳仲邦) 등이 입주함으로써 마을이 커졌다.²⁰⁸⁾

창천리의 옛 이름은 창고내이다.

1709년 「탐라지도」에 창고천(倉庫川:창고내)으로,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창고천촌(倉庫川村:창고내마을), 1872년 「제주삼읍전도」(대정군 좌면), 1899년(대정군지도) 및 1899년 「대정군읍지」(방리) 등에 창천리(倉川里:창고내마을)로, 일제시 지도 등에 창천리, 창고내(倉庫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⁰⁹⁾

그러나 인근마을에서는 창구천(倉口川, 창구내)라 부른다. 또한 서재집(西齋集 : 임징하. 1687~1730년)에는 창구천(倉口川)으로 기록되어 있다.²¹⁰⁾

이 마을은 한때 창고내(倉庫川:창천리), 난드르(대평리), 성구물(상창리), 상예일부(상예2구)를 포괄하는 큰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00년(光武 4)에는 상창리가 분리되었다. 그 후 1914년 면과 리의 구획을 측정할 때 마을 경계가 대부분 하천과 자연촌락으로 분할하게 됨으로써 상예2구는 좌면(중문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18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창천리 1구는 현재의 창천리였고, 2구는 현재의 대평리로 나뉘었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가 되었다.

1948년 9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49년 7월에 구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창천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산과 냇물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같은 마을로서 행정상 많은 애로점이 있어 1950년에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상으로만 창천리와 대평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창천리는 뱀바리동(蛇盤洞), 사장밭동(射場田洞), 토산동(兎山洞), 물밭동(水田洞), 도산동 등으로 이루어졌다.²¹¹⁾

208)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209)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10) 서재집(西齋集) 6권 雜著 隨雁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4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창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가 되었다.

11. 대평리의 설촌유래

대평리는 표고 334.5m나 되는 군산(軍山) 남쪽에 위치하며 동은 하예동(下峴洞)이고 서쪽은 감산리(柑山里)와 접하고 있다. 북쪽은 같은 법정마을인 창천리(倉川里)이고 남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아담한 마을이다.



1007년(穆宗 10)에는 마을 북쪽에 군산이 용출하여 우뢰같은 소리가 진동하고 길은 운무로 뒤덮인 지 7주야만에 멈추었다.

조정에서는 태학박사인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

대평리는 3기의 고인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마을이나 주변 마을에 오래전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평리 마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여

211)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년 전 일이다.

대평리는 구전에 의하면 1734(英祖 10)에 양기성(梁起盛)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양기성씨의 설촌 기념비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햇마루 꼭대기에 세워져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양공에게 일장일혜(一杖一鞋:지팡이와 미투리)를 주면서 땅을 찾아 뜻을 펴라고 한다. 이에 양공은 혼자 전도(全島)를 돌아보던 중 군산에 올라 바라보니 노인이 제시한 땅이 바로 대평리임을 알고 여기에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쓰여져 있다.²¹²⁾

그 뒤에 이씨(李氏), 김씨(金氏), 강씨(姜氏), 장씨(張氏) 등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²¹³⁾

대평리는 예부터 ‘난드르’와 ‘당캐’등으로 불리어 왔다. 「남사록」(권3)과 「제주삼읍지도」 등에 당포(堂浦:당캐)로,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당포(唐浦:당캐)로, 이두어시망(伊斗於時望), 이두봉(伊斗峰)으로, 정의군지도에 당포연(唐浦煙:당캐연)으로, 일제 때는 대평(大坪:난드르), 송항(松港:솔개)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마을은 원래 예래(猊來:열리)에 속하였으나 150여년 전에 창천리에 속하게 되었다.²¹⁴⁾

창천리는 18세기 후반까지도 대정현의 좌면에 있었으나 1870년경에 대정군 중면이 신설되면서 중면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 때 대평리는 창천리의 일부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대정군은 제주군으로 통합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 창천리가 되었다.

1918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창천리 1구는 현재의 상천리로, 2구는 현재의 대평리로 나누어졌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

212) 향토지(남제주) 안덕지역. 제주대학교.1994

213)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214)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2구가 되었다.

1946년에는 예부터 불리지던 ‘난드르’에서 유래된 ‘대평(大坪)마을로 불려졌다.

광복 후인 1948년 9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7월에 구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창천리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에 산과 냇물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같은 마을로서 행정상 많은 애로점이 있어 1950년에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상으로만 창천리와 대평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대평리는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대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가 되었다.

12. 감산리의 설촌유래

감산리는 제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마을 이다.

감산리는 동쪽은 창천리와 대평리, 서쪽으로는 화순리, 북쪽은 상창리이고 남쪽은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에 신산오름과 서쪽에 산방산, 남쪽에 군산(굴메오름)과 월라봉(드래오름, 북쪽에 병악이 위치하여 주야간 온도차가 적다고는 하나 감산천을 중심으로 산재한 오름들의 영향으로 제주의 해안과 산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리와 눈과 비가 많은 곳이다.

감산리는 주거생활의 기본요소인 물이 곳곳마다 솟아나 위로 동천과 양재소, 도고샘, 즈배남송이, 비적골 등 수십곳에 이르는 다양한 용천수로 인해 주거생활이 이루어



져 왔고 발굴되는 유물들로서 신석기시대의 압인문토기, 어골문토기, 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의 생활유적과 바위그늘집자리나 고인돌 등 기원전후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2000여년 전 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대규모 거점취락 주거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부터 전해오는 감산리는 동은 예래(猯來), 서는 산방(山房), 남은 대해(大海), 북은 병악(並岳), 이라고 구전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넓은 마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지방에 많은 사람이 기원 전후부터 정착하였음을 출토되는 유물, 유적들로 보아 알 수 있으나 그에 연관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마을 입촌씨족들은 1574년경 제주고씨(濟州高氏)인 고정상(高定常)이 서동 묵은터에 입촌하였고, 1592년경 문화류씨(文化柳氏)인 몽성(夢星)이 통물동에 들어와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후에 차차 강씨, 김씨, 문씨, 양씨, 오씨, 유씨, 이씨, 장씨, 진씨, 차씨, 홍씨, 한씨 등이 입주하였다.²¹⁵⁾

215) 감산향토지. 안덕면 감산리. 2002

또한 이 마을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1300(충렬왕 26) 탐라를 동서로 나누어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r 15개의 현 중에 산방현을 두었다. 이 산방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며 , 감산리에서 2002년 발행한 감산리지에는 감산촌을 산방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에 1430(세종12) 6월 계유(癸酉) 4일에 제주 경차관(敬差官) 사복사 소윤 박호문(司僕寺小尹朴好問)이 아뢰기를 정의, 대정 두 현은 성내에 샘물이 없으므로 청컨대 정의현은 토산으로, 대정현은 감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임금께 아뢴일이 있었다.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때도 감산은 물이 좋고 입지적인 여건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다.²¹⁶⁾

1439년(世宗 21)에 대정현 소속으로 감산리 1057번지 일대인 월라봉 앞 이도시(이두어시)에 호산봉수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과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였다.²¹⁷⁾

왕조실록에 보면 1443년(世宗 25) 정월 병인(丙寅) 10일 제주안무사 기견(奇虔)은 치계(馳啓)하기를 ‘정의현과 대정현 성내에는 천맥(泉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성의 동쪽 16리쯤에 있는 감산리는 비록 동남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서 성중(城中)을 내리누르기는 하지만 천수(泉水)가 용출하여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궁시(弓矢)가 미치지 못하니 역시 이 곳에 현성을 옮길만 합니다’ 라고 하였다.²¹⁸⁾

1702년(肅宗 28)에 이형상 목사 때 그린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측에 예래와 대정 사이에 있는 마을은 감산 뿐이며 자단리(自丹里:동서광리)는 감산 서북쪽에 표기되어 있어 당시 감산리가 큰 마을임을 나타내고 있다.²¹⁹⁾

또한 사헌부 장령이었던 임징하(任徵夏, 1687~1730)가 소를 올려 탕평

216)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방송. 1986

217)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1993. 남제주문화창간호. 남제주문화원.2004

218)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방송. 1986

219) 감산향토지. 안덕면 감산리. 2002

책을 반대하고 소론(小論)의 제거를 주장하다가 1727년(英祖3) 감산촌에 위리안치 되었다. 그는 겨우 감산에서 1년을 보내고 1728년에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하다가 옥사하였다.²²⁰⁾

감산리는 「세종실록」(권48, 12년 6월 계유)에 감산(甘山)으로, 「탐라지」(제주목산천)과 「탐라순력도」(한라장측) 등에 감산(紺山)으로, 「탐라지」(대정현과원)에 통천(洞泉:통물)으로,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 감산촌(紺山村)으로, 「호구총수」(대정우면)에 통천리(桶川里:통물마을)와 감산리(甘山里)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05년 이후 통천리는 감산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²²¹⁾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천리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중면 감산리라 하였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다.

1909년 8월 20일부터 중면사무소는 서광서리에 있었으나 1917년 3대 강두규 면장시에 감산리 149번지(동동)로 이전하였고, 1931년 4대 김봉규 면장 때 태풍으로 면사무소 건물이 전파되어 감산리 1498-1번지(서동)로 옮겼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때 ‘안덕계곡’의 ‘안덕’ 두 글자를 따서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감산에 20여년이나 면치소를 두었으나 1938년 11월 12일 6대 오용국(吳龍國) 면장 때 화순리 311-1번지로 옮겨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²²²⁾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자로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220) 임정하(김익수 역)의 서재집. 2004. 김찬흠.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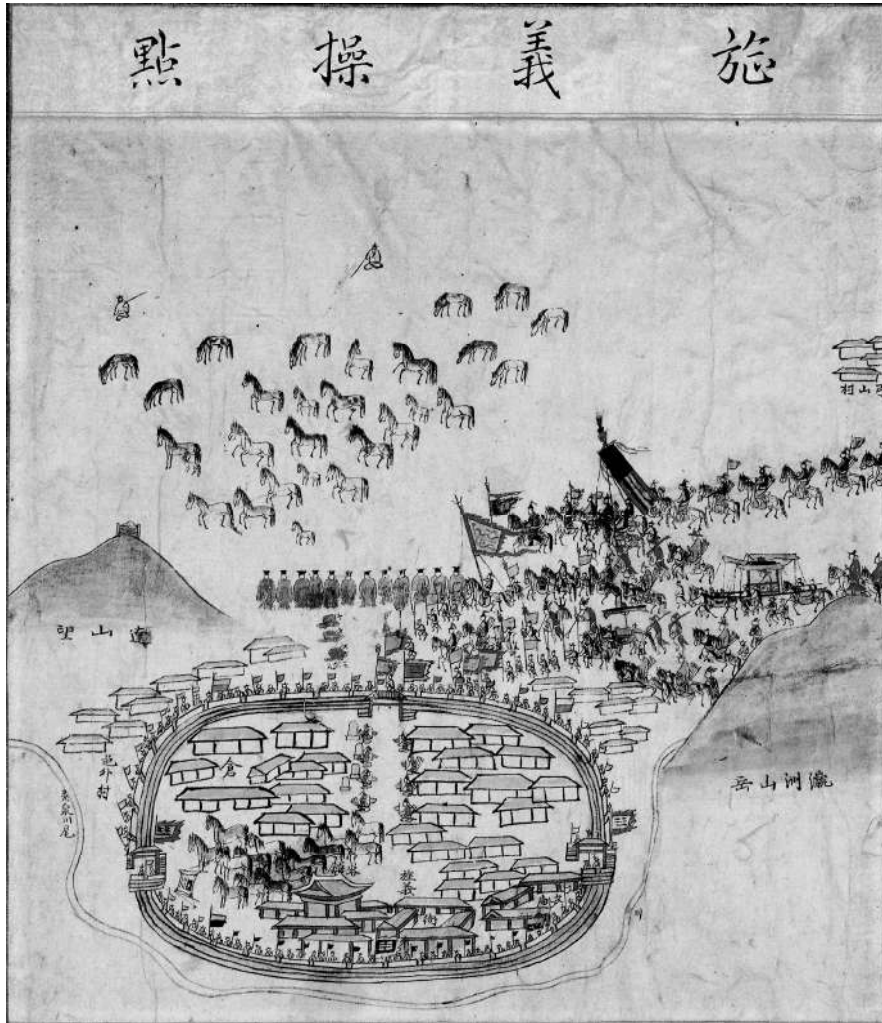
221)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22)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감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가 되었다.

제7장 표 선 면



표선면(表善面)

표선면의 동쪽은 성산읍 신평리와 신천리에 접하고 서쪽은 남원읍 신흥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이다.



표선면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찾아 볼수 있다.²²³⁾

그중에는 성읍리 유물 산포지가 무려 3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표선리 안가를 일대에서 돌도끼 1점과 고분쟁이 동산에서는 광지리 토기편을 여러점 발견하였다. 이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표선면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 와서 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동도현에는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金寧), 토산(兎山), 호아(狐兒 : 일명 狐村)현을 설치했으나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토산현이 오늘날 표선면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223) 남제주군지 제1권 P.445~447. 남제주군 2006
표선리 향토지 P.33 표선리 원로회 1996

예속시켰으니 표선면 지역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원래 정의현 치소는 홍로(烘爐)땅에 두었으나 홍로는 풍수설에 입각하여 지형이 화로 모양이므로 불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산평(水山坪 : 성산을 고성리)으로 옮겼다.

그러나 막상 수산평으로 옮겨갔으나 대정현과 거리가 무려 100리나 떨어져 있고 우도가 지척간에 있어 왜구내침이 우려 되었다. 그래서 1423년(세종 5) 읍성을 진사리(晉舍里 : 현 성읍리)로 이전 하였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의하면 표선면 지역은 토산면(兎山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말에 정의현이 면을 개편할 때 표선면은 현의 중앙에 놓여 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표선면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⁴⁾

○ 1789년(정조 13)호구 총수

兎山面 : 表善里, 細花里, 兎山里, 加時岳里, 安坐岳里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中面 : 表善里, 細花里, 兎山里, 加時岳里, 安坐岳里. 현 남원을 관내인 水望里, 東衣貴里, 西衣貴里, 保閑里, 火等里, 又尾里, 狐村里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東中面 : 表善里, 細花里, 加時里, 安坐里, 兎山里

○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東中面 : 左善里, 表善里, 東細花里, 西細花里, 東加時岳里, 西加時岳里, 安坐岳里, 兎山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 가간총책

東中面 : 左善里, 表善里, 細花里, 東加里, 加時里, 安坐里, 兎山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224)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3.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東中面 : 城邑里, 下川里, 加時里, 細花里, 兎山里, 表善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19세기 중후반에 성읍리(城邑里)와 궁산리(弓山里)2개 마을이 있었으나 19세기말에 성읍리로 병합 되었다. 또한 성읍리는 하천리와 더불어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정의군 좌면에서 동중면 관할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은 정의현 읍성이 소재한 중심 고장이 되었다.

한편 중면이 된 후 표선면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중반에 중면 토산리(兎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溫川里)가 분리되었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동중면 풍헌을 동중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성읍리 809-1번지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 가시리)와 토산리 일부를 서중면 온천리에 통합하고 안좌리 일부가 수망리에 각각 병합되었다. 그리고 좌면의 성읍리와 하천리를 동중면으로 이관하였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동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5년 면사무소를 표선리 596-1번지로 이전하였다.
- 1935년 4월 1일 동중면을 표선면으로 개칭하였으며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이

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표선면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표선면의 면적은 135.14km²이며 인구는 10,875명이다. 지역내 법정리는 6개이고 행정리는 10개이며 자연마을은 30개이다.

현재 표선면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표 선 리	표선리
하 천 리	하천리
성 읍 리	성읍1리, 성읍2리
가 시 리	가시리
세 화 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 산 리	토산1리, 토산2리

1. 표선리의 설촌유래

지금까지 표선리에 대한 최초의 설촌은 약 60년 전 고려 말 충열왕 무렵에 지금의 <웃말개미>에 설촌하고, 마을 이름을 燭旨里라 했다는 설이 있다. 웃말개미는 표선리 2821번지 일대를 말하는데 이 부근에서는 지금도 담굽에 대



나무들이 자라고 일부 밭에서는 조개껍질이나 사금파리들도 나온다.

웃말개미란 그 어원부터가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고, 개미란 개마, 즉 고원(높은언덕)이란 뜻으로 해석되어 여기에 오래 전에 마을이 있었으리란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도내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96년 1월 24일자) “표선면 표선리 마을 안에서 2천년 전에서 1천 7백년 전 사이에 쓰였던 돌도끼와 무문토기 조각들이 발견돼 당시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

또 이 기사는 ‘표선면 사무소 서쪽 100m지점(속칭 안가름) 현순화 할머니(70)의 과수원에서 발견된 돌도끼는 잘 다듬어진 것이었으며, 무문토기편은 황갈색의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인 광지1식 토기의 조각으로 기원후 300년 까지는 도내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들’이라 부연하고 있다

이같은 무문토기는 과거 천미천을 끼고 이 마을과 가까운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의 동굴 속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데, 이번에 표선리에서도 찾아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박물관의 강창화 연구원은 “동굴유적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된 것은 일시적 거주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밭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당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가름>이란 밭은 아직도 옛날의 주거형태를 엿볼 수 있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다.

안가름 뿐 아니라 표선면사무소 정문에서 길을 건너 동편의 <뒷가름> 과수원에서도 조선시대의 자기 파편들이 지금도 무수히 나오고 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안가름, 뒷가름이 마을의 중심지가 될 무렵 속칭 <상뒤동산>을 경계로 그 동쪽을 永南里, 서쪽을 左善里라 하였는데 경민장 1인이 처리하였으나 두 마을간에 수시로 갈등이 빚어져 오다가 한일합방과 동시에 표선리로 통합되어 면소재지가 되었다고 한다. 한일합방 당시 경민장은 高奉伯이었는데 그는 연임하여 1년동안 리장을 지내기도 했다.²²⁵⁾

표선리의 옛 이름은 ‘폐선믈르, 표선믈르’ 또는 ‘폐선이믈르’인데, 이는 한자 차용 표기로 쓰였다.

『탐라도』와 『탐라순력도』(「한라장축」) 등에는 ‘폐선믈르믈 [票立村]’, 「탐라지도」에는 ‘폐선믈르믈 [票先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폐선믈르믈 [票先旨村]’,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삼읍전도」, 「정의군지도」 등에는 ‘폐선믈 [表善里]’,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는 ‘폐선믈르믈 [表先里]’, 『정의읍지』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좌폐선믈 [左善里]’, 폐선믈 [表善里], 일제강점기 5만분의 1 지도에는 ‘폐선이믈 [表善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폐선이> 표선이’라고 한다.

票立村(표립촌)과 票先村(표선촌), 表善里·表先里(표선리) 등은 ‘폐선믈’의 한자 차용 표기로, ‘폐선믈르믈’의 ‘믈르’[旨]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225) 제주의 마을시리즈, 반석출판사, 2002, p18~24.

票先旨村(표선지촌)은 ‘폐선므르므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18세기 후반부터 표선리(表善里)로 표기되었고, 19세기 후반에 한때 좌선리(左善里)와 표선리(表善里)로 분리되었다.

좌선리는 20세기 초반에 영남리(永南里)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동중면 영남리(永南里)와 표선리(表善里), 그리고 좌면 하천리(下川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동중면 표선리(表善里)라 하였다.

표선리 중심가에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1914년 일주도로가 뚫리고 1917년 표선리에서 성읍장터로 길이 연결될 무렵이다.

1925년에는 주재소가 지금의 표선면사무소 앞 노인정 자리로 옮겨오고 1934년에는 면사무소까지 지금의 제주은행 표선지점 자리로 옮겨왔다. 그 후 1937년에는 당시 공립정의보통학교가 현재의 표선초등학교 자리로 옮겨 왔다.

1915년께부터 표선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당개포구를 근거지로 한 어장의 형성 등으로 차츰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1917년에는 현재의 네거리 일대에서 각 2일과 7일에 표선 오일장이 서기 시작했다.

한편 이 무렵 지금의 신흥 동쪽 50m 거리에 있던 송남명씨의 남명식당은 표선 돼지고기 맛을 전도에 알린 대표적인 식당이었다.

표선리 본동의 서쪽 바닷가에 한참 떨어져 있는 한지동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朴春好씨가 지금의 장소(가마리 동쪽 경계)에 입주하면서 설촌되었고 지금은 넙치 등 양식어업의 주요 장소가 되어있다.

한편 堂浦는 조선시대부터의 포구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전복채취선의 근거지가 되고 일본을 왕래하는 여객선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지금도 1일 30~50척 어선이 드나드는 좋은 포구이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횃집 군락도 형성되어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표선리는 동상동, 중하동, 서상동, 서하동, 당포동, 한지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상동(東上洞)은 동동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중상동(中上洞)은 중간 위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서상동(西上洞)은 서동네 위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서하동(西下洞)은 서동네 아래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당포동(堂浦洞)은 포구 가까이에 있는 ‘당캐’라는 당이 있고, 그 당이 있는 포구 동네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한지동(漢池洞)은 ‘한뫼’ 일대의 동네로, 서하동 서쪽에 있다. ‘매오름’ 서남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2. 가시리의 설촌유래

가시리는 가시오름(오늘날 지도에는 가세오름으로 표기됨)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에 ‘안좌름’ ‘와계우영’ 일대에 변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에 지금의 가시리에 한씨가, 450여 년 전에 군위 오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가시리의 옛 이름은 ‘가시오름막을’ 또는 ‘가스름’이다. ‘가시오름’ 북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시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첫 마을은 17세기 말 「탐라도」에 보이는

橡岳村(상악촌:남오름ㅁ을)과 安坐村(안좌촌)이다.

그 후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橡岳村(상악촌)과 安坐岳村(안좌악촌: 안좌오름ㅁ을)이 확인되고, 18세기 말의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서 加時岳里(가시악리: 가시오름ㅁ을)와 安坐岳里(안좌악리: 안좌오름ㅁ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악촌은 지금 민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남오름ㅁ을’의 한자차용표기로 보이고, 지금 가시리의 전신으로 보인다.

상악촌은 18세기 후반에 가시악리로 표기되고, 19세기부터 加時里(가시리)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에는 가시리가 둘로 나뉘어 동가시악리(동가시오름ㅁ을), 서가시악리(서가시오름ㅁ을)라 하였다.

전자를 東加時里(동가시리: 동가시오름ㅁ을) > 東加里(동가리)라 하고, 西加時里(서가시리: 서가시리ㅁ을) > 西加里(서가리)라 하였다.

서가시리는 20세기 초반에 가시리라 하고, 1905년 이후에 동가시리를 통합하여 가시리라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安坐村(안좌촌)은 安坐岳(안좌악: 屏花岳이라고도 함) 아래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이른다. 安坐岳村(안좌악촌: 안좌오름ㅁ을)과 安坐岳里(안좌악리: 안좌오름ㅁ을)로 표기되었다가 18세기에는 安坐里(안좌리: 안좌ㅁ을)로 표기되었다.

安佐岳, 安坐岳은 ‘안좌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름, 안좌오름’이라고 한다.

安佐, 安坐는 ‘안좌’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동사 어간 ‘앉-’에 연결어미 ‘-아’ 또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가 아닌가 한다. 곧 ‘앉은오름’의 뜻이 아닌가 한다. ‘안좌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안좌오름ㅁ을’이라 하고 하고 한자로 安坐岳村, 安坐岳里 또는 岳을 생

략하여 安坐里라 하였다.

20세기 초가지도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일부는 가시리에, 일부는 수망리에, 일부는 신흥리에 병합되면서 안좌리라는 마을 이름이 사라졌다.

오늘날도 ‘안좌동’은 가시리의 한 자연마을로 남아있다.

17세기 말 「탐라도」에 오름 이름은 屏花岳(병화악), 마을 이름은 安坐村(안좌촌)으로 표기하고 18세기 「삼읍도총지도」에 오름 이름은 屏花岳(병화악:벵꽃오름), 마을 이름은 安坐岳村(안좌악촌:안좌오름마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부터 오름 이름과 마을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加時岳(가시악)은 ‘가시오름’의 한자차용표기, 可沙岳, 加沙岳은 ‘가사오름, 가세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시오름, 가세오름, 가스름’이라고 한다.

오름 형세가 ‘ㄴ세’(가위의 제주어)와 같다는데서 가세오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加時’는 ‘ㄴ세’의 변음 ‘ㄴ시’를 반영한 것이고, 可沙, 加沙는 ‘ㄴ세’정도를 반영한 음성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橡岳村(상악촌)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加時岳(가시악)의 加時(가시), 可沙岳, 加沙岳(가사악)의 可沙, 加沙(가사)가 ‘ㄴ세’를 표기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시오름’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시오름마을’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을은 ‘가시오름’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토산1리’와 ‘세화1리’가 ‘가세오름’가까이에 있다. 표기에 있어 岳(악)을 생략하여 ‘가시리’라고도 한다.

가시리는 19세기 말에 동가시악리와 서가시악리 등 2개의 마을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岳을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 동가시악리는 ‘동가리’라 하고, 서가시악리는 ‘가시리’라 하였다.

동가리와 서가리는 1905년 이후에 다시 가시리로 병합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 가시리와 안좌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甲先岳(갑선악:갑선이오름) 바로 서쪽에 橡岳村(상악촌)으로 표기한 마을이 있다.

橡岳(상악)도 ‘가시오름’의 한자 차용표기이고, 橡岳村(상악촌)도 ‘가시오름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곧 가시오름마을이 주로 加時岳村(가시악촌)이나 加時岳里(가시악리)로 표기되었는데, 橡岳村(상악촌)으로도 표기한 것이다.

橡의 훈은 ‘상실이’ 상수리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츠남, 츠낭’ 또는 ‘가시낭’이다. 이 중 ‘가시낭’에 대응하는 훈독자 표기가 橡인 것이다.

곧 ‘가시낭’이 많은 오름이라는데서 橡岳(상악)이라 하고, 그 ‘오름’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데서 橡岳村(상악촌)이라 한 것이다.

18세기 중후반부터 加時岳里(가시악리)로 표기하면서 橡岳村(상악촌)이라는 마을 이름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²²⁶⁾

2005년 12월 현재 가시리는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은 가시리 중심마을이다. 안좌동은 ‘안좌오름’(병칭 ‘벵곶오름’) 앞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을 이른다.

옛 ‘안좌오름마을’ 일대에 형성된 동네다. 두리동은 ‘두이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서쪽에 있는 ‘두리물’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동상동은 웃동네 동쪽 동네를 이른다. 폭남동은 중동 남쪽 ‘폭남’(팽나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226)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4~757

역지동은 가시리 동남쪽 ‘역마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영지동’이라고도 한다.

역지동은 일제강점기 때 ‘靈旨洞(영지동: 영마르동네)’으로 표기되었다.

3. 성읍1리의 설촌유래

성읍리는 정의현성이 있었던 중심마을로, 영주산 남쪽, 남산봉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이룬다.

성읍리는 적어도 700~800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읍리 일대의 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의 적갈색토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조선 초에 성산읍 고성리에 있던 정의현성을 옮겨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성읍리의 옛 이름은 ‘진사마을(진사리)’이었는데, 정의현성이 들어서면서 城邑(성읍)이라 하였다.

『태종실록』(17년 5월 갑진)에서 ‘眞舍(진사)’, 『세종실록』(18년 4월 임술)에서 ‘眞舍里(진사리: 진사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도』에서 ‘旌義縣(정의현), 邑外村(읍외촌), 弓山村(궁산촌: 활미마을)’, 『탐라순력도』에서 ‘旌義(정의), 邑外村(읍외촌: 읍밖마을), 弓山

村(궁산촌: 활미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眞舍里·晉舍里(진사리)는 ‘진사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眞舍·晉舍(진사)는 ‘진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인데, ‘진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정의현성이 옮겨오기 전 이름이다.

정의현은 정의현성을 일컫고, 읍외촌은 ‘읍밖마을’의 차자 표기로 현성 밖에 형성된 마을을 이른다.

이 읍외촌은 18세기 중후반부터 城邑里(성읍리)라 하였다.

성읍은 조선시대 때 州(주)·府(부)·郡(군)·縣(현) 등을 두루 이르던 말인데, 정의현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지금의 성읍1리를 이른다.

정의현성 북서쪽에 형성된 마을을 ‘활미마을’이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는 ‘弓山村(궁산촌: 활미마을) 또는 弓山里(궁산리: 활마을)’라 했다. 지금의 성읍2리를 이른다.

1914년 정의군 좌면 성읍리(城邑里) 일부를 제주군 동중면 성읍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정윳골’ 또는 ‘성읍’ 일대를 성읍1리라 하고, 옛 ‘활미마을’ 일대를 성읍2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성읍1리는 오늘날은 서상동, 서하동, 동상동, 동하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을을 크게 동·서로 나누고, 다시 위와 아래로 나눈 것이다.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를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한 것은 약 500년 동안(1423~1914)의 도읍지이면서 오밀조밀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이 마을 안에 밀집되었기 때문이다.

해안에서 8km쯤 올라간 아늑한 산촌인 성읍민속마을은 정부지정 민속마을로서 민속학적인 색다른 가치와 관광대상지로서 유별난 성격을 지닌

다.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416년(조선조 태종 16)에서 1914년까지 약 500년 동안 행정구역을 삼분(三分)하였다. 한라산 북쪽이 제주목(濟州牧)이었으며 한라산 남쪽은 양분되어 서쪽이 대정현(大靜縣), 동쪽이 정의현(旌義縣)이었다. 성읍민속마을은 오랜 세월 정의현의 도읍지였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면서 약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다는 점이 접목됨으로써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오밀조밀 간직하고 있다.

해안마을 표선리에서 8km쯤 올라간 곳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성읍민속마을은 평퍼짐한 대평원 속에 곡선미를 뽐내는 오름(峰)들이 마을을 뱅 둘러가면서 불쑥불쑥 솟아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쳤다.

성읍민속마을 뒤에는 영주산(瀛洲山, 325m)이 의연하고, 백야기오름·본지오름·무찌오름·장자오름·갑서나오름·설오름·개오름·모구리오름·독자봉·가시오름·돌리미·문서기오름·궁대오름·좌버미오름 등 크고작은 오름들이 수위병들처럼 솟았다.

일망무제로 탁 트인 성읍민속마을의 들판에 서서 사방을 내다보면 대자연의 향연에 압도당하면서 외경을 느끼게 된다.

이 마을 한복판에는 이른바 '천년수(千年樹)'로 이름난 느티나무가 원(圓)의 중심처럼 의젓하다.

그 주변의 현찰한 팽나무들과 정의현청(旌義縣廳)이었던 일관헌(日觀軒)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이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일관헌은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각각 지정, 보호되고 있다).

성읍민속마을 주변에는 성이 쌓였었고 이제도 그 성터가 일부 남아있는데, 당국에서는 구 관서(舊官署)들과 더불어 연차계획에 따라 정확한 복원을 서

두르고 있다.

정의향교(旌義鄉校)는 제주향교(濟州鄉校), 대정향교(大靜鄉校)와 더불어 그 보존상태가 좋다(제주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5호).

정의향교는 현청소재지가 고성리(古城里)로부터 성읍리로 옮겨지던 1423년(세종 5)에 세워진 것이다.

성읍민속마을에는 '백수머리' 또는 '무성목'이라 불리는 돌하르방이 열둘 있다(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제2호).

제주도내에 돌하르방이 도합 몇이었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지, 어찌하여 제주목·대정현의 것과 정의현의 것은 각각 그 형상이나 명칭이 다른 것인지, 한반도에 산재된 장승(백수)들이나 외국의 이런저런 석상들과 어떻게 그 맥락이 닿는 것인지, 술한 과제가 쌓여 있다. 어쨌든 이곳에 본래부터 12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동문·서문·남문에 각기 4기씩 세워졌었다고 추찰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곳의 돌하르방은 거의 원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무속신앙처도 20개소 산재됐었다. 이 가운데 '안할망당' '광주부인당' '일레당' '개당' 등은 아직도 남아있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의 신수와 강년을 관장한다는 '안할망당'의 성격은 '안칠성'계열이라 볼 수 있다.

부인병이나 모유등을 관장한다는 '광주부인당'의 유래담에는 현감 부인의 치병을 간곡히 기원하며 순사(殉死)했다는, 현감부인의 시녀였던 광주부인의 애뜻하고 가룩한 이야기가 감돈다.

이미 사라졌지만, 마소의 번식과 질병을 관장한다는 '쉐당'이 있었음은 성읍 주민의 재래적인 사람살이가 주농부축(主農副畜)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 마을에서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祭)가 면면이 치러진다.

그 제향 대상신 가운데 '목동신지위(牧童神之位)'가 끼어있음도 축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백중날

에 축산의 번성을 기원하는 '백중코사'도 성행했었다.

유다른 가옥구조는 귀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이 방면의 학술적 자료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 마을의 성씨 분포는 康·金·李·洪·高·宋의 순서인데 비동정(非同旌)마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7대 이상 이어지는 성씨가 드물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 마을은 지난날 행정요지였으므로 관헌과 주민들의 전·출입이 빈번했었다는 근거가 될 듯싶다.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여느 마을보다도 걸궁이 성행해서 끈질기게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나이는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건대, 걸궁은 마을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 한본토에서 흘러들어와 살았던 사당패들이 널리 전파했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요 등 구비전승 및 사람살이의 이모저모에서도 발견되는데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이룩된 일종의 문화유입이라고 여겨진다.

성읍민속마을에는 희귀하고도 학술적 값어치가 높은 민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문계(韓國口碑文學文系) 9-3》과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 통해서도 심층적으로 조사된 바 있다.

1989년 12월 1일에는 임동권·이소라·김영돈 위원등의 조사에 준거해서 <제주민요>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예능보유자는 이 마을의 조을선(趙乙善)이고, 예능보유자후보 역시 이 마을의 이선옥(李善玉)이다.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산촌(山村)임과 더불어 약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다는 이중성격을 지니므로, 이곳의 민요 역시 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

면서 전승된다.

제주도의 어느 산촌에서든 전승되는 노동요·의식요 등이 잘 전해지는 한편, 오랜 세월 도읍지였기 때문에 기녀 등을 매체로 하여 전해지는 창민요(唱民謠, 통속민요)가 전승되기도 한다.

다른 마을에 비하여 민요가 썩 빠어나고 가멸진 까닭은 이 고을이 지니는 이중적성격에 기인한다.

따라서 성읍민속마을에서는 도내 다른 마을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제주 고유의 민요들이 전해지는 외에 <용천검>·<관덕정앞>·<신목사타령>·<중타령>·<질군악>·<오강산타령>·<사랑가>·<잡은사랑가>·<계화타령>(김계화)·<동풍가> 등 특이한 민요들이 이제도 잘 불린다. 이런 창민요는 다른 마을에서는 들어볼 수 없거나, 드물게 전승되는 노래들이다.

민속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본토의 산타령에 가락으로 보이는 것이 흔할뿐더러, 한본토에서는 이미 그 원형이 변질되어 버린 경서도(京西道) 민요의 원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값어치를 높이 평가한다.

더욱이나 노동요 가운데에서도 밭 매면서 부르는 구성진 가락의 <아웨기>·<홍애기> 등의 특이한 민요는 다른 몇몇 마을에서도 전승되기는 하지만 이 성읍민속마을에서 더욱 멋있게 불린다.

또한 연자매, 곧 '말방애'를 짊으면서 도내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단조로운 요사와 가락으로 노래함에 비하여 이 마을에서는 조율선·이선옥씨가 부르는 가락을 보더라도 제대로 틀이 잡혔다.

어쨌든 성읍민속마을의 창민요는 한본토에서 흘러들어와서 본디의 가락과 요사가 일부 변용된 것이매 그 교류현상이나 전승변이 등을 살피는 데도 소중한 값어치를 지닌다.

성읍민속마을의 가옥구조는 도읍지로서의 면모가 아직도 남겨진 듯, '올레'가 시원스럽고, 노천변소가 예전부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중요민속

자료 제68호인 조일훈 가옥 울타리 안 대문 가까이에 '말방애'(연자매)가 설치된 일도 특이하다. 개인소유로 '말방애'가 설치되는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성읍민속마을의 통혼권(通婚圈)은 마을 안에 치중되었으며, 다른 마을과 통혼할 경우에는 해안마을보다는 중산간 마을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가족구조를 보면 2인 가족세대와 1인 가족세대가 비교적 많은바, 이러한 현상이 이 마을이 오랜 세월 도읍지였다는 점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는 미지수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조혼하는 경향이 짙었었다. 1973년 필자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이곳 여인들의 조혼연령은 대개 스무 살이었는데, 도읍지였다는 분위기의 유풍에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지 않나 생각되나 분명치 않다.

다른 마을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태도에 비하더라도 쾌활하고 유흥적 기질이 엿보인다는 점은 "성읍민속마을 특유의 의식구조"를 한 주제로 삼아서 연구해 볼만한 값어치가 있을 줄 안다.²²⁷⁾

4. 성읍2리의 설촌유래

성읍2리는 영주산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오름 남쪽에 형성된 중산간 마을로 마을 동쪽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지를 감안할 때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읍2리는 고려시대부터 국마를 기르던 목장이었고 영주산 뒤에 있는 언덕인 활미(弓山)가름 일대에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궁산촌(弓山村)이라 불렀다.

성읍2리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정의현 좌면 궁산리로 표기되어 독립된

227) 제주특별자치도 성읍1리 홈페이지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503/>

마을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성읍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²²⁸⁾

성읍2리의 옛 이름은 ‘활미’ 또는 ‘활미가름’이다. 성읍2리는 「탐라도(17세기 말)」와 『탐라순력도(1703)』 등에 ‘弓山村(궁산촌:활미마을), 弓山



(궁산:활미)’,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弓山村(궁산촌:활미마을)’,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과 『호구총수(1789)』 등에 弓山里(궁산리:활미마을)’, 『제주군읍지(1899)』, 「제주지도」에 弓山里(궁산리:활미마을),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 九龍洞(구룡동:구룡곶동네), 遮南洞(차남동:차남곶동네), 安保洞(안보동:안보곶동네)등으로 표기하였다.

성읍2리의 옛 이름 ‘활미’, ‘활미가름, 활밧가름’에서 ‘활미’는 弓山(궁산)으로 표기하고, ‘활미가름’은 弓山村(궁산촌)으로 표기하였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弓山村(궁산촌)으로 표기하고, 18세기 말부터 弓山里(궁산리)라 표기하였다. 弓山(궁산)은 ‘활미’의 한자차용표기, 弓山村(궁산촌)은 ‘활미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弓은 ‘활’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피’의 제주어 ‘미,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18세기 말까지도 독립된 행정마을이었으나 19세기에는 행정상 城邑里(성읍리)에 속하였다.

성읍 영주산 바로 서북쪽, ‘활미가름’북동쪽에 있는 언덕을 ‘활미(弓山)’라 하고, 이 활미 앞에 형성된 마을이라는데서 ‘활미가름’ 또는 ‘활미마을

228)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390~391.

(弓山村)’이라 하였다.

‘활미’는 미낙에서 ‘활미’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활밋가름’ 뒤쪽에 활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마루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활미’ 서쪽 구렁팻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이곳을 ‘구렁팻 동네’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 九龍洞(구룡동)이라 하였다.

구렁팻 북쪽에 遮南洞(차남동:츠남동네)이 있었다. ‘츠남’은 ‘상수리나무’의 제주어이다. ‘활미’동쪽 ‘안밧, 안보왓’, ‘안보동’일대에 마을이 있었는데 한자로 安保洞(안보동)이라 하였다.²²⁹⁾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성읍리가 되었다가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자 표선면 성읍리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때에는 그 해 말에 소개령에 따라 성읍1리나 해안마을에 흩어져 내려갔다가 1955년에 성읍2리는 구렁판(九龍洞) 부근에 올라와 재건하였으며 이 시점에 성읍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 듯 하다.

1967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애월읍 유수암리에 양잠단지, 남원읍 하례2리에 양마단지, 그리고 성읍2리 안보동(安保洞)에는 축산단지를 건설하고 33세대를 입주시켰다.

현재 성읍2리는 구룡동(九龍洞), 안보동(安保洞)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5. 세화1리의 설촌유래

세화1리는 ‘가세오름’바로 동쪽, ‘매오름’ 서북쪽에 형성돼 있는 중산간

229)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2~753

마을을 이른다. 1480년 정의현감을 보좌하고 있던 허영익이라는 별감이 관내를 순방하던 중 가스름(가시리)을 경유하여 가세오름을 돌아 속칭 ‘가매물’이라는 큰 냇가 좌편지역에 이르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앞다리로 땅을 긁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허별감은 즉각 지관에게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한 즉, 지관이 고하되 이곳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자손이 번창하고 지맥이 흐르고 있어 좋은 택지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별감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전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초의 허씨촌이 되었으며 마을 이름을 약향리라 하였다가 나중에 돈내오름²³⁰일이라 하였다.

세화리(細花里)는 일찍부터 ‘ㄴ는곳>ㄴ는곳’이라 부르고 한자로 細花村(세화촌)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細花村(세화촌)은 敦內岳村(돈내악촌)으로도 표기하였다.

敦內岳村(돈내악촌)은 세화1리에 있었던 마을로 ‘돈내오름, 돈노름’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500여년 전 허씨가 ‘도노름’일대에 들어오고, 그 후 고씨, 강씨, 현씨, 김씨, 정씨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세화리는 매오름 서남쪽 일대, 토산악(토산봉) 동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세화리의 옛 이름은 ‘ㄴ는곳’이다.

230)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35.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細花村(세화촌)과 細花里(세화리)이다.

‘ㄱ는곶’은 ‘가늘게 형성된 숲’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다.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세화촌은 17세기 말 지도인 「탐라도」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세화리는 18세기 말의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화촌과 세화리는 18세기 중반에 한때 敦內岳村(돈내악촌: 도내오름ㄱ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세화리의 별칭인 ‘도노름’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세화리는 19세기 후반에 두 개로 나뉘는데, 東細花里(동세화리: 동ㄱ는곶을)>東細里(동세리)와 西細花里(서세화리: 서ㄱ는곶을)>西細里(서세리)이다.

이 두 마을은 20세기 초반에 다시 세화리로 통합된다. 지금의 세화1리와 세화3리 일대를 이른다.

19세기 말에 加麻路浦(가마로포: 가마룻개)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그 마을을 可麻洞(가마동: 가마로동네) 또는 加麻洞(가마동)이라 했다. 지금의 세화2리를 이른다.

‘ㄱ는곶을’은 細花村(세화촌)으로 표기하고, ‘돈내오름을’은 敦內岳村(돈내악촌)으로 표기하다가, 18세기 말부터 행정상 細花里(세화리)로만 표기하였다.

18세기 중후반까지도 細花里(세화리)로 표기하였는데 19세기 말에는 東細花里(동세화리)와 西細花里(서세화리)등 2개 마을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반에 다시 細花里(세화리)로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9년의 『정의읍지(1899)』(방리, 동중면)와 「정의지도」 등에서는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ㄱ는곶을)와 西細花里(서세화리:서ㄱ는곶을)등 2개의 마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해에 그려진 『제주군읍지

(1899)』의 「제주지도」에서는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ㄴ곶믈)와 西細花里(서세화리:서ㄴ곶믈), 可麻洞(가마동:가마로동네) 등 2개의 마을과 하나의 동네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동세화리’는 보모곶내(오늘날 지도에서는 가마천으로 표기됨) 종류 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오늘날의 ‘세화1리’를 이른다.

‘서세화리’는 ‘보모곶내’ 종류 서쪽에 형성된 마을로, 오늘날의 ‘세화3리’를 이른다. ‘가마동’은 ‘생거릿개’(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에는 생걸포구로 표기됨) 일대에 형성된 동네로 오늘날의 세화2리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細花里(세화리), 江河洞(강하동:강애왓믈), 可麻里(가마리:가마룻개믈)’등으로 표기하였는데, 당시 세화리는 지금 세화1리, 강하동은 세화3리, 가마리는 세화2리를 이른다.

이렇게 3개 동네로 나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세화리에 병합되었다.

세화리는 1950년대 초부터 옛 ‘ㄴ곶’ 또는 ‘도노름’과 ‘강애왓’일대를 ‘세화1리’라 하고, 가마리(생거릿개 일대) 일대를 세화2리라 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 세화1리에 속하였던 ‘강애왓’(오늘날 강화동) 일대를 ‘세화3리’라 하여 분리하였다.

세화1리와 가시리 경계(가세오름 북동쪽)에는 ‘왕굴’ 또는 ‘왕굴’, ‘왕굴믈르’라는 들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굴은 정의현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다.”

현재 세화1리는 서상동, 동상동, 동하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²³¹⁾

23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8~761.

6. 세화2리의 설촌유래

세화2리는 매오름 서남 쪽으로부터 토산2리 어간에 형성된 해안마을이다.

세화2리는 150여년 전 속칭 밧마리(갯머리)일대에 채만봉씨가 점포를 개설하였고 그 후 군위오씨(軍威吳氏)가 표선에 들어와 가시천 하류 서쪽에



정주하면서 설촌되기 시작하였다. 세화2리 옛 이름은 『남사록』에 소마로(所馬路:바다룻개)라 하였고 그 후에 加麻路浦(가마로포: 가마룻개), 가마동(加麻洞) 등으로 표기되다가 가마리로 굳어졌다.

처음에는 포구의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라 불리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마리’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이중의 『남사일록』을 보면, 지금 표선리 당캐를 거쳐 ‘所馬老浦西邊烟臺(소마로포해변연대)’를 지나고 ‘兎山浦(토산포)’로 갔다고 하였다.

곧 所馬老浦(소마로포) 서변에 所馬老浦(소마로포) 烟臺(연대)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所馬老烟臺(소마로연대) 터는 표선리 한지동 동쪽 언덕, ‘츠남굴’ 아래쪽 언덕에 있기 때문에 所馬老浦(소마로포)는 이 연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표선리 사조냉장주식회사 제주양식장 앞 바다 일대가 된다.

이 일대는 ‘감생이개, 귀영구석, 코생이통, 갯늪, 흰동산, 멜트레기목, 동두렁이’등의 지명이 있을 뿐이다.

이 포구는 『남사록(1601~1602)』(권3)에서 所馬老浦(소마로포:밧마

룻개), 『남사일록(1679~1680)』과 「탐라지(17세기말)」 등에서 所馬老浦(소마로포:뱃ㄴ룻개), 『탐라순력도(1703)』(「한라장축」)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제주삼읍전도(1872)」 등에서 所馬浦(소마포:뱃ㄴ룻개), 「탐라지도(1709)」에 所馬路浦(소마로포:뱃ㄴ룻개)로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 所_ㄴ老浦(소마로포)와 所馬老浦(소마로포), 所馬路浦(소마로포) 등이 서로 대응되는 표기이므로, 所는 ‘소’나 ‘바’의 표기이고, _ㄴ와 馬는 ‘마’의 음가자 표기, 老와 路는 ‘로’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所馬浦(소마포)는 셋째 음절을 표기에서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所_ㄴ老浦(소마로포)와 所馬老浦(소마로포)로 표기하던 개가 1872년의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에 加馬老浦(가마로포)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加馬老浦(가마로포)는 ‘가마룻개’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이다.

지금 세화2리와 표선리 ‘한지동’ 경계 일대의 바다를 세화2리에서 ‘가마리개’라고 하는데, 이것과 대응하는 것이 加馬老浦(가마로포)가 된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마로연대’(바마로연대)터에서 서쪽이다.

「제주삼읍전도(1872)」(정의군 중면)와 「정의군지도(1899)」 등에서 ‘가마리개’(생거리 포구 동쪽)일대를 加馬老浦(가마로포:가마룻개)로 표기하고, 이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可麻洞(가마동:갓마로 동네)」「제주지도」)으로 표기하였다.

『남제주군 고유지명』(1996:724)에서 “可麻里(가마리):포구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였던 것이 변형된 이름.”이라는 설명과 “가마리개: 세화2리 169번지 동남쪽 바닷가. 이 마을의 중심포구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명에서 可麻里(가마리)가 이전의 加馬老浦(가마로포)

와 可麻洞(가마동)에서 이어지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加馬老浦(가마로포:가마룻개)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제주군읍지(1899)』(「제주지도」)에서는 可麻洞(가마동)으로 표기하고,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는 加麻里(가마리)로 표기하였다. 이후 加麻里(가마리)라 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이 당시까지 加麻里(가마리)는 행정상 細花里(세화리)에 속하였다.

세화2리 포구는 『조선지리지(1910년경)』에 ‘生決浦(생결포), 성결이 ㄴ | ’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까지도 ‘성결이 ㄴ | ’ 또는 ‘성겨릿개’ 정도로 불렸는데, 요즘은 ‘생거리’로 부르고 있다. 오늘날 1:5,000 지형도에는 ‘생결포구’로 표기하였다.

세화리는 1950년대 초부터 옛 ‘ㄴ논곶’ 또는 ‘도노름’과 ‘강애왓’일대를 ‘세화1리라 하고, 가마리(생거리포구 일대) 일대를 세화2리라 하여 세화리에서 분리하였다.

현재 세화2리는 본동과 중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상동과 하동, 서동 등으로 나눈다.

한편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제주삼읍전도(1872)」, 『해동지도』 등에서 ‘甫毛所川(보모숫내:보모숫내)’으로 표기한 내가 있는데 오늘날 加麻川(가마천:일부 지도에는 ‘가시천’으로 표기함)을 이른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의현 중면 세화리에 포함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로 되었다.

그 후 세화1리와 2리가 분리되어 가마리는 세화2리라 칭하고 있다.²³²⁾

23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2~764.

7. 세화3리의 설촌유래

세화3리는 토산봉 동쪽으로부터 가마천(加麻川, 加時川)주변에 형성된 중산간 마을이다. 1896년 성산읍 수산리에 살던 군위오씨가 이 마을 1590-1번지로 들어왔고 그 인근에 같은 시기에 동래정씨, 신천강씨가 이주해 와 설촌이 되었다.



그 후에도 군위오씨, 경주김씨, 김해김씨가 ‘동강왓’, ‘불미저’등에 입주하여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다.²³³⁾

세화3리의 옛 이름은 강애왓, 강하동(江河洞), 강화동(江華洞)등으로 불려왔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서 강하동(江河洞:강하왓)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ㄱ눈곶마을’과 ‘돈내오름마을’에 병합되어 細花里(세화리) 또는 細花村(세화촌), 敦內岳村(돈내악촌)이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까지 細花里(세화리)라 하다가 19세기 말에 細花里(세화리)가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ㄱ눈곶마을)’와 西細花里(서세화리)등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 때 西細花里(서세화리)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에는 다시 細花里(세화리)로 병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세화리의 한 동네로 강하왓동네라 하여 강하동(江河洞:강하왓동네)으로 표기하였다.

‘강하왓’은 사람에 따라 ‘강애왓’ 또는 ‘강왓’등으로 실현된다.

江河洞(강하동)은 제주 4·3 사건 뒤에는 江下洞(강하동)으로 쓰다가 1960년

23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p.396~397.

이후 江華洞(강화동)으로 썼다고 한다.

한편 주민들은 大華洞(대화동)이라는 이름도 썼다고 한다. 1988년 이후 이 일대를 세화3리라 하여 세화 1리에서 분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세화3리는 강화동(江華洞)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²³⁴⁾

8. 토산1리의 설촌유래

토산1리는 토산오름(兎山峰)북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로 표선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서쪽은 ‘솔내(松川)’를 경계로 남원읍 신흥리와 접해있다. 이 곳 토산봉에는 중산간지대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사람의 주거 역사는 오래 되었고 1,000여년 전에 제주 부씨가 이곳에 들어왔다. 그 후 광산김씨가 고성에서, 경주김씨가 의귀에서 입주하여 마을세는 점점 확장되어 갔다. 토산1리 옛 이름은 북토산 또는 웃토산, 그리고 절려가름이라 했다.

1300년(忠烈王 26) 탐라현을 동도현(東道縣)과 서도현(西道縣)으로 나눌 때 토산현(兎山縣)은 동도현 지경에 있었고 대촌현(大村縣: 구 제주시)의 속현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토산1리에는 옥터라고 하는 ‘절래왓’이 전해오고 있다.

234)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4~765.

그 후 1416년(太宗 16) 5월 정의현을 건치할 때 정의현에서는 호아현(弧兒縣), 홍로현(紅爐縣)과 더불어 토산현을 소속시켰다²³⁵⁾

兎山(토산)은 ‘토산’의 한자차용표이다. 일찍부터 한자로 바뀐 이름이어서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독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훈독자로 쓰였으면 ‘툇기메·툇기미’ 정도의 음성형이 존재하였을법 하나 민간에서 그러한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土山(토산)과 吐山(토산) 등의 표기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의 兎山(토산)의 兎(토)자를 훈독자 또는 음가자 표기로 볼 수 없다.

곧 兎(토)는 ‘툇기>토끼’와 관계없는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土(토)와 吐(토)는 ‘토’의 음가자 표기이다.

결국 兎山(토산)이나 土山, 吐山(토산) 등은 ‘돛미·돛메>툇미·툇메’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그러나 ‘돛미·돛메>툇미·툇메’의 음성형도 민간에서 확인할 수 없다.

토산1리의 옛 이름은 ‘북토산’ 또는 ‘웃토산’, ‘절려가름’이라 하였다. 兎山(토산)에는 일찍부터 ‘토산봉수’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兎山縣(토산현)이라 하다가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兎山里(토산리), 土山里(토산리) 등으로 표기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兎山村(토산촌)과 兎山里(토산리)로 표기하였다.

마을 서쪽으로 내가 흐르는데, 옛 문헌과 지도에는 兎山川(토산천)으로 표기하였다. 兎山川(토산천)은 ‘토산내’의 한자차용표기로, 웃토산 서쪽에서 알토산 서쪽으로 이르는 내를 이른다.

오늘날 지도에는 ‘松川(송천)’으로 표기하였다. 松川(송천)은 ‘솔내’의 한자차용표기인데, ‘솔내’라는 이름도 일찍부터 쓰였다.

18세기 말에 와서는 정의현 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235)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397~399.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월 1일 제주도(濟州道)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兎山里(토산리:토산마을), 北兎山(북토산:북토산·웃토산), 月旨洞(월지동:들믈르)이라 하였다. 北兎山(북토산)은 ‘북토산’ 또는 ‘웃토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북쪽에 있는 토산이라는 뜻이다.

위쪽에 있는 토산이라는데서‘웃토산’이라고도 한다. 지금 토산1리 중심마을을 이른다. 月旨洞(월지동)은 ‘들믈르’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月(월)은 ‘들’의 훈독자 표기, 旨(지)는 ‘믈>믈르’의 훈독자 표기, 洞(동)은 ‘골’ 또는 ‘동네’의 훈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들믈르·툄믈르’라고 한다.

1940년대 말부터 ‘웃토산’과 ‘절려가름’, ‘들믈르’와 ‘물곰는빳’일대를 ‘토산1리’라 하여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절려가름’의 ‘절려’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으로, 원래 ‘길이 두 세 갈래로 갈린 곳’의 뜻인데 제주도에서는 점차 갈림길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는 말로 변화하였다.

‘절려왓가름’이라고도 하는데, ‘절려’는 ‘절(寺)’과 관련시키고 있다. 실제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절터로 추정되는 곳도 있으나 어떤 절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²³⁶⁾

1943년에는 마을 행정구역을 토산 1구와 토산 2구로 나누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광복 후인 1948년에는 토산1리와 토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게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웃토산(토산1리) 주민들은 소개령에 따라 12월 12일 해안마을인 알토산(토산2리)으로 내려왔다.

236)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7~768.

그러나 그 달 18일과 19일 어간에 웃토산과 알토산 주민 160여명과 일부 처녀들을 토벌대가 무참하게 학살시킨 참사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나야 웃토산은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 토산1리는 현재 본동과 월지동 등 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²³⁷⁾

본동은 토산리의 중심마을로 ‘가름동네’라고 하고, 월지동(月旨洞)은 가시오름(가세오름) 서남쪽 ‘들믄루’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9. 토산2리의 설촌유래

토산2리는 토산봉 남쪽 해안, 신흥1리 동쪽 바닷가에 위치하며 표선면의 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묵은가름 일대에 순흥안씨(順興安氏)가 가시리에서, 광산김씨(光山金氏)가 토산1리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물 굽는 밭에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확장되었다.

토산리의 옛 이름은 남토산, 알토산 등으로 불리었고, 18세기 말에는 정의현 중면 토산리라 하였다. 兎山浦(토산포)는 ‘도산개>토산개’의 한자차용표기로, 토산2리 바닷가 일대의 개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 ‘廣浦(광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넓은개(넓은 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237)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35.

토산2리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개를 이른다. 이 개 가까이에 있는 동네를 ‘넙은갯동네’(廣浦洞)라 한다.

예전 ‘토산개’는 지금의 ‘넙은개’ 일대를 이르는데 지금은 ‘넙은개’ 동쪽 ‘집탁개’ 일대에 작은 포구를 마련하였다. ‘집탁개’는 ‘집터앞개’의 준말이라고 한다.

南兎山(남토산)은 ‘남토산’ 또는 ‘알토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남쪽(아래쪽)에 있는 토산이라는 뜻이다.

아래쪽(토산개 주변)에 있는 토산이라는데서 ‘알토산’이라고도 한다. 곧 ‘알토산마을’이라 하여 南兎山(남토산)으로 썼다. 지금도 토산2리는 ‘알토산마을’이라 한다.²³⁸⁾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월 1일 제주도(濟州道)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가 되었다.

1943년에는 마을 행정구역을 토산 1구와 토산 2구로 나누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광복 후인 1948년에는 토산1리와 토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게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웃토산(토산1리) 주민들은 소개령에 따라 12월 12일 해안마을인 알토산(토산2리)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달 18일과 19일 어간에 웃토산과 알토산 주민 160여명과 일부 처녀들을 토벌대가 무참하게 학살시킨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0년대 말부터 ‘토산개’ 주변의 ‘알토산’과 ‘넙은개’, ‘당머리’ 일대를 토산2리라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산초등학교 서쪽 일대를 ‘묵은가름’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²³⁹⁾

238)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9

239)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49.

현재 토산2리는 본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에는 당동산 앞쪽의 ‘당머리·당앞’, ‘새동네’, ‘넙은개’ 일대의 ‘넙은개동네’ 등 3개의 동네로 나뉜다.

10. 하천리의 설촌유래

하천리는 표선리 북동쪽 해안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해안마을로, 동쪽의 천미천(川尾川)을 사이에 두고 성산읍 신천리와 접하고 있다.

하천리는 500여 년 전 ‘묵은가름’ 일대에 위씨가 들어와 살고, 그 후 오씨와 강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하천리의 옛 이름은 ‘내깍’ 또는 ‘알내깍’이라 했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내끼’ 또는 ‘알내끼’라고 한다.

하천리는 약 500여년 전 하천리 상동(묵은가름)에 위씨(魏氏)가 설촌하였고 그 후 오씨(吳氏)와 강씨(康氏)가 들어오면서 중동(방상동네:강씨가 집단으로 사는 동네라는 뜻), 하동(넙밭:평원이라는 뜻) 등으로 마을이 확장되어 갔다.

그 후 오씨는 대부분 신평리로 이주하였고 위씨는 번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강씨와 송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종실록』 (5년 9월 기사)과 「탐라도」, 『탐라순력도』 (「한라장

촉」) 등에서 ‘내깍개 [川尾浦]’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이름은 1709년의 「탐라지도」와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서 ‘내깍믈(川尾村)’로 표기되고,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정의, 촌읍면)와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좌면) 등에서 ‘알내깍믈 [下川尾里]’로 표기되었다.

19세기의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정의읍지』(「정의지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알내깍믈 [下川里]’로 표기하였다.

‘내깍개’는 한자차용표기로 川尾浦(천미포)로 쓰는데, ‘내깍내(川尾川)’하류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그 포구 일대에 형성된 마을은 ‘내깍’ 또는 ‘내깍믈’이라 했다.

민간에서는 주로 ‘내끼’라 하는데, ‘내의 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제주어 ‘내깍’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성적의 맨 끝이라는 뜻을 가진 ‘꼴등’에 대응하는 제주어 ‘깍등’, ‘꼴찌’ 또는 ‘끝’의 뜻을 가진 제주어 ‘깍’ 등에서 ‘깍’을 확인할 수 있다.²⁴⁰⁾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천미촌(川尾村)이다. 川은 ‘내깍’의 훈독자 표기, 尾는 끝을 뜻하는 제주어 ‘깍’의 훈독자 표기이다. 민간의 ‘내끼’는 ‘내깍’의 변이형이다.

‘내깍믈’은 다시 ‘웃내깍’과 ‘알내깍’으로 나뉘었는데, ‘알내깍믈’은 下川尾里(하천미리)로 썼다.

하천미리(下川尾里)는 나중에 하천리(下川里)로 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下川里(하천리)와 新?里(신평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동중면 下川里(하천리)라 하였다.

240)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47

이후 하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천리에는 ‘아심선이’ 또는 ‘아슴선이’라 하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한자로 我心田이라 표기하였고 ‘아심전지’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하천리는 상동, 중동, 하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상동은 윗동네, 중동은 중동네를 이른다. 하동은 川尾浦(천미포 : 내깍개)가 있는 해안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부록.

탐라순력도 속 서귀포





대정강사

1702년(숙종 28) 11월 12일, 대정현에 머물면서 시행한 강사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강사에는 도훈장 전 현감 문영후와 각 면 훈장 5명, 각 면 교사장 5명, 강유 42명, 사원 21명이 참가했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총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없이 홍살을 세워 낸 홍살문에 이른다.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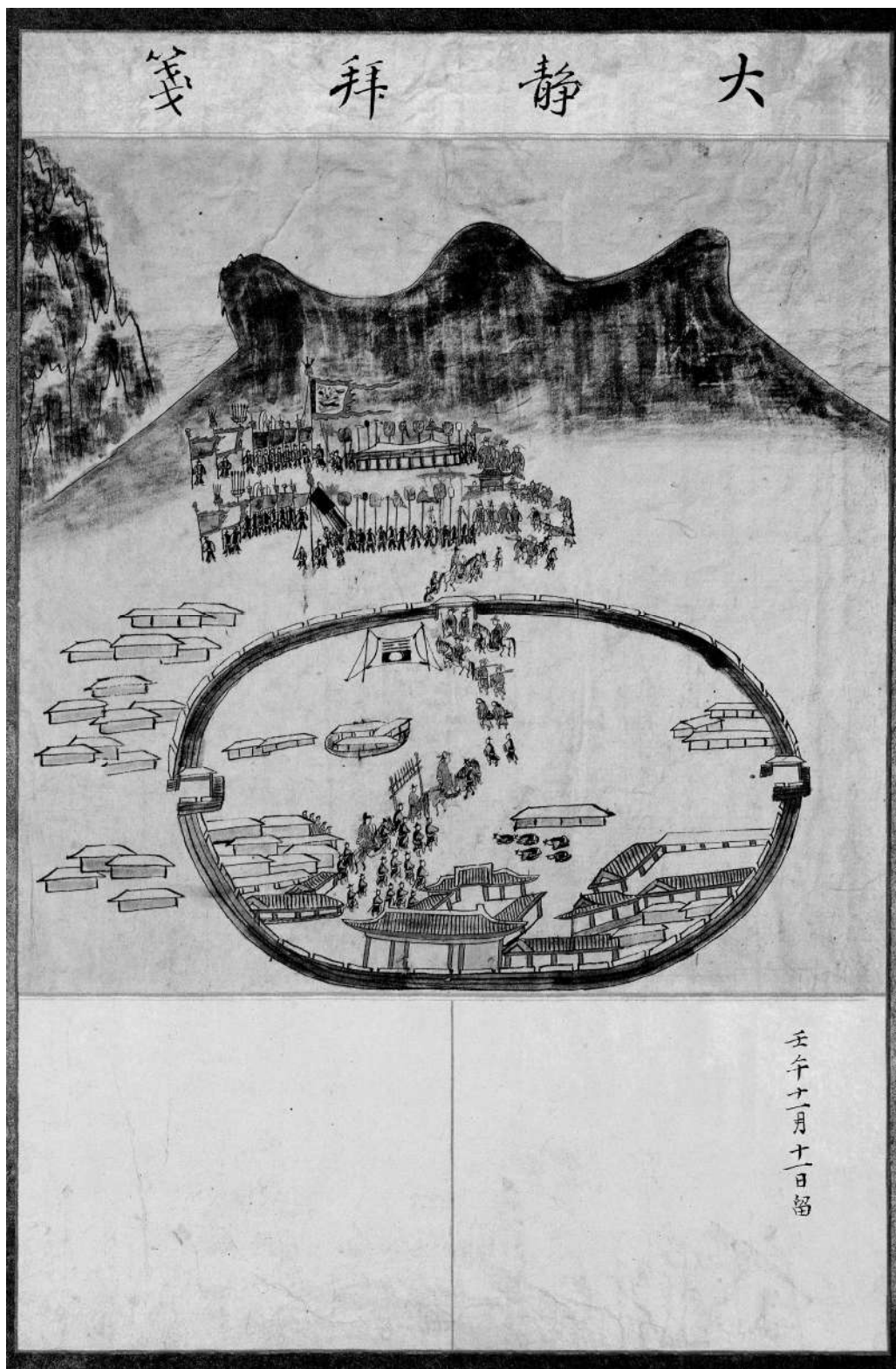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성 안에는 각종 깃발이 도열되어 있다. 이형상 목사는 객관에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주안상이 있고, 또 사원들이 그 앞에서 배례를 올리고 있다. 유강들은 붉은 옷차림으로 사원들과 함께 늘어서 있다.

객관 좌측에는 기수들이 잡고 있는 각종 깃발이 도열해 있다. 과녀과 물림폭이 시설되어 있고 그 옆에는 판정관과 깃발로 활의 적중여부를 알리는 사령 3명이 신호기를 눌린 채 엎드려 있다.

성 밖의 남쪽으로는 좌측으로부터 산방산, 바굼지오름[破軍山岳], 송악산이 있고, 섬은 우측으로부터 가파도[盖波島], 마라도, 형제도, 봉수로는 저성망(貯星望), 마을로는 모슬포의 초가가 보이고, 또 성 밖에도 초가가 있다. 특히 바굼지

오름 남쪽으로는 문묘(文廟), 즉 대정향교가 보인다.



대정배전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 시행된 배전(拜箋)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배전이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관이 그 소재지에서 임금에게 전(箋:書面)을 올려 하례(賀禮)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말한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총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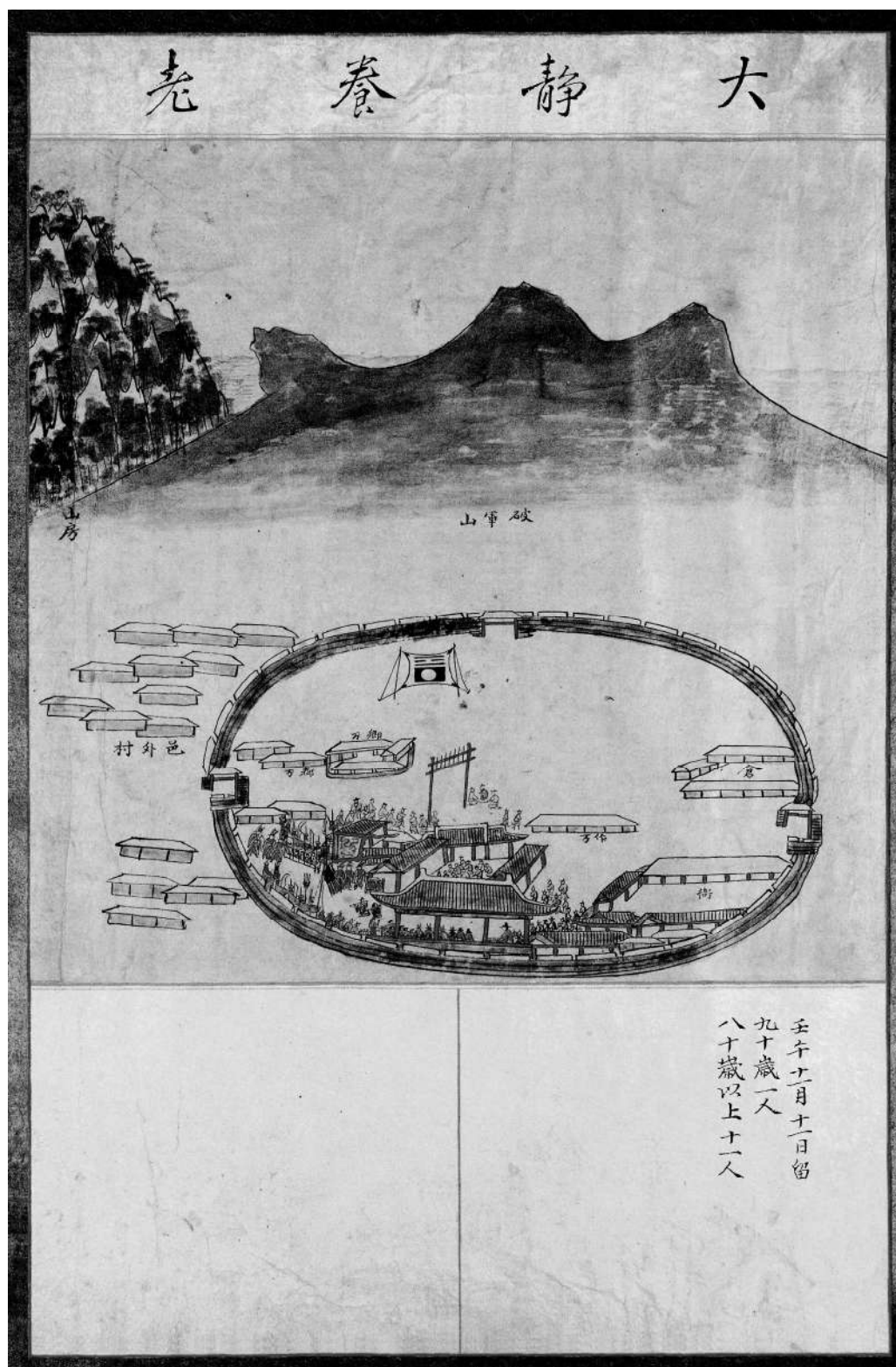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 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읍내의 민가와 읍성 밖에 동성리로 추정되는 민가들이 보인다.



대정양노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이다. 당시 대정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 11인, 90세 이상의 노인 1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목사의 순력시에 이와 같은 노인잔치는 거의 관례화 되어 있었다.

제주지방의 풍속 중의 하나가 인다수고(人多壽考:장수하는 사람이 많다)인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 남쪽 큰 바다의 독기는 산에 막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더운 습기와 열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에 비하여 북쪽이 더욱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속설에는 봄·가을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을 보면 장수한다고 전해져 오는데, 이 노인성이 제주의 한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도민들 중에 장수하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전해져 오기도 한다.



대정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10일,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대정현성의 내부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충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 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에 이른다.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성 밖의 민가들은 성의 동쪽에 밀집되어 있다.

당시 대정현의 편제는 읍내 1리, 동면 9리, 서면 2리로 모두 12리에 민호는 797호이며, 전답은 149결이다. 성장 2인, 치총 4인, 성정군 224명, 군기, 문묘의 제기·제복·서책, 목자와 보인 123명, 말 849필, 흑우 228수, 창고의 곡식 1,950여 석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모슬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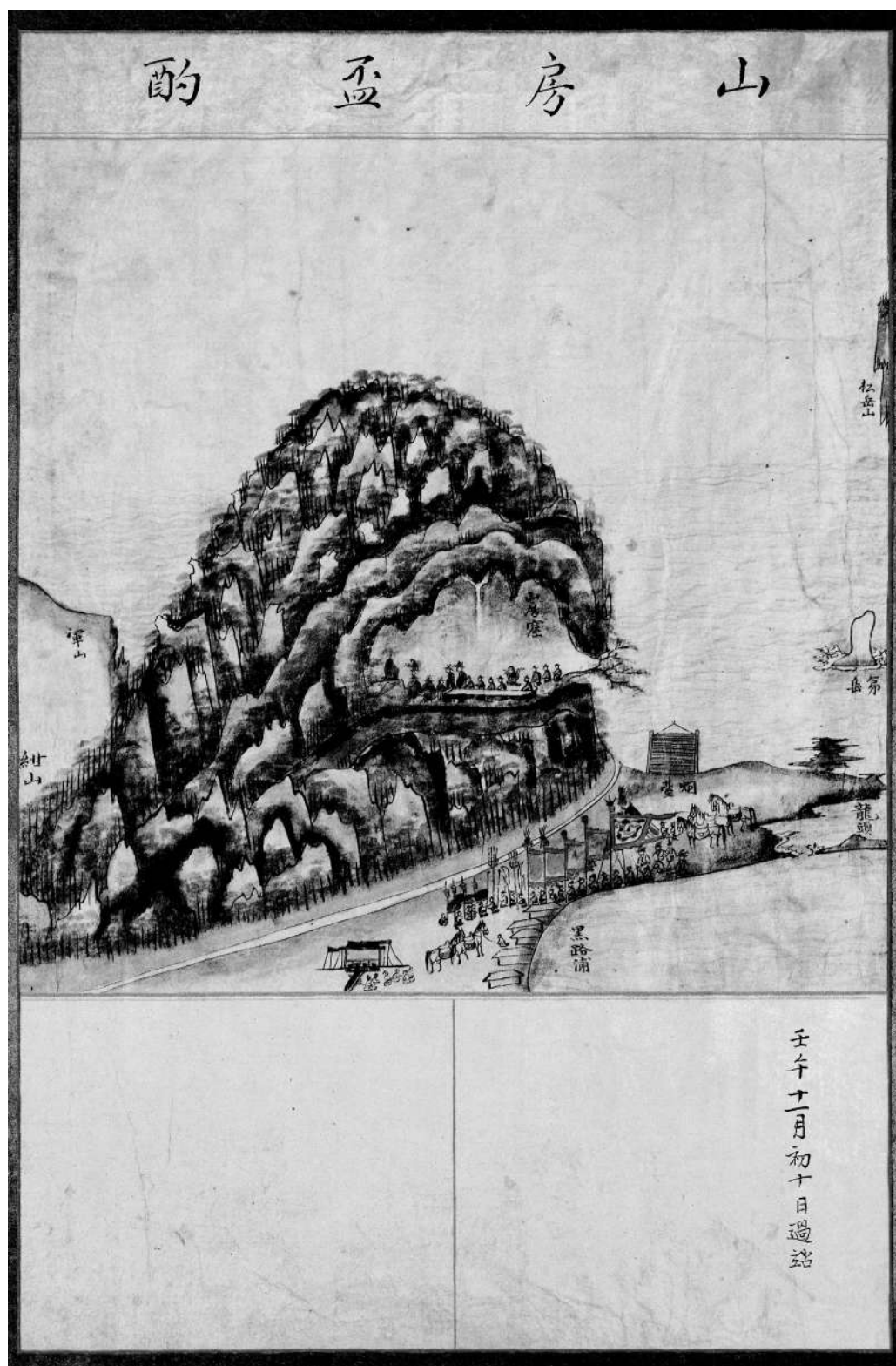
1702년(숙종 28) 11월 13일, 모슬진 군대를 점검하는 그림이다. 이형상 목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군관인 전만호 유성서를 대신 보내 점검했다.

목사가 친히 점검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확인한 경우는 이를 구별해 ‘점부(點簿)’라 한 듯하다. 점검 결과 조방장에 오세인, 방군·기병·보병이 24명이었다.

대정현성에서 모슬진에 이르는 주변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연대와 모슬봉수의 위치, 모슬촌의 민가가 표기되어 있다.

모슬진은 원형의 성으로 성문이 동문 하나만 있다.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동문과 남성사이에 객사와 병고가 조금 떨어져서 ‘ㄴ’자를 형성하고 있고, 동문과 북성 사이에도 ‘ㄴ’자가 되게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들은 모두 우진각 초가로 되어 있다.



산방배작

1702년(숙종 28) 11월 10일, 산방굴에서 배작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돌산인 산방산의 모습이 기골이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다.

송악산, 형제도, 군산, 감산, 용두 등이 보이며, 도로, 산방연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사계리 포구가 흑로포로 표기되어 있다. 산방산 남쪽을 휘감은 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현재 산방산 입구에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는 노송이 이 그림에서도 노송처럼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수령이 400년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산방산은 대정현 동쪽 10리에 위치해 있으며 산의 높이 200척, 산의 둘레는 10리로 산 전체가 돌로 형성되어 있다. 남쪽 언덕에 큰 굴이 있는데, 굴암이라 이르며 물이 굴 위로부터 한 방울씩 떨어진다.

그 남쪽에 암문이란 굴이 있는데 그 벽 사이가 1척이며 깊이가 100척, 길이 50여 척에 이른다. 그 북쪽에 큰 굴이 있는데 깊이는 헤아릴 수 없으나 피생문(彼生門)이라 한다”하여 세 개의 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장구마

1702년(숙종28) 10월 15일,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그 수를 확인하는 그림이다.

산장은 ‘산마(山馬)를 목양하는 목장’으로 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됐는데, 효종 9년(1658) 제주 목사 이회(李禧)의 계청(啓請)에 따라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세습적으로 임명받으면서 비롯되었다.

이들 산장은 숙종 대를 거치면서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개편되었다. 이 그림은 세 군데 산장 중 한 목마장의 말들을 점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 산장마다에는 원장과 사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장은 우마를 모아놓기 위해 만든 원형의 목책이고, 사장은 모아놓은 우마를 한 마리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 통과로다.

모아놓은 우마가 이 사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 나라에 봉진할 우마를 간택하거나 우마의 질병, 증감의 숫자 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원장 대신에 미원장(尾圓場)과 두원장(頭圓場)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사장을 만들어서 두 원장을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마를 먼저 미원장에 모아놓은 다음 사장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점검한 뒤에 다시 두원장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다.

사장은 우마의 수효를 파악하는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상 혹은 다른 목장으로 우마를 보내기 위해 하나씩 붙들 수 있게 된 장치이기도 하다.

이날 산장의 점마는 제주판관, 정의현감, 산장감목관이 책임을 담당한 가운데 결책군 2,062명, 구마군 3,720명, 목자와 보인 214명 등 총 6,536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었다.

성판악 바로 밑에 있는 산쪽 끝 지점에서부터 구마군이 말을 몰고 내려오면, 결책군들은 다른 목마장의 경계인 목책 바깥에 줄줄이 도열해 지킴으로써 말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미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과는 다른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목자들로 보인다. 이들은 원장에 모인 말들의 낙인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목마장의 말인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바로 앞에는 제주판관, 정의현감, 감목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말의 수와 낙인, 상태를 직접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점마를 통해 골라낸 공마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봉진되었다.

1. 제주목사가 조정의 지시에 따라 그 할당량을 3읍의 감목관에게 배정한다.
2. 3읍의 감목관은 각 목장에 공마에 충당할 마필의 수집을 명한다.
3. 각 목장에서는 구마군·결책군·목자 등을 동원하여 공마를 가려낸다. 이때 미원장에 몰아넣은 마필들을 사장으로 통과시키면서 공마에 적합한 마필을 골라낸다.

4. 가려낸 공마를 소속 영문(營門)에 인도한다.
5. 제주·정의·대정 영문에서는 감목관의 책임 아래 습마(習馬) 6명이 각 목장에서 보내온 말의 마적(馬籍)·낙인자(烙印字)·말 주인(개인 말인 경우) 등을 확인한다.
6. 말의 나이, 키, 털빛, 건강, 조습실태 등을 조사하여 골라서 공마의 목록과 함께 보고한다.
7. 골라진 공마는 세목(細目)과 함께 조천포, 화북포로 운반해 진상선에 실어 조정에 바쳐진다.



서귀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5일, 서귀진의 조련과 군기 및 말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서귀진의 위치와 주변 섬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

서귀진은 동문과 서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성문 앞에는 웅성이 있고,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성 안의 북성 가까이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 앞쪽에는 넓은 마당을 두고 남성에 붙여 성벽과 나란히 창고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병고가, 왼쪽에는 진줄청과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객사의 왼쪽에 있는 초가는 기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 책임자가 거주하는 진사인 듯하다.

정의현감과 더불어 대정현감이 함께 참석했는데 이는 아마 다음 순력 지역이 대정현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를 배행하기 위해 참석한 듯하다.

당시 서귀진 조방장은 원덕전이었으며 성정군 68명과 군기를 점검하고 목자와 보인 39명과 말 237필도 아울러 점검했다.

서귀진 소속의 봉수는 자배·호촌·삼매양 봉수, 연대는 금로포·우미·보목·연동 연대이다.



성산관일

1702년(숙종 28) 7월 13일, 성산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으로 일출봉과 우도의 지형이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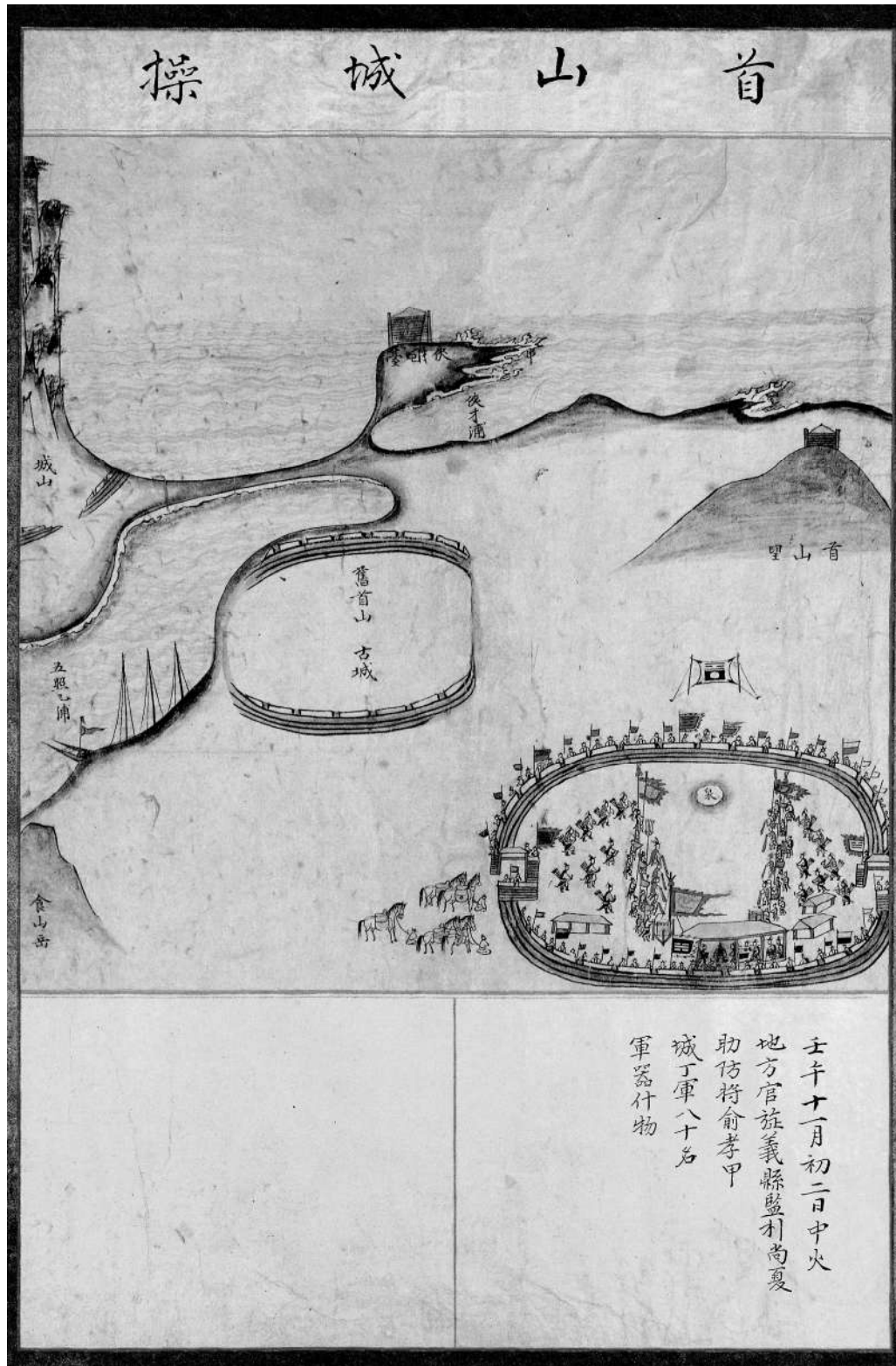
일출봉 입구에 진해망(鎭海望)의 옛터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로 일출봉의 정상에 있는 성산망까지 오르는 등정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성산망’은 성산 위에 있었던 망(望:봉수)을 일컫는다. 각교(刻橋)는 ‘깎아 만든 다리’를 뜻하는데, 성산을 오르는 길이 험난하므로 암반에다 계단을 새겨 만든 듯 하다. 일출봉 앞 평지에는 봉천수가 있으며, 이곳에서 하마(下馬)하고 걸어서 성산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죽도와 동두 어영굴이 표기된 우도의 지형, 오조연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의 식산악(食山岳)은 ‘밥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성산을 오 조리에 있는 표고 60미터의 식산봉이다.

이 그림의 회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관동팔경의 경치를 그림 민화풍의 그림과 비슷하다.

일출봉의 기암절벽을 독특하게 입체감을 살려 표현했다. 바다에는 파도무늬를 그려 넣고, 바닷가에는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특히 떠 오르는 해의 모습이 회화적 특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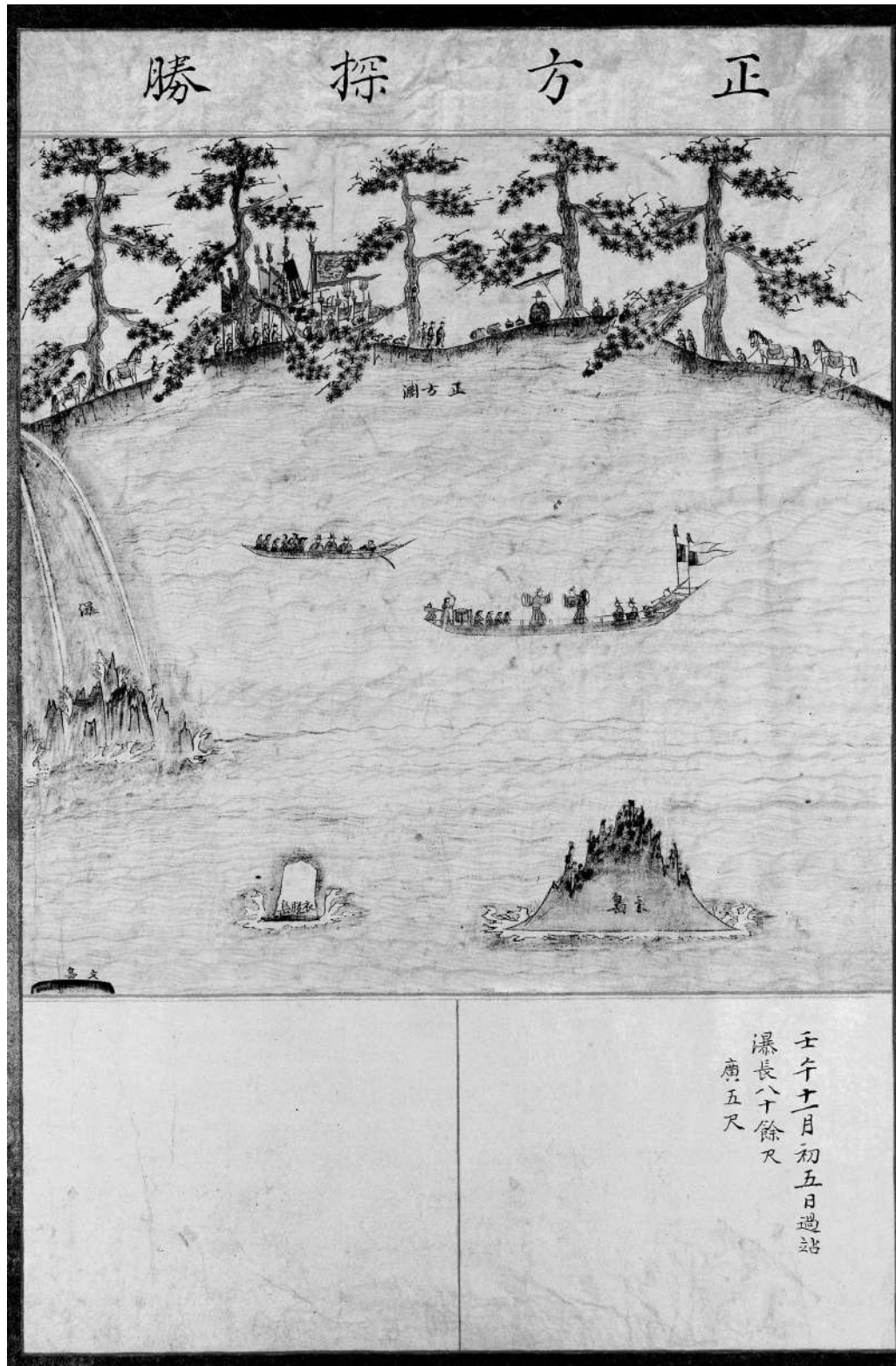
수산성조

1702년(숙종 28) 11월 2일 정의현 수산진성에서의 성정군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수산진성, 수산봉수, 협재연대, 구수산, 고성 위치가 상세하다.

수산진은 동문과 서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성문 앞에는 옹성이 있고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성 안에는 북성 가까이에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좌우에는 군기고 등의 건물들이 있다. 객사 앞쪽에는 넓은 마당을 두었으며 남성 앞에 샘이 있다.

정의현감 박상하가 참석했으며 조방장 유효갑을 비롯해 성정군 80명 및 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수산진 관할의 봉수로는 지미·성산·수산 봉수가 있고, 연대에 협자·오소포·종달 연대가 있다.



정방탐승

1702년(숙종 28) 11월 5일, 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탐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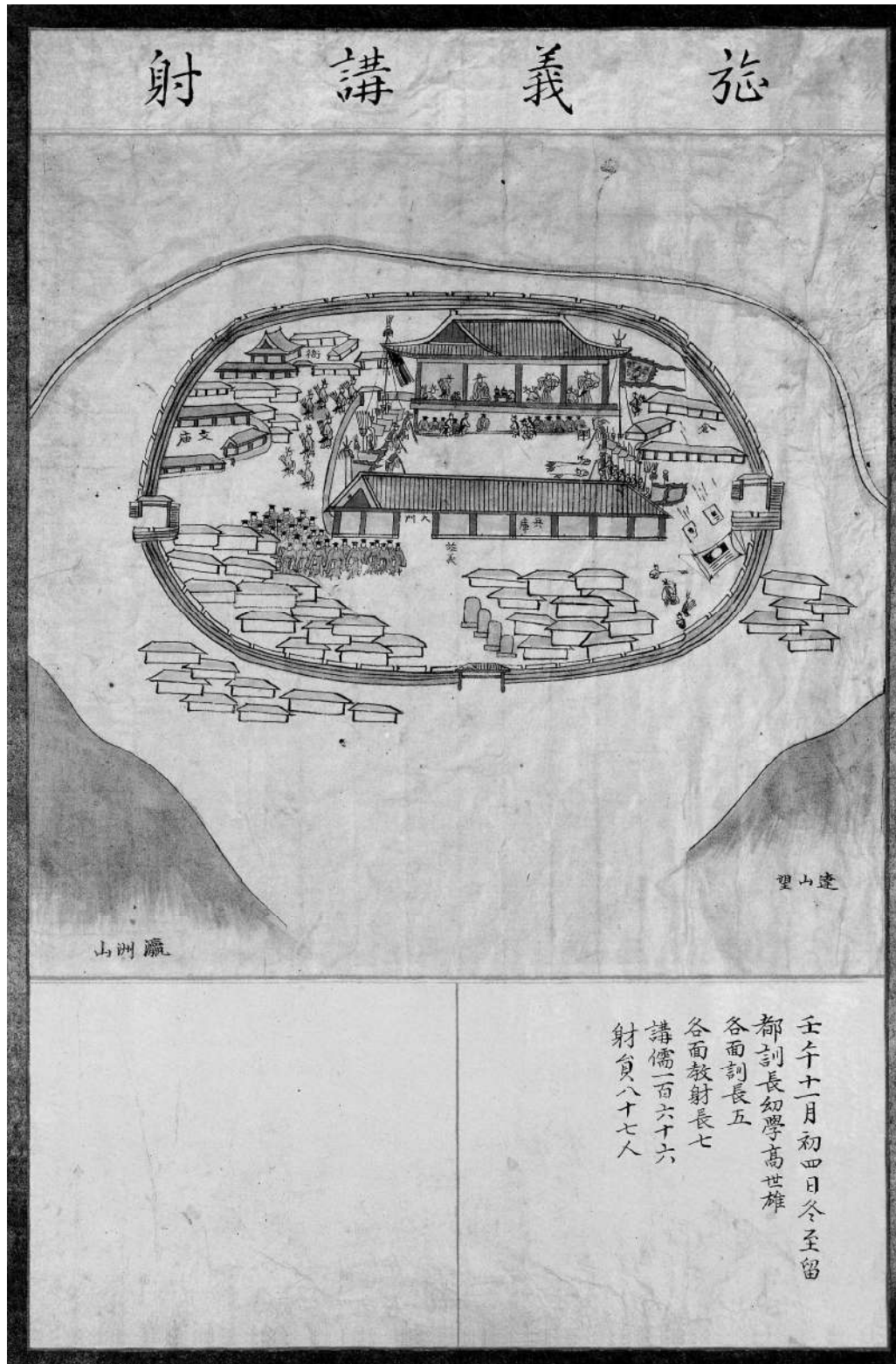
폭포 위에 있는 소나무가 강조되어 있으며, 그 아래 정방연에서 배를 타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

부기의 내용으로 보아 정방폭포의 길이 80여 척, 너비 5척임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정방연은 정의현에서 서쪽 60리에 있으며 폭포 위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고 밑으로 바다가 있어 폭포가 바다에 직접 떨어져 가히 제일명구라 이르고 있다.

이 그림은 남쪽 바다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 파도의 모습과 폭포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안 절벽 위의 노송들이 독특하게 그려져 있고 지금의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설섬(삼도)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의강사

1702년(숙종 28) 11월 4일 동짓날에 정의현에 머물면서 시행한 강사(講射), 즉 강(講)받기 시험과 활쏘기 시험 장면을 그린 것이다.

대상은 강유(講儒)와 사원(射員)이다. 강 받기 시험은 유생(儒生)들에게 자신이 읽은 글을 시험관 앞에서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헌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그 우측에는 사자기가 있고, 정면 좌측과 우측에는 각종 깃발과 무사가 배열되어 있다. 객사 안에는 이형상 절제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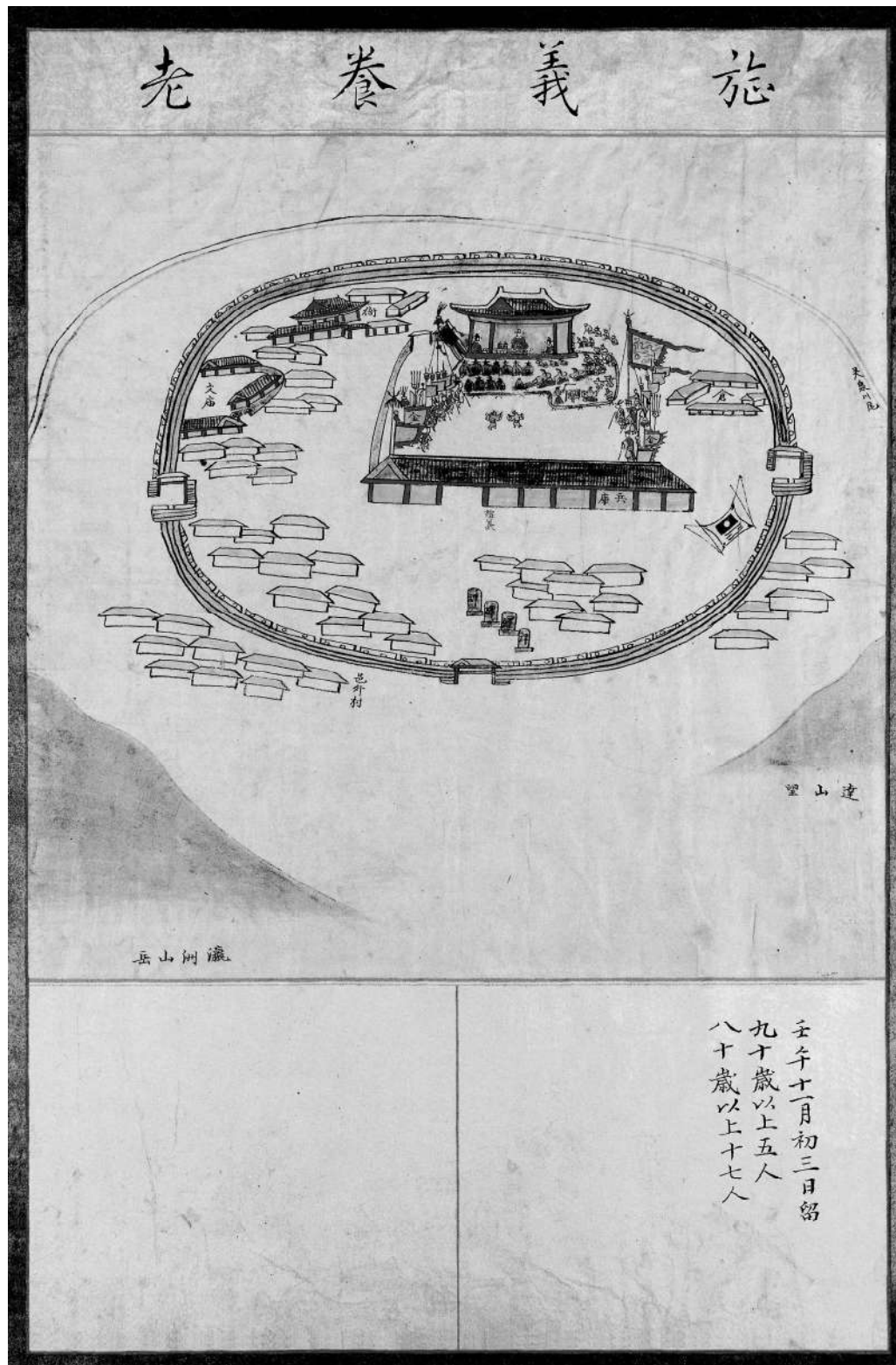
활을 쏘는 사람과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객사 밖에까지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또 객사 앞에는 도훈장 5명과 강유, 각 면 교사장이 붉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다. 특히 강유들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 훈장인 유학 고세웅, 각 면 훈장 5명, 각 면 교사장 7명,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16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87명의 사원(射員:활 쏘는 사람)이 채주를 겨루었다. 당시 정의현에 거주하는 사원은 350여 명이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성 밖에는 오름으로 영주산이 있고 봉수로는 달산망이 있으며, 또 초가가 보인다.

정의현성의 직접적인 관할 봉수는 남산, 독자, 달산, 토산, 연대는 말등포, 천미, 소마로, 별포 등이 있었다.



정의양노

1702년(숙종 28) 11월 3일, 정의현성에서 치러진 노인잔치 광경이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헌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노인잔치는 객사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형상 제주목사는 북쪽을 향해 있으며 노인들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그림 아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참석한 정의현에 사는 8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은 17명, 9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은 5명이다.

이형상 제주목사 앞에는 가야금을 타는 여인이 4명, 대금을 부는 남자가 2명, 장구를 치는 여인이 1명, 틀에 달고 채로 치는 북을 두드리는 1명 등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과 춤을 추는 남자 2명의 모습이 보인다.

제주지방의 풍속 중의 하나가 인다수고(人多壽考:장수하는 사람이 많다)인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 남쪽 큰 바다의 독기는 산에 막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더운 습기와 열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에 비해 북쪽이 더욱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속설에는 봄·가을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을 보면 장수한다고 전해져 오는데, 이 노인성이 제주의 한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도민들 중에 장수하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전해져 오기도 한다.



정의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2일, 정의현성에서의 조련(操鍊)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정의현성, 달산봉수의 위치와 읍외촌, 궁산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현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성 안의 민가들은 병고 남쪽과 서쪽에 밀집되어 있으며 성 밖의 민가 또한 성의 남쪽에서 서쪽에 밀집되어 있다.

당시 정의현은 읍내 1리, 동면 10리, 서면 1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호는 1,436호이며, 전답은 140결이다. 성장(城將) 2인, 치총(雉總) 4인, 성정군 664명과 제반군기는 물론 목자와 보인 190명, 말 1,178필, 흑우 229수, 창고의 곡식 4,250여 석을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정의현성의 직접적인 관할 봉수는 남산, 독자, 달산, 토산, 연대는 말등포, 천미, 소마로, 별포 등이 있었다.



천연사후

1702년(숙종28) 11월 6일, 천지연 폭포에서의 활을 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폭포의 반대편에 과녁을 설치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폭포의 좌우에 줄을 동여매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芻人: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을 좌우로 이동하게 했다.

이와 같은 추인은 주로 기병(騎兵)들의 화살을 쏘는 표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상대방에서 추인에게 쏘으면 이쪽에서 줄을 당겨 추인에게 쏘힌 화살을 건네받는 것이다.

현폭사후와 더불어 이 그림에서는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폭포에서 단순하게 경치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이용해 무예를 즐기는 호방한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천지연폭포의 길이 50여 척, 너비 10여 척이라 부기되어 있어 정방폭포에 비해 폭포의 길이는 짧으나 너비는 그 배에 해당한다.

폭포의 좌우는 마치 깎인 봉우리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활에 화살을 당긴 형상을 하고 있다.



현폭사후

1702년(숙종 28) 11월 6일, 현재의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활 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대정 지경임을 표시하는 글자가 보이며 천제연폭포를 상폭과 하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폭포의 반대편에 과녁을 설치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폭포의 좌우에 줄을 동여매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芻人: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을 좌우로 이동하게 했다.

이와 같은 추인은 주로 기병(騎兵)들의 화살을 쏘는 표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상대방에서 추인에게 쏘으면 이쪽에서 줄을 당겨 추인에게 쏜 화살을 건네받는 것이다.

천제연사후와 더불어 이 그림에서는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폭포에서 단순하게 경치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이용해 무예를 즐기는 호방한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폭포의 길이 50여 척, 너비 5척이라 부기하였다.

상폭 서쪽 암벽에는 임관주의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해 진다.

천제연 열린 곳에 큰 폭포 흘러내려
 총석(叢石)으로 옮겨오고 깊은 못에 쏟아지네.
 추인은 화살을 지고 공중을 걸어가니
 제일 기이하고 볼만한 것이 이 사후가 아닌가.



감귤봉진

망경루 앞뜰에서 각 종류의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봉진하는 그림이다.

감귤의 포장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망경루 앞뜰에서 여인들이 귤을 종류별로 나누고 있고, 이형상 목사는 연회각에 앉아 이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여인들 옆에는 남정들이 나무통과 짚단을 만들고 있다. 감귤을 봉진하는 과정에서 깃눌려서 훼손되거나 썩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짚단을 이용해 싸고 나무통에 다른 물건과 함께 넣도록 했다.

그림 아래 내용에 적힌 귤 종류는 금귤, 감자, 금귤, 유감, 동정귤, 산귤, 청귤, 유자, 당유자, 치자, 진피, 청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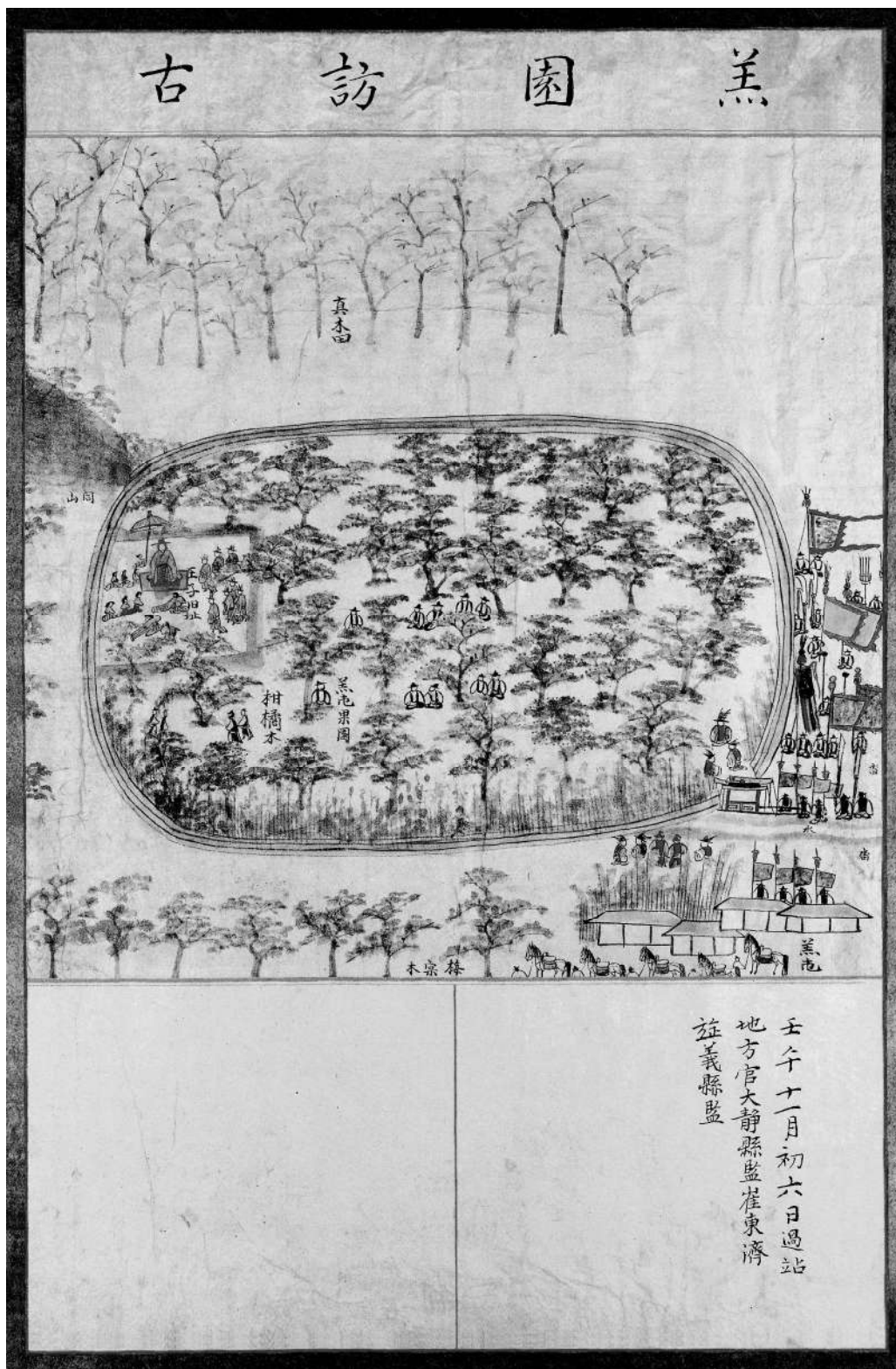
이렇게 봉진된 감귤은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활용되었다. 천신용은 예조에 보내어 조경묘(肇慶廟), 종묘(宗廟), 경모궁(景慕宮), 효정전(孝定殿), 산릉(山陵), 휘정전(徽定殿)의 순서에 따라 제사용 천신과일로 나누어졌다. 물선진상용 귤은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순서로 나누어졌다.

영조(1724)대 이후로는 임금의 특명으로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제주 귤을 하사하면서 제술(製述)을 시험하던 황감제(黃柑製)라는 시험제도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문과의 전시에 곧바로 나아가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

감귤의 봉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8월 귤나무의 상태를 조사하고, 귤의 수를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한다.
제주성 근처의 과원은 제주목사가 직접 시찰하고, 먼 마을에는 비장(裨將)을 파견해 일일이 과실 수를 조사해 문부에 기재한다. 봉진 시기가 오면 3읍의 수령이 책임지고 문부에 기재된 수에 맞추어 귤을 영문에 가져오게끔 한다.
2. 매년 9월에 제일 먼저 유자를 봉진한다.
3. 매년 10월에 당금귤을 천신용으로 예조(禮曹)에 보낸다. 물선진상은 초운에서 7운까지 이루어졌는데, 물선진상용 귤의 종류는 당금귤·금귤·감자 등이었다.

4. 매년 11월에 유감·동정꿀·당유자·감자·산꿀 등이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5. 매년 2월에 청꿀이 청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청꿀은 겨울을 넘겨야 제 맛이 나기 때문에 새해 들어 처음 올리는 천신용으로 봉진되었다.



고원방고

1702년(숙종 28) 11월 6일, 고둔과원(羔屯果園)에서 왕자구지(王子舊地)를 탐방하는 그림이다.

과원 좌측에 ‘왕자구지’라 되어 있고, 그곳에서 기녀들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가운데 풍악을 즐기고 있다.

과원의 방풍림으로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과원의 밖에는 참나무밭과 매화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운랑천으로 추정되는 물과 인근에는 그 물을 이용한 논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원에 있는 감귤나무는 과실 익어가는 색깔을 달리하여 여러 품종이 재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둔마을은 고둔과원 근처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지금의 서귀포시 용흥동 염둔마을을 가리킨다.

고둔과원은 현재 강정동 2012번지 부근이며 조선시대 때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둔과원 안에는 왕자구지가 있어서 당시에는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들이 즐겨 찾는 경승지였다.

<남환박물>에는 고둔이 ‘고득중 감사(高得宗 監司)의 옛 집터’가 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원진의 <탐라지(1956년)>에는 “고둔과원은 대정현서 동쪽 55리에 있으니, 고득중의 농막 터인데 지금도 주춧돌과 계단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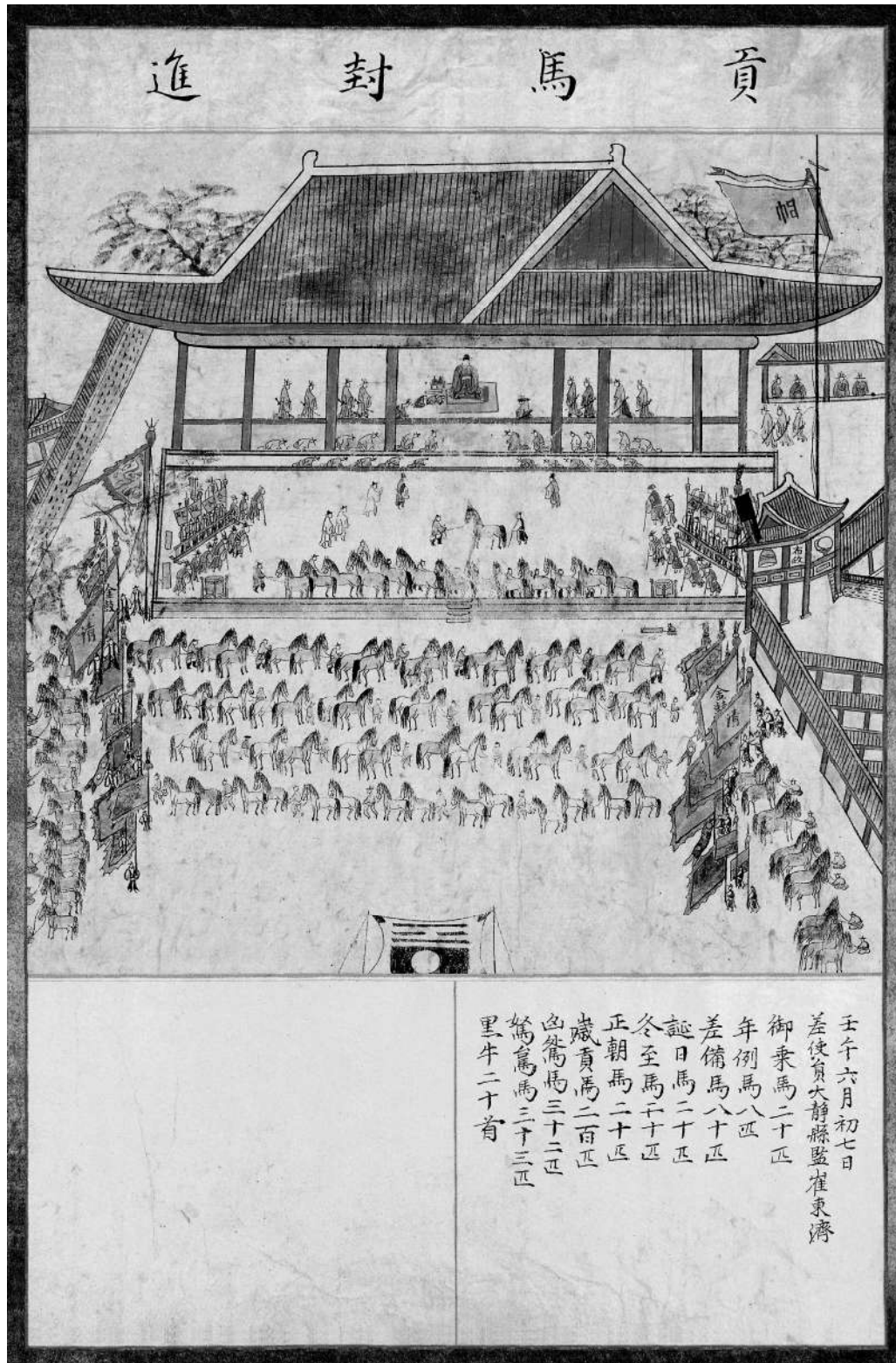
고득중은 부친 고봉지(高鳳智)를 따라 10세 때 상경했다. 효행이 두터워서 1413년(태종13) 벼슬에 천거되어 직장(直長)을 지내다가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대호군(大護軍), 예빈사판관(禮賓寺判官) 등의 벼슬을 지냈다.

1427년(세종 9)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제주목마장에 관해 세종의 자문에 응하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두 차례나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39년 통신사로 일본에 가 천황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돌아온 후 한성판윤,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제주에는 기록상 3번 다녀갔는데 한 번은 배가 난파되기도 했다. 황희(黃喜)와는 제주마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안평대군(安平大君)과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그의 찬시(讚詩)가 올라있을 정도다.

관덕정 창건 당시 고득중의 간청으로 안평대군이 관덕정의 현판글씨를 써주기도 했다. 안평대군이 써준 현판은 후에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고득중은 특히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으나, 전하는 저술이나 작품은 없고,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몇 편의 시가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공마봉진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1702년(숙종 28) 6월 7일에 실시되었다. 목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을 이끌고 목사 앞을 지나며 점검하고 있다.

공마점검은 관덕정 앞에서 목사가 임회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대정현감 최동제를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했다.

당시 봉진되었던 말은 어승마 20마리, 연례마 8마리, 차비마 80마리, 탄일마 20마리, 동지마 20마리, 정조마 20마리, 세공마 200마리, 흥구마 32마리, 노태마 33마리 등 총 433마리였고, 검은 소 20마리였다. 어승마와 차비마는 식년마다 바쳤으므로, 이 해가 식년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마는 다음 공과 같은 절차에 따라 봉진되었다.

1. 제주목사가 조정의 지시에 따라 그 할당량을 3읍의 감목관에게 배정한다.
2. 3읍의 감목관은 각 목장에 공마에 충당할 마필의 수집을 명한다.
3. 각 목장에서는 구마군·결책군·목자 등을 동원하여 공마를 가려낸다. 이때 미원장에 몰아넣은 마필들을 사장으로 통과시키면서 공마에 적합한 마필을 골라낸다.
4. 가려낸 공마를 소속 영문(營門)에 인도한다.
5. 제주·정의·대정 영문에서는 감목관의 책임 아래 습마(習馬) 6명이 각 목장에서 보내온 말의 마적(馬籍)·낙인자(烙印字)·말 주인(개인 말인 경우) 등을 확인한다.
6. 말의 나이, 키, 털빛, 건강, 조습실태 등을 조사하여 골라서 공마의 목록과 함께 보고한다.
7. 골라진 공마는 세목(細目)과 함께 조천포, 화북포로 운반해 진상선에 실어 조정에 바쳐진다.



굴림풍악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 풍악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순력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림에 나타나는 열매의 색깔로 보아 과일이 익어가는 시기인 듯 하다.

굴나무들의 과일 색이 다른 것은 나무마다 품종이 다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성 안에는 동과원, 서과원, 남과원, 북과원, 중과원, 별과원 등 6개 과원이 있었는데, 이 그림의 정경을 보면 왼편 아래쪽에 망경루, 그 오른쪽에 굴림당, 오른쪽에 교방(敎坊), 위편에 병고(兵庫)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북과원’이다.

과수원 주위에는 대나무를 심어 방풍을 하고 있다. 대나무는 화살용으로 공납을 했고, 대나무밭에 감귤을 저장하는 데도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심었던 대나무류는 왕대와 이대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 그림의 대나무는 높이로 보아 크게 자라는 왕대로 추정된다.

그림의 하단에는 임오년(1702년) 삼읍의 감귤 결실수를 표기하고 있는데, 당금귤 1,050개, 감자 48,947개, 금귤 10,831개, 유감 4,785개, 동정귤 3,364개, 산귤 185,455개, 청귤 70,438개, 유자 22,041개, 당유자 9,533개, 등자귤 4,369개, 석금귤 1,021개, 치자 17,900개, 지각 16,034개, 지실 2,255개 등으로 귤 종류와 개수를 상세하게 적고 있어, 당시 귤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엿보게 한다.

「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 자료조사위원

조사위원	조사지역 및 내용	비 고
강태전	o 서귀포동부 마을의 설촌유래	구 서귀읍 지 역
진대호	o 서귀포서부 마을의 설촌유래	구 중문면 지 역
오만석	o 대정읍 마을의 설촌유래	
정수현	o 서귀포시 읍면동의 유래 o 남원읍 마을의 설촌유래	
강성수	o 성산읍 마을의 설촌유래	
강완수	o 안덕면 마을의 설촌유래	
송심자	o 표선면 마을의 설촌유래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2009년 12월 24일 인쇄

2009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장 김 병 수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동홍동 453-1

Tel : (064)733-3789

인쇄처 : 디자인 전문회사 오디콤

Tel : (064)762-0745

<비매품>

·본 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